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연구

2004. 12. 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개발원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이 종 승(충남대학교)

공동연구자 : 박 도 순(고려대학교)

이 종 재(한국교육개발원)

남 명 호(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 홍 원(한국교육개발원)

김 정 겸(충남대학교)

백 순 근(서울대학교)

연구보조원 : 김 병 진(충남대학교)

최 원 혜(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 협력진

| 성 명   | 소 속       | 직 책       |
|-------|-----------|-----------|
| 김 영 철 | 한국교육개발원   | 선임연구위원    |
| 김 완 진 | 서울대학교     | 입학관리본부장   |
| 김 택 균 | 남대전고등학교   | 교장        |
| 민 경 찬 | 연세대학교     | 학부대학장     |
| 박 삼 서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정정책과장  |
| 박 성 수 | 명지고등학교    | 교장        |
| 반 재 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문연구원     |
| 성 태 제 | 이화여자대학교   | 교무처장      |
| 양 승 실 |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위원      |
| 윤 웅 섭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정책실장    |
| 이 양 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연구위원      |
| 이 인 규 | 서울미술고등학교  | 교감        |
| 전 효 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문연구원     |
| 최 현 섭 | 강원대학교     | 총장        |
| 한 석 수 | 교육인적자원부   | 학사지원과장    |
| 허 경 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과정연구본부장 |

(가나다 순)

본 연구는 2004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용역에 의하여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 머 리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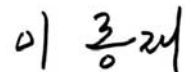
현재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보다는 고통과 어려움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만을 위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 창의력과 비판력, 자기주도적인 학습력, 도덕성과 사회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만을 받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와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실력이 저하되었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입학시켜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입학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거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며, 고교교육과 대학입학제도가 조금씩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한 가지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목적과 성격, 과목 종류, 시험문제 유형, 내용의 범위, 검사시간, 출제방식, 주관기관, 대학전형에서의 활용 등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동으로 2008학년도이후에 적용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에 관해 외부의 전문가에게 본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아이디어는 이미 2008학년도 대입제도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4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연구 요약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 2008학년도부터 적용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2004년 10월에 확정·공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구안하는 작업을 금년 초부터 수행하여 왔는데, 본 연구는 정부당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둘째, 2008학년도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기본 성격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8학년도에 적용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본 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능시험이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의 문제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에 사용한 방법은 문헌분석을 비롯하여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전문가 협의회, 의견조사 등이다. 대학입학시험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수능시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러 차례의 전문가 협의회와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고등학교와 대학의 입시 관계자, 교육행정가,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교육평가 전문가 등으로 연구 협력진을 구성·운영하면서 수시로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문과 검토를 받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행의 시험체제와 시행방법 등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1994학년도부터 시행되어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동안 시일이 경과되면서 점차 시험과목 또는 영역의 확대를 비롯하여, 시험시간의 증가, 점수체제의 변화 등 시험의 성격과 체제 및 기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애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하면서 표방하였던 ‘대학수학에 필요한 보편적인 학업능력’을 측정한다는 취지는 점차 퇴색되고 종전의 대학입학학력고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시험으로 변질되었

다. 그동안 많이 제기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여 년간 시행되어오면서 시험의 성격이 본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변질되었다. 시험의 유형과 수준이 단일형으로서 다양화·특성화되지 못하고, 시험대상 교과목은 51개나 되어 매우 방대하고, 문항형식은 오로지 5지선다형 지필고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둘째, 시험의 출제체제는 일정기간 출제진이 합숙 감금되어 출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문항검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항오류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적정수준의 문항난이도와 변별도를 갖는 문항을 개발하기도 어렵다.

셋째, 각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을 1년 1회 1일에 실시함으로써, 수능시험은 수험생들에게 단 하루 동안에 이른바 올인(all-in) 해야 하는 고부담 시험이 되고 있다.

넷째,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이 단지 1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들도 불필요하게 이 시험을 위하여 재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완화 내지는 해소하고,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에 알맞은 시험체제를 구안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수차례 걸친 자체 토론과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은행식 출제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개선방안의 제1안과 제2안은 현행의 기본틀을 대폭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혁신적이며 장기적인 개선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 제3안은 현행의 기본틀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보수적이며 단기적인 개선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1안은 ‘기초수학능력시험’으로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과 지식을 측정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를 대폭 단순화시킨 개선안으로서, 시험 영역을 ‘언어, 수리, 영어’의 3개 영역으로 줄

이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서 출제하며, 고등학교 2학년부 터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이다. 이 안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면서 대학 수학 에 필요한 기초적인 학업능력을 확인하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제2안은 '표준화 기초학력시험'으로서, 미국의 ACT 검사와 같이 대학교육 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기 초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제1안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을 수료한 이후부터 응시자격을 주어 학생들은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시험에 다수의 응 시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교육과정의 개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표준화 학력시험 형태라는 특징이 있다.

제3안은 '현행 수능시험 기본 틀 유지안'으로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되는 발전된 학력고사라는 수능시험의 기본 성격 과 5개 영역(언어, 수리, 영어, 사회, 과학) 체제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방 안이다. 이 안은 현행 수능시험의 기본 골격과 취지를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대학입학시험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험체제의 변화에 따른 수험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및 대학입학시험체제의 발전과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점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 학입학제도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대사에 해당하 므로, 대폭적이며 급격한 변화는 사회 혼란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가수준에 서 제공하는 대학입학 전형자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단기와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충분한 사전준 비와 함께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3안(현행 수능 기본 틀 유지안)은 일종의 단기적인 개선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1안(기초수학능력시험)과 제2안(표 준화 기초학력시험)은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양화·전문화해야 한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수준에서 고등학교 교육이나 대학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그에 알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유형이나 수준을 다양화하거나, 영역이나 교과별 시험을 더욱 전문화 하거나, 문항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거나, 문제는 형식 출제방식을 도입하거나, 대학의 특성이나 성격에 부합하도록 시험의 형태나 내용을 특성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서 제공되는 전형정보는 타 전형자료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학입시의 3대 전형자료는 고등학교 내신, 대학별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인데, 이들 각 전형자료가 특성화되어 상보적 기능을 제대로 다 할 때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대학입학전형이 될 것이다.

넷째,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업무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업무들은 매우 전문적인 것이므로, 이 시험의 계획수립에서부터 시행 및 채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업무를 전문연구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수능시험과 같은 전국 규모의 시험을 평가전문기관인 ETS나 ACT에 완전히 위임하여 전문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4년 현재 ETS의 직원이 약 2500명, ACT의 직원이 약 1300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수능시험의 전문화를 위해서 현재 130여명에 불과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직원을 대폭 늘리고, 행·재정적인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을 위해 정부, 대학, 고등학교 등 관련 당사자들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을 위해 어떤 특정한 방안을 어느 특정 시점에서 시행하든, 그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국민적인 의식개혁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공동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차 례

## 연구 요약

|                       |   |
|-----------------------|---|
| I. 서 론 .....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 |
| 2. 연구 내용 .....        | 5 |
| 3. 연구 방법 .....        | 6 |

## 제1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및 외국의 대학입학시험체제

|                                    |     |
|------------------------------------|-----|
| II.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 .....          | 13  |
|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 배경 .....           | 13  |
| 2.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변화 과정 .....        | 14  |
| III.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39  |
| 1. 수능시험의 명칭 및 성격 .....             | 41  |
| 2. 수능시험의 내용 .....                  | 43  |
| 3. 수능시험의 출제 방법 .....               | 47  |
| 4. 수능시험의 시행방법 및 절차 .....           | 49  |
| 5. 수능시험의 결과 활용 .....               | 51  |
| IV. 외국의 대학입학시험체제 및 시사점 .....       | 55  |
| 1. 미국 .....                        | 55  |
| 2. 영국 .....                        | 89  |
| 3. 일본 .....                        | 101 |
| 4. 중국 .....                        | 118 |
| 5. 독일 .....                        | 132 |
| 6. 프랑스 .....                       | 141 |
| 7. 수능시험 개선을 위한 시사점 .....           | 157 |

## 제2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                                    |     |
|------------------------------------|-----|
| V. 제1안 : 기초수학능력시험 .....            | 169 |
| 1. 기본 전제와 입장 .....                 | 169 |
|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영역, 체제 .....      | 173 |
| 3. 특징 및 기대효과 .....                 | 177 |
| VI. 제2안 : 표준화 기초학력시험 .....         | 179 |
| 1. 기본 전제와 입장 .....                 | 179 |
|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영역, 체제 .....      | 184 |
| 3. 특징 및 기대효과 .....                 | 187 |
| VII. 제3안 : 현행 수능시험 기본 틀 유지 .....   | 189 |
| 1. 기본 전제와 입장 .....                 | 189 |
|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영역, 체제 .....      | 192 |
| 3. 특징 및 기대효과 .....                 | 197 |
| VIII.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은행식 출제 방안 .....  | 199 |
| 1. 문제은행의 구축 .....                  | 203 |
| 2. 문제은행 문항의 활용 .....               | 207 |
| 3. 문제은행의 보안 유지 .....               | 214 |
| 4. 반개방형 출제 방안 .....                | 218 |
| IX. 요약 및 제언 .....                  | 223 |
| 1. 요약 .....                        | 223 |
| 2. 제언 .....                        | 226 |
| 참고문헌 .....                         | 231 |
| <부록>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 ..... | 235 |

## 표 차 례

|                                                |     |
|------------------------------------------------|-----|
| <표Ⅱ-1> 1996학년도 영역별, 계열별 출제 비율과 범위 .....        | 20  |
| <표Ⅱ-2> 1997학년도 영역별, 계열별 출제 비율과 범위 .....        | 21  |
| <표Ⅱ-3> 1999학년도 영역별, 계열별 출제 비율과 범위 .....        | 23  |
| <표Ⅱ-4>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변화과정 .....                 | 35  |
|                                                |     |
| <표Ⅲ-1> 2005학년도 수능의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배점·문항수 .....    | 44  |
| <표Ⅲ-2>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출제 범위 .....       | 47  |
| <표Ⅲ-3> 현행의 수능시험과 개선 방향 (요약) .....              | 53  |
|                                                |     |
| <표Ⅳ-1> SAT I 검사의 구성 개요 .....                   | 59  |
| <표Ⅳ-2> SAT I 언어추론검사의 하위 영역별 연도별 문항수 변화 .....   | 60  |
| <표Ⅳ-3> SAT I 언어추론검사 문항의 분류체계 .....             | 61  |
| <표Ⅳ-4> SAT I 수리추론검사의 하위 영역별 연도별 문항수 변화 .....   | 62  |
| <표Ⅳ-5> SAT I 수리추론검사 문항의 분류체계 .....             | 63  |
| <표Ⅳ-6> ACT 영어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 비율 및 문항수 .....       | 80  |
| <표Ⅳ-7> ACT 수학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 비율 및 문항수 .....       | 82  |
| <표Ⅳ-8> ACT 독해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 비율 및 문항수 .....       | 83  |
| <표Ⅳ-9> ACT 과학추론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 비율 및 문항수 .....     | 84  |
| <표Ⅳ-10> GCSE 현대사 및 영문학 시험 문항의 예 .....          | 95  |
| <표Ⅳ-11>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GCSE 성적과의 상호 관련성 .....   | 97  |
| <표Ⅳ-12> AS-Level(A-Level 보충수준) 시험의 점수 체제 ..... | 100 |
| <표Ⅳ-13> 일본의 전후 대학입시제도 변천 .....                 | 102 |
| <표Ⅳ-14> 일본 대학입시센터의 정원 (2002 현재) .....          | 113 |
| <표Ⅳ-15> 일본 대학입시센터의 예산(2002 현재) .....           | 113 |
| <표Ⅳ-16>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시험교과 및 과목 .....           | 114 |

|                                           |     |
|-------------------------------------------|-----|
| <표Ⅳ-17> 2006년도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출제 교과 및 과목 ..... | 115 |
| <표Ⅳ-18> 통일시험의 작문문제 예시 .....               | 127 |
| <표Ⅳ-19> 통일시험의 영작문 문제 예시 .....             | 128 |
| <표Ⅳ-20> 중국의 ‘3+문과통합시험/이과통합시험’ 일정 .....    | 130 |
| <표Ⅳ-21> 중국의 ‘3+×’ 시험 일정 .....             | 130 |
| <표Ⅳ-22> 독일 대학입학시험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      | 136 |
| <표Ⅳ-23> 아비투어 시험의 점수 체제 .....              | 138 |
| <표Ⅳ-24> 바칼로레아의 종류 .....                   | 143 |
| <표Ⅳ-25> 바칼로레아 일정표 .....                   | 151 |
| <표Ⅳ-26> 일반 바칼로레아 문과 계열 시험과목 .....         | 152 |
| <표Ⅳ-27> 일반 바칼로레아 경제사회계열 시험과목 .....        | 153 |
| <표Ⅳ-28> 일반 바칼로레아의 과학계열 시험과목 .....         | 154 |
| <표Ⅸ-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3개 개선방안 개요 비교 .....      | 225 |

## 그 립 차 례

|                                    |     |
|------------------------------------|-----|
| [그림Ⅳ-1] 일본 대학입시센터의 조직 .....        | 110 |
| [그림Ⅳ-2] 서비스제공 시스템 요약도 .....        | 117 |
| [그림Ⅳ-3]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와 입시제도 ..... | 142 |
| [그림Ⅷ-1] 반개방형 출제 방식 개념도 .....       | 219 |
| [그림Ⅷ-2] 반개방형 문제은행 조직도 .....        | 220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신입생 선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대학입시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기능을 유지하며, 고차적인 사고력 평가를 강화하여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을 유도한다는 등의 취지로 1994학년도부터 종전의 대학입학학력고사 대신에 도입·실시하게 된 국가고사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이후부터 대부분 대학의 입학전형은 고등학교 내신,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의 3가지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이 가장 높게 차지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실험적 연구단계에서 애초에 구상하였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여러 교과전공영역 집단의 압력과 설득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수리영역이 수리·탐구영역으로 바뀌고, 탐구영역은 다시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로 나뉘어졌다. 그리하여 과학탐구 분야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4개 과목이 포함되었고, 사회탐구 분야에는 국사, 국민윤리, 정치·경제,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의 7개 과목이 출제범위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2001학년도부터 제2외국어 6개 과목이 추가되었고, 2005학년도부터 또다시 실업계 모든 과목이 추가되어 현행 수능시험은 총 51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대한 규모의 전국단위 시험이다.

2005학년도부터 수험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과 교과목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만을 택하여 응시할 수 있는 선택제로 바뀌었다. 즉,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 중 전

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음은 물론, 동일 영역 내에서도 일정 수의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사회/과학/직업탐구의 3영역 가운데 1영역을 선택하되, 사회탐구는 11과목 중 최대 4과목을, 과학탐구는 8과목 중 최대 4과목을, 직업탐구는 17과목 중 최대 3과목(컴퓨터 관련 택1, 전공 관련 택2)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동안 시험성적을 원점수와 표준점수, 백분위를 함께 사용하던 표시방식에서, 원점수를 나타내지 않고 표준점수와 백분위로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시일이 경과되면서 시험과목 또는 영역의 확대를 비롯하여, 시험 문항수와 시험시간의 증가, 점수체제의 변화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체제 및 기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애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하면서 표방하였던 ‘대학수학에 필요한 보편적인 학업능력’을 측정한다는 취지는 점차 퇴색되고 종전의 대학입학학력고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시험으로 변질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등학교 교과목의 학업성취를 제대로 측정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시험으로 전락된 느낌이 들 정도이다. 따라서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어왔는데, 그 개선 필요성을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2008학년도 이후부터 대학입학전형제도와 교육평가체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개선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김민남, 2004). 새 대학입학전형제도를 수립함에 있어서 정부는 초·중등 학교교육이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입학제도 여하에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존재, 성격, 활용방법 등이 크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정부당국의 대학입학제도의 변경 계획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변화를 이미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입학제도의 개혁 방향

은 이제까지 대부분 대학에서 활용한 학력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학력 이외의 다른 준거에 따른 다양한 전형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 대학입학제도의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둘째,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고등학교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 10개, 일반선택교과 26개, 심화선택교과 53개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게 되어 있다. 고교 1학년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통해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한 후 2-3학년에 가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의해 미래지향적이고 융통성 있는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고등학교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 과정의 경직된 운영에서 벗어나 개별 학생의 다양한 집중과정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실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는 담당교사의 확보문제, 학교시설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이러한 기본정신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의 여건과 실상을 고려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 시험과목, 출제범위 등에 있어서 조정과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현재 많은 대학입학 지망자들은 자신의 적성에 알맞은 진로를 탐색하여 이에 필요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현장체험, 봉사활동 등을 하기보다는 시험문항유형을 암기하여 수능시험점수를 높이는 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내용, 출제방식, 문제유형 등의 여하에 따라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운영, 교수-학습 방법, 학생 평가 방식 등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때,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험의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또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가정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수학능력시험 그 자체만 보더라도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이 지

적되고 있다. 즉, 수능시험의 성격과 기능 문제,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문제, 적정수준의 난이도와 변별력 유지 문제, 시험문항의 질적 문제, 정답에 대한 의의제기 문제, 문제은행식 출제체제의 도입, 시험관리 및 운영 방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과 상황변화에 기초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착수하게 되었는바,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동 연구용역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종의 정책연구 성격을 띤다. 본 연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기능, 구조, 결과활용 등과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대학입학 적격자를 선발하는데 도움이 되고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대학입학제도와 관련해서는 적용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보호 차원에서 최소한 3년 전에 사전 예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8학년도 이후 적용하게 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 2008학년도부터 적용하게 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2004년 10월에 확정·공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구안하는 일을 연초부터 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본 연구는 정부당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둘째, 2008학년도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과 성격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구조, 출제방법, 점수체제, 결과활용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를 탐구하여 향후 이 분야의 교육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연구내용

위에서 밝힌 것처럼, 본 연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구조, 기능 등과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대학입학 적격자를 선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필연적으로 대학입학제도의 큰 틀 속에서 그 성격과 활용 등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그 자체에 관한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제도와 외국의 대학입학시험체제 분석도 아울러 연구내용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취급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과정 분석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 배경
  -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변화과정
- 2)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 분석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내용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및 시행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활용 등
- 3) 외국의 대학입학시험체제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미국의 대학입학시험
  - 영국의 대학입학시험
  - 일본의 대학입학시험
  - 중국의 대학입학시험
  - 독일의 대학입학시험
  - 프랑스의 대학입학시험

#### 4)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방안 모색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체제 등

#### 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은행식 출제 방안

- 문제은행 구축 방안
- 문제은행 운영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입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당국이 2008학년도 이후 적용하게 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기능, 출제방법, 점수체제 등에 관한 기본 방향과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구조와 내용 등에 관하여 세세한 것을 기술하거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시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한 기본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한정하였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수행되었다. 문헌연구를 비롯하여 전문가 협의회, 정책 토론회, 세미나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여기서 사용한 연구의 수행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기초 연구 과정

###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과정 분석

1994학년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과정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관점은 상황 배경, 시험 영역과 과목, 문항수와 배점, 출제 기본 원칙 등이다.

### (2)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탐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시험 내용, 출제방법, 시행방법 및 절차, 시험 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적되어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탐색하였다.

### (3) 외국의 대학입학시험체제 분석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의 대학입학제도와 대학입학시험체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방안 구안 과정

### (1) 과거 각종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 분석

이제까지 전문 연구기관이나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여 제안된 바 있는 대학입시제도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각종 개선방안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대학입시에 관한 기본전제, 개선의 논리, 개선대책의 타당성과 현실성 등에 유의하였다.

### (2) 개선방안 시안 마련

본 연구진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각종 개선방안의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차례 걸친 자체 토론회를 통해 3가지 잠정적인 개

선안 시안을 수립하였다. 시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해야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시험영역의 수준과 범위, 점수체제,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수능시험의 비중 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 (3) 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연구진이 마련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안 시안에 대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시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세미나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 : 2004년 7월 26일 13:30 - 18:00
- 장소 :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 발표 : 이종승
- 지정토론 : 허경철, 이원희, 손종현, 한석수

### (4) 전문가 협의회

연구기관 연구원, 교육행정가, 교육평가 전문가, 고등학교 및 대학교 관계자 등으로 협력연구진을 구성하여 연구수행과정상에 수시로 자문을 받았다. 또한 연구진에 의해 작성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고 체계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2차에 걸쳐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제1차 전문가 협의회)

- 일시 : 2004년 7월 10일 09:30 - 13:00
-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
- 발표 : 박도순, 이종승, 남명호
- 토론 : 연구 협력진 (연구 협력진 명단은 본 연구보고서 앞부분 참조)

(제2차 전문가 협의회)

- 일시 : 2004년 11월 6일 10:00~14:00
-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
- 발표 : 박도순, 이종승
- 토론 : 연구 협력진

(5) 개선안 확정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을 상기 기술한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과 연구진 자체의 여러 차례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함으로써 확정하였다.



## 제 1 부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및 외국의 대학입학시험체제



## Ⅱ.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

###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 배경

대학입학학력고사가 폐지되고 그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되었다. 이전의 대학입학학력고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 박도순과 장석우(1993)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고차적인 정신능력을 측정하는데 미흡하다는 점이다. 대학입학 학력고사는 그 동안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출제 기술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과목별로 세분된 출제 범위, 교과서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제약, 그리고 높은 객관성의 유지를 위하여 타당도 보다는 신뢰도를 의식해야 했던 현실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단편 지식이나 이해력 중심의 출제에 치중되었음이 사실이다.

둘째, 이러한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출제 경향은 고등학교의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전인적인 교육목표나 폭넓은 교수-학습 활동, 학생들의 탐구능력이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활동 등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와 수업활동에서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사실의 이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학력고사에서의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주입식·암기식 교육과 수없이 반복되는 문제풀이 학습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셋째, 대학입학 학력고사는 수험생들에게 과중한 심리적 부담을 주면서도 그 교육적 효과는 매우 낮다는 점이다. 입학시험제도가 존재하고, 특히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따르는 것은 당

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사실은 수험생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겪어온 주입식·암기식 교육풍토와 단편 지식 및 사실이해 수준의 학습활동으로서는 결코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넷째, 대학입학 학력고사는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하는 기능의 면에서도 부적절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학력고사가 측정하고 있는 능력은, 고등학교 3년間に 이수한 교과능력으로서 이는 본질적으로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측정하는 능력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모든 수험생들이 필수적으로 치러야 하는 9개 과목의 시험은, 그 실 대학교육의 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필요에서 보다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정책적 배려에서 채택된 것이다.

다섯째, 이렇듯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과정에서는 전인적인 인간교육에 소홀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함께 대학입학 학력고사에서도 인간의 전인적인 발달에 관심을 두는 부분은 별로 없이 오직 점수만이 중요시됨으로써, 학생들을 점수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 2.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변화 과정

1991년 4월 2일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확정·공포된 것과 함께 당시 국립교육평가원은 영역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측정 내용, 측정 방법 등을 탐색하기 위한 ‘실험평가연구’, 구체적인 출제 계획을 정립하기 위한 ‘출제전략 방안연구’, 출제 기술을 축적하고 교사 및 학생에게 새로운 시험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실험평가연구’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 밖에 여러 형태의 세미나 및 협의회 등을 통해 이 제도 시행의 기

반을 구성하였다.

모의고사 형태의 ‘실험평가’는 1990년에 1회, 1991년과 1992년에 각 3회, 총 7회가 실시되었다. 표집대상은 1회 당 최소 30개교 1,601명에서, 최대 707개교 199,298명에 달하였으며, 1994학년도 수험 대상 학생들은 누구나 한번 이상 ‘실험평가’에 참여하였다. 당시 국립교육평가원은 일곱 차례에 걸친 실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1~7차 실험평가 결과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모형과 시험 모형을 완성하여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하게 되었다.

1994학년도부터 2005학년도에 이르기까지 지난 11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본 원리와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나, 시험 체제와 운영 측면에서 몇 가지 변화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변천의 주요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두 차례 이루어졌다. 즉, 이 시험의 도입 실시 첫해인 1994학년도에는 3가지 영역(언어, 수리·탐구, 외국어)에 대하여 190문항을 200만점으로 하여 1993년 8월 20일과 11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시험시간은 340분이었다. 그리고 지원 방법은 1차와 2차 모두 응시자는 계열 구분 없이 지원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험의 출제범위는 전 영역 공통범위를 다루었다.

1차 시험에서의 출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표방한 기본 원칙에 충실하게 맞추어 출제 기본 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출제되었다. 그 기본 지침은 첫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출제하며, 둘째, 고등학교 여러 교과목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며, 셋째, 가능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하며, 넷째, 단순 기억력이나 암기력을

지양하고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며, 다섯째, 문항은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하고, 정답이 2개인 것과 '정답 없음'과 같은 답지가 포함된 다양한 형태로 출제하며, 여섯째, 언어와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일정비율의 듣기 문항을 출제하며, 일곱째, 속도검사가 아니라 역량검사가 되도록 출제하며, 여덟째, 문항별 예상 정답률은 20-80% 수준을 유지하되, 영역별 평균점수는 50-60점이 되도록 출제한다는 것이다.

1994학년도 2차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미 실시된 1차 시험의 출제원칙과 유사하다. 첫째, 수험생들이 장차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수학하는데 기초가 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하며, 둘째, 현행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교과서 내외의 소재를 사용하여 여러 문제 상황에서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하며, 셋째, 1차 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갖도록 출제한다는 것이었다.

## 나.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95학년도 시험은 1994학년도 시험과 다르게 2회로 실시되었던 시험을 1회로 한정하여 11월 23일에 실시하였고, 응시자들에게 계열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다. 1995학년도 시험에서는 언어와 외국어(영어)영역에서는 공통출제를 하였고, 수리·탐구영역에서는 일부 문항을 계열별로 출제하였다. 문항수도 190개에서 200개로 10개 증가하였으며, 배점은 200점으로 동일하였다.

1995학년도 시험의 출제 기본 원칙은 1994학년도와 대동소이하지만 보다 세부적인 출제 지침을 마련하여 출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험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성공적으로 수학하는데 기초가 되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주된 목표를 두되, 고등학교 교수-학습방법이 교육과정의 정신과 이론에 알맞은 방향으로 정상화되도록 유념하였다. 둘째,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여러 문제 상황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차적인 사고능력 즉, 원리의 이해 및 적용 능력, 자료 해석 능력, 종합적 사고능력, 탐구 능력 및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언어사용 능력 등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셋째, 난이도 수준은 상위 50%의 수험생들이 평균 50-60%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출제 문항의 소재는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물론 교과서 외의 자료도 활용하며, 범교과적이고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하였다. 넷째, 시험의 변별력을 확대하기 위해 차등배점 폭을 확대하였다. 즉, 점수의 급간을 종전의 0.2점에서, 0.1점으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동점자의 수를 줄이는데 노력하였다.

## 다.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부분의 시행원칙은 1995학년도와 동일하지만, 외국어(영어)영역에서 듣기 문항 수를 1995학년도의 경우 8문항이었던 것을 10문항으로 2문항 늘리고, 이에 관한 평가 시간을 2분 늘려 배정하였던 것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5년 11월 22일에 시행하였다.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출제에 관한 기본 지침은 1995학년도와 거의 동일하며, 1995학년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범위와 동일하다.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교육에서 학습된 학력과 대학수학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고력을 평가한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본 취지에 따라 전 단원을 출제범위로 하여 학교 현장 상황을 더욱 고려하여 출제하도록 하였으며, 이전 연도보다 강조하여 출제하고자 한 점은 종합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확대하여 변별력을 더욱 제고하고자 하였다. 단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언어 영역과 외국어(영어)영역에서 일정 비율의 '듣기 문항'을 출제 한 점이 이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이 원칙은 종래 소홀히 취급되어온 '듣기'를 강조한 것으로, 고등학교에서 '듣기'에 대한 더 많은 지도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다.

## 라.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9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에서 몇 가지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6학년도와 비교하여 199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기본 구조는 전형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 시행하고, 평가방법을 시험에서 전형으로 전환하여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제도의 개발을 유도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여, 학생을 연중·수시 선발할 수 있게 하고, 수험생의 실질적 복수 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기본 구조에 근거하여 이전의 대학입학전형제도와 비교하여 199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 상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국어(논술), 영어, 수학 등 대학별고사 실시가 가능하였으나 국공립대의 경우 국·영·수 중심의 필답고사를 폐지하였으며, 사립대의 경우에는 대학자율에 맡겼다.

② 입학 사정의 경우, 내신과 수능시험 그리고 대학별 고사 등을 일괄 합산하게 하였으나 1997학년도의 경우에는 일괄합산 뿐만 아니라 단계별 사정이나 전형자료별 사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③ 선발 시기의 경우, 수시 모집이 불가하였으나 1997학년도부터는 연중 선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시모집일을 가, 나, 다, 라 군으로 배정하였다.

④ 내신 성적의 경우, 생활기록부 내신성적을 40% 이상 대학입학전형에 의무 반영토록 하였으나 1997학년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도입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토록 하였다. 단지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40% 이상을 반영토록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1997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교과중심의 대학별고사가 폐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 개개인의 능력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선발 자료로서의 변별 기능을 높여야 함은 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사고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건인 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1996년 11월 13일에 치러진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는 1996학년도 체제와 다른 주요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96학년도의 경우 문항 수와 배점이 200문항에 200점 만점이었던 것이 230문항에 400점 만점으로 변화되었다. 문항의 배점 비율의 경우, 1996학년도의 경우, 언어영역과 수리·탐구(Ⅱ) 영역은 0.8, 1, 1.2점, 수리·탐구(Ⅰ) 영역은 1, 1.5, 2점, 외국어(영어) 영역은 0.6, 0.8, 1점으로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200점이었던 데 반해 1997학년도의 경우, 언어영역은 1.6, 1.8, 2점, 수리·탐구(Ⅰ) 영역은 2, 3, 4점, 수리·탐구(Ⅱ) 영역은 1.6, 1.8, 2점, 외국어(영어) 영역은 1, 1.5, 2점으로 차등 배점하여 총점을 400점 만점으로 하였다. 이는 동점자 수를 줄이고 변별기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취해졌던 조치였다.

② 영역별 문항 수와 배점의 경우를 보면,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언어영역이 60문항으로 배점이 60점이고, 수리·탐구영역(Ⅰ)은 30문항에 배점이 40점이고, 수리·탐구영역(Ⅱ)는 60문항에 배점이 60점이고, 외국어(영어) 영역은 문항수가 50문항에 40점의 배점이었다. 이에 반해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언어영역이 65문항으로 배점이 120점이고, 수리·탐구영역(Ⅰ)은 30문항에 배점이 80점이고, 수리·탐구영역(Ⅱ)는 80문항에 배점이 120점이고, 외국어(영어)영역은 문항수가 55문항에 배점이 80점이었다.

③ 1996학년도에 비해 다른 점은 수리·탐구영역(Ⅰ)의 경우 주관식 문항이 6개 포함되었고, 외국어(영어)영역에서 듣기·말하기 문항이 17개 포함되었다. 또한 문항 수와 배점의 차이로 인해 시험시간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즉, 외국어영역은 이전과 같이 80분의 시험시간이지만 언어영역의 경우는 90분에서 100분으로, 수리·탐구영역(Ⅰ)에서는 90분에서 100분으로, 수리·

탐구영역(Ⅱ)은 100분에서 110분으로 세 영역에서 10분씩 늘어났으며, 이전의 경우는 시험시간이 총 360분이었던 것이 390분이 되었다.

<표 Ⅱ-1> 1996학년도 영역별, 계열별 출제 비율과 범위

| 영역                          |          | 계열  | 문항<br>수 | 배점  | 시험<br>시간 | 출제비율  |       | 출제범위                               |                                         |  |  |
|-----------------------------|----------|-----|---------|-----|----------|-------|-------|------------------------------------|-----------------------------------------|--|--|
|                             |          |     |         |     |          | 공통    | 계열    | 공통                                 | 계열                                      |  |  |
| 언어영역                        |          | 공 통 | 60      | 60  | 90분      | 100%  | 0     | 전 교과                               |                                         |  |  |
| 수리·탐구<br>영역(I)              |          | 인 문 | 30      | 40  | 90분      | 70%내외 | 30%내외 | 일반수학<br>수학 I*                      | 일반수학                                    |  |  |
|                             |          | 예 체 |         |     |          |       |       |                                    | 수학 I                                    |  |  |
|                             |          | 자 연 |         |     |          |       |       |                                    | 수학 II                                   |  |  |
| 수리<br>·<br>탐구<br>영역<br>(II) | 사회<br>탐구 | 인 문 | 60      | 36  | 100분     | 67%내외 | 33%내외 | 국사<br>국민윤리<br>정치·경제<br>한국지리<br>세계사 | 주로 사회,<br>문화, 세계<br>지 리 에 서<br>출제       |  |  |
|                             |          | 예 체 |         |     |          |       |       |                                    | 국사, 국민<br>윤리, 정치<br>· 경제, 한국<br>지리, 세계사 |  |  |
|                             |          | 자 연 |         |     |          |       |       |                                    |                                         |  |  |
|                             | 과학<br>탐구 | 인 문 |         | 24  |          | 100%  | 0     | 과학 I<br>과학 II**                    | 주로 물리,<br>화 학 에 서<br>출제                 |  |  |
|                             |          | 예 체 |         | 24  |          | 100%  | 0     |                                    |                                         |  |  |
|                             |          | 자 연 |         | 36  |          | 67%내외 | 33%내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어영역                       |          | 공 통 | 50      | 40  | 80분      | 100%  | 0     | 전 교 과                              |                                         |  |  |
| 계                           |          |     | 200     | 200 | 360분     |       |       |                                    |                                         |  |  |

- 자연계의 경우,
  - 수학 I\*은 수학 II 중에서 수학 I의 내용과 공통 부분
  - 과학 II\*\*는 물리, 화학 중 과학 II의 내용과 공통 부분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적 소재 등을 활용하여 출제하므로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위 기준을 참고하여 출제위원회에서 정함.

<표 II-2> 1997학년도 영역별, 계열별 출제 비율과 범위

| 영역                          |          | 계열  | 문항 수 | 배점  | 시험 시간 | 출제범위                                             | 비고                  |  |    |              |  |
|-----------------------------|----------|-----|------|-----|-------|--------------------------------------------------|---------------------|--|----|--------------|--|
| 언어영역                        |          | 공 통 | 65   | 120 | 100분  | 전 교 과                                            | 듣기문항<br>6개 포함       |  |    |              |  |
| 수리·탐구<br>영역(I)              |          | 인 문 | 30   | 80  | 100분  | 일반수학, 수학 I                                       | 주관식 문항 6개<br>포함     |  |    |              |  |
|                             |          | 예 체 |      |     |       | 일반수학, 수학 II                                      |                     |  |    |              |  |
|                             |          | 자 연 |      |     |       |                                                  |                     |  |    |              |  |
| 수리<br>·<br>탐구<br>영역<br>(II) | 사회<br>탐구 | 인 문 | 80   | 72  | 110분  | 국사, 국민윤리,<br>정치·경제, 한국지리,<br>세계사, 사회·문화,<br>세계지리 |                     |  |    |              |  |
|                             |          | 예 체 |      | 72  |       | 국사, 국민윤리,<br>정치·경제, 한국지리,<br>세계사                 |                     |  |    |              |  |
|                             |          | 자 연 |      | 48  |       | 국사, 국민윤리,<br>정치·경제, 한국지리,<br>세계사                 |                     |  |    |              |  |
|                             | 과학<br>탐구 | 인 문 |      | 48  |       |                                                  | 과학 I, 과학 II         |  |    |              |  |
|                             |          | 예 체 |      |     |       |                                                  |                     |  |    |              |  |
|                             |          | 자 연 |      |     |       |                                                  |                     |  | 72 | 과학 I, 물리, 화학 |  |
|                             |          |     |      |     |       |                                                  |                     |  |    |              |  |
| 외국어영역                       |          | 공 통 | 55   | 80  | 80분   | 전 교 과                                            | 듣기·말하기<br>문항 17개 포함 |  |    |              |  |
| 계                           |          |     | 230  | 400 | 390분  |                                                  |                     |  |    |              |  |

④ 출제의 기본 방향은 1996학년도와 동일하다. 단지 영역별, 계열별 출제 비율과 출제 범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96학년도의 경우에는 출제 비율에서 영역별로 공통과 계열에 따라 비율을 규정하여 제시되고 있

으나 1997학년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 없이 제시되고 있다.

1996학년도와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계열별 출제 비율과 범위는 <표Ⅱ-1>, <표Ⅱ-2>에 각각 제시한 바와 같다.

### 마.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98학년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7년 11월 19일에 치러진 시험으로서 199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와 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또한 출제의 기본 방향과 지침에서도 거의 동일하다. 단지 수리·탐구영역(I)에서 주관식 문항을 비롯해서 객관식 문항의 난이도가 성적 상위 50% 수험생 집단의 평균점이 100점 만점 환산에서 50-60점이 되도록 출제하고자 하는 지침을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수리·탐구영역(Ⅱ)에서 시험시간의 부족으로 나타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시험시간을 10분 연장하였다.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997학년도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이유는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학생들은 6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형태로의 시험이 곧 요구되어 시험체제상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잦은 시험체제의 변화로 학생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겠다.

### 바.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8년 11월 18일에 치러졌으며, 그 기본 성격은 변화되지 않았으나 6차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시험이 치러짐에 따라 영역별로 출제 비율과 출제 범위가 달라졌다. 특히 수리·탐구영역(Ⅱ)에서 선택과목이 도입됨에 따라 표준점수를 사용하게 된 것이 큰 변화라 하겠다. 이전 연도와 달라진 점은 수리·탐구영역(I)의 예·체능계의 경우에 '공통 수학'에서만 출제되고, 수리·탐구영역(Ⅱ)에서는 인문계의 사회탐구와 자연

계의 과학탐구에 선택과목이 새로 도입되었으며, 외국어(영어)영역에서는 ‘공통영어’에서만 출제된 점이다.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계열별 출제 비율과 범위를 제시하면 <표Ⅱ-3>과 같다.

<표Ⅱ-3> 1999학년도 영역별, 계열별 출제 비율과 범위

| 영역                |          | 계열  | 문항수 | 배점  | 출제비율                                       |       | 출제범위              |                                            |
|-------------------|----------|-----|-----|-----|--------------------------------------------|-------|-------------------|--------------------------------------------|
|                   |          |     |     |     | 필수                                         | 선택    | 필수                | 선택                                         |
| 언어영역              |          | 공통  | 65  | 120 | 100%                                       | ·     | 전교과               |                                            |
| 수리·탐구<br>영역 (I)   |          | 인문  | 30  | 80  | 공통수학 70% 정도<br>수학 I 30% 정도                 |       | 공통수학, 수학 I        |                                            |
|                   |          | 자연  |     | 80  | 공통수학 50% 정도<br>수학 I 20% 정도<br>수학 II 30% 정도 |       | 공통수학, 수학 I, 수학 II |                                            |
|                   |          | 예·체 |     | 80  | 공통수학 100%                                  |       | 공통수학              |                                            |
| 수리·<br>탐구<br>(II) | 사회<br>탐구 | 인문  | 80  | 72  | 80%정도                                      | 20%정도 | 공통사회,<br>국사, 윤리   | 정치, 경제,<br>사회, 문화,<br>세계사,<br>세계지리 중<br>택일 |
|                   |          | 자연  |     | 48  | 100%                                       | ·     | 공통사회,<br>국사, 윤리   | ·                                          |
|                   |          | 예·체 |     | 72  | 100%                                       | ·     | 공통사회,<br>국사, 윤리   | ·                                          |
|                   | 과학<br>탐구 | 인문  |     | 48  | 100%                                       | ·     | 공통과학              | ·                                          |
|                   |          | 자연  |     | 72  | 67%정도                                      | 33%정도 | 공통과학              | 물리II, 화학II,<br>생물II, 지구과<br>학II 중 택일       |
|                   |          | 예·체 |     | 48  | 100%                                       | ·     | 공통과학              | ·                                          |
|                   |          |     |     |     |                                            |       |                   |                                            |
| 외국어(영어)<br>영역     |          | 공통  | 55  | 80  | 100%                                       | ·     | 공통영어              |                                            |
| 계                 |          |     | 230 | 400 |                                            |       |                   |                                            |

## 사.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9년 11월 17일(수)에 치러졌으며, 1999학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의 편의를 위해 변환 표준점수의 백분위 점수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표에는 영역별 원점수 및 총점, 표준점수 및 변환표준점수,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가 1999학년도와 마찬가지로 표기되고, 여기에 변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도 추가적으로 제공되었다.

이밖에 출제 기본 방향, 시험시간 및 영역별 배점, 문항수, 출제 형식, 출제 범위 및 영역별·계열별 출제 비율은 1999학년도와 동일하였다. 즉,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의 기본 방향은 1999학년도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 위주로 출제하였다. 출제는 1999학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열별로 출제하되,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어)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공통으로 하고, 수리·탐구영역은 75% 정도를 공통 출제하고, 25% 정도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출제하여 계열간 성적편차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문항 난이도와 문항당 배점을 살펴보면, 원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의 편의를 위해 문항별 예상 정답률을 20-80%로 하고, 상위 50% 집단의 영역별 예상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75점 정도가 되도록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정하였다. 문항당 배점은 차등 배점하여 변별 기능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즉, 언어영역은 1.6, 1.8, 2점, 수리·탐구영역(I)은 2, 3, 4점, 수리·탐구영역(II)와 외국어(영어)영역은 1, 1.5, 2점으로 차등배점 하였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시험시간 등 시험관리 형태는 1999학년도와 비교하여 변함이 없으나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시험장 설치에 학생 체격에 맞는 책걸상 비치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40명에서 32명으로

축소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시험실 당 시험감독관은 1999학년도와 같이 매교시별 2명으로 하되, 감독시간을 1인당 4개 교시에서 3개 교시로 축소하여 감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감독관을 증원하였다. 이처럼 시험실 당 수험생수 축소, 시험감독관 감독시간 축소에 따른 감독관 증원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이행 및 채점 관리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응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져서 응시 수수료는 종전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총 896,122명 중 결시자 27,756명을 제외한 868,366명이 응시한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결과를 요약해 볼 때, 2000학년도 시험의 난이도는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 전체집단의 재학생과 재수생의 평균점수를 단순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점수 차이가 11.2점으로 전년도의 점수 차이 2.9점보다 다소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들이 학교에서의 정규적인 학습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범위에 근거하여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취지에 맞게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 **아.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0년 11월 15일(수)에 실시된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출제 기본 방향, 시험시간 및 영역별 배점, 문항수, 출제 형식, 출제 범위 및 영역별·계열별 출제 비율은 2000학년도와 동일하였다. 또한, 2000학년도와 같이, 변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가 제공되었다.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6개의 선택과목 즉,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를 포함하는 제2외국어 영역(총 30문항, 배점은 40점)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언어, 수리·탐구 영역(I), 수리·탐구 영역(II), 외국어(영어) 영역 등 4개 영역에 제2외국어

선택과목이 추가되었다. 시험시간에 따르면, 제2외국어 영역은 18:10분부터 40분간 실시되는 제5교시에 실시되었고, 이는 선택 영역으로 계열 구분 없이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만 응시하도록 하였다. 제2외국어 영역의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규정한 제2외국어 1의 내용과 수준으로 출제하였다. 제2외국어 영역의 점수는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표기하며, 원점수 및 표준점수와 그에 의한 백분위 점수만을 별도로 표기하였고, 응시과목명은 표시되지 않았다.

총 872,297명의 지원자 중 21,992명의 결시자를 제외한 850,305명(응시율 97.5%)이 응시하였던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 결과의 몇 가지 특징을 종합해 보면 첫째, 시험의 난이도가 종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들이 학교에서의 정규적인 학습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범위에 근거하여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 맞게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그러나 언어 영역이 2000학년도에 다른 영역에 비하여 어려웠다는 반응을 참고하여 출제함으로써 예상 난이도에 차질을 빚어 전년도에 비하여 평균성적이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2001학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2외국어 영역은 문항의 난이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전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6개의 선택 과목간 난이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매우 쉽게 출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2001학년도 제2외국어 영역의 전체 지원자 수는 268,355명이었고, 응시자는 262,711명이었으며, 응시자 중 남학생이 112,325명, 여학생이 150,386명으로 여학생이 조금 더 많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집단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평균점수 차이는 17.7점 정도로 졸업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전년도 11.2점보다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상위 50% 집단의 경우 전년도에 대비한 재학생의 상승점수(6.6점)와 졸업생의 상승 점수(6.8점)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1년 11월 7일(수)에 실시된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 영역이 수리·탐구영역(I)을 수리 영역으로, 수리·탐구영역(II)을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으로 분리하여 전년도의 4개 영역에서 총 5개 영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2001학년도와 같이 제2외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으로 실시되었다. 둘째, 시험 영역 변경에 관계없이 시험시간, 출제문항, 출제범위 등은 2001학년도와 동일한 체제가 유지되었다. 셋째,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체제에서 나타난 큰 특징은 총점에 의한 학생 선발 관행을 지양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전형방식을 다양화 하도록 하기위해 총점 및 소수점 표기를 폐지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성적 즉,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의 소수점 표기를 폐지하여 정수로 표기되었다. 다만, 수험생 성적표의 원점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였다.

성적을 표기함에 있어 원점수의 경우 소수점 이하 점수를 반올림하여 기재하면 원점수가 동일하더라도 백분위 점수, 변환표준점수, 등급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경우 수험생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성적통지표상의 원점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고, 대학에 제공하는 성적자료(CD)에는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 점수를 사사오입 처리하여 배부하였다. 2002학년도에는 총점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영역별 등급과 5개 영역 종합등급을 기재하였다. 각 영역별 등급은 소수 둘째자리(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산출된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이고, 5개영역 종합등급은 각 영역별 변환표준점수를 합한 점수에 의한 등급이다. 즉, 등급은 상위 4% 수험생에게는 1등급, 그 다음 7% 수험생에게는 2등급 등의 방식으로 부여된다. 제2외국어 영역의 점수는 5개 영역 종합등급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표기하며, 원점수와 표준

점수 및 그 백분위 점수만 표기하고 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을 기재하되 응시 과목명은 표기되지 않았다.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출제의 기본 방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 위주로 출제하였다. 출제 범위는 전년도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전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열별로 출제하되 언어, 외국어(영어)영역 및 제2외국어영역은 계열 구분없이 공통으로 출제하였다. 시험과목의 선택은 인문계 학생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중에서 택1, 자연계는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중에서 택1, 예·체능계는 선택이 없다. 제2외국어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원하는 수험생만 응시하고 6개 과목 중에서 택1 하도록 하였다.

총 739,129명 중 결시자 20,688명을 제외한 718,441명(응시율 97.2%)이 응시한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공신력 있는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능력이 측정되어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었다.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 결과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 도입된 등급제에 의해 산출된 종합 등급 및 영역별 등급의 비율이 '9등급제의 등급별 비율'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 제2외국어 영역은 6개 선택과목에서 내용별로 문항 수를 통일하고 사용 어휘 수를 상호 조정한 결과 과목간 평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 차.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2년 11월 6일(수)에 실시된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문항수, 시험시간, 배점, 문항 형태, 선택과목, 성적표시 등이 모두 동일하였다.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시험 영

역은 2002학년도와 같이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외국어(영어) 영역 등 5개 영역은 필수로 하고, 제2외국어 영역은 선택 과목으로 실시하였다. 시험시간, 출제문항, 출제범위 등은 2002학년도와 동일 체제를 유지하였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총점에 의한 학생 선발 관행을 지양하고 전형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2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총점 및 소수점 표기를 하지 않고, 9등급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성적통지표에는 2002학년도와 같이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고 영역별 등급과 5개 영역 종합등급을 제시하였다. 성적통지표상의 원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고, 대학에 제공하는 성적자료(CD-ROM)에는 원점수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배부하였다. 각 영역별 등급은 소수 둘째자리(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산출된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이고, 5개 영역 종합등급은 각 영역별 변환표준점수의 합에 의한 등급이다.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채점 및 성적통지 분야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 이후 신속히 예상 점수를 발표하였다는 점이다. 즉, 시험일 다음날 (2002년 11월 7일) 발표한 표본 채점에 의한 예상 점수는 전체 집단과 상위 50% 집단의 영역별, 계열별 실제 점수와 거의 비슷하였다 ( $\pm 2$ 점 이내). 또한, 2003학년도 수능시험의 안정적 출제체제 구축을 위해 상시기구를 설치하고 현장 경험과 능력 위주로 전문 연구인력(34명)을 보강하여 기출문항 분석, 새로운 문항 유형 개발 관리 등을 실시하였다.

출제위원에 고교교사의 참여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2003학년도에는 출제위원의 20%이상으로 6개 모든 시험 영역에 걸쳐 현직교사를 위촉하였다. 또한 우수한 출제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교수 및 교사의 소속 학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 동안 대체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학생의 학력 수준 분석으로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일선 교사(9

명)를 6개 영역에 걸쳐 1-2년간 파견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2002학년도에는 1회 실시하였던 수능 모의 평가를 연2회 실시하여서 수능 형식에 의한 학생의 정확한 학력수준 진단 분석을 도모하였다.

총 675,922명 중 결시자 20,538명을 제외한 655,384명(응시율 97.0%)이 응시하였던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5개 영역 종합 점수 분포를 살펴 보았을 때, 인문계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의 점수 분포를 이루었고, 자연계는 오른쪽으로 약간 편포되었으며, 예체능계는 왼쪽으로 많이 편포되는 경향을 보였다.

### 카.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3년 11월 5일(수)에 실시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에는 토요일 오전에도 원서를 교부하고 접수를 하였으나, 2004학년도에는 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로 인해 토요일에는 원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 둘째, 문항당 배점을 모두 정수로 표기하였다. 즉, 소수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수 배점에서 모두 정수 배점으로 변경하였다. 전년도까지 문항당 배점은 언어 영역은 1.8, 2, 2.2점, 수리 영역은 2, 3점,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및 제2외국어 영역은 1, 1.5, 2점이었다. 이를 2004학년도에는 언어 영역은 1, 2, 3점, 수리 영역은 2, 3점, 사회 및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영역은 1, 2점 등 모두 정수로 표기하였다. 셋째, 학생 성적표 및 대학에게 제공되는 성적자료(CD 자료) 모두에 각 영역별 원점수가 정수로 표기되었다.

2003학년도와 마찬가지로 변환표준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몇 가지 점을 제외하고,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시험 영역, 시험시간, 출제 문항, 출제 범위 등은 2003학년도와 동일 체제를 유지하였다. 각 영역별 등급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된 변환 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이고, 5개 영역 종합등급은 정수로 산출된 각 영역별 변환표준점수의 합에 의한 등급이며, 등급 경계선에 있는 동점자는 상위 등급으로 처리하였다.

2003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시험 결과에 대한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학 진학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험 다음날인 11월 6일(목)에 표본 채점을 하여 영역별 예상 평균 점수를 발표하였다. 이 표본채점 결과, 전체 집단과 상위 50% 집단의 영역별, 계열별 실제 원점수는 예상 원점수와 거의 비슷하였다( $\pm 2.5$ 점 이내). 총 674,154명 중 결시자 31,571명을 제외한 642,583명(응시율 95.3%)이 응시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5개 영역 종합 계열별 점수 분포를 보면, 인문계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의 분포를 이루었고, 자연계는 오른쪽으로 약간 편포되었으며, 예체능계는 왼쪽으로 많이 편포되어 2003학년도의 채점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 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학생의 능력, 진로, 필요, 흥미를 중시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시험 영역과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이전의 수능시험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2005 수능시험의 특징은 언어 영역, 외국어(영어) 영역은 범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수리 영역,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한다. 또한, 대학수학 적격자의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학생 선발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출제 과정에서는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출제하며,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점수 분포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쉬운 문항,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균형 있게 출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선택 과목간 난이도 조정에 특히 유념하여 출제하도록 하였다. 문항형태는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리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여 출제하였다. 문항당 배점은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은 1, 2, 3점, 수리 영역은 2, 3, 4점,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시간, 변별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학습 내용은 필요한 경우 반복 출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2, 3학년 심화선택 과목 중심으로 출제하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단, 국사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속하나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에 포함되었다.

학생들이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할 때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의 5개 영역 중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리 영역의 경우는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수리 ‘가’형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즉, 수리 ‘가’형은 수학 I 12문항, 수학 II 13문항, 선택 과목 5문항으로, 수리 ‘나’형은 수학 I 에서 30문항으로 구성된다. 탐구 영역의 경우 사회/과학/직업탐구 3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며, 사회탐구 영역은 11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과목 중 최대 4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다(단,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과목은 최대 2과목만 선택 가능). 직업탐구 영역은 17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되, 단,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실업계열의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자는 8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들의 성적 통지표에는 각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 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하였고,

수리 영역 '가'형, 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응시한 선택과목명을 표기하였다. 2005학년도 수능의 점수 체제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전 수능에서 제공되어 왔던 원점수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모든 영역/과목이 임의 선택이므로 변환표준점수와 종합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전 수능 시험과는 달리 계열 구분이 없어져서 모든 점수(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는 각 영역 또는 과목별로 산출되어 제공된다. 2005 수능의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이 기재된다. 2005 수능에서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하여 선형 변환에 의한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수리 '가'형의 선택과목간 점수는 2004학년도 사회/과학탐구 영역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였고,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였다. 영역/과목별 등급은 2004학년도와 같이 9등급제를 유지하였다.

2005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채점결과를 2004년 12월 14일(화) 발표하였고,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 교육청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되었다.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부정행위자(2004. 12. 6 기준)를 제외한 수험생은 574,218명으로 재학생은 411,208명(71.6%)이고 졸업생은 163,010(28.4%)명이었다. 수능시험 당일 적발된 부정행위자 3명, '수능시험 부정행위 무효처리 심사위원회'에서 성적 무효 처리 대상으로 확정된 부정행위자 225명 등 총 228명을 제외하고 성적을 산출하였다. 영역별로는 언어 영역 567,950명, 수리 영역 '가'형 145,823명, '나'형 358,435명, 외국어(영어) 영역 570,431명, 사회탐구 영역 339,278명, 과학탐구 영역 195,182명, 직업탐구 영역 34,863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123,193명이 응시하였다. 전체 응시자의 86.2%에 해당하는 494,708명의 수험생이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탐구 영역 등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에 모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응시자 비율은 각각 59.6%, 34.3%, 6.1%이었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4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각각 85.7%, 84.4%이며, 직업탐구 영역은 3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96.0%이었다. 즉, 수험생 대부분이 최대 선택과목 수를 선택하였으며, 1개 과목만을 선택한 수험생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 결과, 영역/과목의 등급별 비율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 대체로 9등급제 비율을 유지하였으나, 과목별 문항 수가 적거나 응시자 수가 적은 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정해진 등급별 비율을 벗어난 과목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탐구 2과목(윤리, 한국지리), 과학탐구 1과목(생물 I), 제2외국어 1과목(러시아어 I)에서 만점자 및 고득점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 2등급 비율이 0%로 나타났다. 탐구 영역에서 각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사회탐구 7점, 과학탐구 6점으로, 6월 및 9월 모의평가 결과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위에서 기술한 1994학년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변화 과정을 시행계획 발표, 원서교부·접수, 출제, 인쇄, 시험시행, 채점 등의 측면에서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Ⅱ-4>와 같다.

<표 II-4>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변화과정

| 구 분 \ 학년도     |           | '94학년도            |                    | '95학년도            | '96학년도            | '97학년도            | '98학년도            | '99학년도           |
|---------------|-----------|-------------------|--------------------|-------------------|-------------------|-------------------|-------------------|------------------|
|               |           | 1 차               | 2 차                |                   |                   |                   |                   |                  |
| 시행계획 발표       |           | '93. 3. 29        | '93. 3. 29         | '94. 3. 30        | '95. 3. 28        | '96. 2. 27        | '97. 2. 26        | '98. 3.          |
| 응시원서<br>교부·접수 | 기 간       | 6.11~24<br>(14일간) | 10. 2~11<br>(14일간) | 9.12~27<br>(16일간) | 9.11~23<br>(13일간) | 9. 2~14<br>(13일간) | 9. 1~13<br>(12일간) | 9.1~15<br>(14일간) |
|               | 지원방법      | 계열별 구분 없음         |                    | 계열별<br>구분지원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               | 지 원 자     | 742,668           | 750,181            | 781,749           | 840,661           | 824,374           | 885,320           | 868,643          |
|               | □□□□ 남    | 437,465           | 444,612            | 452,360           | 478,707           | 472,527           | 495,212           | 475,625          |
|               | □□□□ 여    | 305,203           | 305,569            | 329,389           | 361,954           | 351,847           | 390,108           | 393,018          |
|               | □□□□ 문계   | 336,941           | 342,555            | 372,311           | 413,958           | 393,295           | 428,066           | 426,423          |
|               | □□□□ 자연계  | 340,252           | 343,168            | 336,390           | 351,719           | 356,560           | 375,022           | 346,736          |
|               | □□□□ 예체능  | 65,475            | 64,458             | 73,048            | 74,984            | 74,519            | 82,232            | 95,484           |
|               | □□□□ 재학생  | 521,806           | 496,617            | 477,960           | 526,833           | 545,023           | 613,372           | 623,130          |
|               | □□□□ 졸업생  | 213,459           | 243,826            | 261,492           | 300,482           | 268,044           | 261,415           | 233,893          |
|               | □□□□ 검정 등 | 7,403             | 9,738              | 42,297            | 13,346            | 11,307            | 10,533            | 11,620           |
| 출 제           | 기 간       | 7. 20~<br>8. 20   | 10.17~<br>11.16    | 10. 23~<br>11. 23 | 10. 23~<br>11. 22 | 10. 14~<br>11. 13 | 10. 20~<br>11. 19 | 10.19~<br>11.18  |
|               | 일 수       | 32                | 31                 | 33                | 31                | 31                | 31                | 31               |
|               | 동원인원      | 161               | 145                | 178               | 170               | 177               | 184               | 205              |
|               | □□□□ 출제   | 65                | 59                 | 62                | 63                | 69                | 72                | 89               |
|               | □□□□ 검토   | 33                | 28                 | 49                | 46                | 46                | 47                | 47               |
|               | □□□□ 관리   | 53                | 51                 | 60                | 54                | 53                | 54                | 62               |
|               | □□□□ 경찰   | 10                | 7                  | 7                 | 7                 | 9                 | 11                | 7                |
| 인 쇄           | 기 간       | 8. 3~<br>8. 20    | 10. 31~<br>11. 16  | 11. 7~<br>11. 23  | 11. 7~<br>11. 22  | 10. 28~<br>11. 13 | 11. 3~<br>11.19   | 11. 2~<br>11.18  |
|               | 일 수       | 18                | 17                 | 17                | 16                | 17                | 17                | 17               |
|               | 동원인원      | 127               | 128                | 129               | 136               | 126               | 122               | 126              |
|               | □□□□ 관리   | 20                | 20                 | 21                | 22                | 22                | 22                | 22               |
|               | □□□□ 인쇄   | 92                | 93                 | 93                | 86                | 83                | 83                | 89               |
|               | □□□□ 경찰   | 15                | 15                 | 15                | 28(14명씩)          | 21                | 17                | 15               |
|               | 문 제 지     | 3,769,920부        | 3,445,376부         | 3,632,832부        | 3,910,720부        | 3,852,376부        | 4,127,948부        | 4,983,924부       |

<표 II -4> (계속)

| 구 분    |       | 학년도                        |                              | '94학년도                                              | '95학년도                       | '96학년도                      | '97학년도                       | '98학년도                            | '99학년도 |
|--------|-------|----------------------------|------------------------------|-----------------------------------------------------|------------------------------|-----------------------------|------------------------------|-----------------------------------|--------|
|        |       | 1 차                        | 2 차                          |                                                     |                              |                             |                              |                                   |        |
| 시험시행공고 |       | '93. 6. 1                  | '93. 8. 16                   | '94. 8. 12                                          | '95. 8. 11                   | '96. 8. 1                   | '97. 8. 1                    | '98. 8. 1                         |        |
| 시험시행   | 시 험 일 | '93. 8. 21(금)              | '93. 11. 16(화)               | '94. 11. 23(수)                                      | '95. 11. 22(수)               | '96. 11. 13(수)              | '97. 11. 19(수)               | '98. 11. 18(수)                    |        |
|        | 시험지구  | 51                         | 51                           | 56                                                  | 59                           | 67                          | 69                           | 70                                |        |
|        | 시 험 장 | 658                        | 664                          | 702                                                 | 749                          | 771                         | 820                          | 828                               |        |
|        | 시 험 실 | 18,653                     | 18,838                       | 19,767                                              | 21,252                       | 20,887                      | 22,410                       | 22,046                            |        |
|        | 시험시간  | 340분                       | 340분                         | 360분                                                | 360분                         | 390분                        | 400분                         | 400분                              |        |
|        | 문 항 수 | 190                        | 190                          | 200                                                 | 200                          | 230                         | 230                          | 230                               |        |
|        | 점수 범위 | 200                        | 200                          | 200                                                 | 200                          | 400                         | 400                          | 400*                              |        |
|        | 출제 범위 | 전영역 공통범위 출제                |                              | □□□□언어·외국어<br>→공통출제<br>□□□□수리·탐구<br>→일부문항<br>계열별 출제 |                              | 좌동                          | 좌동                           | 수·탐Ⅱ에서<br>선택과목제<br>도입             |        |
|        | 응 시 자 | 716,326                    | 726,634                      | 757,488                                             | 809,804                      | 795,338                     | 854,245                      | 839,837                           |        |
|        | 응 시 율 | 96.4%                      | 96.8%                        | 96.9%                                               | 96.3%                        | 96.5%                       | 96.5%                        | 96.7%                             |        |
| 채 점    | 기 간   | 8. 21 ~<br>9. 23<br>(34일간) | 11. 17 ~<br>12. 17<br>(31일간) | 11. 23 ~<br>12. 21<br>(29일간)                        | 11. 23 ~<br>12. 21<br>(29일간) | 11. 14 ~<br>12. 6<br>(23일간) | 11. 20 ~<br>12. 18<br>(29일간) | 11. 19 ~<br>12. 18<br>(30일간)      |        |
|        | 동원 인원 | 53                         | 46                           | 105                                                 | 135                          | 146                         | 131                          | 152                               |        |
|        | 성적 통지 | 9. 24                      | 12. 18                       | 12. 22                                              | 12. 22                       | 12. 7                       | 12. 19                       | 12. 18                            |        |
|        | 성적 표시 | 3개영역별<br>원점수<br>백분위점수      | 3개영역별<br>원점수<br>백분위점수        | 4교시별<br>원점수<br>백분위점수                                | 4교시별<br>원점수<br>백분위점수         | 4교시별<br>원점수<br>백분위점수        | 4교시별<br>원점수<br>백분위점수         | 원점수 (백분위)<br>총점<br>표준점수<br>변환표준점수 |        |
|        | 만 점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400점                        | 400점                         | 만점 개념<br>없음 **                    |        |
|        | 채점기관  | KIST부설<br>시스템<br>공학연구소     | KIST부설<br>시스템<br>공학연구소       | 국립교육<br>평가원                                         | 국립교육<br>평가원                  | 국립교육<br>평가원                 | 국립교육<br>평가원                  | 한국교육과정<br>평가원                     |        |

\* 원점수 체제에서 점수범위는 400

\*\* 표준점수 도입으로 만점 개념이 없으며, 대입전형 활용의 편의 도모를 위해 400점 체제에 가깝도록 가중치를 부여한 표준점수(변환표준점수)를 산출하여 제공

<표 II -4> (계속)

| 구 분 \ 학년도     |        | '00학년도                      | '01학년도                     | '02학년도                      | '03학년도                      | '04학년도                     | '05학년도                       |
|---------------|--------|-----------------------------|----------------------------|-----------------------------|-----------------------------|----------------------------|------------------------------|
| 시행계획 발표       |        | '99. 3. 30                  | 00' 3. 29.                 | '01. 3. 22                  | '02. 3. 28                  | '03. 3. 31                 | 04.3.31                      |
| 응시원서<br>교부·접수 | 기 간    | 9. 1~9. 11<br>(10일간)        | 9.1~9. 16<br>(14일간)        | 8. 27~9. 8<br>(12일간)        | 8. 28~9. 10<br>(12일간)       | 8. 27~9.16<br>(12일간)       | 8.31~9.15<br>(12일간)          |
|               | 지원방법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               | 지 원 자  | 896,122                     | 872,297                    | 739,129                     | 675,922                     | 674,154                    | 610,257                      |
|               | 남      | 483,602                     | 465,546                    | 390,473                     | 356,418                     | 357,421                    | 324,700                      |
|               | 여      | 412,520                     | 406,751                    | 348,656                     | 319,504                     | 316,733                    | 285,557                      |
|               | 인 문 계  | 466,651                     | 481,027                    | 416,700                     | 365,892                     | 361,002                    | 계열구분<br>없음                   |
|               | 자 연 계  | 310,105                     | 256,608                    | 198,963                     | 204,790                     | 211,253                    |                              |
|               | 예 · 체능 | 119,366                     | 134,662                    | 123,466                     | 105,240                     | 101,899                    |                              |
|               | 재 학 생  | 631,745                     | 603,238                    | 541,662                     | 482,089                     | 476,129                    | 435,538                      |
|               | 졸 업 생  | 250,064                     | 254,538                    | 185,946                     | 179,880                     | 184,317                    | 161,524                      |
|               | 기 타    | 14,313                      | 14,521                     | 11,521                      | 13,953                      | 13,708                     | 13,195                       |
| 출 제           | 기 간    | 10. 18~<br>11. 17<br>(31일간) | 10.18~<br>11. 15<br>(29일간) | 10. 9~<br>11. 7<br>(30일간)   | 10. 9~<br>11. 6<br>(29일간)   | 10. 8 ~<br>11. 5<br>(29일간) | 10. 14 ~<br>11 .17<br>(35일간) |
|               | 인 원    | 214                         | 295                        | 299                         | 324                         | 328                        | 644                          |
|               | 출 제    | 98                          | 138                        | 139                         | 157                         | 156                        | 286                          |
|               | 검 토    | 47                          | 71                         | 71                          | 74                          | 74                         | 180                          |
|               | 관 리    | 69                          | 86                         | 89                          | 93                          | 98                         | 178                          |
| 인 쇄           | 기 간    | 11. 1~<br>11. 17<br>(17일간)  | 11. 1~<br>11. 15<br>(15일간) | 10. 24 ~<br>11. 7<br>(15일간) | 10. 24 ~<br>11. 6<br>(14일간) | 10. 23~<br>11.5<br>(14일간)  | 10.31~<br>11.17<br>(18일간)    |
|               | 인 원    | 128                         | 166                        | 154                         | 155                         | 156                        | 175                          |
|               | 문 제 지  | 5,203,692부                  | 5,446,332부                 | 4,618,080부                  | 4,250,736부                  | 4,253,868부                 | 6,039,972부                   |

<표 II -4> (계속)

| 구 분 \ 학년도 |       | '00학년도                             | '01학년도                                               | '02학년도                                                                                | '03학년도                    | '04학년도                    | '05학년도                                   |
|-----------|-------|------------------------------------|------------------------------------------------------|---------------------------------------------------------------------------------------|---------------------------|---------------------------|------------------------------------------|
| 시험시행공고    |       | '99. 8. 2                          | 00. 8. 1                                             | '01. 7. 10                                                                            | '02. 7. 10                | '03. 7. 9                 | '04.7.9                                  |
| 시험시행      | 시 험 일 | '99. 11. 17(수)                     | '00. 11. 15(수)                                       | '01. 11. 7(수)                                                                         | '02. 11. 6(수)             | '02. 11. 5(수)             | 04' 11.17(수)                             |
|           | 시험지구  | 71                                 | 73                                                   | 73                                                                                    | 73                        | 73                        | 73                                       |
|           | 시 험 장 | 1,017                              | 1,054                                                | 938                                                                                   | 878                       | 876                       | 912                                      |
|           | 시 험 실 | 28,304                             | 27,843                                               | 23,668                                                                                | 21,723                    | 21,710                    | 21,567<br>(대기실 837)                      |
|           | 시험시간  | 400분                               | 380분<br>제2외국어40분                                     | 380분<br>제2외국어40분                                                                      | 380분<br>제2외국어40분          | 380분<br>제2외국어40분          | <표III-1>                                 |
|           | 문 항 수 | 230                                | 220<br>제2외국어30                                       | 220<br>제2외국어30                                                                        | 220<br>제2외국어30            | 220<br>제2외국어30            | <표III-2>                                 |
|           | 점수범위  | 400*                               | 400*                                                 | 400*                                                                                  | 400*                      | 400*                      | 언,수,외 0~200<br>탐구 및<br>제2외국어/한문<br>0~100 |
|           | 출제범위  | '99학년도와<br>동일                      | '99학년도와 동일<br>(제2외국어 도입)                             | 좌동<br>(수리, 사회탐구,<br>과학탐구로 분리,<br>총 5개 영역)                                             | 좌동                        | 좌동                        | <표III-2>                                 |
|           | 응 시 자 | 868,366                            | 850,305                                              | 718,441                                                                               | 655,384                   | 642,538                   | 574,218                                  |
|           | 응 시 율 | 96.9%                              | 97.5%                                                | 97.2%                                                                                 | 97.0%                     | 95.3%                     | 94.1%                                    |
| 채 점       | 기 간   | 11. 18~<br>12. 17<br>(30일간)        | 11. 18~<br>12. 12<br>(27일간)                          | 11. 8~<br>12. 3<br>(26일간)                                                             | 11. 7~<br>12. 2<br>(26일간) | 11. 6~<br>12. 2<br>(27일간) | 11.18 ~<br>12.13<br>(26일간)               |
|           | 성적통지  | 12. 17                             | 12. 12                                               | 12. 3                                                                                 | 12. 2                     | 12. 2                     | 12.14                                    |
|           | 성적표시  | '99학년도와 동일<br>변환표준점수에 의한<br>백분위 추가 | '00학년도와 동일<br>제2외국어의 경우,<br>원점수,<br>표준점수(+백분위)<br>추가 | '00학년도와 동일<br>총점표지, 영역별 등급<br>5개 영역 종합등급<br>(등급은 별표에 의거,<br>다만 제2외국어의 경우<br>표준점수에 의거) | 좌동                        | 좌동                        | 영역/과목별<br>표준점수, 표준점수의<br>백분위, 및 등급 표기    |
|           | 만 점   | 만점 개념<br>없음 **                     | 만점 개념<br>없음 **                                       | 만점 개념<br>없음 **                                                                        | 만점 개념<br>없음 **            | 만점 개념<br>없음 **            | 만점개념 없음                                  |
|           | 채점기관  | 한국교육과정<br>평가원                      | 한국교육과정<br>평가원                                        | 한국교육과정<br>평가원                                                                         | 한국교육과정<br>평가원             | 한국교육과정<br>평가원             | 한국교육과정<br>평가원                            |

\* 원점수 체제에서 점수범위는 400

\*\* 표준점수 도입으로 만점 개념이 없으며, 대입전형 활용의 편의 도모를  
위해 400점 체제에 가깝도록 가중치를 부여한 변환표준점수를 제공함

### Ⅲ.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흔히 21세기를 지식·정보화시대라고 말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가 중시되고, 그러한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보다 서비스업과 같은 3차 산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다. 다양화·전문화·특성화로 특징지어지는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산업구조의 특징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수행능력을 갖춘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매일경제신문사, 1998; Drucker, 2002).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를 비롯한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화·전문화·특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이나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 새 학교문화 창조' 방안 등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우리나라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의 지향이다(교육부, 1998). 즉,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수·학습·평가 방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와 그에 따른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및 교수·학습·평가 방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학입학전형은 학생 개인으로서는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며, 대학으로서는 대학의 위상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대학 교육을 통해 길러낼 인재를 선별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대학입학전형은 일차적으로 대학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초·중등학교의 문제요,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대학 교육이나 초·중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에 대한 논의에서 빠

질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입학전형의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전형자료 등이 어떠한냐 하는 것이 초·중등학교 교육에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어떠한 학생들을 선발하느냐가 곧 대학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으로 약칭함)과 관련되는 정책은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되어왔다(백순근, 2003; 유영제, 2000; 이종승, 2000).

최근 부정행위 등 수능시험에 대한 여러 가질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일부에서는 수능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수능 자체가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서도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수능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위주로 출제하고, 각 영역(교과)별 수능 성적을 9등급으로만 제공하며, 출제방식을 문제는 형식 체제로 전환하고, 년 2회 또는 2일간의 시행을 검토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04). 하지만 교육부의 개선안이 도움은 되겠지만, 현행의 수능 위기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능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수능의 성격과 특성, 시행 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은 현행 수능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① 수능의 명칭 및 성격, ② 수능의 내용, ③ 수능의 출제 방법, ④ 수능의 시행 방법 및 절차, ⑤ 수능 결과의 활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수능시험의 개선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초·중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입 전형과 대학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현행 수능시험의 문제점을 요약하여 말하자면, 1993년부터(혹은 1994학년도부터) 도입된 현행 수능시험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초·중등학교 교육을 획일화·표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현행의 수능시험은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1년에 1회만 시행되고 있고,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출제되는 일종의 종합시험이며, 대학 진학 희망자들은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일종의 필수시험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는 다른 대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능 준비에만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나 교수·학습·평가방법이 획일화·대중화·표준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수능시험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① 수능의 명칭 및 성격, ② 수능의 내용, ③ 수능의 출제 방법, ④ 수능의 시행 방법 및 절차, ⑤ 수능 결과의 활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수능시험의 명칭 및 성격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능이라는 이름부터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는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즉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시험'에 목을 매달고 있다.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대학이 책임지고 파악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시·도교육청, 일선 고등학교 등이 그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선 고교가 고유한 목적을 가진 교육기관이라는 인식보다 수능 준비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출제에 고교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며,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 출

발점으로 수능의 이름을 가칭 ‘고등학교졸업자격시험’이나 혹은 ‘학력고사’로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름변경과 함께 시험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수능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2~3학년에 이수하게 되어 있는 심화 선택 과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고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또한 학생의 능력, 진로, 필요, 흥미를 중시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시험 영역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은 범교과적 소재를,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목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a). 2005학년도 수능은 이전의 수능에 비해 교과목별 학력고사(achievement test, 현재의 성취수준을 재는 검사)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지만, 여전히 언어 및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범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출제하도록 하기 때문에 학업적성검사(scholastic aptitude test, 미래의 성취기대수준을 재는 검사)의 성격도 많이 띠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고 있는 언어 및 외국어(영어) 영역은 범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등학교에서 직접 가르치고 배운 교과목에 대한 학력고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 교육에 적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학업적성검사도 아닌 애매모호한 시험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각 교과목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언어 및 외국어(영어) 영역에서는 범교과적인 내용이 많이 출제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각 교과목별 내신과 범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겪는데 비해, 재수생들은 수능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짙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험의 성격을 교과목별 학력고사로 하거나 아니면 학업적성검사

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체제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시험의 성격을 교과목별 학력고사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학업적성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교과목별 학력고사인 대학입시센터시험이나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를 각각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체제가 없는 미국의 경우에는 학업적성검사라고 할 수 있는 SAT I 과 교과목별 학력고사라고 할 수 있는 SAT II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 2. 수능시험의 내용

2005학년도에 시행된 수능의 내용(혹은 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시험시간 및 영역별 배점과 문항수는 <표Ⅲ-1>과 같다. 그리고 시험 문항의 형태는 5지 선다형이다. 다만 수리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되 모든 문항의 답은 OMR 답안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각 문항당 배점은 언어 및 외국어(영어) 영역은 1, 2, 3점, 수리 영역은 2, 3, 4점,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차등 배점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b).

현행 수능 내용의 문제점은 각 영역별로 수험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한 종류의 시험뿐이고, 또 문항의 형태가 선다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자신의 수준이나 특성에 따라 다른 유형의 시험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 교과목에 대한 선택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특정 과목에서 수준이 다른 시험이 있

는 것도 아니고, 수능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표Ⅲ-1> 2005학년도 수능의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배점·문항수

| 교시 | 시험 영역          | 시험 시간                       | 배점  | 문항수 | 비 고                                    |
|----|----------------|-----------------------------|-----|-----|----------------------------------------|
| 1  | 언 어            | 08 : 40 ~ 10 : 10<br>(90분)  | 100 | 60  | ○ 듣기문항 6개 포함<br>· 08:40부터 15분 이내       |
| 2  | 수 리            | 10 : 40 ~ 12 : 20<br>(100분) | 100 | 30  | ○ 단답형 30% 포함                           |
| 3  | 외국어(영어)        | 13 : 20 ~ 14 : 30<br>(70분)  | 100 | 50  | ○ 듣기·말하기 문항 17개 포함<br>· 13:20부터 20분 이내 |
| 4  | 사회/과학/직업탐구     | 15 : 00 ~ 17 : 06<br>(126분) |     |     | ○ 문제지 회수 시간은 과목당 2분임                   |
|    | 시험 : 4과목 선택자   | 15 : 00 ~ 15 : 30<br>(30분)  | 50  | 20  |                                        |
|    |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 15 : 30 ~ 15 : 32<br>(2분)   |     |     |                                        |
|    | 시험 : 3~4과목 선택자 | 15 : 32 ~ 16 : 02<br>(30분)  | 50  | 20  |                                        |
|    |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 16 : 02 ~ 16 : 04<br>(2분)   |     |     |                                        |
|    | 시험 : 2~4과목 선택자 | 16 : 04 ~ 16 : 34<br>(30분)  | 50  | 20  |                                        |
|    |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 16 : 34 ~ 16 : 36<br>(2분)   |     |     |                                        |
|    | 시험 : 1~4과목 선택자 | 16 : 36 ~ 17 : 06<br>(30분)  | 50  | 20  |                                        |
| 5  | 제2외국어 / 한문     | 17 : 35 ~ 18 : 15<br>(40분)  | 50  | 30  | ○ 8개 과목 중 택1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수능의 유형이나 수준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획일적인 시험으로는 학생들의 수준을 제대로 변별할 수 없다. 학생의 소질이나 수준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시험의 유형이나 수준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예컨대, 쉬운 형태의 시험과 어려운 형태의 시험으로 이원화하거나, 혹은 쉬운 시험, 중간 정도의 시험, 어려운 시험 등으로 다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과목의 시험이라도 수험생의 특성이나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다른 것 중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학업적성시험에 해당하는 비교적 쉬운 SAT I, 교과목별 학력고사에 해당하는 중간 정도의 SAT II, 매우 어려운 학력고사라 할 수 있는 AP(advanced placement) 시험 등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시험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 수능은 모든 과목을 하루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교사나 학생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직업탐구의 각 교과목별 문항수도 20개에 불과하고 시험 시간도 30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교과목의 성취도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동점자가 너무 많아져서 9등급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지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윤리과목의 경우 동점자 때문에 4%이어야 할 1등급이 17.37%가 되는 바람에 2등급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2004년 12월 15일자 조선일보). 각 교과별 시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2과목을 보되 과목별로 2~3시간동안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나, 그것이 어려우면 적어도 수능을 2~3일 동안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시험의 내용을 ‘기초공통시험’과 ‘교과목별 선택시험’으로 이분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가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교과목선택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수능은 ‘기초공통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2~3학년의 교과목

선택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하고 있는데, 이는 초·중·고에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소홀히 다룰 가능성을 높여 공교육 부실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수능의 출제 및 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문항의 질(質)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현행 수능은 출제 과목 수만 해도 51개에 이른다(<표Ⅲ-2> 참조). 또한 출제 및 인쇄를 위해 총 819명, 즉 645명의 출제위원단(출제 위원 223명을 포함)과 174명의 인쇄본부 요원이 동원되었다(2004년 11월 17일자 연합뉴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선정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제하고 인쇄할 공간 확보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공통필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근거한 '기초공통시험'과 교과목선택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목별 선택시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모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초공통시험'을 실시하되, '교과목별 선택시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 상위 몇 퍼센트 이내 혹은 '기초공통시험' 몇 점 이상 등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 수능의 출제 및 관리의 융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능시험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출제 교과목의 수를 현행 51개에서 필수과목 위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능의 이원화는 미국의 SAT를 SAT I과 SAT II로 이원화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끝으로, 문항의 형태도 선다형이 아닌 서술형이나 논술형 등 수행평가 문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영국의 수능시험이라 할 수 있는 GCSE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의 고등 사고기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서술형이나 논술형 등 수행평가 문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 SAT의 경우에도 2005년부터 실제로 작문하도록 하는 쓰기시험을 도입하기로 계획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표Ⅲ-2>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출제 범위

| 영역 \ 구분                        |          | 문항수       | 출제 비율                             | 출제 범위 (선택 과목)                                                                                                                                                                           |
|--------------------------------|----------|-----------|-----------------------------------|-----------------------------------------------------------------------------------------------------------------------------------------------------------------------------------------|
| 언어                             |          | 60        | 100%                              |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
| 수리<br>(택1)                     | ‘가’형     | 30        | 수학 I 12문항<br>수학 II 13문항<br>선택 5문항 | 수학 I + 수학 II +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 과목 중 택 1)                                                                                                                                     |
|                                | ‘나’형     | 30        | 수학 I 100%                         | 수학 I                                                                                                                                                                                    |
| 외국어<br>(영어)                    |          | 50        | 100%                              |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                                                                                                                                                                       |
| 사회/<br>과학/<br>직업<br>탐구<br>(택1) | 사회<br>탐구 | 과목당<br>20 | 100%                              | 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중 최대 택4                                                                                            |
|                                | 과학<br>탐구 | 과목당<br>20 | 100%                              |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등 8과목 중 최대 택4(단,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과목 중에서는 최대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함)                                                                       |
|                                | 직업<br>탐구 | 과목당<br>20 | 100%                              | 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등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택1<br><br>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수산 일반, 해사 일반, 해양 일반,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 프로그래밍 등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택2 |
| 제2외국어 /<br>한문                  |          | 과목당<br>30 | 100%                              |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한문 등 8과목 중 택1                                                                                                                       |

### 3. 수능시험의 출제 방법

수능시험의 출제 방법은 한 마디로 ‘감금식 혹은 폐쇄형 출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정 장소에서 약 30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각 영역별 출제진들이 문항을 출제하는 방식이다. 약 30일 정도의 감금 기간은 약 15일 내외의 출제 및 검토 기간과 약 15일 내외의 인쇄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금 기간 동안은 시험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제 장소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외출은 물론 외부와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으며, 시험 문항의 출제가 끝나도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감금 상태에 있게 된다.

출제진들은 출제 장소에 입소한 후 약 1주일에 걸쳐 문항의 초안을 완성하며, 출제가 시작된 날로부터 약 1주일 이후에 출제진과는 별도로 검토진이 출제 장소에 합류하여 문항의 검토 및 수정작업을 돕는다. 출제진과 검토진은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문항들을 이용하되 선택지의 위치만을 다르게 한 홀수형과 짝수형의 2개 유형으로 제작한다.

수능의 출제 방법과 관련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은 ‘재택(在宅) 출제 방식’, 즉 출제자들이 특정 장소에 감금되지 않고 집이나 연구실 등에서 자유롭게 문항을 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감금식 출제 방식은 유능한 출제진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시험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출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감금식 출제 방식은 특정 장소에 감금되어 있어야 하는 것 때문에 유능한 전문가들이 출제진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비록 출제진에 참여했다고 해도 출제하고 검토하는 기간이 약 15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제한 문항의 질을 보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감금되어 있는 출제진이나 검토진 등은 직계가족이 아니면 친척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요원을 대동한 상태에서 잠시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감금식 출제 방식을 이제는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재택출제 방식으로

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 감금식 출제 방식이 아닌 재택 출제 방식을 택한다면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면서 출제하고 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질적으로 좀 더 좋은 문항을 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SAT나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경우 재택출제 방식을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 2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문항을 출제하고 또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능을 1년에 여러 번 시행한다거나 다양한 유형이나 수준의 시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은행식 운영이 필요하며, 문제은행식 운영을 위해서도 재택 출제 방식의 도입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수능 문항을 출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방향 중 하나로 각 교과목별로 검사개발요강(test development manual)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EBS 방송 등을 통해 출제 방법에 대한 연수를 하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은행식 운영을 위해서 검사개발요강의 제작·배포 및 연수를 통하여 출제 가능한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출제진의 자질 문제나 사전 문제유출 문제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문항 출제진과 검토진을 별도로 구성·운영하되, 최종적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선정하는 선정팀은 출제진이나 검토진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4. 수능시험의 시행방법 및 절차

현행 수능의 경우 기본정책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결정하고, 그 정책에 따른 시행만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과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다. 이때 평가원은 시험의 출제 및 인쇄·배부, 그리고 채점 및 성적을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시·도 교육청은 응시원서를 교부·접수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운송·보관하며, 시험의 실시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b). 참고로, 2005학년도 수능은 2004년 11월 17일에

시행되었으며, 응시생수는 약 60만 명이었고, 시험장 수는 912개이었으며, 약 2만 1천개의 교실에서 실시되었으며, 감독자 수는 약 6만 5천명이었다. 수능 점수는 2004년 12월 14일에 응시생에게 제공된다.

시험의 시행방법 및 절차의 개선 방안은 수능을 1년에 여러 번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수능과 같이 대학입학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시험을 1년에 1회 시행하는 것은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단 1번의 시험으로 자신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도 미국의 SAT처럼 1년에 6~7회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1년에 2~3회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마저도 어려우면 최소한 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경우와 같이 '추가시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험의 실시 방식을 장기적으로는 지필식 시험에서 미국의 TOEFL이나 GRE시험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험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수능시험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수능과 같은 전문적인 일을 이제는 평가원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현재는 수능에 대한 기본 정책들을 모두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립한 다음, 그 정책에 따른 시행만을 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몇 개월 만에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수능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설사 자주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그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평가원이 수능에 대한 정책수립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현 수능의 내용이나 출제 및 시행 방법 등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 수능을 개혁하여 수능의 명칭을 바꾸거나, 성격을 분명히 하거나, 유형이나 수준을 다양화하거나, 과목별 시험을 전문화 하거나,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연 2회 이상 실시하거나, 채택

출제방식을 도입하거나, 문제은행을 구축·운영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시험으로 발전시키는 것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40년대부터 수능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시험을 평가전문기관인 ETS나 ACT에 완전히 위임하여 전문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현재 미국의 ETS의 직원이 약 2500명, ACT의 직원이 약 1300명 정도임을 감안하여, 수능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위해서 현재 130여명에 불과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직원을 대폭 늘리고, 행·재정적인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ACT, 2004; ETS, 2004).

한편, 수능의 시행을 평가원과 시·도교육청이 주관할 것이 아니라, 평가원과 함께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 대학이 주관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능의 관리를 시·도교육청이나 일선 고등학교가 주관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수능의 명칭과 함께 이 또한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는 인식보다 대학입학시험 준비 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학보다는 국가가 대학입학시험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대학입학시험을 대학이 주관하도록 하여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교육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제도를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대학입시센터와 해당 대학이 시험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 희망자의 약 50%만이 대학입시센터시험에 응시하고 있고, 사립대학의 약 50%만이 그 시험 성적을 대학입학전형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입전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백순근, 2001; 2003).

## 5. 수능시험의 결과 활용

수능시험의 결과는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로 활용된다. 그리고 개별 수험생은 자신의 성적을 개인별로 통보 받아 확인한 상태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이 시험 성적을 대학입학전형에서 활용하고 있다.

수능의 결과 활용은 개별 대학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개선이 있기는 하였지만,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점수 활용을 지양하고, 각 모집단위(학부나 학과)의 성격이나 특성에 부합하는 영역별 점수를 활용하는 것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어 관련 학과는 언어영역 점수를, 영어 관련 학과는 외국어 영역 점수만을 활용하거나 혹은 그 영역의 가산점을 더욱 확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을 적어도 2년 이상으로 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재수생이나 삼수생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김현원, 2002). 아울러 단위 대학도 대학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수능의 결과를 전혀 활용하지 않거나, 개별 모집 단위별로 활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 수능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표Ⅲ-3>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선방향은 충분한 준비와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 방향들을 제대로 정착시킨다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단위 대학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선 방향들을 우리의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Ⅲ-3> 현행의 수능시험과 개선 방향 (요약)

| 주요내용                 | 수능시험 (현행)                                                                                                                                                                      | 개선 방향                                                                                                                                                                                          |
|----------------------|--------------------------------------------------------------------------------------------------------------------------------------------------------------------------------|------------------------------------------------------------------------------------------------------------------------------------------------------------------------------------------------|
| 시험의<br>명칭 및<br>성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수학능력시험</li> <li>- 대학 교육을 위한 시험</li> <li>- 범교과적 소재를 이용한 시험, 학력고사와 학업적성검사의 통합형</li> <li>- 모든 응시생들을 위한 시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졸업자격시험 혹은 학력고사로 변경</li> <li>- 고등학교 교육을 위한 시험</li> <li>- 교과목별 학력고사로 하되, '기초공통시험'과 '교과목별 선택시험'으로 이원화</li> <li>- '과목별 선택시험'의 경우 응시자격을 제한함</li> </ul> |
| 시험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 유형의 시험(내용면)</li> <li>- 단일 수준의 시험(난이도면)</li> <li>-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li> <li>- 51개 교과목에 대한 시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유형의 시험(내용면)</li> <li>- 다양한 수준의 시험(난이도면)</li> <li>- 서술형이나 논술형 등 수행평가 문항을 포함</li> <li>- 일부 필수 교과목으로 제한</li> </ul>                                   |
| 시험의<br>출제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금식 출제 방식<br/>(출제진이 최종 문항 선정)</li> <li>- 1회용 문제지 개발 방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택 출제 방식<br/>(출제진과 최종 문항 선정 팀 분리)</li> <li>- 문제은행식 운영 방식 도입</li> </ul>                                                                                |
| 시험의<br>시행 방법<br>및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가 수능의 기본 정책을 수립, 평가원에 위탁 시행</li> <li>- 평가원과 시·도 교육청 시행</li> <li>- 1년에 1회 실시</li> <li>- 1일에 모두 시행</li> <li>- 지필식 시험으로 실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원이 정책수립 및 시행 전담</li> <li>- 평가원과 대학이 시행</li> <li>- 1년에 여러 번 실시</li> <li>- 여러 날에 걸쳐 시행</li> <li>- 지필식, 컴퓨터식, 인터넷식을 병행하여 실시</li> </ul>                 |
| 시험의<br>결과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성적 1년간 유효</li> <li>- 모든 영역의 점수 활용</li> <li>- 전국 거의 모든 대학에서 활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성적 2년 이상 유효</li> <li>- 특정 영역의 점수 활용</li> <li>- 대학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선별적 활용</li> </ul>                                                                     |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출제나 관리 방식의 개선 만으로는 현행의 수능시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능시험의 이름이나 성격을 포함한 수능체계 전체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대입전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학벌(學閥) 혹은 학력(學歷) 위주의 사회가 아닌 실력이나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될 때 수능시험을 포함한 대입전형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입학이 곧 졸업’이고, ‘졸업이 곧 출세’라는 풍토가 지속되는 한 대학입학전형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IV. 외국의 대학입학시험체제 및 시사점

### 1. 미국

#### 가. 대학입학제도

미국의 학생 선발권은 대학에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대학입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주 정부도 몇 가지 원칙만 제시할 뿐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다. 각 대학은 대학별 나름대로의 입학기준(admission standards)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대학 입학 전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이다. 고등학교 학업 성적(grade point average: GPA) 혹은 순위, ACT, SAT I (학업적성검사), SAT II (교과학력시험)와 같은 입학시험 점수, 추천서, 면접 점수, 수필(자기소개, 주요 경험,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작문 등), 건강진술서, 거주하는 주, 포트폴리오나 오디오, 이수과목, 희망전공, 재정적 지원요구 여부, 과외활동(동아리, 운동, 지역서비스, 직업 등) 및 학생의 특기, 인종 등이 그 예이다. 대부분 대학에서 입학을 위한 SAT나 ACT의 최소점수를 정하지 않는다. SAT나 ACT점수는 고등학교 성적과 함께 고려했을 때 대학에서의 성공적 교육이수에 대한 예언력이 크므로, 이들 점수는 학생들에 대한 다른 정보와 함께 입학사정 시 고려된다. 학생 선발 시 차별시정계획(affirmative action)에 따라 인종 요인도 대학입시에 중요하게 고려된다.

대부분의 대학은 정시모집을 위해 12월 15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입학지원서를 받고, 합격자들은 대개 가을학기에 등록을 하게 된다. 조기모집의 경우 보통 11월 15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지원서를 받는다. 아래에서는 미국의 대학 입학시험인 SAT I, SAT II, ACT 검사에 대해 개괄한다.

## 나. 시험 유형

### 1) SAT I (학업적성검사)

SAT는 1926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난 78년 동안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입학사정에 활용되어 왔다. SAT를 치르는 수험생의 수는 1926년에 8,040명에서 최근에는 3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Lawrence, Rigol, van Essen, & Jackson, 2003; The college board, 2003). SAT는 언어추론과 수리추론능력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학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SAT는 문항유형, 검사시간, 시행절차 등에 있어서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름도 1994년부터는 SAT I으로 바뀌었고, 의미 또한 학업적성검사(Scholastic Aptitude Test)에서 학업사정검사(Scholastic Assessment Test)로 바뀌었다.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쳐 SAT I은 초기의 퍼즐해결식 문항유형과 많이 달라졌으며 지금은 수험생들이 일상 학교에서 접하는 문제유형으로 변화하였다.

SAT I은 2005년 3월부터 다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대학위원회는 공고하였다(The college board, 2003). SAT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대학위원회는 1900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4,300개 이상의 학교, 대학교 및 다른 교육기관들의 연합체이다. 변화의 이유는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난 사회 변화와 함께 대학가의 교육목표에도 변화가 있어 왔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쓰기(writing)영역 시험의 추가이다. 쓰기영역은 창의적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쓰기 기술을 측정하려는 것이며, 에세이를 직접 작성하는 시간이 25분 주어진다. 둘째는 언어추론검사의 이름이 'verbal reasoning'에서 'critical reasoning'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언어추론검사에서 측정하려는 것 또한 달라지는데 기존의 어휘 중심의

단순한 문제에서 과학, 역사, 인문학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문제에서 독해력을 측정하게 된다. 셋째는 수리추론검사의 난이도 증가로, 절대치, 유리수 방정식과 부등식, 무리수 방정식 등의 영역이 검사범위에 추가된다. 따라서 새롭게 적용되는 SAT I 은 작문, 언어, 수리 세 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과목당 800점 만점으로 총점은 2,400점이 되며, 시험시간 또한 기존의 3시간에서 에세이 작성 25분이 추가되어 3시간 30분 정도로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SAT II 는 교과학력검사로 22개 과목에서 수험생의 교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식의 보유 여부 및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2002년에는 과목에 따라 적게는 465명에서 많게는 217,179명이 치렀다(Kobrin, Camara, & Milewski, 2002). 다음에서는 SAT I 과 II 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 가) 출제기관

SAT I 과 II 의 개발, 시행, 점수보고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미국대학위원회에서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위탁하였다. 즉, 미국대학위원회는 이들 검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개발 및 시행은 ETS에서 대행하고 있다. ETS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육 측정 및 평가 전문기관이며,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SAT, GRE, TOEFL, TOEIC을 포함한 대규모 검사프로그램 14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1947년 당시 폭증하는 각종 검사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ETS는 동 년도에 미국대학위원회로부터 SAT를 넘겨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었다. ETS의 인력은 약 2,500명 정도이며, 이 중 전문가는 약 1,100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학, 심리학, 통계학, 그리고 심리측정학을 비롯하여 컴퓨터 과학, 사회학, 자연과학 및 인문과학 분야의 전공자들이다.

#### 나) SAT I 검사의 목적과 배경

SAT I 은 수험생들의 언어와 수리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수험생들이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SAT I 은 개발되었다. 그러나 SAT I 은 미국 대학입학에 필요한 유일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대학입학 사정에 필요한 하나의 보충적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미국대학위원회는 권장하고 있다.

SAT I 의 전신인 SAT의 개발 배경을 살펴보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수험생의 학교 성적 정보에 오류 및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많았다. 또한 당시에는 교과 지식과 밀접히 관련 있는 논술형 시험을 치렀는데 국가수준의 전국 공통 교육과정이 없었으므로 출신 학교에 따라 일부 수험생들은 어떤 특정 과목을 전혀 수강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특정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과 지식과 밀접히 관련된 논술형 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국가단위의 교육과정이 없음으로 인해 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이 매우 달라서 각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성적의 의미가 매우 다름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대학수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학교 간 교육과정의 차이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의 문제를 해소하며, 동시에 기초적인 수학능력이 부족한 수험생을 변별하려는 목적으로 어디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던지 간에 모든 수험생을 공통의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를 개발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의 산출물이 바로 SAT이다.

따라서 SAT I 은 특정 주나 학교구의 교육과정 및 특정 교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 이수에 필요한 기초적이면서도 학교생활 안팎에서 개발된 언어와 수리에 대한 적성을 측정한다. 언어와 수리 영역 내 실제 문항들은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는 않지만 학교 교육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발하였다.

#### 다) SAT I 검사의 구성

SAT I 은 총 3시간에 걸쳐 시행되는데 언어추론, 수리추론, 그리고 동등화

용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추론검사는 총 78문항을 75분에 풀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IV-1> 참조). 수리추론검사는 총 60문항을 75분에 풀도록 구성되어 있다. 동등화용 검사는 30분 동안 풀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언어추론 혹은 수리추론검사의 문항이 나온다. 동등화용 검사는 개인 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 회 SAT I 을 위한 예비문항들이다. 1993년까지 SAT에 포함되었던 TSWE는 SAT I 에서는 제외되었고, 대신 SATII의 작문시험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표IV-1> SAT I 검사의 구성 개요

| 하위 검사                                 | 하위 영역                | 문항 수                                       | 검사 시간                                       |
|---------------------------------------|----------------------|--------------------------------------------|---------------------------------------------|
| 언어추론검사<br>(verbal reasoning test)     | 비판적 독해<br>유추<br>문장완성 | 40 문항<br>19 문항<br>19 문항<br>총 78문항          | 2개의 30분 section<br>1개의 15분 section<br>총 75분 |
| 수리추론검사<br>(mathematic reasoning test) | 산술 추론<br>대수 추론<br>기하 | 선다형 문항: 50 문항<br>학생 산출반응문항: 10문항<br>총 60문항 | 2개의 30분 section<br>1개의 15분 section<br>총 75분 |
| 동등화용 검사                               | 언어추론 혹은 수리추론         | .                                          | 1개의 30분 section                             |

### (1) SAT I 언어추론검사

SAT I 언어추론검사의 하위 영역별 문항수와 전체 검사시간은 <표I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쳤다. 예를 들어, 반의어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완전히 제외되었다. 또한 1994년부터 단순 독해가 아닌 비판적 독해로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지문의 수도 4개로 줄어들었고, 문항수도 85문항에서 78문항으로 줄었다. 반면 검사시간은 비판적 독해가 사고력을 더 요구한다는 이유로 60분에서 75분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학생이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든지 간에 그들의 비판적 독해 능력이 대학에서의 학문적 성공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표Ⅳ-2> SAT I 언어추론검사의 하위 영역별 연도별 문항수 변화

| 하위 영역   | 1958-1974   | 1974-1978   | 1978-1994   | 1994-2004   |
|---------|-------------|-------------|-------------|-------------|
| 반의어     | 18          | 25          | 25          |             |
| 유추      | 19          | 20          | 20          | 19          |
| 문장완성    | 18          | 15          | 15          | 19          |
| 독해      | 35<br>7개 지문 | 25<br>5개 지문 | 25<br>6개 지문 | .           |
| 비판적 독해  | .           | .           | .           | 40<br>4개 지문 |
| 전체 문항수  | 90          | 85          | 85          | 78          |
| 전체 검사시간 | 75분         | 60분         | 60분         | 75분         |

현행 SAT I 언어추론검사의 문항 분류체계는 <표Ⅳ-3>에 좀 더 상술되어 있다. 언어추론검사는 크게 비판적 독해, 유추, 문장완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추론검사의 문항 중 절반 이상은 지문에 바탕을 둔 것이다. 네 개의 지문이 제시되고 지문 당 5-13개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지문에서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은 최소화되며, 특정 전공에 유리한 지문은 출제되지 않는다. 즉, 모든 지문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수준의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지문을 선택하되 특정 전공에 유리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면서도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미리 접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 지문들을 선택한다.

지문을 선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지문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혹은 화법구조(픽션 혹은 논픽션) 분야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지문에서 남녀의 성비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한 개의 지문은 소수 인종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한 쌍을 이루는 두개의 지문은 서로 내용상 보완적, 반증적, 혹은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둘째는 길이와 관련된 것이다. 지문에 포함된 단어는 보통 400단어에서 850단어 이내여야 한다.

각 지문은 보통 소재에 대한 간단한 소개의 글로 시작한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어려운 전문적 용어들은 각주를 통해 용어 해설을 제공한다. 비판적 독해 문항들은 보통 세 가지 능력을 측정한다. 첫째, 문맥에 적절한 단어

의 의미추론능력이다. 이것은 지문을 읽고 문맥상 주어진 단어나 문구의 가장 적절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형태를 취한다. 둘째는 지문에 포함된 핵심적 측면들에 대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셋째로 의미의 통합, 추론, 종합하는 능력, 논지의 이해, 저자의 의도 파악 등을 묻는다. 또한 두개의 지문이 한 쌍으로 제시되었을 경우 두 지문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나 논지를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표Ⅳ-3> SAT I 언어추론검사 문항의 분류체계

| 문항유형   | 문항 분류 차원                                                                        | 문항수      | 문항 비율 |
|--------|---------------------------------------------------------------------------------|----------|-------|
| 비판적 독해 | 내용: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화법구조 영역에서 3개의 지문 선택(500단어, 650단어, 800단어)+1쌍의 800단어로 구성된 지문 | 총 40문항   | 51%   |
| 어휘     | 문장 중에서 단어의 의미를 유도                                                               | 4-7      |       |
| 직해     | 주요 지문의 문자적 의미의 이해                                                               | 4-5      |       |
| 추론     | 추론, 의미통합, 종합, 논리의 추적, 저자의 의도 확인 등                                               | 28-32    |       |
| 문장완성   | 내용: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간관계(각각에서 4-6문항)                                           | 총 19문항   | 24%   |
|        | 구조: 하나 혹은 두개의 빈 공간이 있는 문장 완성                                                    | 각 각 8-11 |       |
|        | 기능: 단어의 의미를 알고, 문장의 각 부분 간 논리적으로 연결을 이해하며, 문맥상 의미를 추론하는 것                       |          |       |
| 유추     | 내용: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간관계(각각에서 4-6문항)                                           | 총 19문항   | 24%   |
|        | 용어의 추상성:                                                                        |          |       |
|        | 추상적                                                                             | 5-7      |       |
|        | 구체적                                                                             | 5-7      |       |
|        | 혼합적                                                                             | 5-9      |       |
|        | 기능: 단어의 의미를 알고, 단어간 관계를 이해하며, 유사한 관계를 다른 단어 쌍에서 인식하는 것                          |          |       |

문장완성과 유추에 관한 문항들은 4개의 하위영역(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간관계)에서 출제된다. 문장완성 질문은 다시 빈칸이 하나인 경우와

두개인 경우로 나뉜다. 문장완성 문항은 빈칸에 있는 단어와 나머지 단어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장 내에서의 내적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며, 문장 전체에서 암시하는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파악해 내는 능력을 측정한다. 유추에 관한 문항들은 다시 용어의 추상성에 따라 세 가지 범주(추상적, 구체적, 혼합적)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두개의 단어가 주어지고, 이들 두 단어의 관계를 파악하여 답지에서 동일한 관계를 갖는 단어 쌍을 찾는 것이다.

## (2) SAT I 수리추론검사

SAT I 수리추론검사의 하위 영역별 문항수와 전체 검사시간은 <표Ⅳ-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면, 자료 총족성 영역은 1974년부터 삭제되고, 1994년부터는 학생산출반응(student-produced responses)이 추가 되었다. 전체 문항수는 60문항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검사시간은 1974년에서 1994년까지만 60분이었고, 그 외의 기간에는 75분이었다. 5지선다형의 문항수는 1942년도에 48문항이었던 것이 현재는 35문항으로 점차로 줄어들었으며, 1994년부터 단답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표Ⅳ-4> SAT I 수리추론검사의 하위 영역별 연도별 문항수 변화

| 하위 영역   | 1942-1959 | 1959-1974 | 1974-1994 | 1994-2004 |
|---------|-----------|-----------|-----------|-----------|
| 5지선다    | 48        | 42        | 40        | 35        |
| 자료 총족성  | 12        | 18        | .         | .         |
| 양적비교    | .         | .         | 20        | 15        |
| 학생산출반응  | .         | .         | .         | 10        |
| 전체 문항수  | 60        | 60        | 60        | 60        |
| 전체 검사시간 | 75분       | 75분       | 60분       | 75분       |

현행 SAT I 수리추론검사의 문항 분류체계는 <표Ⅳ-5>에 좀더 상술되어 있다. 수리추론검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5지선다형 문항으로 35문항이 출제된다. 둘째는 양적비교 유형이다. 여기에

는 15개의 문항이 있으며, 두 칼럼에 두개의 양(quantities)을 주고 어떤 것이 크거나, 같은지, 혹은 주어진 정보로 판단이 어려운 것인지에 관해 묻는다. 이 문항들은 계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추리적 추론능력을 측정한다. 셋째, 학생산출반응은 선택형이 아닌 단답형으로 수험생이 직접 답을 써야 한다.

<표Ⅳ-5> SAT I 수리추론검사 문항의 분류체계

| 하위 영역 | 분류       | 문항비율(%) |
|-------|----------|---------|
| 내용    | 산술추론     | 27      |
|       | 대수추론     | 27      |
|       | 기하추론     | 27      |
|       | 기타       | 19      |
| 상황    | 구체적      | 28      |
|       | 추상적      | 72      |
| 추론과정  | 일상적      | 12      |
|       | 종합적      | 55      |
|       | 비일상적/통찰적 | 33      |

수리추론검사의 문항은 또한 세 가지 하위영역 즉 내용, 상황, 추론과정으로 분류된다. 내용은 다시 산술추론, 대수추론, 기하추론, 그리고 기타로 나뉜다. 상황은 구체적 상황과 추상적 상황으로 구분된다. 추론과정은 일상적, 종합적, 비일상적/통찰적 추론으로 또한 구분된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계산기의 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계산기의 사용이 시험의 엄정성에 영향을 미쳐서 논란이 되기는 하였으나, 미국대학위원회와 ETS는 계산기가 이미 수학 공부에 필요한 도구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하고 또한 계산보다는 문제해결력을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계산기의 사용을 허용하였다. 계산기 사용 및 학생산출반응 문항의 도입은 모두 미국 수학 교사협회의 교육 및 평가 기준과 합치되는 것이어서 미국 수학 교사들의 지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라) 검사 개발 절차

ETS에서 SAT검사를 개발하여 실제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검사 개발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검사개발 지침에 따른 검사의 구성: 검사를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두 가지 검사상세표(test specification)는 내용과 관련한 상세표(content specification)와 통계적 특성 관련 상세표(statistical specification)로 구분된다. 이 상세표에는 어떤 내용에서 문항이 출제되어야 하며 검사의 난이도, 변별도, 문항편파성 등과 관련해서 어떤 문항이 검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세표에 따라 문항을 개발해야만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된 검사의 점수를 동등화 했을 때,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② 시안 형태의 문항 개발: 처음 출제자가 만들어 온 그대로의 시안 형태 문항 중 상당수는 기관 내부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다. 일부 문항은 외부인에게 의뢰되는데, '공모'의 형태를 띠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개는 실력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에게 직접 의뢰하거나 이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의뢰하는 형태로 문항을 개발한다. 또한 지문 자체를 공모하는 경우도 있으며, 채택된 지문을 토대로 ETS 내부의 연구진에 의해 문항이 개발되는 경우도 있다.

③ 예비 검사 실시: 새롭게 개발된 문항은 실제 검사에 포함하기 이전에 정규 검사의 일부 섹션에 예비문항을 넣는다. 물론 이들 문항들은 수험생들의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얻은 각 문항에 대한 문항반응 정보는 문항의 양호도 분석에 활용된다.

④ 양호한 문항들의 문제은행 저장: 예비 검사 실시 결과 문항의 양호도가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은행에 저장된다. 또한 예비검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 문항은 추가적 수정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⑤ 검사의 구성: 문제은행에 있는 문항들을 검사 구성 원칙에 따라 골라

서 새로운 검사를 만든다.

⑥ 검사의 실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검사는 정규 검사 일에 실시된다.

#### 마) SAT I 점수 체제

SAT I 점수가 수험생에게 보고될 때는 원점수가 아닌 척도점수로 보고된다. SAT I 은 연간 7회 실시되는데 각 검사의 원점수 난이도 차이에 의한 수험생의 이익 혹은 불이익을 없애고자 검사동등화 과정을 거치며, 동등화된 점수는 척도점수로 전환된다. 그래서 각 수험생은 척도점수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척도점수는 수험생이 시험을 언제 치렀든 지에 상관없이 상호 직접 비교가 가능한 점수이다. SAT I 의 점수 범위는 200점부터 800점까지이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500점과 100이며, 증분은 10점이며, 구분점수의 수는 61개이다. 200점 이하의 점수가 나올 경우에는 200점을 부여하며, 800점을 넘을 경우에는 800을 부여한다.

SAT I 점수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평균 500점이 최근에 SAT I 을 치른 수험생의 평균이며, 100이 이들 점수의 표준편차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SAT I 에서 500점과 100이 모든 대학신입생의 평균과 표준편차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SAT I 의 점수체제에서 평균이 500점, 표준편차가 100이라는 것은 1941년 4월에 SAT를 치른 10,654명의 척도점수 평균과 표준편차일 뿐이다. 즉, 1941년 4월을 기준 연도로 척도를 개발한 것이며, 500점과 100이라는 것이 최근에 SAT I 을 치른 수험생들에 대한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SAT I 검사의 채점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답을 한 문항에는 1점을 부여하고,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한다. 틀린 문항이 5지선다형일 경우  $1/4$ , 4지선다형일 경우는  $1/3$ 을 감점한다. 그러나 학생산출반응 문항이나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지 않는다.

### 바) SAT I 동등화

앞서 언급했듯이, SAT I 은 현재 연간 7회 응시기회가 제공된다. 각 검사 일 마다 다른 검사지를 사용하는데, 이들 검사지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할 뿐만 아니라 난이도도 가능한 유사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모든 검사지의 난이도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된 검사의 점수를 통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통계적 조정 과정을 검사동등화라 한다. 검사동등화를 했을 때,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된 검사점수는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진다.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된 SAT I 을 치르는 학생들이 검사의 난이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평가 측정상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SAT I 에서는 문항반응이론에 입각한 동등화 방법을 적용한다. 검사동등화를 위한 자료 수집설계로 공통문항비동등집단 설계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에 검사동등화를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진점수 동등화 방법을 이용한다.

선택형 문항에 대한 3모수 로지스틱 문항반응모형을 적용했을 때 개인  $i$  가 문항  $j$ 를 맞출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_{ij} = p_{ij}(\theta_i; a_j, b_j, c_j) = c_j + (1 - c_j) \frac{\exp[Da_j(\theta_i - b_j)]}{1 + \exp[Da_j(\theta_i - b_j)]}$$

위 공식에서,

$a_j$  는 문항  $j$ 의 변별도 모수,

$b_j$  는 문항  $j$ 의 난이도 모수,

$c_j$  는 문항  $j$ 의 추측 모수,

$D$  는 1.7. 로지스틱 커브가 정규오자이브와 비슷하게 만드는 상수.

$\exp$  (natural logarithms) 는 지수로서 2.72828...

$\theta_i$ 는 개인  $i$ 의 능력모수. 능력모수는 보통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 이 되도록 척도화 된다.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한 진점수 동등화 방식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자세한 사항은 Ban, 2003을 참조). 일단 공통문항을 이용하여 새로 시행된 검사와 기존 검사의 문항모수 추정치는 척도변환을 통해 동일한 척도로 변환해야 한다. 문항반응이론에서의 진점수는 각 문항에 대한 확률들에 대한 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ext{새로 개발된 검사에서의 진점수: } \tau_X(\theta_i) = \sum_{j \in X} p_{ij}(\theta_i; a_j, b_j, c_j)$$

$$\text{기존 검사의 진점수: } \tau_Y(\theta_i) = \sum_{j \in Y} p_{ij}(\theta_i; a_j, b_j, c_j)$$

진점수동등화 방식에서는  $\theta$ 값이 동일할 때, 각 검사에서 대응되는 진점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진점수 동등화를 시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 개발된 검사에서의 진점수를 찾는다. 둘째, 이 진점수에 대응하는  $\theta_i$ 를 찾는다. 셋째,  $\theta_i$ 에 대응하는 기존 검사에서의 진점수를 찾는다. 실제 이러한 진점수동등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사) SAT I 검사의 점수 보고

SAT I 검사 점수는 시험을 치른 후 약 3주 후에 우편으로 우송된다. 공식적인 성적통지표는 수험생, 수험생의 고등학교, 그리고 수험생이 요청한 대학이나 장학기관에 전달된다. 성적 통지표에는 수험생의 인적사항, 과거와 현재의 시험 점수, 백분위, 척도범위, 가장 최근에 학생이 작성한 학생용 질문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아) SAT 검사 점수의 활용

미국에 있는 약 3,600개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은 각기 다양한 학생 선발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대학입학사정 시 어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수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어떤 대학에서는 유능한 학생들을 뽑는데 초점을 두며, 또 어떤 대학에서는 기본적인

로 대학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입학은 쉽게 하되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대학마다 SAT 점수를 활용하는 방식 또한 다양하다. 각 대학에서 SAT 점수를 활용하는 유형의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험생의 성적, 이수과목 이외에 수험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SAT 점수를 활용한다. 둘째, 기본 자격을 검증할 목적으로 전형단계에서 SAT 점수를 하나의 기본자격 요소로 활용한다. 셋째, 해당 대학에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과 유사한 SAT 점수를 가진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활용한다. 넷째, 성공적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SAT 점수를 활용한다.

미국대학위원회는 대학입학에 SAT 점수를 활용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장하고 있다 (The college board, 2004).

① SAT 검사 및 자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서 검사의 적절한 활용법 및 제한점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SAT 점수를 활용하는 사람은 평균, 중앙치, 최빈치, 백분위, 측정의 오차, 차이점수에 대한 표준 오차, 신뢰도, 원점수, 척도점수, 동등화, 타당도, 상관계수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② 학생들의 입학여부를 결정하려 할 때는 SAT 점수는 여러 가지 다른 정보와 함께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성적, 이수과목, 면접, 개인 소개서, 작문예시, 포트폴리오, 추천서 등과 SAT 점수를 함께 고려해서 학생들을 평가해야 한다. 학생들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는 서로 장·단점 및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적절히 보완하여 활용해야 한다. 어떠한 자료도 그 하나가 완벽하게 학생들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③ SAT 점수는 수험생의 능력에 대한 고정되고 정확한 측정치가 아니라 근사치일 뿐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검사점수는 일반적으로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차는 검사 제작이 잘못 되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검사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AT 점수의 측

정오차는 30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험생이 다시 시험을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수험생중 3분의 2는 원래 점수보다 30점이 더 높거나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며, 수험생의 95%는 두 점수 간 차이가 60점 이내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수험생들의 점수가 변화하는 것은 단순히 측정의 오차 때문만이 아니라 수험생의 능력 자체가 변해서 점수가 변할 수도 있다.

④ 수험생의 SAT 점수나 다른 정보를 평가할 때 반드시 수험생의 개인 배경이나 경험, 수험생이 원하는 전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백인 남자가 받은 언어추론점수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수험생의 언어추론점수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백분위를 보더라도 각 수험생의 배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SAT 점수 간 조그마한 차이로 수험생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수험생의 능력이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SAT 점수가 60점 정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⑥ SAT 점수만을 이용하여 최소 입학점수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입학전형 시 SAT 점수는 반드시 학생들에 대한 다른 정보와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⑦ SAT 점수에 대한 타당도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⑧ 검사점수에 대한 보안 절차를 마련해서 지켜야 한다.

⑨ 입시정책을 바꿀 때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 2) SAT II(교과학력검사)

### 가) SAT II 검사의 목적

SAT II는 SAT I 과는 달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에 관한 지식의 수준과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기본 성

격은 내신 성적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출제 범위가 특정 교과서, 특정 교수법, 그리고 어느 학교의 교육과정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표준화된 검사라는 점이다. 검사가 개발된 주요 목적은 대학입학사정에 활용할 뿐 아니라 학생이 대학교에 진학 시, 수강 과목을 배치하는 데에도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입학경쟁이 높은 대학교에서는 SAT I 외에도 SAT II를 요구하고 있다.

#### 나) SAT II 검사의 구성

SAT II는 총 3시간에 걸쳐 시행되는데, 필수과목인 영어와 2개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목당 6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문항 수는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SAT II의 과목은 총 22과목으로, 문학, 작문, 미국사, 세계사, 수학 I, 수학 II, 생물, 화학, 물리, 읽기만 보는 외국어(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스페인어)와 읽기와 듣기를 함께 보는 외국어(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영어구사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결과는 200~800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된다.

##### (1) 작문(writing)

작문 검사는 학생들에게 다음 두 가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치러진다. 첫째는 글의 구성, 단어선택, 문장구조,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고, 둘째는 문장 진술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문장과 문단을 보다 매끄럽게 수정 하는가 이다. 시험은 1시간 동안 치르게 되는데, 그 중 20분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고, 나머지 시간은 선다형으로 된 60문항을 풀게 된다.

에세이 채점은 고등학교 과정을 거의 마친 학생들이 실제로 해 보이는 작문에 친숙한 고등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두 명의 채점자가 각각 1~6점까지의 점수를 주게 되는데, 1점이 가장 낮은 점수이고, 6점이 가장 높은 점수가 된다. 만약 두 채점자간에 2점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나게 되면, 제3의 채점자가 개입하여 두 채점자간의 점수를 조정한다.

## **(2) 문학(literature)**

문학 검사는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치러지는 것으로, 시와 산문 등 여러 종류의 문학양식에 해당하는 지문을 읽고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글의 구조, 장르, 구성방법 등의 형식과 전반적인 주제를 묻는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화자의 특성이나 태도를 묻는 화술의 표현, 어조, 심상이나 비유적 표현을 묻는 언어의 특징적인 사용, 구체적인 단어나 단락에 대한 맥락적인 의미 등을 묻는 문항들도 있다. 시험은 1시간 동안 선다형으로 된 60문항을 풀게 된다.

## **(3) 미국역사(United States history)**

미국역사 검사는 학생들에게 콜롬비아 이전의 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치러진다. 각 문항은 학생들에게 4가지 정도를 질문한다. 첫째는 기본정보를 상기하여 관련된 사실, 용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둘째는 그래프, 차트, 그림, 사진, 지도 등과 같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셋째는 생각을 주어진 정보와 연관시킬 수 있는지, 넷째는 주어진 목적에 맞게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지 이다. 시험은 1시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지식, 문화사, 외국의 정책 등에 관하여 선다형으로 된 90~95문항을 풀게 된다.

## **(4) 세계사(world history)**

세계사 검사는 학생들이 세계 문화에서 주요한 발달과정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역사적 기술을 사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치러진다. 문항들은 주로 정치와 외교, 지식과 문화, 사회와 경제 분야의 모든 역사적인 것들을 묻는다. 어떤 문항들은 학생들이 인과관계를 이해하는지, 용어에 정통한지, 주요한 역사적 발달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사와

지리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또 다른 문항들은 역사적 분석결과물에 대한 개념 이해력, 예술적인 자료들에 대한 해석력, 문헌이나 다른 출판물에 인용된 것을 평가하는 능력, 지도나 그래프, 차트와 같은 자료를 해석하는데 역사적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 등을 묻는다. 시험은 1시간 동안 선다형으로 된 95문항을 풀게 된다.

### (5) 수학(mathematics)

수학 I 과 수학 II 는 모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계산기 없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불리할 수 있으나, 모든 문제를 푸는데 계산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계산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 ① 수학 I

수학 I 검사는 1시간 동안 선다형으로 된 50문항을 풀게 된다. 문항의 약 60%정도는 계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약 40%정도는 계산기 사용이 필요하다. 문항 내용 구성은 대수학, 기하학(평면 기하학, 좌표기하학, 삼차원 기하학), 기초삼각법, 대수함수, 기초통계(확률, 평균치, 중앙치, 최빈치 등) 그리고 기타(논리학, 기초수이론, 산수 등)로 되어 있다.

#### ② 수학 II

수학 II 검사는 1시간 동안 선다형으로 된 50문항을 풀게 된다. 문항의 약 40%정도는 계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약 60%정도는 계산기 사용이 필요하다. 대수학, 기하학(좌표기하학, 삼차원기하학), 삼각법, 함수, 통계(확률, 순열, 조합 등) 그리고 기타(논리, 증명, 기초수이론, 극한 등)로 되어 있다. 비록 수학 I 과 수학 II 가 학습내용구성이 비슷할지라도, 수학 II 의 경우에는 좀 더 깊은 내용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통계의 경우 수학 I 에서는 확률, 평균치, 중앙치, 최빈치, 계산, 자료 해석이 포함되고, 수학 II 에서는 순열, 조

합, 표준편차가 포함된다.

#### **(6) 생물학(biology)**

생물학 검사는 학생이 이 후에 대학에서 생물학 준비과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치러진다. 어떠한 특정 생물학 교과서나 교수법을 평가하지는 않으며, 학생들은 진화가 생태생물학 또는 분자생물학에서 유래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생태생물학이나 분자생물학을 강조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문항은 일반생물학 60문항, 생태학 20문항, 분자생물학 20문항이 출제되며, 학생들은 일반생물학 60문항과 생태학이나 분자생물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총 80문항을 치른다. 선택과목은 학생이 시험 당일 날에 결정하여, 답안지의 선택과목 해당란에 표시하면 된다.

#### **(7) 화학(chemistry)**

화학 검사는 학생이 후에 대학에서 화학 준비과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치러진다. 이 시험은 특정 화학 교과서나 교수법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문항은 1시간에 선다형 85문항이 출제된다. 문항구성내용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는데, 매년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면들이 강조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각각의 주제와 세부주제에 투입한 시간의 양에서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는 일부 문항과 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8) 물리학(physics)**

물리학 검사는 학생이 후에 대학에서 물리학 준비과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치러진다. 이 시험은 특정 물리학 교과서나 교수법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문항은 1시간에 선다형 75문항이 출제된다. 문항구성내용은 대부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룬 주제들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각각의 주제와 세부주제에 쏠아 부은 시간의 양에서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는 일부 문항과 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9) 중국어(읽기+듣기)**

중국어 검사는 학생들이 중국어를 말하고 쓰는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치러진다. 또한 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측정 하며, 대부분의 문항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검사는 듣기 이해력, 관용법, 그리고 독해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듣기 문제는 구어를 이해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 관련 주제에 관한 짧은 대화와 이야기가 나온다. 관용법 문제는 학생들에게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옳은 문장을 완성시키는 문제를 풀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어휘와 문법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를 검사한다. 독해력 문제는 주어진 지문에서의 주제, 배경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을 검사한다. 독해지문은 일상생활의 글들, 예를 들어 시간표, 양식, 거리표지판, 편지, 일기, 신문 기사 등과 같은 것들로 되어 있다. 시험은 1시간 동안 치르게 되는데, 그 중 20분은 듣기를 40분은 읽기능력을 치른다.

#### **(10) 프랑스어(읽기/읽기+듣기)**

프랑스어 검사는 읽기만 보는 검사와 읽기와 듣기를 보는 검사로 구분되고, 두 시험 모두 학생들의 어휘, 문법,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치러진다. 듣기 시험은 말하기와 쓰기 모두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검사는 학생들의 어휘, 구조, 독해력 문제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휘문제는 관용적 표현을 이해하여 사용하는 능력 뿐 아니라, 각기 다른 회화 상황에서 표현하는 단어사용능력을 검사한다. 구조문제는 학생들이 주어진 문장 내에서 문법적으로 옳은 단어나 표현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며, 독해력 문제는 주어진 지문에서의 요지, 주제, 배경 등과 같은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을 검사한다. 독해만 보는 시험은 1시간 동안 선다형 85문항을 치르고, 독해와 듣기를 보는 시험은 1시간 중에서 20분은 듣기를 40분은 읽기능력을 치르며, 선다형 85~90문항으로 되어 있다.

#### **(11) 독일어(읽기/읽기+듣기)**

독일어 검사는 읽기만 보는 시험과 읽기와 듣기를 보는 시험으로 구분되고, 이 두 시험 모두 학생들의 어휘, 문법,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치러진다. 듣기 시험은 말하기와 쓰기 모두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독일어 검사 두 가지 유형 모두 문장과 단락의 완성문제와 독해력 문제를 평가한다. 문장과 단락의 완성문제는 기본적인 관용적 표현을 포함하면서 어휘와 문법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독해력 문제는 광고, 시간표, 거리표지판, 표들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를 측정한다. 또한 다양한 양식과 수준 높은 어려운 지문을 읽는 능력을 검사한다. 읽기만 보는 시험은 1시간 동안 선다형 85문항을 치르고, 독해와 듣기를 보는 시험은 1시간 중에서 20분은 듣기를 40분은 읽기능력을 치르며, 선다형 85~90문항으로 되어 있다.

#### **(12) 현대 히브리어(읽기)**

현대 히브리어 검사는 어떤 특정 교과서나 교수법을 평가하지는 않으므로, 학생들이 다양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 히브리어는 언어지식의 넓은 범위에 걸쳐 다양한 질문을 하여 학생들의 어휘, 문법, 독해력을 평가한다. 어휘와 문법 문제는 단어의 뜻, 품사, 적절한 언어 문형에 대한 능력을 검사하고, 독해력은 난이도 수준이 다양한 지문의 이해력을 검사한다. 읽기 문제의 지문을 성경에서 발췌했을지라도, 문제를 히브리어로 내지는 않는다. 시험은 1시간 동안 선다형 85문항을 풀게 된다.

#### **(13) 이탈리아어(읽기)**

이탈리아어 검사는 어떤 특정 교과서나 교수법을 평가하지는 않으므로, 학생들은 다양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제는 중간 정도의 수준을 묻고 있지만,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아주 수준 높은 문제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서 출제 된다. 시험은 문장완성, 문법, 독해를 묻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문장완성문제는 학생들이 문장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나 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어휘나 관용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문법문제는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이나 단어들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언어의 구조와 친숙한지를 질문하고, 독해력은 신문, 잡지, 광고, 브로슈어 등과 같은 자료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출제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검사한다. 시험은 1시간 동안 선다형 80~85문항을 치른다.

#### **(14) 일본어(읽기+듣기)**

일본어 검사는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된다. 대부분의 문제는 중간 정도의 수준을 묻고 있지만,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아주 수준 높은 문제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서 출제 되며, 일본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도 있다. 시험은 듣기 이해력, 관용법, 독해력을 묻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듣기 이해력 문제는 일상생활에 대한 짧은 대화나 이야기를 단 한 번 들려 주고 이해정도를 질문한다. 관용법 문제는 문맥, 어휘, 문법을 이용하여 문장을 제대로 완성시키는가를 질문하고, 독해력 문제는 신문기사, 광고, 편지, 메뉴판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것에 대한 이해력을 질문한다. 시험은 1시간 동안 20분은 듣기를 40분은 읽기능력을 치르며, 선다형 85문항으로 되어 있다.

#### **(15) 한국어(읽기+듣기)**

한국어 검사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 내에서 의사소통하는 능력과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 11월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시험은 듣기 이해력, 관용법, 독해력을 묻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듣기

이해력 문제는 질문과 답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고, 일상생활에 대한 짧은 대화나 이야기를 오디오 카세트로 들려주어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한다. 관용법 문제는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고, 문맥, 어휘, 문법을 이용하여 문장을 제대로 완성시키는가를 질문한다. 독해력 문제는 글의 요지, 주제, 상황 등과 같은 주어진 지문 내에서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능력을 검사하는데, 모든 지문은 한국어로 되어 있고 질문은 영어로 하게 된다. 시험은 1시간 동안 듣기는 20분, 읽기는 40분을 치르며, 선다형 80~85문항으로 되어 있다.

#### (16) 라틴어(읽기)

라틴어 검사는 라틴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평가한다. 검사는 어떤 특정 교과서나 교수법을 평가하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하여 출제된다. 문제는 총 6가지의 범주로 나뉘어 지는데, 적절한 문법적인 형태를 선택하는 문제, 영어에서 파생된 라틴어를 고르는 문제, 라틴어로 된 단어나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는 문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 동일한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문제,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지문에는 시가 꼭 출제가 된다. 시험은 1시간 동안 선다형으로 된 70~75문항을 풀게 된다.

#### (17) 스페인어(읽기/읽기+듣기)

스페인어 검사는 읽기만 보는 검사와 읽기와 듣기를 보는 검사로 구분되고, 이 두 시험 모두 학생들의 어휘, 문법, 쓰기,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치러진다. 읽기 검사는 품사에 대한 이해력과 관용표현에 대한 것을 평가하며, 문법과 독해력으로 나뉘어 진다. 문법 문제는 문장에서 적절하게, 문법적으로도 옳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독해력 문제는 주어진 지문에서 정보를 알아내는 능력을 질문한다. 듣기 검사는 A, B, C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A부분은 사진에 나온 인물이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것을 선

택하는 것이고, B부분은 짧은 대화를 상황에 맞게 완성시키기 위하여 단어 나 구를 선택하는 것이며, C부분은 좀 더 넓은 범위에 걸친 문제를 출제한다. 독해만 보는 시험은 1시간 동안 선다형 85문항을 치른다. 독해와 듣기를 보는 시험은 1시간 중에서 20분은 듣기를 40분은 읽기능력을 치르며, 선다형 85문항으로 되어 있다.

### **(18) 영어구사능력**

영어구사능력 시험은 미국의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자, 제2외국어 과정으로 영어를 2~4년 정도 공부한 자, 제일 잘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닌 자, 가정이나 직장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치르게 된다. 이 시험은 다른 시험보다는 문법이나 관용법을 덜 강조하고, 학문적이고 실제적인 언어사용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듣기와 읽기만을 평가한다. 듣기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짧은 대화를 논리적으로 완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어나 구를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대화나 뉴스를 듣고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던 되는 것이다. 읽기 문제는 광고, 시간표, 거리 표지판 등과 같은 실제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자료들의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한다. 1시간 동안 선다형 84문항을 풀게 되는데, 이 중 30분은 듣기 능력을, 나머지 30분은 읽기 능력을 치르게 된다.

### **3) ACT 검사**

ACT 검사는 원래 미국대학시험(American College Testing)의 약어로서, 이 검사를 만드는 기관은 검사이름과 동일한 ACT, Inc.로서 1959년 설립되었다. 1959년 이전에는 미국에서 대학입학시험으로 SAT만이 있었다. 당시에 SAT는 일부 유명대학에 입학할 학문적으로 유능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초

점을 두었었다. 나머지 대학 신입생들은 개별 주나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 시험의 점수를 토대로 입학허가를 받았다. 1950년도 후반에 미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했다. 학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도 점점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대학들 또한 보다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ACT 검사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첫째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어떤 대학에 입학하고 어떤 것을 배울 것인지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으며, 둘째는 대학으로 하여금 입학전형과정 뿐만 아니라, 입학 후에 성공적으로 대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Lindquist(1901-1978)의 주도아래 ACT 검사를 개발하였다. ACT 검사의 기본 성격은 SAT I 과 달랐다. SAT I 이 학교 교육의 목표와는 관련이 적은 일반적인 학업 적성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둔 반면, ACT 검사는 애초부터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초점을 두었다.

2002년 기준 약 120만 명의 고등학생들이 ACT 검사에 응시했으며, 3,000 개 이상의 2년 및 4년제 대학, 장학재단, 기술학교, 간호학교 등에서 ACT 검사를 수험생에게 요구 혹은 추천하고 있다.

#### 가) 출제 기관

ACT 기관은 미국 아이오와주에 소재하는 있는 비영리 기관으로 ACT 검사의 개발, 시행, 채점, 점수보고 등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곳이다.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13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ACT 회장(CEO)은 이사회의 의장이다. ACT 회장 아래 4개의 자문기관이 있다. 교육 관련 자문기관(education advisory board), 주 조직(state organization), 노동인력개발 자문기관(workforce development board), 특별 자문위원회(ad-hoc advisory groups) 등이 그것이다. 주 조직은 ACT 사단 법인의 회원 자격을 가진 주에서 ACT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ACT 회원은 ACT 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사용

하는 기관이다. ACT 기관은 현재 39개의 주 조직을 가지고 있다. ACT의 전체 예산 규모는 2003년 기준 약 1억 4천만 달러이었고(ACT, 2003), 약 13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석·박사 소지자가 정규직원의 41%인 533명 정도이다.

## 나) ACT 검사의 구성

ACT검사는 영어(english), 수학(mathematics), 독해(reading), 과학추론(science reasoning)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2월부터 실시되는 ACT 검사에는 작문(writing test)이 추가되며, 이는 선택 사항이다. ACT 검사의 문항 형식은 영어, 독해, 과학추론검사의 경우는 4지선다형, 수학검사의 경우 5지 선다형으로 되어 있다.

### (1) 영어검사

영어검사는 4지 선다형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사 시간은 45분이다. 다섯 개의 지문이 있으며, 각 지문 당 약 15개의 검사 문항이 있다. 영어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비율과 문항수는 <표IV-6>과 같다.

<표IV-6> ACT 영어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 비율 및 문항수

| 내 용 영 역                            | 문 항 비 율 | 문 항 수 |
|------------------------------------|---------|-------|
| 관용법(Usage/Mechanics)               | 0.53    | 40    |
| 구두법(Punctuation)                   | 0.13    | 10    |
| 기본문법과 관용법(Basic grammar and usage) | 0.16    | 12    |
| 문장구조(Sentence structure)           | 0.24    | 18    |
| 수사 기법(Rhetorical skills)           | 0.47    | 35    |
| 전략(Strategy)                       | 0.16    | 12    |
| 조직(Organization)                   | 0.15    | 11    |
| 유형(Style)                          | 0.16    | 12    |
| 합                                  | 1.00    | 75    |

ACT 영어검사는 표준 문어 영어 규약(구두법, 문법과 용법, 문장구조)과 수사적 능력(전략, 조직, 유형)의 이해를 측정한다. 철자법, 어휘, 문법의 기계적 암기에 의한 기억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5개의 긴 지문은 수험생의 작문기술을 측정하는데 적절한지와 더불어 수험생의 관심과 경험을 반영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대부분의 문항은 지문에 밑줄 그어진 부분과 관련하여 답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문항은 상자 안에 한 개나 여러 개의 숫자로 표시된다. 이 문항들은 지문의 부분이나 전체에 관하여 묻는 문제이다. 수험생은 어느 선택지가 지문의 문맥상 가장 적합한지 혹은 어느 선택지가 제시된 질문에 가장 좋은 답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영어검사에서는 (1) 75개의 문항에 의한 총점, (2) 40개 문항에 의한 관용법 점수, 그리고 (3) 35개 문항에 의한 수사기법 점수가 보고된다.

## (2) 수학검사

수학검사는 5지 선다형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시간은 60분이다. 수학검사는 12학년 수준의 수학적 추론(mathematical reasoning) 기술을 측정한다. 기본적인 수학공식에 대한 지식과 계산은 알고 있어야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 풀이를 위해 복잡한 공식과 계산 절차에 대해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 검사는 대학에서의 수학 초급 과정 이수를 위해 필수적인 주요 수학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사전대수, 기초대수, 중급대수, 좌표 기하학, 평면 기하학, 그리고 삼각법이다. 수학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비율과 문항수는 <표IV-7>과 같다.

수학검사의 행동영역은 지식과 기술, 적용력, 개념의 이해력, 이해된 개념에 대한 통합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과 기술'이라는 것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사실, 정의, 공식 혹은 절차를 이용하여 순전히 수학적 용어들을 이용하여 제시된 문항을 푸는 것이다. '적용력'이라는 것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사실, 정의, 공식 혹은 절차를 이용하여 실제 상황을 토대로 한 문항을 푸는 것이다. '개념의 이해력'이라는 것은 수험생의 주요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력을 묻는 것으로 어떤 개념으로부터 결론을 내리거나 추론을 할 줄 아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해된 개념에 대한 통합력’이란 두개 이상의 통합된 개념을 토대로 비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의미한다.

<표IV-7> ACT 수학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 비율 및 문항수

| 내 용 영 역                     | 문항 비율 | 문항수 |
|-----------------------------|-------|-----|
| 사전 대수(Pre-algebra)          | 0.23  | 14  |
| 초급 대수(Elementary algebra)   | 0.17  | 10  |
| 중급 대수(Intermediate Algebra) | 0.15  | 9   |
| 좌표 기하(Coordinate Geometry)  | 0.15  | 9   |
| 평면 기하(Plane Geometry)       | 0.23  | 14  |
| 삼각법(Trigonometry)           | 0.07  | 4   |
| 합                           | 1.00  | 60  |

문제풀이를 위해 계산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1996년 10월 이후로 수학검사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사칙연산, 과학 또는 그래픽 계산기는 수학검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학검사에서는 (1) 60개 문항에 의한 총점, (2) 24개 문항에 의한 사전 대수/초급대수 점수, (3) 18개 문항에 의한 중급 대수/좌표기하학, (4) 18개 문항에 의한 평면 기하/삼각법 점수가 보고된다.

### (3) 독해검사

독해검사는 4지 선다형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시간은 35분이다. 독해검사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과 관련한 문항과 ‘암묵적’ 의미 파악, 결론도출, 비교, 일반화를 위한 추론 능력을 측정한다. 독해검사는 4개의 지문으로 구성되며, 각 지문은 사회과학, 자연과학, 산문적 가작, 인문학의 영역에서 뽑은 것이다. 각 지문의 내용은 대학 1학년 교육과정 수준이다. 각 문항은 지문 밖 사실의 기억, 어휘에 대한 질문 등은 하지 않는다. 대신 특정

주제에 대해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복잡하고 비판적인 사고에 대한 질문을 한다. 독해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비율과 문항수는 <표IV-8>과 같다. 독해검사에서 (1) 40개 문항에 의한 총점, (2) 20개 문항에 의한 사회과학/자연과학 점수, (3) 20개 문항에 의한 예술/문학점수가 보고된다.

<표IV-8> ACT 독해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 비율 및 문항수

| 내 용 영 역                | 문 항 비 율 | 문 항 수 |
|------------------------|---------|-------|
| 산문적 가작(Prose fiction)  | 0.25    | 10    |
| 사회과학(Social studies)   | 0.25    | 10    |
| 인문학(Humanities)        | 0.25    | 10    |
| 자연과학(Natural Sciences) | 0.25    | 10    |
| 합                      | 1.00    | 40    |

#### (4) 과학추론검사

과학추론검사는 4지 선다형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시간은 35분이다. 과학추론검사는 자연과학분야에서 요구되는 해석, 분석, 평가, 추론,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한다. 과학추론 검사의 소재는 생물학, 화학, 물리, 그리고 지구/우주과학이다. 과학추론검사는 7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문과 관련한 선택형 문항들이 제시된다. 각 지문은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제시된다. 그림이나 표 등을 이용하여 자료 형태로 제시하거나, 여러 실험들을 기술한 연구 요약 형식이거나, 상호 상충하는 가설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과학추론검사의 행동영역은 이해, 분석, 일반화로 구성된다. ‘이해’ 문항은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개념의 이해를 묻는다. ‘분석’ 문항은 제공된 정보와 유추된 결론 혹은 가설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일반화’ 문항은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결론 도출, 혹은 예측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과학추론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비율과 문

항수는 <표IV-9>와 같다. 과학추론검사에서는 40개 문항에 의한 총점만이 제공되며, 하위 영역 점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표IV-9> ACT 과학추론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 비율 및 문항수

| 내용 영역                        | 형 식                        | 문항비율 | 문항수 |
|------------------------------|----------------------------|------|-----|
| 생물(Biology)                  | 자료 형태(data representation) | 0.38 | 15  |
| 지구/우주과학(Earth/space science) | 연구요약(research summaries)   | 0.45 | 17  |
| 물리(Physics)                  | 상충(conflicting)            | 0.17 | 7   |
| 화학(Chemistry)                |                            |      |     |
| 합                            |                            | 1.00 | 40  |

#### 다) ACT검사의 점수체제

ACT 검사는 4개 검사(영어검사, 수학검사, 독해검사, 과학추론검사)의 척도점수, 7개의 하위검사 점수(관용법, 수사기법, 사전대수/초급대수, 중급대수/좌표기하학, 평면기하/삼각법, 사회과학/자연과학, 예술/문학 점수), 그리고 종합점수(composite score)가 보고된다. 점수는 원점수가 아닌 척도점수이며 정수로 표기한다. 하위영역 점수와 검사점수는 애초에 별개로 척도화를 하였기 때문에 이들 간 수리적 관계는 없다. 예를 들어, 영어검사의 하위점수인 관용법과 수사기법을 합쳤을 경우 반드시 영어검사 점수와 같지는 않다. 현재의 ACT 점수 척도는 1988년 10월 수험생을 이용한 것이다. 이때 새로 개발된 척도는 기존 척도와 상호호환이 안 된다. 새로운 ACT 척도의 속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영역별 척도점수의 평균은 18점이고, 범위는 1~36까지이다(표준편차는 고정하지 않았음). 둘째, 하위 영역 척도점수 평균은 9점이고, 범위는 1~18점이다. 셋째, 전체 검사 혹은 하위 검사 점수대의 측정오차가 동일하게 한다. 넷째, 전체 검사 혹은 하위 검사 점수대의 측정오차의 크기는 2로 고정한다. 다섯째, 종합점수의 측정오차는 1점이 되게 한다. 첫째와 두 번째 속성은 표준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함이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속성은 점수의 해석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ACT의 척도의 특이한 점은 척도를 개발할 때 척도점수의 표준편차를 미리 정하지 않고 측정오차를 미리 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영역별 관찰점수에  $\pm 2$ 점을 하면, 개인의 진점수를 포함할 확률은 68%가 된다.

#### 라) ACT검사의 검사동등화

ACT검사는 일년에 6번 정기적으로 시행되는데, 이중 특정 검사 시행일에 일부 수험생을 선정하여,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검사 동등화를 실시한다. 표본에 사용된 수험생은 전체 수험생의 특성을 반영한 집단이다. ACT, Inc에서는 동등화용 자료 수집을 위해 가교검사 설계법을 사용한다. 가교검사 설계법은 새로 개발된 검사와 가교 검사를 무선 동등집단에 실시하는 방법이다. 새로 개발된 여러 검사와 가교 검사는 스파이얼링(spiraling) 과정을 통해 순서대로 수험생에게 실시된다. 예를 들어, 새로 개발된 검사의 이름이 A, B, C이고, 가교 검사의 이름이 D일 때, 수험생이 앉아 있는 순서에 따라 A, B, C, D, A, B, C, D, ...의 순으로 검사지를 배포한다. 2,000명 이상의 수험생이 기존 검사와 새로운 검사를 각각 치르게 된다. 각 검사를 치른 수험생은 무선동등집단이 된다.

검사동등화를 위한 통계방법으로 큐빅스플라인을 이용한 동백분위 동등화 방법(equipercentile equating with cubic spline post-smoothing method)을 사용한다. 동백분위 방법이란 예를 들어 두 검사를 치른 수험생의 능력이 동일할 경우, 두 검사에서의 동백분위에 해당하는 점수는 상호 동등하다고 간주하는 방법이다. ACT 검사의 경우 새로운 검사와 기존 검사를 치른 수험생은 무선 동등집단이므로, 기존 검사와 새로운 검사에서 동일한 백분위에 해당하는 점수는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동백분위 방법을 적용한 후에 얻어진 조정점수는 큐빅스플라인을 통해 완곡화 한다. 큐빅스플라인을 사용하여 조정점수를 완곡화 하는 이유는 표본에 의한 무선 동등화오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동등화 과정을 거친 후 새로 개발된 검사마다 원점수에서 척도점

수로의 변환표를 만들게 된다. 예를 들면, 새로 개발된 검사에서 원점수가 70점일 경우 이에 대응하는 척도점수는 32점이라는 표를 만들게 된다. 각 검사마다 원점수가 영점에서 만점까지 대응하는 척도점수표를 개발하며, 이 변화표를 통해 특정 검사에서 원점수가 몇 점일 때 이에 대응하는 척도점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 마) 시험의 활용

ACT, Inc.는 ACT 검사 결과를 학생 보고서, 고등학교 보고서, 그리고 대학 보고서 형태로 각각 발행한다. 그 내용 및 활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종승, 1995).

#### (1) 학생용 보고서와 결과 활용

개별 학생에 대한 검사 결과 보고는 수험생 자신의 검사 점수,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관련된 진학 정보, 교육 및 진로 계획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 점수를 기록하는 부문에서는 영어, 수학, 독해, 과학 추론 등 하위 검사별 점수와 종합점수를 제시하고, 전국의 대학 진학 희망자 집단에서 이 각각의 점수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백분위 점수도 함께 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백분위 점수가 어디까지나 추정치임을 감안하여 몇 점부터 몇 점까지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수띠(band score)로 보고한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학생의 검사 결과를 수치와 함께 문장으로 개별화된 해설식 보고를 곁들인다.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란에서는 검사 등록 때 수험생이 선택한 3개 대학에 관한(추가 경비를 지불하면 추가로 3개 대학을 더 지정할 수 있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즉, 신입생 선발 정책은 어떠한가, 학생이 계획하고 있는 전공 분야를 개설하고 있는가, 1학년 집단의 고교 성적 평균치와 ACT 점수 분포 그리고 해당 수험생의 검사 점수가 신입생 집단의 성적 분포에 비추어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 대학에 입학할 경우 C학점 이상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또한 등록금 액수 및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교육 및 진로 계획에 관한 정보란에는 직업 흥미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직업 세계도(world-of-work map)'에 수험생이 선호하는 직업군을 표시하고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다. 그 밖에 수험생 자신이 제공한 여러 가지 정보에 기초하여 교육 및 진로 계획에 참고 되는 정보를 요약해서 제시한다.

이와 같은 검사 결과 보고는 학생으로 하여금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수치로 표시된 검사 점수를 보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 분야를 확인하고, 지방 및 전국 기준으로 제시된 검사 점수를 통하여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육 및 진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는 학생의 향후 진로 탐색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 **(2) 고등학교 보고서와 자료 활용**

고등학교에 대한 검사 결과 보고는 두 가지 양식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개별학생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고등학교 전체 수험생들에 관한 검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요약한 자료이다. 개별 학생에 관한 검사 결과 보고는 '학생용 보고'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학생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ACT 검사의 각 하위 검사별 점수와 종합점수, 그리고 이러한 점수에 해당하는 전국 및 지역 기준의 백분위 점수가 나타나 있다. 또한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개 교과목의 최근 성적 평점, 직업흥미검사 결과, 교육 및 진로 계획에 관한 정보, 특수한 교육적 요구나 흥미분야, 진학 희망 대학에 관한 정보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해당 고등학교의 전체 수험생들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에는 각 학생의 시험점수, 직업흥미검사 결과, 기타 여러 가지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30명 이상의 학생이 응시한 고등학교에는 별도의 고등학교 프로파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그 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교육 기대 수준, 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이 실려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카운슬러가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많이 활용한다. 예컨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이나 진로 탐색을 위한 상담을 할 때 이상의 검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이용된다. 또한 학생들에 의한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이나 교육 환경의 개선에 반영하기도 한다.

### (3) 대학교 보고서와 자료 활용

대학용 검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제공할 뿐 아니라 대학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용이하도록 마그네틱 테이프나 디스켓 등에 수록하여 전달한다. 여기에는 각 학생에 관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ACT 검사의 하위 검사별 점수 및 종합점수와 이러한 점수의 전국 및 지방 규준에 비추어 본 백분위 점수가 나타나 있다. 고등학교용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개별 학생의 직업 흥미검사 결과, 교육 및 진로 계획에 관한 정보, 특수한 교육적 요구나 흥미 분야, 고등학교에서 주요 교과목을 공부한 기간과 평균 성적, 고교 재학 시 참여한 과외 활동과 장차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과외 활동 계획에 관한 정보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밖에 독특한 점은 각 학생별로 해당 대학에 입학할 경우 예상되는 성적 평점의 등위, 몇몇 주요 교과목에서 C학점 이상 받을 확률을 예측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모든 대학에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ACT 연구소 측과 사전에 '연구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대학에 국한되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ACT 점수를 신입생 전형의 주요 준거 자료로 활용한다. 이 밖에도 이 검사 점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거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그들의 능력에 알맞은 과목 수준을 선택하는 일종의 지표로 사용된다. 또한 이 검사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영어나 수학 등 몇몇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수도 있다.

## 2. 영국

### 가. 대학입학제도

영국은 잉글랜드(England), 웨일즈(Wales), 스코틀랜드(Scotland) 및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등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각 지역별로 교육자치제가 잘 발달되어 있다. 영국의 대학입학시험제도의 변천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구자역 외, 1997).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부아일랜드의 대학선발절차의 기반이 되는 A-Level 시험은 19세기 중엽에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규정된 시험과 검열을 의뢰하는 학교들의 요청을 옥스포드대학, 캠브리지대학, 런던대학 및 더블린대학 등이 수락한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A수준시험을 관리하는 7개 영국보통교육자격시험위원회(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Boards) 중 6개 위원회는 1개 대학 또는 1개 대학교 집단에 연관되어 있다.

1917년에 정부는 몇 개 교과시험에 기초한 학교시험제도를 도입했다. 이 학교자격시험(School Certificate) 제도는 그 기준이 전국적으로 인정됨으로서 확실성을 지녔었으나, 각 위원회가 그 자체 시험을 다소간 독립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학교자격시험은 독립학교 또는 특정 정부지원 인문계 고등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일련의 학업성취검사였다. 대상 집단과 대학통제의 위세를 감안할 때 모든 교육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대학입학자격시험에서 면제되었다.

1972년에 이 제도는 상급학교시험(HSC: Higher School Certificate)의 도입으로 확대되었다. 이 상급시험은 17세나 18세가 된 독립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HSC는 대학선발 목적을 위한 방책으로 신속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집단시험이 가하는 제약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 특히 일반 정부지원 고등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 1951년에 단과시험이 교육보통자격시

험(GCE: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으로 도입되었다. 이 GCE는 16세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수준(Ordinary Level) 시험과, 18세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상급수준(Advanced Level) 시험 등 두 가지 수준의 시험으로 되어 있다.

상급시험이 HSC 시험과 매우 일치하기 때문에 대학교들은 GCE 합격을 그들의 최저합격기준으로 동의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대체로 최하 A-Level 2개 교과목을 포함하는 5개 인문교과목에 합격하되, 그 중 적어도 2개 과목은 A-Level 시험에 동등하게 합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기본적인 선발기준은 A-Level 시험의 적절성에 관해 새로운 논쟁을 일으켰지만, 오늘날까지 비교적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O-Level시험이 학교성적 상위 20% 범위내의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A-Level시험은 이보다 더 적은 범위의 엘리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은 높은 기준설정을 거의 불가피하게 했다. 이 시험은 대학교들과 그 외 극소수의 사용자들의 목적에는 잘 부합되었지만, O-Level시험은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비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6세 학생의 60% 범위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대등한 교과별 시험이 1965년에 도입되었는데, 그것이 중등학교 졸업자격시험(CSE: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이다. 이 시험은 GSE위원회가 관장하지 않고 지역교육국(LEA: Local Education Authority)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있는 몇몇 지역 CSE위원회가 관장하였다. CSE는 학문적 수월성의 척도로서 GCE와 같은 평판을 받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학생 성적 평가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평가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촉발시켰다.

1970년대 초기에서 중엽까지는 영국에서 인문 고등학교를 폐지하고(일부 제외), 종합고등학교를 도입하는 교육제도의 민주화 시기였다. 이런 배경에 비추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GSE O-Level과 CSE의 이분화는 분파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리하여 16세 범위 학생수준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시험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1979년 3월, 교육부 장관 윌리엄즈(Shirley Williams)는 단일시험제도가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979년 5월에 노동당은 총선에서 패배했고, 보수당 정부가 고등학교 교육일반자격시험(GCS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제도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교수요목이 합의된 전국기준에 맞춰 편성되고, 중등시험협회(SEC: Secondary Examination Council)가 승인에 앞서 먼저 이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하여 1988년 6월에야 비로소 이 기준이 승인되었다.

GCSE 제도의 도입이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즉, 기만적으로 명칭만 바꾸는 식의 두 시험제도의 단순한 합병이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했다. 새 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고안된 전국기준은 시험당국자들로 하여금 GCSE 이념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이 새로운 제도는 또한 교사들로 하여금 그 목적과 목표에 맞도록 그들의 교수방법을 바꾸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GCSE 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O-Level시험과 A-Level시험을 영국, 웨일즈 및 북부 아일랜드의 9개 GCE 자치위원회가 관리했다(박경숙 외, 1995). 각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교수요목을 개발하고 출판하여 영국 전역에 보급했다. 원래 교직과 시험위원회 간에 자문을 하고 위원회의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 접촉 기관(interface)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협회로 불리는 외부기관에 의하여 강화되었다. 외부 통제학교협회의 역할은 중등시험협회(SEC)로 대체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SEC는 GCSE 시험의 교수요목을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그의 역할이 A-수준 시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하는 일일까지 확대되었다. 대학교의 영향, 위원회들 간의 경쟁, 그리고 기준의 내·외적 조정 등의 진정한 결과 A-수준 시험들이 선발 목적을 위하여 충분히 신뢰롭고 그 자체로서도 귀중하다는 것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GCSE의 도입은 영국의 중등학교의 내용과 교수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시

키는 데 이용되었다. 이 새로운 평가방법은 교육과정을 거의 하룻밤 사이에 바꾸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CSE와 같이 복잡하고 전혀 새로운 시험제도의 도입은 방대한 사업이며, 중대한 관리문제에도 불구하고 1988년의 시행은 성공적이었고, 1989년의 보다 효율적 운영은 GCSE를 GCE O-Level 시험의 훌륭한 승계자로 확립했다. 이에 대학입학선발도구인 GCE A-Level 시험은 O-Level 시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행되었다.

GCE A-Level 시험을 위해 정부에는 학생들이 준비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어느 경우에도 A-Level 시험의 특권적 위치를 바꿀 수는 없었다. 그 결과 정부는 AS(상급 보충, 이는 특정 교과목에 해당하는 A-Level 시험의 범위를 약 1/2로 줄인 형태의 교과목별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음) 교수요목으로 불리는 '반(半) A-Level'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 지원과 대학입학상임회의(SCUE: Standing Conference on University Entrance)의 협조로 AS 교수요목은 1989년 제1차 시험에 적용되었다. GCE 위원회는 이 사업계획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실제 가능성이 희박했으나, 짧은 기간 동안 AS 교수요목 개발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다. 분명히 정부가 기대했고 기대하는 바는 대학입학지원자들의 정상적인 공부 형태가 2개 교과목의 A-Level 시험 준비와 2개 교과목의 AS-Level 시험 준비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교과목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재, 영국에서는 각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대학입시제도를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입시를 위한 전형 자료로는 ① GCSE 시험 성적, ② GCE A-Level 및 GCE AS-Level 시험 성적, ③ 고등학교 내신 성적, ④ 학교장 추천서, ⑤ 담임 교사 의견서 및 자기 소개서, ⑥ 면접 결과 등이다. 이 중에서 시험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은 GCSE, GCE A-Level/AS-Level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GCSE, GCE A-Level/AS-Level과 같은 시험은 대학입학시험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중등

학교 졸업 및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서 영국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험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허경철 외, 1997).

## 나. 시험 유형

영국의 대학입학시험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GCSE 시험이다. 이 GCSE 시험은 국가의무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11학년 까지 이수한 학생들(16세)을 대상으로 주는 중등학교 졸업자격시험이다. GCSE 시험은 영어, 수학, 과학, 디자인 및 기술, 현대외국어,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 체육, 종교 교과를 포함하고 있다. 시험의 출제 및 시행은 대학연합의 법인체인 시험관리위원회(Awarding Bodies)가 담당하며, 각 지역별로 있던 것이 90년대에 3개로 통합되어 현재 런던대학을 중심으로 한 Edexcel,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한 OCR, 그리고 영국 북부지방을 관장하는 AQA가 있다(최봉섭, 2004).

둘째, GCE 시험이다. 이 시험은 상급수준을 위한 자격시험으로 18세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시 필요하다. GCSE는 AS-Level(Advanced Supplementary Level)과 A-Level로 구분된다. GCE AS-Level은 GCSE와 GCE A-Level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시험이며, 특정 교과목의 A-Level 시험 범위의 절반 정도가 AS-Level의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 물론 A-Level에 속하지 않는 교과목영역의 AS-Level 시험도 있는데, 비판적 사고, 유럽 연구, 공공 이해를 위한 과학, 사회, 시민 의식, 세계 개발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2002년부터 A-Level 보다 더 상위수준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AEA(Advanced Extension Awards)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AEA는 2002년 처음에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도입된 시험으로서 GCE A-Level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해력, 비판적 사고력, 각 교과에 대한 개략적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참고로 기술계열의 대학으로 가길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

자격시험(NVQs: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을 거쳐 진학 할 수도 있다(www.qca.org.uk, 2004).

## 1) 중등학교 졸업자격 시험(GCSE)

### 가) 출제 기관

GCSE 시험이 도입되면서 이 시험의 개발·관리·운영과 관련된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기구는 QCA(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로 국가교육과정 및 GCSE 시험의 내용을 구성하고 시험에 대한 자격증을 부여하며, 시험관리위원회를 감독한다.

두 번째 기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 시험관리위원회이며, Edexcel, OCR, AQA 등이 이에 속한다. 각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각 교과별로 사용할 GCSE 시험 교수요목을 설계, 계획, 개발하며, 해당 GCSE 시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물론 각 위원회가 개발한 GCSE 교수요목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 나) 문항 유형

GCSE 시험의 주요 특징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에 의한 절대기준 평가의 원리를 지향한 평가라는 점이다. 기존의 CSE나 GCE O-level 시험은 기본적으로 상대 평가였다. 이들 시험에 의하면 전체 응시자의 상위 10%는 A, 그 다음 20%는 B라는 식으로 학생들의 상대적 서열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이나 성적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GCSE에서의 등급은 학생들 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이해, 또는 기술과 능력의 영역에서 어떤 수준까지 도달했느냐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등급 그 자체가 성취수준의 정도를 의미하게 되어 있다.

시험 문항들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용이한 선택형(객관식) 검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력, 문제 해결력, 비판  
 력, 판단력, 정보수집 및 분석력, 통합력 등 고등 사고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용이한 서술형(주관식) 검사가 대부분이다. 다음 <표IV-10>에 제시한  
 것은 '현대사'와 '영문학' 시험 문항의 예이다.

<표IV-10> GCSE 현대사 및 영문학 시험 문항의 예

---

<현대사 문항 예시>

- 'UN에서 미국이 개발도상국가의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북경 방문의 배경과 결과를 논하라.'
  - '어떻게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1960~1982년까  
 지 연평균 6.6%)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 (제한시간 1시간)

<영문학 문항 예시>

- \* Gibson과 Lawrence의 시를 하나씩 제시한 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두 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하라.
- ① 각 시에 나타난 노동에 대한 태도
  - ② 각 시에 나타난 노동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 ③ 각 시에서 사용된 시어와 시의 형태에 대한 감상
- (제한시간 1시간 15분)
- 

**다) 출제 내용**

GCSE 시험은 QCA에 의해 개발된 핵심과목을 토대로 한 과목별 시험이  
 이루어진다. 시험과목은 생물, 경영, 화학, 고대 문명,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  
 어, 컴퓨터, 경제학, 영어와 문학, 영문학, 지리, 일반학, 정부와 정치, 역사,  
 수학, 현대외국어, 물리, 사회학, 웨일즈어 등이며, 수험생은 이 가운데 5-10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된다. 한편 응시생들의 고등사고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시험 시간은 교과목별로 2~3시간, 혹은 5~6시간으로 다소 길게 부여

하고 있다.

#### 라) 시험 회수 및 점수 체제

GCSE 시험은 영국의 의무교육 기간(만 5-16세간의 11년)이 끝나는 만 16세의 여름에 1회 실시된다. 점수체제와 관련하여 시행 초기에는 GCSE 시험 결과를 A, B, C, D, E, F, G까지의 7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등급에 해당되는 성취목표나 내용 명확히 제시되어 있었다. 각 등급별 성취목표나 내용을 GCSE 체제에서는 ‘등급(성적) 기준(Grade Criteria)’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A등급부터 C등급까지의 점수기준은 GCE 위원회가 개발하고, D등급부터 G등급까지의 점수기준은 CSE 위원회가 개발하기로 하고 1988년 여름까지 몇몇 과목의 A부터 G등급까지의 등급기준을 개발하도록 계획했었다. 그러나 등급별 성취기준을 개발하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어서 그때까지 점수기준 개발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등급 기준 개요’가 GCSE과목의 C등급과 F등급에 대해서만 제시되었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1994년 이후부터는 〈표IV-11〉과 같이 GCSE 시험의 성적이 7등급이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에서 평가 기준으로 채택한 10수준과의 관련성 속에 A\*, A, B, C, D, E, F, G, U의 9개 등급으로 표시하게 되었다.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에서는 과목별로 교육목표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주요 하위 영역별로 10개의 수준별 등급으로 위계화되어 있다. 따라서 각 수준은 그 수준에 해당되는 목표들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의미하는 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국가교육과정에서의 10수준은 A\* 등급으로, 9수준은 A등급, 8수준은 B등급으로 매기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GCSE 시험의 각 등급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목표 수준은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사전에 국가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별 목표 수준을 10개의 수준으로 개발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표 IV-11>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GCSE 성적과의 상호 관련성

|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 | GCSE 성적 |
|--------------|---------|
| 10           | A*      |
| 9            | A       |
| 8            | B       |
| 7            | C       |
| 6            | D       |
|              | E       |
| 5            | F       |
| 4            | G       |
| 3 이하         | U (실패)  |

#### 마) 시험의 활용

GCSE 시험은 전기 중등교육까지 학생들의 교육성취도를 평가하고 그 도달 수준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시험의 결과는 상급학교 진학(후기 중등교육 기관 진학이나 대학진학) 시나 취직 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 2) 대학입학자격시험(GCE A/AS Level, AEA)

이 시험은 후기 중등학교 2년차 말, 즉 후기 중등학교 졸업 직전에 3과목 정도 치르는 시험으로써, 자신이 이미 치른 GCSE 시험 과목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GCE 시험은 학생들에게 소수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시험은 대략 한 달 동안에 치러지며, 교과목 별로는 2~3시간, 혹은 5~6시간으로 다소 길게 부여하고 있다. 시험의 결과는 시험을 친 2개월 후에 통지된다. 일반적으로 일차 지망 대학에 합격하려면 3과목에서 B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유리하다. GCE 시험 대상 학습요목의 핵심 내용은 자격인증 및 QC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학습 요목에 대해서는 자격수여기관이 핵심 내용을 출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www.qca.org.uk, 2004).

GCE도 GCSE와 마찬가지로 각 교과목에 대한 최종적인 등급을 결정할 때, 각 자격수여기관에서 제공한 시험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실력이라 할 수 있는 해당 학교 교사에 의한 평가가 포함된다. 학교 교사에 의한 평가의 반영비율은 대개 20% 미만으로 GCSE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가) A-Level(고급수준) 시험

이 시험은 여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상급 중등학교 과정에서 2년간 공부한 후에 치르게 되며, 그 수준은 상당히 높아 대학의 '개론' 수준에 해당한다. 교과서 이외에 관련된 학술서적 등 많은 책을 읽어야 하며, 또 스스로의 생각을 논리 정연한 글로 정리 할 수 있어야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 A-Level은 GCE의 6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AS와 추가의 3개 단위인 A2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GCE A-Level은 학과의 마지막에 과목 내용에 개괄적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한다(구자억 외, 1997).

#### ① 출제 기관

시험내용과 학습과정을 밝힌 학습 요목을 자격수여기관(QCA)에서 사전에 고지하고, 출제 기관인 Edexcel, OCR, AQA 등에서 출제 관리한다.

#### ② 문항 유형

시험문제는 응시생들의 고등사고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주관식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시험시간은 짧게는 2~3시간에서 길게는 5~6시간에 이른다.

#### ③ 출제 내용

시험 과목은 매우 다양하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개 2~3과목의 GCE A-Level 시험을 보게 된다. 학생들은 진로를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는데 응시자가 많은 과목은 수학, 국어(영어), 일반학, 화학, 경제학, 물리, 역사, 생물, 지리의 순이다.

#### ④ 시험 회수, 점수 체제, 결과 활용

이 시험은 보통 2년에 걸쳐 공부한 내용을 대상으로 연 1회 시험이 실시된다. A-Level 시험은 대학의 교양과정 정도의 수준으로 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습방법도 단순지식의 암기보다는 학생들의 독자적인 사고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GCE A-Level/AS-Level 위한 시험과목의 수나 교수요목 수는 GCSE보다 훨씬 많다. A-Level 시험에서도 과목 또는 자격수여기간에 따라 최종 등급 결정 시 내신성적이 일정 비율 고려되나 그 비중은 20% 미만으로 GCSE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시험은 18~19세 학생들이 치르는 영국의 전통적인 대학 진학시험의 역할을 한다.

#### 나) AS-Level(A-Level 보충수준) 시험

근래에 응시자 수가 늘어나 점점 더 많은 대학의 환영을 받고 있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AS-Level은 자신의 학습을 좀 더 넓히고자 하는 학생이나 아직 완전한 A-Level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입학지원처(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s Services: UCAS)의 안내책자에 따르면 A-Level 시험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 번째 A-Level 과목 대신에 두개의 AS과목을 치르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즉, AS는 GCE의 3개 단위에 해당하며, GCSE와 A-Level의 중간 단계에 부여하는 독립적인 자격증이며 동시에 A-Level의 절반에 해당한다. A-Level에는 속하지 않고 AS 자격증에만 해당 되는 과목은 비판적 사고, 유럽 연구, 공공 이해를 위한 과학, 사회, 시민 의식, 세계 개발이다.

##### ① 출제 기관

시험내용과 학습과정을 밝힌 학습 요목을 자격수여기관(QCA)에서 사전에 고지하고, 출제 기관인 Edexcel, OCR, AQA 등에서 출제 관리한다.

##### ② 문항 유형

AS-Level 시험은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난이도와 문항의 형태는 A-Level과 거의 비슷하다.

##### ③ 출제 내용

시험내용범위는 1/2이 축소된 형태이다. 이 시험은 기존의 A-Level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즉 학생들이 2~3과목 정도밖에 공부할 수 없음으로 인해 폭넓은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공부할 내용의 수준은 A-Level 과 같으나 그 범위를 A-Level의 절반 정도로 줄임으로써 한 과목을 공부하던 노력으로 두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시험 회수, 점수 체제, 결과 활용

이 시험은 1년이나 2년에 걸쳐 치러지지만, 평가나 성적 매기기, 시험 결과의 활용, 과정학습에 있어서도 A-Level 시험과 규정은 같다. 참고로 GCE A-Level과 AS-Level의 평점과 환산 점수는 다음과 같다. 결국 AS-Level 2개 교과목의 성적은 A-Level 1개 교과목의 성적과 같은 가중치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Ⅳ-12> AS-Level(A-Level 보충수준) 시험의 점수 체제

| 평점 | 환산점수    |          |
|----|---------|----------|
|    | A-Level | AS-Level |
| A  | 10      | 5        |
| B  | 8       | 4        |
| C  | 6       | 3        |
| D  | 4       | 2        |
| E  | 2       | 1        |

#### 다) AEA 시험(고급심화시험)

AEA 시험은 2002년에 처음 도입된 시험으로 GCE A-Level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이전에는 S-Level(Special Level)이라는 명칭으로 일부 평가 출제기관에서 제공하기도 한 것을 AEA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출제 기관

QCA에서 시험의 성격과 내용을 고지하며 GCE A-Level/AS-Level 시험을 치르는 출제 기관에서 주관한다. A-Level 과목 보다 좀 더 높은 단계의 학

생(상위 10%)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 성적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시험이다.

② 출제 내용

이해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각 교과에 대한 개략적 지식을 측정한다.

③ 문항 유형

문항유형에는 지필 검사와 수행형 검사(performance based test)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④ 시험 회수, 점수 체제, 결과 활용

이 시험은 필요할 때 학교나 대학에서 실시되며 성적은, 'unclassified', 'merit', 'distinction'의 3가지로 분류되며, 이 중 'distinction'이 가장 좋은 성적이다(www.qca.org.uk, 2004). A-Level 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에 대한 정보로 활용된다.

### 3. 일본

#### 가. 대학입학제도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와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전후 일본의 대학입시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고 일본의 현행 대학 입시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와 대학입시센터시험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대학입시센터와 대학입시센터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1) 전후 일본의 대학입시제도 변천

전후 일본의 대학입시제도는 경제·사회의 발달 단계와 그에 따른 공통

시험 제도에 따라 다음의 <표Ⅳ-13>과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표Ⅳ-13> 일본의 전후 대학입시제도 변천

| 시대 구분     | 경제 사회     | 교육정책의 과제  | 공통 시험제도           |
|-----------|-----------|-----------|-------------------|
| 1945-1952 | 전후부흥기     | 학제 개혁     | 진학적성검사(1947-1954) |
| 1953-1969 | 고도경제성장기   | 기술인력 계획   | 能研 테스트(1963-1968) |
| 1970-1989 | 산업구조의 전환기 | 수험경쟁의 해소  | 공통1차시험(1979-1989) |
| 1990-     | 전후체제의 리스트 | 偏差値교육의 시정 | 센타시험 (1990- )     |

#### 가) 진학적성 검사

진학적성검사는 1947년 3월에 제1회 검사가 고등전문학교 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지능검사’라 칭하였다. 제2회부터 ‘진학적성검사’(進適으로 약칭함)로 개칭하였다. 진학적성검사는 일반적 지능검사의 성격에 지적 활동의 소질면을 가미하여 학생의 소질이 문과 또는 이과에 적합한가를 알아보는 내용이었다. 1954년까지 국공사립대학, 舊制대학, 舊制고등전문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진학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각 대학에서는 進適과 별도의 독자적인 대학시험을 실시하고, 두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학생을 선발하였다.

進適은 국가가 출제하는 것과 사립대학이 독자적으로 출제하는 것이 있었다. 국가의 進適은 문부성 내의 문제작성위원회가 담당하고, 실시는 都道府縣별로 국립대학의 進適감리위원회가 담당하였다. 수험자수는 제1회 13만 명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최종 년도인 1954년에는 34만 명이었다.

전후 혼란기 중에 실시된 학제 개혁, 신구학제 이행에 따른 진학 사정의 복잡화를 고려하면, 충분한 시험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시대에 진학적성검사가 유효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당시의 대학 관계자, 수험자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이에 대한 비판은 전후 점령이 끝나는 1951년경에

최고에 달하였다. 1953년 전국 고등학교장회의에서 폐지가 결의되고 국립대학협의회와 일본 학술회의에서도 폐지가 논의되었다. 따라서 1954년 문부성은 수험생의 부담이 크고 대학에서 학생 선발에 충분히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하였다.

#### 나) 能研테스트

進適 폐지 후에도 입시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 각 대학의 입시는 자주 바뀌고 경쟁도 심하여 수험 과열 상태가 지속되었다. 進適 폐지 후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력 시험이 어려워지고, 재수생이 유리한 풍조가 생성되었다. 한편, 1950년대 후반은 전후 경제 성장에 진입한 시기로 경제 계획 정책 수립이 활발하였고 교육 투자 측면에서는 기술인력 정책을 계획하였다. 이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이공계 중심의 고급 기술 인력 (high talent manpower)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귀중한 고등교육자원을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중앙교육심의회에서 논의되었고, 1963년 1월의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에 따라 '학습 도달도와 진학 적성을 측정하는 공통적, 객관적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재단 법인'으로 1월에 능력개발연구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63년에 제 1회 能研 테스트가 시행되었는데 교과별 테스트와 진학적성 능력테스트의 수험자는 32만 명이였다.

능력개발연구센터는 학력테스트, 진학적성능력 테스트, 직업적응능력테스트의 3종을 개발하여 전일제고등학교 2년과 3학년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주로 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시험의 주요 목적은 고교생의 진로 지도에 대한 지원이었으므로 대학 입시에의 본격적인 이용은 수년 후로 예정되었었다.

그러나 대학 측이 이 시험 이용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 이유는 각 대학이 맨파워정책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던 차에 능연테스트가 그것의 구체화 방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능연테스트를 수험 요건에 반

영하기로 결정한 대학은 1965년에 국립 1개교, 사립 1개교에 불과하였고, 67년에는 국공립대학 6개교, 사립 31개교 정도에 불과함에 따라 수험자의 수가 점차감소하게 되어 1968년에는 수험자 총수가 학력테스트 10만 명, 진학 적성능력테스트 11만 명, 직업적응능력테스트 10만에 불과하여 시작 년도의 1/3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수험료 수입의 감소로 연구소 유지가 곤란하여 1968년에 테스트 사업을 중지하게 되었다.

#### 다) 共通第1次學力試驗

진학 적성검사, 능연테스트가 정부, 문부성 주도인데 비해 공통제1차학력시험(공통학력시험)은 구상 단계부터 국립대학의 주도가 강조되었다. 國大協은 능연테스트 폐지 3년 후인 1971년에 제2 상치위원회로 입시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73년에 입시개선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1976년 11월 국대협 총회에서 1979년부터 제1회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검토 개시부터 7년, 능연테스트 폐지 후 11년 후의 일이었다.

공통1차시험에서는 難問, 奇問을 없애고 적절한 학력 검사를 실시하여 진학지원자의 고교 교육에 따른 학습의 도달도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해 5교과 7과목에서 출제하여 고교 교육의 왜곡을 시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2차 시험에서는 학력 시험에서 할 수 없는 소논문과 실기, 면접 등의 시험 방법을 이용하여 대학의 학부, 학과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적성을 측정하고, 1차와 2차 시험을 종합하여 합격을 판정하였다.

1976년에는 공립대학도 공통1차시험을 이용하기로 결정하였고, 1979년의 제1회 시험에 34만 명의 학생이 응시하였다. 그러나 5교과 7과목의 시험은 당초부터 수험생의 부담 증가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공통1차시험의 실시와 맞추어 국립대학의 1기, 2기 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국립대학의 수험은 신제도부터 원칙적으로 1회로 되었다. 이런 제약은 수험 준비의 부담을 크게 하여 국립대학 수험의 메리트가 줄고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수험

기회의 복수화와 과목 삭감은, 87년도의 A·B 연속일정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공통제1차시험제도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공통1차시험에 대한 사회의 불만은 “공통”시험이라는 제도의 본질에 근거한다고 생각된다. 수험생이나 대학이 단일의 척도를 부과하는데 대한 반발이 그것이다. 공통1차시험의 영향으로 학교 서열의 구조가 사립대학에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 제도 시행 후 공통1차시험에 대한 비판은 점점 증가하여 中曾根內閣 때 발족한 임시교육심의회는 공통1차시험의 폐지를 전제로 한 신테스트를 구상한 제1차 답신을 제출하였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990년 신테스트가 공통1차시험을 대체하게 되었다. 1987년에는 당초부터의 현안이었던 시험과목 삭감(5교과 7과목에서 5교과 5과목으로, 4교과 4과목도 가능), 제2차 학력시험의 기회 복수화(A·B日程 連續方式)가 도입되었다.

#### 라) 대학입시센타시험

임시교육심의회가 제안하고 구상한 신테스트는 국공사립대학에서 이용 가능한 공통 시험이며, 시험 과목이 획일적이지 않다. 즉, 5교과에서 교과 선택 및 1교과 1과목에서도 대학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스템(아라카르트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공통 시험에 따르는 “공통”시험적 성격은 매우 희박해지게 되었다. 시험 목적은 공통1차시험의 ‘기초적, 일반적인 학습의 달성도 측정’으로부터 ‘기초적인 학습의 달성도 측정’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신테스트는 선발 시험보다는 도달도 시험 성격이 강하며, 고교의 내신서와 함께 다양한 선발 기초 자료의 하나에 불과하게 되었다.

공통1차시험은 국립대학이 주도하였으나 센타 시험은 공사립대학도 동격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센터시험은 대학과 대학입시센터가 분담, 협력하여 실시하였다. 실무면에서 보면 대학입시센터의 책임과 판단에 따르는 부분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부성의 행정적 의향이 강하게 표현되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센터 시험에서는 다양한 선택 과목으로 인해 과목간 난이도 조정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1997년도 입시에서 旧수학II와 수학IIB의 난이도 차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사전에 득점 조정이 없다고 공표했지만 조정을 실시하여 계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센터시험의 약점은 시험의 성격이 애매하다는 것과 수험자가 60만에 이르지만 국공립대학의 일부 대학에서는 시험의 변별력이 저하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센터시험을 대학입학시험의 일부로 존속시키고자 한다면 수험자 층을 특정화한 시험이 필요하고,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복수의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2) 일본의 대학입학제도

일본의 대학 입시는 크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에 비해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서도 입시의 다양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의 입시가 사립대학의 입시에 비해 단순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으로 국공립대학에 대한 ‘공정성’의 기대를 들 수 있다.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함께 대학 진학률의 증가는 대학 입시에 대해 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진학희망자가 집중되는 국공립대학일수록 강하다. 그에 비해 사립대학은 그런 사회적 기대가 덜한 편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국립대학에 비해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의 입시 합격 여부는 기본적으로 1차 시험에 해당하는 대학입시센터 시험과 2차 시험에 해당하는 각 대학의 개별 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2차 시험에 해당하는 개별 시험은 ‘분리분할’이라고 하는 전기·후기 일정과 일부 공립대학의 중기일정에 의해 입학정원을 나누어서 실시한다. 결국 수험생은 국공립대학 전체로 보면 최대 3회의 수험 기회가 있다. 국공

립대학의 2차 시험은 전기와 후기의 시험 과목과 배점이 다른 곳이 대부분이다. 국공립대학의 모집 인원은 10만 명 정도로 그 가운데 전기 일정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은 대학입시센터 시험에서 5교과를 부과하는 대학과 학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3교과, 4교과 순이다. 대학입시센터 시험의 교과·과목별 배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대학입시센터 시험에 대한 배점 비율이 2차 대학별 시험에 대한 것보다 높은 대학이 많다. 국공립대학의 대학별 시험은 전기와 중기 모집 일정에서는 교과별 학력시험 위주의 시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후기 일정의 대학별 시험은 종합문제나 논문, 면접 등을 보는 경우가 많다.

사립대학의 입시는 국공립대학의 입시보다는 다양하다. 대학입시센터 시험 외에도 대학별 학력시험, 소논문, 추천입학, 면접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대학입시센터 시험을 입시에 채택하는 사립대학의 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학입시센터 시험만으로 대학입학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대학도 있다. 대학입시센터 시험 중에서는 3교과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 나. 시험 유형

대학입시센터시험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실시된 공통 제1차 학력시험을 대신해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시험으로, '양질의 시험 문제를 확보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며, 각 대학에서의 다양하고 개성적인 선발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험의 이용 여부, 이용하는 방법 등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 1) 출제 기관

여기서는 센터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대학입시센터의 역사와 기능, 조직, 주요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약사

- 1976년 5월 공통1차학력시험의 연구조사를 위한 국립대학입시개선조사시설이 동경대학에 설립. 초대소장 취임
- 1977년 5월 대학입시센터 설립, 공통1차학력시험 준비 개시
- 1978년 4월 연구부에 시험방법연구부문 및 시험제도연구부문 신설
- 1979년 1월 공통1차학력시험(제1회) 실시(1월 13일, 14일)
- 1982년 4월 제2대 소장 취임
- 1982년 6월 기획조정관직(부소장: 교수) 설치
- 1983년 3월 신청사 완공
- 1985년 4월 제3대 소장 취임
- 1986년 4월 관리부에 기획조정실 설치
- 1987년 5월 연구부가 연구개발부로 명칭 변경(평가·모니터링 연구부문과 진학적성연구부문)
- 1988년 4월 제4대 소장 취임. 부소장 2명(교수, 사무직원) 증원
- 1988년 5월 국립학교설치법 개정에 의거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일괄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경. 종전의 대학입시에 관한 조사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대학정보제공업무 추가
- 1990년 1월 1990년도 대학입시센터시험(제1회) 실시
- 1991년 11월 오이타대학내에 진학정보서비스실 설치
- 1992년 4월 제5대 소장 취임
- 1992년-95년 홋카이도대, 오사카교육대, 나고야대, 큐우슈우대, 히로시마대 등에 진학정보서비스실 설치
- 1996년 4월 제6대 소장 취임
- 1999년 4월 제7대 소장 취임.

1999년 12월 독립행정법인 통칙법에 근거, 독립행정법인 대학입시센터법이 제정되어 독립 행정법인화 됨  
2000년 4월 연구개발부에 문제설계기반연구부문 신설  
2001년 4월 독립행정법인 대학입시센터가 설립되어 초대이사장 취임  
2002년 4월 관리부의 서무과를 총무과로 명칭변경하고, 기획실 설치

## **나) 업무, 조직, 운영**

일본 대학입시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이다. ① 대학 지원자의 고등학교 단계의 기초적 학습의 달성 정도 판정을 주목적으로,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험 문제 작성, 채점, 처리 등의 업무 수행, ② 대학 입학자의 선발 방법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수행, ③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자의 진로 선택을 위해 대학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이다.

일본 대학입시센터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협의체 및 위원회가 기간 조직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협의체, 위원회 및 부서의 조직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Ⅳ-1]과 같다.

### **(1) 대학입시센터시험 협의회**

대학입시센터시험에 관하여 국공사립대학 사이에서 개선 및 의견의 집약 조정 등을 행하는 협의 조직이며, 국공사립대학 관계자 및 대학입시센터 소장으로 구성된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실시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 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 **(2) 운영심의회**

소장의 자문을 하는 기구로 대학입시센터의 사업 계획과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국공사립대학 관계자, 교직경험자 및 고등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각종 전문위원회**

각종 전문위원회와 각각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그림Ⅳ-1] 일본 대학입시센터의 조직

○ 종합문제조사 연구위원회 : 교과, 과목 횡단형 종합문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고법 및 출제범위와 더불어 측정 가능한 능력 등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한다. 국공사립대학 등의 교수 및 교직 경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 시험기획위원회 :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실시계획, 출제 교과목, 출제 범위 등의 기본방침 및 시험문제의 문장표현, 구성, 출제방법, 해답방법 등의 일반적 원칙을 결정하는 대학입시센터시험문제 작성요령의 책정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심의한다. 국공사립대학 등의 교수 및 교직 경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 교과·과목검토위원회 : 2003년도부터 실시된 새로운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에 대응하여 2006년도 대학입시센터시험 이후에 관련된 출제 교과목 및 출제범위와 더불어 출제 교과목의 선택방법 등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한다. 국공사립대학 등의 교수, 고등학교 교사 및 교직 경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 신교육과정시험문제조사연구위원회 : 고등학교 신교육과정에 대응한 2006년까지의 대학입시센터시험문제 작성 등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한다. 교과과목 제1위원회의 위원경험자 및 국공사립대학 등의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공사립대학 등의 교수,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 수험특별조치검토위원회 :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입학지원자에 대한 수험특별조치에 대해서 조사·검토 및 구체적 심사 등을 한다. 국공사립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교과과목 제1위원회 : 대학입시센터시험의 문제작성과 관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시험문제 작성을 한다. 국공사립대학 등의 교수,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어, 수학 등의 출원과목별로 하위 조직이 있다.

○ 교과과목 제2위원회 : 교과과목 제1위원회가 작성한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시험문제의 구성, 내용, 해답 및 용어의 점검을 한다. 교과과목 제1위원회 경험자 및 교사경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 교과과목 제3위원회 : 교과과목 제1위원회가 작성한 대학입시센터시험

의 시험문제의 형식, 표현 및 각 과목간 이론에 모순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국공사립대학 교수 및 교사경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 점검협력자 :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시험문제의 난이도 및 출제범위를 점검한다. 고등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험문제평가 위원회 :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시험문제를 평가한다. 공사립대학 교수 및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 시험문제 등 데이터베이스 위원회 : 대학입시시험문제 및 고등학교 교과서의 데이터베이스의 작성·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교과과목 제1위원회 위원 경험자 및 교사 경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 득점 조정 판정 위원회 :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결과에 관하여 문제의 난이도차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득점조정의 필요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 고등학교 등 관계자 연락 협의회 : 대학입시센터시험 등에 관한 일반적,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고등학교, 교육위원회 관계자 및 대학입시센터의 간부로 구성되어 있다.

#### **다) 연구개발부**

심리측정 및 응용 통계에서부터 입학 시스템과 정책에 이르기까지 대학입시센터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연구를 한다. 연구부는 시험임상연구부문, 시험환경연구 부문, 시험작성지원연구 부문, 적성시험연구 부문, 시험문제연구 부문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 **라) 정원 및 예산**

2002년 5월 1일 현재 일본 대학입시센터의 정원은 <표Ⅳ-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소장 1명, 부소장 2명, 감사 1명, 관리부와 사업부 직원 79명, 연구부 직원 16명을 포함하여 총 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연구개발부 직원의 명칭이 교수라는 점이다. 일본 대학입시센터의 예산은

다음 <표Ⅳ-15>와 같다.

<표Ⅳ-14> 일본 대학입시센터의 정원 (2002 현재)

| 소장 | 부소장 | 감사   | 관리·사업부 | 연구부 |     |    | 합 계   |
|----|-----|------|--------|-----|-----|----|-------|
|    |     |      |        | 교수  | 조교수 | 조수 |       |
| 1  | 2   | 1(1) | 79     | 6   | 5   | 5  | 99(1) |

※ ( )은 비정규직원 수를 나타냄

<표Ⅳ-15> 일본 대학입시센터의 예산(2002 현재)

(단위: 100만엔)

| 구 분             | 2002년도 예산 |
|-----------------|-----------|
| 수입              | 10,540    |
| 운영비교부금          | 376       |
| 검정료             | 9,378     |
| 성적제공수수료         | 480       |
| 성적개시수수료         | 297       |
| 기타              | 9         |
| 지출              | 10,540    |
| 시험실시경비          | 8,134     |
| 대학진학정보경비        | 217       |
| 설명회등 경비         | 65        |
| 입학자 선발방법 개선연구경비 | 171       |
| 인건비             | 967       |
| 물건비             | 986       |

## 2) 문항 유형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이용하는 대학들은 출제 교과·과목 중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와 과목을 정하고 입학지원자는 각 대학의 학생모집요강을 참조하여 출제교과·과목을 확인한 후,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치르게 된다. 대학입시센터시험은 주로 다지선택에 의한 객관식 테스트 형식으로 출제된다. 이 형식은 지금까지의 연구와 경험을 통하여 단순히 표면적인 암기 지식만을 묻는 것이 아닌 이론적인 사고력이나 판단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 개선을 해 온 것이다.

<표Ⅳ-16>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시험교과 및 과목

| 시험일                   | 교과 및 과목                                         | 시험시간<br>(배점)          | 출제방법                                                                                                                                                                                                                                | 과목선택방법                                                                                            |
|-----------------------|-------------------------------------------------|-----------------------|-------------------------------------------------------------------------------------------------------------------------------------------------------------------------------------------------------------------------------------|---------------------------------------------------------------------------------------------------|
| 제1일<br>(2005. 1.15.토) | 외국어<br>영어, 독일어,<br>프랑스어, 중국<br>어, 한국어           | 09:30-10:50<br>(200점) | 영어는 영어I과 오랄커뮤니케이션 A, 오랄커뮤니케이션B 및 오랄커뮤 니케이션C에서 공통사항을 출제범 위로 한다.                                                                                                                                                                      | 왼쪽의 5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단, 과목선택에 있어서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는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원서 제출시 신청한다.  |
|                       | 지리역사<br>세계사 A, 세계 사 B, 일본사 A, 일본사 B, 지리 A, 지리 B | 11:35-12:35<br>(100점) |                                                                                                                                                                                                                                     | 왼쪽의 6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
|                       | 이과 ①<br>종합이과, 물리 IA, 물리 IB                      | 13:50-14:50<br>(100점) |                                                                                                                                                                                                                                     | 왼쪽의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
|                       | 이과 ②<br>화학 IA, 화학 IB, 지학 IA, 지 학 IB             | 15:35-16:35<br>(100점) |                                                                                                                                                                                                                                     | 왼쪽의 4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
|                       | 이과 ③(100)<br>생물 IA, 생물 IB                       | 17:20-18:20<br>(100점) |                                                                                                                                                                                                                                     | 왼쪽의 2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
| 제2일<br>(2005. 1.16.일) | 국어*<br>국어I,<br>『국어 I·국어 II』                     | 9:30-10:50<br>(200점)  | 『국어 I·국어II』는 국어 I과 국 어II를 종합한 범위를 출제범위로 한다. 국어I과 『국어 I·국어II』 모 두 근대 이후의 문장, 고전(고문, 한문)을 출제한다.                                                                                                                                       | 왼쪽의 2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
|                       | 수학 ①<br>수학 I,<br>『수학 I·수학 A』                    | 11:35-12:35<br>(100점) | 『수학 I·수학 A』는 수학 I과 수 학 A를 종합한 범위를 출제범위로 한다. 단, 다음에 기술한 수학 A의 4항목의 내용 중 수와 식을 포함한 2항목을 공부한 학생들로 문제를 선택하여 응시한다.[수와 식, 평면 기하, 수열, 계산과 컴퓨터]                                                                                             | 왼쪽의 2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
|                       | 수학 ②<br>수학II, 수학 I I·수학B, 공업 수리, 부기, 정 보관계기초    | 13:50-14:50<br>(100점) | 『수학 II·수학 B』는 수학 II와 수학 B를 종합한 범위를 출제범위 로 한다. 단, 다음에 기술한 수학 B 의 4항목의 내용 중 2항목을 공부 한 학생들로 문제를 선택하여 응시 한다[백터, 복소수와 복소수 평면, 확률분포, 계산법과 컴퓨터]. 정보 관계기초는 직업교육을 주로 하는 가정, 농업, 상업, 공업, 수산, 간호 의 각 분야 및 종합학과에서 개설 되어있는 과목으로 공통내용을 출 제범위로 한다. | 왼쪽의 5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단, 과목선택에 있어서 공업수리, 부기, 또는 정보 관계기초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는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원서 제출시 신청한다. |
|                       | 공민(100)<br>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                      | 15:35-16:35<br>(100점) |                                                                                                                                                                                                                                     | 왼쪽의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

### 3) 출제 내용

대학입시센터시험을 이용하는 대학은 국어, 수학, 지리역사, 이과(과학), 공민, 외국어의 6개 교과군과 이에 속하는 과목 중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와 과목 등을 정한다. 응시자는 지원 대학의 입시 요강에 따라 과목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각 대학의 모집 요강에 따라 출제 교과와 과목을 확인하여 대학입시센터시험을 보게 된다. 2005년도의 입시센터시험은 위에 제시한 <표Ⅳ-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교과 32과목에 걸쳐 2일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2003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신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학생들이 처음으로 응시하는 2006년 1월에 실시할 예정인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출제 교과와 과목은 기본적으로 다음 <표Ⅳ-17>과 같다.

<표Ⅳ-17> 2006년도 대학입시센터시험의 출제 교과 및 과목

| 출제 교과 | 그룹 | 출제 과목                                  |
|-------|----|----------------------------------------|
| 국어    |    | 국어                                     |
| 지리역사  |    | 세계사 A, 세계사 B, 일본사 A, 일본사 B, 지리 A, 지리 B |
| 공민    |    |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                        |
| 수학    | ①  | 수학 I, 수학 I·수학 A                        |
|       | ②  | 수학Ⅱ, 수학 II·수학B, 공업수리기초, 부기·회계, 정보관계기초  |
| 이과    | ①  | 물리 I, 지학 I                             |
|       | ②  | 이과종합A, 화학 I                            |
|       | ③  | 이과종합B, 생물 I                            |
| 외국어   |    |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                |

2005년과 2006년의 시험 출제 교과와 과목을 비교하면, 교과는 같지만 과목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어 교과가 하나로 통합되고 ‘종합 이과’가 A와 B로 분리된다. 또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물은 각각 A,

B로 분리되던 것이 I로 통합된다. ‘공업수리’는 ‘공업수리기초’로, ‘부기’는 ‘부기·회계’로 바뀐다.

#### 4) 시험 회수 및 점수 체제

시험은 매년 1회, 원칙적으로 1월의 3째 주 토요일 및 일요일에 실시한다. 그 후 1주일 후에 교통사고, 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시험이 실시된다. 점수 체제에 관해서는 <표 IV-16>에 제시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 5) 시험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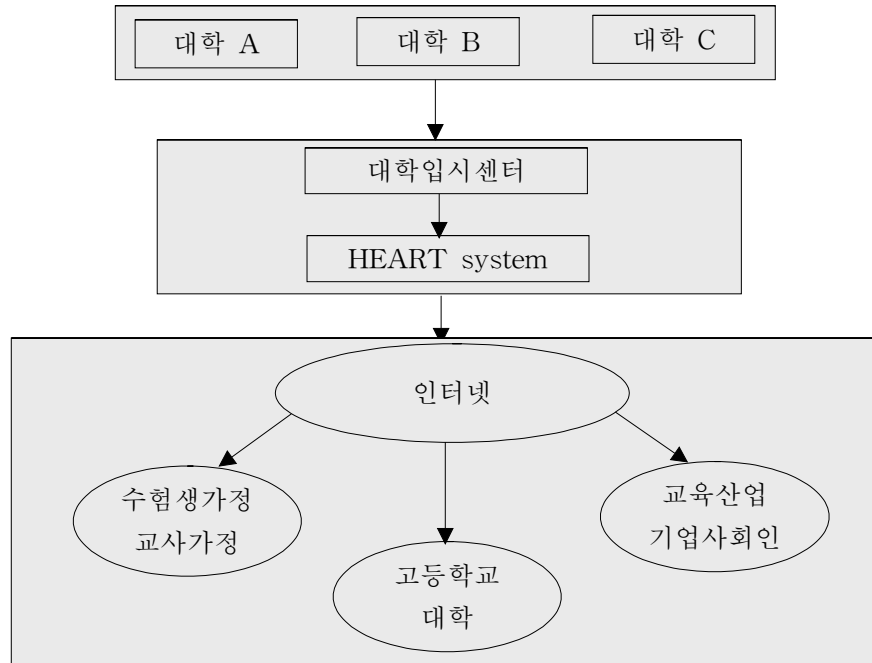
일본 대학입시센터의 주요 기능 중에는 대학 진학 희망자가 자기의 희망, 적성에 따라서 대학을 자주적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학의 교육, 연구 내용 등에 대해서 정확하고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 ○ 하트 시스템을 이용한 대학진학 안내

하트시스템(HEART system: Higher Education ARTiculation support system)은 각 대학의 교육연구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다. ‘희망대학 선택’ 및 ‘대학 안내’ 등에 대해서는 매년 10월 1일에 일괄 갱신된다. 이외에 ‘HEART 속보’, ‘입시 안내’ 및 ‘편입학 정보’ 등에 대해서는 속보성으로 수시로 변경하여 제공한다. 학부명, 학과명 등의 조건을 설정하여 해당 대학을 검색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의 대략적인 그림은 다음과 같다.

##### ○ 가이드 북 작성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학습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각 국공립대학의 특색, 연혁, 개요, 대학입시센터시험 이용 대학의 입학자 선발 방법 등을 포함하는 안내 책자로서 시중에서 유가로 판매된다.



[그림 IV-2] 서비스제공 시스템 요약도

○ 대학 진학 정보 일람 작성

대학 진학 희망자, 고교 진로 지도 담당 교사가 국공사립 대학에서 작성한 입학 홍보 관계 자료 등을 직접 대학에 청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료의 종류, 청구 방법 등을 정리, 편집하여 간행한다.

○ 대학 안내 세미나 개최

입시센터 주관으로 대학 관계자 및 고교 관계자가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주요 지역별로 개최한다.

○ 대학 입학 홍보 세미나 개최

국공사립 대학의 입학 홍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의 진로 지도 및 대학 진학 지망자의 진로 선택에 대해서 유용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입학 홍보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 진학 정보 서비스실 설치

각 대학의 협조 아래 수집한 대학 안내, 이수 요강, 모집 요강, 대학 소개 비디오테이프 등 최신 자료를 정리하여 전시한다.

○ HEART 뉴스 발행

고교 진로 지도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대학에 관한 최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연 3회 발행한다.

## 4. 중국

### 가. 대학입학제도

중국의 대학입시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대학입시 제도의 형성과 변천 과정, 대학입시제도가 가지는 특징을 간략히 기술한다. 그리고 중국의 현행 입시제도는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대학입시제도 변천

##### 가)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대학입시제도

중국은 해방 전까지는 모든 대학이 기본적으로 대학 단독 혹은 부분적인 대학의 연합에 의해서 신입생을 뽑았다. 해방 초기 교육부에서 발표한 '1950년도 대학교 모집에 관한 규정'은 규범화된 전국 통일의 대학입학제도가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杜丁, 2003). 1951년부터는 학교들의 연합을 없애고 대 행정구역별로 학생을 모집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1952년에 전국대학학생 모집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개별 학교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통일적인 학생모집계획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학생 모집기간, 시험과목 등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정을 두었다. 이때부터 중

국에서 전국적인 대학통일학생모집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학생모집제도는 1965년까지 적용되어 왔다(季明明, 1994).

#### 나) 문화대혁명시기 입시제도

1966년에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대학 전반에 극심한 시련을 안겨주었다. 4년간 대학입시가 중단되었고,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노동개조와 혁명 사업을 위해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서 대다수 대학이 노동자, 농민, 군인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신입생 선발규정을 보면 2년 이상의 실천경험이 있는 노동자, 농민, 해방군 사병만이 입학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당해 년도의 고급 중학교<sup>1)</sup> 졸업생은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는 1966년에 대학에 지원하는 자의 학력조건은 "초급중학교 졸업이상에 상당한 실제적인 문화수준을 갖추고 있는 정도"로 규정하였다. 결국 시험에 의한 입시제도가 폐지되고 노동자, 농민, 군인 중에서 추천에 의해 대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1972년 북경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경시 11개 대학에서 모집한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초급중학교 졸업이 60%, 초등학교 졸업이 20%로 나타났다. 이처럼 추천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하던 제도가 1976년까지 계속되면서 10여년 간 중국의 고급인력 양성이 커다란 단절이 생기게 되었다.

#### 다) 개혁개방이후 입시제도

1976년 문화대혁명이 막을 내리고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문화대혁명시기에 추천에 의한 대학입시제도가 비판을 받게 되었다. 1977년 8월 등소평(鄧小平)은 전국교육과학사업좌담회(全國教科工作座談會) 연설을 통해 학생모집제도를 개혁할 것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같은 해 10월12일 국무원은 교육부의 '1977년 대학입시 업무에 관한 의견(關於1977年高等學校招生工作的意見)'

---

1) 고급 중학교는 우리의 고등학교를 말하고 초급 중학교는 중학교를 말한다.

을 비준하여 시험에 의한 학생선발제도를 다시 부활하기로 결정하였다. 1977년에 시험은 각 성(자치구, 직할시)이 자체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해 현(구)에서 통일적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1978년에는 정식으로 대학 입시 제도를 회복하였다. 그 때부터 1984년까지 입시제도가 다시 복귀되면서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개혁 초기는 주로 문화대혁명 이전의 시험제도를 회복하고 시험과목을 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시험과목은 문과는 정치, 국어, 수학, 역사, 지리, 외국어였고, 이과는 정치, 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외국어였다. 1983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시험(高中畢業會考)'<sup>2)</sup>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각 지방의 인구비례와 인력수요의 차이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1987년부터는 上海 시에서 '3+1'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여기서 '3'은 국어, 수학, 외국어의 공통 필수과목을 말하며, '1'은 물리, 화학, 생물, 정치, 역사, 지리 중에서 선택하는 한 과목을 말한다. 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전공을 고려해 한 과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대입시험 개혁안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云南省, 湖南省, 海南省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 개선하여 '3+2'제도를 시행하였다. 여기서 '2'는 선택과목으로서 문과는 정치와 역사를, 이과는 물리와 화학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둠에 따라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1993년도에 전국적으로 '3+2' 과목개설 방안을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다.

개혁개방이 본격화되었던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입시험 방법과 개혁의 주체가 다양해졌다. 1993년 2월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강요'에서는 대학학생 모집제도의 개혁에 대한 임무, 원칙, 목표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체제를 바꾸어 국가의 계획과 사회 조절성 계획을 서로 결합하는 방식을 실시하며, 앞으로는 점점 위탁배양과 자비생<sup>3)</sup>의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였다(中共

2) 이 제도는 기존의 대입시험과 달리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각 성(省) 단위로 출제된 전 과목 시험을 통해 합격여부를 가리는 시험제도이다.

3) 1997년 9월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자비생 제도가 폐지되었다. 1997년부터 입

中央國務院, 1993). 이것은 중국의 대학 학생모집제도 개혁을 한 걸음 더 심화시킨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1998년 8월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을 통과했고, 그해 중국 교육부에서는 '세 가지 도움의 원칙'을 토대로 대학입시에 대한 '네 가지 개혁(四項改革)' 방안들을 발표하여 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 네 가지는 '시험과목의 개혁', '시험내용의 개혁', '시험형식의 개혁', '기타 개혁' 등이 포함된다(박영진, 2000).

1999년 대학입시부터 시험과목개혁에서 '3+×' 시험제도를 시행하였다. '3+×' 시험제란 필수 3개 과목과 통합과목 1개를 시험 보는 것을 말한다. '3'은 어문, 수학, 외국어를 말하고, '×'는 통합능력측정시험<sup>4)</sup>이라고 불리고 있다. '3+×' 시험제도는 2000년 5개성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었고, 2001년에는 18개성에서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는 12개성이 더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시험내용에서도 개혁을 시도하였다. 시험내용 개혁의 초점이 창의성, 종합성, 융통성, 응용성 능력을 개발하는데 있다. 1999년 시험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응용형, 능력형 문제 중심 시험내용으로 전환되었다.

시험형식의 있어서 대학입학통일시험을 1년 2회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구하였다. 2000년에 北京, 上海, 安徽 성에서는 춘기(春季)통일시험제도를 실시하였고, 2001년에는 北京, 上海, 安徽, 內蒙古自治區에서도 이 개혁제도를 실시하였다.

그 외 학생선발방식에서는 전국 통신망 시스템(全國招生網上錄取系統)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박영진, 2000).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수험생들이 컴퓨터 통신으로 각 대학에 입학신청서를 보낼 수 있으며,

---

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고 스스로 직업을 찾도록 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 4) "×"는 변량으로서 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어떤 성의 경우는 ×가 통합과목(문과통합/이과통합) 1과목인 경우도 있고, 어떤 성의 경우는 통합과목 1과목과 기타 과목 1과목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시험결과, 성적, 경쟁률 등도 전산망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 1999년에는 7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 전산화 작업을 완성하였고, 2000년에는 50% 성(省)에 전산화 작업을 완성하였고 2001년에는 전국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여 가동하였다.

## 2)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제도 특징

### 가) 국가수준의 통일된 학생 모집계획

중국에서는 국가의 교육행정부분 즉, 교육부가 통일적으로 학생모집계획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모집계획에는 연도별 학생모집계획과 학생내원계획의 두 가지가 있다. 연도별 학생모집계획은 국가가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고등교육사업의 발전에 근거해서 제정한 당해연도의 학생모집인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연도별 학생모집계획의 수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있다.

먼저 국가계획위원회와 교육부가 당해 연도 학생모집의 총 규모에 대한 원칙을 세우면 각 지방, 각 부문, 그리고 학교는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당해연도의 학생모집계획을 세운다. 중앙에서는 각 지방, 각 부문 그리고 학교가 세운 학생모집계획을 종합하여 당해연도의 학생모집계획을 세우고 있다. 학생내원계획은 당해연도 학생모집계획중의 학생내원분포계획으로서 성(자치구, 직할시)학생모집계획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각 부문, 각 지구와 대학이 연도계획과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인재수요상황, 대학지원자수, 질 등을 고려해서 각 성(자치구, 직할시)이 제정한 계획을 교육부가 종합, 심사해서 다시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 내려 보낸 것을 말한다. 학생내원계획은 각 대학이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합격자수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 나) 대학의 지역별 할당제의 실시

중국의 대학에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 자기 성(省)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 등이 구별되어 있다.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의 경우는 학교수준에서 학생모집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로 받아들일 학생의 수를 할당하여 각 지역에 통보하게 된다. 지역할당제는 각 대학의 모집정원이 지역별, 각 성과 직할시별로 할당이 되며, 그 지역 내부의 경쟁을 통해서 할당된 숫자만큼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청화대학의 합격상황으로 설명해보면 청화대학에서 광시(廣西)성은 60명을 배정했는데, 커트라인이 805점이고, 광둥성은 69명이 배정됐는데 커트라인이 815점, 상하이시는 66명에 커트라인이 555점이다. 신장(新疆)성의 경우는 30명 배정에 597점으로 지역별로 받아들일 학생 수를 배정하게 된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지표(指標)'라고 부른다. 각 학교는 지표를 줄 때 학교수준의 합격규제선 즉 조당선(調檔線)<sup>5)</sup>을 같이 주게 된다. 이때 합격규제점수는 지역마다 차이가 나게 되고, 이런 이유로 한 대학 안에서도 지역별로 합격점수 즉 커트라인이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3) 수험생 당안제도의 운영

수험생 당안(檔案)제도는 수험생의 발달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종합생활기록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수험생 당안에는 고급 중학교 졸업생 등기표 (졸업 등기표, 학년평어, 시험 성적, 체육합격 등기표, 사회실천 활동 등기표), 전국통일시험의 성적, 정치사상 품덕심사자료, 상벌 등등 학생 개인의 다양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어 일반대학은 당안에 기재된 내용을 통하여 수험생의 교과학습과 기타 여러 방면의 정보를 얻어 이를 대학 입학 사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다.

5) 조당선(調檔線): 학교 조당선이란 특정학교가 규제점수선의 기초상에서 학생들의 지원상황, 점수상황, 해당지역 학생모집계획수에 근거해서 설정하는 점수선을 말한다.

#### 4) 다양한 학생선발제도 실시

중국의 대학입시에서 우리의 수능시험과 비슷한 통일시험과 같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학생선발 방식 이외에 보완적인 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 학생선발제도가 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학생선발 방식으로는 수험생의 사상정치, 품덕 심사결과, 신체건강검사, 대학입학통일시험 점수와 상관과목의 성적 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때문에 덕, 지, 체를 전면적으로 심사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王若榮 외, 1997).

덕육방면의 심사는 정치 사상방면의 심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주요하게는 수험생 본인의 품행을 보며, 수험생이 재학하는 학교에서의 정치태도, 사상각오, 도덕 품성 등의 3개 방면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신체검사는 수험생이 국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건강여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1994년에 공포된 '일반 대학 학생모집 신체건강검사 보충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만약 수험생의 신체건강 정도가 국가가 정한 규정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대학에 합격할 수 없다.

지육방면의 심사는 수험생에 대한 학과지식에 대한 실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주요하게 수험생의 전국 통일시험의 성적을 보는 것을 말한다. 각과 성적과 총 점수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격점수선에 이른 경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특별 학생선발이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한 것으로는 소년반, 정향배양생, 보충생, 추천생, 특기생 등의 선발방식이 있다(김주훈 외, 2001). 그 외 최근에 도입한 대학 자율선발제도가 그 가운데 하나로, 통일시험 점수가 아닌 대학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 제도에 의해 2003년도에 22개 대학이 정원의 5% 이내에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였고, 2004년도에는 6개 대학교가 더 늘어났으며, 2005년도에는 학교수를 더 늘릴 계획이다.

#### 5) 통일시험 문제 공모제 실시

중국의 대학입학통일시험의 시험문제 공모는 대학 입학시험제도의 개혁에 발맞추어 도입된 것이다. 1999년 처음으로 광둥성에서 '3+X' 개혁방안을 도입한 후 이 방안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통합적인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특히 대학입학통일시험에서 통합능력 측정시험과목만이 아니라 기타 단과과목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99년 3월 교육부는 기자회견에서 사회 각계로부터 대학입학통일시험 속의 통합능력시험에 대해서 시험문제를 공모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교육부 고시중심 본과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에 대학입학통일시험문제를 공모한다는 공고를 내보냈다. 이렇게 시작된 시험문제 공모는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대학입학통일시험 통합능력측정시험 시험문제 모집공고' 및 '대학입학통일시험 통합능력측정시험 시험문제공모에 관한 요구'에 따라 작성된 시험문제는 각 개인이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교육부 고시중심 본과 및 전문과 학생모집 시험명제처(考試命題處)에 보내게 된다. 고시중심에서는 수집된 시험문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공모에 의해 수집된 문제들을 심사, 분류한 후 합격한 문항에 대해서는 공모문항 문제은행에 수록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정식 통일시험문제로 활용하고 있다. 시험문제공모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 대학교수가 10%, 중등학교교사가 60%를 차지하였다.

## 나. 시험유형

중국에서는 일반 대학과 성인 대학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시험도 일반 대학입학시험과 성인 대학입학시험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일반 대학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1) 출제 기관

일반대학의 전국통일시험의 출제는 교육부 산하 교육부고시중심(教育部考試中心)과 각 성(직할시, 자치구)의 교육위원회에서 출제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통일시험은 국가교육부에서 출제한 시험지가 있는가 하면 각 성(직할시, 자치구)에서 출제한 시험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성마다 사용하는 시험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요녕성인 경우는 2003년도에 문·이 통합측정 시험은 국가교육부에서 출제한 시험지를 사용하였고, 어문, 수학, 외국어는 요녕성에서 출제한 시험지를 각각 사용하였다. 교육부 고시중심(教育部考試中心)은 해마다 대학입학통일시험에 대비해 ‘考試說明’이란 학습지침서를 발행한다. 이 지침서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수험생들은 이 범위 내에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고, 시험 출제기관에서는 이 考試說明의 요구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http://www.edu.cn/20030212/3077202.shtml>).

## 2) 문항 유형 및 출제내용

중국의 통일시험은 지필시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통일시험문제는 두 종류로 되어 있다. 제1시험지와 제2시험지로 구분되는데, 제1시험지는 선택형 즉 객관식으로 되어 있고 제2시험지는 비선택형 즉, 주관식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대학입학통일시험문제에서 가장 큰 특징이 비선택형 즉 주관식 시험을 본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문인 경우, 시험문제는 선택형과 비선택형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선택형의 경우 4지선다형으로 고차적인 지식을 묻기보다는 기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제한된 형태의 문항이 많다. 문장에서 틀린 구절 찾아내기,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찾아 넣기, 문장 완성하기, 시를 읽고 해석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선택형의 경우는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기, 부정확한 문장 찾아내기, 주어진 정경을 보고 단문짓기, 작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문은 총 150점 만점에서 단일 선택문제는 50점, 기타 유형(열독분석 40점 작문

60점) 100점으로 비선택형의 점수가 훨씬 높다. 그 중에서 작문문제는 비선택형에 배정된 100점 중 60점이 배정되어 그 비중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작문문제를 예시한 것이다.

<표IV-18> 통일시험의 작문문제 예시

---

<작문> 60점

아래 문장을 읽고, 요구에 따라 작문하십시오

현재 우리나라는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3.67억에 달한다.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현대교육의식이 가정교육에 대한 영향, 학부모와 자녀간의 민주평등의 관계, 학부모가 자녀성장에 미치는 영향.. 하지만 중국 현재 가정교육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가정교육은 청소년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교육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가정교육'이라는 주제로 한편의 문장을 쓰시오.

- <주의> 1. 문체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제목은 자유로이 정한다.  
3. 800자보다 적으면 안 된다.
- 

출처: 2004年高考語文試題(湖南卷)

영어인 경우, 총 150점 만점이고 문제유형은 제1시험지 (제1부분 듣기 30점, 제2부분 영어지식응용 45점, 제3부분은 독해이해 40점, 합 115점)와 제2시험지(제4부분 작문1 10점, 작문2 20점, 총 35점)로 되어 있다. 선택형의 경우 빈칸에 주어진 단어를 골라 넣기, 빈곳을 채우기, 독해능력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독해능력검사의 비중이 가장 커서 선택형 점수 95점의 대부분인 70점을 차지하고 있다. 비선택형은 주로 빈칸에 주어진 단어 써넣기, 단문의 잘못된 곳 고치기, 영작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문과 마찬가지로 영어도 비선택형의 경우는 작문의 비중이 가장 커서 35점을 작문에 배정하고 있다. 다음은 영작문 문제를 예시한 것이다.

<표Ⅳ-19> 통일시험의 영작문 문제 예시

---

<작문 2> 25점

당신은 도시에 생활하는 한 중학생으로 가정하자. 그리고 당신은 이번 여름 방학 때 시골로 휴가가려고 한다. 아래 주어진 두 쪽의 그림을 통해 작문해 보시오. 도시생활 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골로 휴가를 가게 된 이유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시오.

- <주의> 1. 주어진 그림에 의해서 적당하게 주제를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문장의 구조가 완벽해야 한다.  
2. 단어 수는 100개 좌우로 한정한다.
- 

출처: 2004年高考英語試題(湖南卷)

수학시험은 총 150점 만점으로 되어있고, 시험지는 제Ⅰ시험지(선다형)와 제Ⅱ시험지(서답형)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통일고시의 수학 시험 출제 원칙은 이 시험성적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표준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험문항의 개발은 교육과정의 표준에 토대를 두어야 하고 시험의 내용은 교육과정 표준을 초월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수학적 지식, 상대난이도, 수학적 능력의 3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2004년 통일고시 수학 시험의 내용 영역을 살펴보면 문제유형은 선택형, 빈칸에 써넣기, 해답(문제풀이)형 3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 3가지 점수비율은 선택형40%, 빈칸에 써넣기 10%, 해답형 50%이다. 비선택형의 문항형태는 주로 괄호 채워 넣기와 해답문제로서 설명과 증명과정 혹은 연산과정을 문자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에서 통합능력측정시험은 능력측정을 중심으로 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수험생이 이수한 과정을 중심으로 기초지식, 기본기능의 이해도와 배운 지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재고자 하는 시험

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국 통합능력측정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고 있다. 하나는 문과와 이과를 포함한 ‘문이통합’이고, 다른 하나는 ‘문과통합/이과통합’이다. ‘문과통합/이과통합’시험<sup>6)</sup>인 경우는 총 점수가 각각 300점 만점이고 문제유형 비율은 선택식 약 50%, 비선택식(주관식) 약 50%를 차지한다.

세 과목의 내용비율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업 시간 수에 따라 결정되며, 시험문제의 난이도는 어려운 문제 약 20%, 중간난이도 약 50%, 쉬운 문제 약 30%를 차지한다. 시험문제는 문제의 형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배열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한 선택형 문항은 앞쪽에 오도록 하고, 비선택형 문항은 뒤쪽에 오도록 하고 있다. 한 과목에서 동일한 형태의 시험문제는 집중해서 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형태에서 다른 문제의 경우는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순으로 순서를 나누어 배열하도록 하고 있다.

### 3) 시험 회수 및 시험과목과 시간

북경 등 일부지방에서만 춘기 대학 입시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 외 기타 지방은 아직 1년에 한번 시험을 치르고 있다.

중국에서 실시하는 전국 통일시험은 매년 시험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03년도부터는 대학통일시험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한달 앞당겨 실시하므로 20년간의 ‘7월 입시’가 막을 내렸다(매년 7월 7일-7월 9일).<sup>7)</sup>

‘3+×’ 시험제도를 실시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일반적으로 6월7일, 6월8일 이틀에 걸쳐 시행된다. 그러나 광둥성, 광서, 하남 등 지역은 문과와 이과통합 대신에 각각의 과목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시험일정이 6월 10까지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험과목과 시간일정을 다음의 표와 같다.<sup>8)</sup>

---

6) 2003年普通高等學校招生全國統一考試說明(統文)(統理)

7) 教育部2003年招生學生規定(2003.5)

가) '3+문과통합시험/이과통합시험'을 실시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시험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IV-20> 중국의 '3+문과통합시험/이과통합시험' 일정

| 날짜<br>과목 및 시간 | 6월 7일         | 6월 8일                |
|---------------|---------------|----------------------|
| 9:00~11:00    | 어문<br>11:30까지 | 외국어                  |
| 15:00~17:00   | 수학            | 문과통합/이과통합<br>17:30까지 |

나) '3+×'를 실시하는 광둥성, 광서, 하남성 등 지역의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다. 외국어시험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등 6가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학생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IV-21> 중국의 '3+×' 시험 일정

| 날짜<br>과목 및 시간 | 6월 7일         | 6월 8일 | 6월 9일                                  | 6월10일                                  |
|---------------|---------------|-------|----------------------------------------|----------------------------------------|
| 9:00~11:00    | 어문<br>11:30까지 | 외국어   | 물리                                     | 화학                                     |
| 15:00~17:00   | 수학            | 문과통합  | 지리<br>13:00~15:00<br>정치<br>16:00~18:00 | 생물<br>13:00~15:00<br>역사<br>16:00~18:00 |

#### 4) 점수 체제와 채점 방식

'3+×' 시험제도에서 '3'은 어문, 수학, 외국어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 150점 만점이다. '×'는 각 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가장 보편적으로 문과통합과목

8) 2003年普通高等學校招生全國統一考試時間

(정치, 지리, 역사)과 이과통합과목(물리, 화학, 생물)시험을 보는데 각각 300점 만점 총 750점이다.

중국 교육부는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최근에 들어와서 컴퓨터 전산망(网上閱卷<sup>9)</sup>라고 함)을 통하여 채점을 실시하고 있다. 각 성의 省招生考試委員會에서 통일적으로 채점을 조직하고 있다. 요녕성의 경우, 2003년도에는 일부 과목만 网上閱卷을 실시하였고, 2004년에는 전 과목이 이 방법을 실시하였다.

통일시험의 채점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개별 수험생의 시험지는 두 명의 교사가 서로 같지 않는 컴퓨터에서 동일한 문제에 대한 채점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문제에 있어서 두 채점자의 성적 차이가 규정된 오차 범위를 넘지 않으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두 점수의 평균점수를 이 시험문제의 점수로 정한다. 그러나 만약 두 채점자 간 성적 차이가 오차범위를 넘게 되면, 문제가 자동으로 세 번째 채점자에게로 넘어간다. 세 번째 채점자의 점수가 앞서 채점한 점수와의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컴퓨터는 위의 근접한 점수와의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그 문제의 점수로 처리한다. 그러나 만약 점수가 오차범위를 넘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과목채점위원회의 책임자에게 넘어가서 채점내용을 재검토하여 최종점수를 정한다. 이와 같은 채점방식은 전통적인 채점방법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주관식 문제 예를 들면, 작문이나 논술형에 대한 점수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http://202.109.141/stcm/gaokao/a.htm>).

## 5) 시험의 활용

중국의 대학은 국가수준의 학생모집계획에 의하여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국가에서 실시하는 통일시험은 가장 중요한 대학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

9) '网上閱卷'은 수험생의 시험지를 컴퓨터로 전송하여 채점자가 컴퓨터상에서 전자화 된 시험지를 채점하는 방법을 말한다.

## 5. 독일

### 가. 대학입학제도

독일의 대학입학제도는 2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1972년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개정안과 1988년 주 교육부장관회의에서 수정된 안에 의거하여 만든 제도이다. 독일의 모든 대학은 국립대학이며 개별 대학의 수준 차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독일 학생들은 4년제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자신의 진로에 따라 김나지움, 종합학교, 직업학교, 중등학교 등에 입학한다. 대학입학을 위해 요구되는 진급반 과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일반적인 진학형태는 김나지움과 종합학교의 10학년 학생에게 해당되며, 직업학교나 중등학교의 학생이 취업보다 대학입학을 원하는 경우 일정한 규정에 따라 김나지움의 상급반에 진학할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김나지움 상급반(Oberstufe)을 마친 후 대학입학자격 시험인 아비투어(Abitur)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최고 4년 안에 아비투어 시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김나지움 상급반을 수료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아비투어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며, 아비투어 시험 없이 1년 간의 직업 교육 또는 현장 실습을 통하여 전문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생활로 나갈 수도 있다. 또한 중등학교나 실업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김나지움 상급반에 입학하여 일반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김나지움의 11학년~13학년은 상급반이라 하며 총 6학기로 구성되는데, 12학년 1학기부터 심화과정에 들어간다. 이중에서도 12학년과 13학년 과정에서는 각 학생별로 자기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학업능력에 따라 공부할 과목을 조합하고 성적을 받아 이수해야 한다. 주당 4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하는 중점코스(Leistungskurs)와 2시간 짜리 기초코스(Grundkurs)를 섞어서

이수해야 한다.

여러 교과목을 3개 분야 즉, 언어분야, 자연과학분야, 예능/사회분야 중에서 적어도 2분야를 망라하여 최소한 3개 과목을, 그리고 3분야 전체에서 5개 과목 이상의 기초코스를 포함시켜서 공부할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강한 전 과목의 성적이 졸업시험의 성적과 함께 대학입학전형자료로 이용된다. 성적은 수업과정에서 진행된 시험과 특별활동을 참고로 하게 되며, 11~13학년 1학기까지 매 학기 당 1회의 시험을 치른다. 이처럼 각 분야의 과목을 골고루 이수하여야 아비투어를 치를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독일에서의 교육은 각 주에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래서 16개 주에서는 상이한 교육체제와 학교 유형들이 있다. 의무교육 및 편제 그리고 수료의 인정 등의 기본구조는 주들 간의 협정에 따라 공통적이며, 각 주들은 서로 다른 교육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교육부상설회의'를 만들어서 공동 노력을 하고 있다.

아비투어시험은 철저하게 지방자치제로 운영된다. 즉, 전적으로 주 정부의 통제하에 교육청 및 학교장이 관리하되, 주 교육부장관회의에서는 독일 전역에 걸쳐 실시되는 아비투어시험의 수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이 아비투어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획득해야 고등학교 졸업자격과 동시에 대학진학자격이 부여된다.

독일에는 대학선발기구나 대학별 입학시험 등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대학입학시험은 내신과 아비투어 시험 두 가지로 구성된다. 각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900점 만점에 내신 600점, 아비투어 시험 300점의 비율로 점수가 매겨진다. 내신성적은 김나지움 12학년부터 13학년(일부 주에서는 11~12학년) 까지 성적을 합산한 것이고, 13학년 2학기 성적은 졸업시험(아비투어 시험) 성적에 합산되어 산출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 성적표를 제출하며, 대학은 고등학교 최종 2학년(12~13학년)의 교과성적과 아비투어시험 성적을 적절히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독일정부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독일인이든 외국인이든 대학입학자격이 구비된 자(아비투어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자)에게는 대학진학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연방공화국인 독일은 각 연방주의 교육부나 학교에 따라 요구하는 전형 서류가 다양하다.

독일에서 개별 학생이 자기가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원학과가 인원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성적총계 기준에 따른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이다. 보통 의학, 경제학, 법학, 자연과학 계열에는 지원자가 많이 몰려 인원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입학정원중앙관리소에서는 입학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학과를 미리 결정(보통, 의학, 치의학, 수의학, 물리학, 화학 등)한 후, 이들 학과의 선발기준을 설정한다. 이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학입학정원중앙관리소에 원서를 제출하고, 관리소에서는 제출된 원서를 검토하여 적당한 대학에 배정을 해준다. 독일의 대학은 모두 국립이고, 전국적으로 대학간의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입학전형 방법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은 편이다. 입학제한이 있는 학과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학이 아니라 대학입학정원관리소에 자리확보를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

## 나. 시험 유형

우리나라의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김나지움의 진학반을 마치는 13학년 2학기말에 학생들은 아비투어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때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추어 시험 과목 4개를 결정한 후, 그에 대한 시험을 1회씩 본다. 이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아비투어는 필수에 해당되는 기본코스 두개, 대학전공과 관련된 중점코스 두개 등 네 개 과목을 학생이 선택하여 과목당 4~5시간씩 총 20여 시간 동안 시험

을 치른다. 특히 네 과목 중 최소한 필수에 해당하는 기본코스 하나는 구술 시험으로 치러진다.

진학반의 수업과목은 과제영역으로 지칭되며, 어학, 문학, 예술영역, 사회 과학 영역, 수학, 자연과학 영역의 3개 학과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성적은 수업과정에서 진행된 시험과 특별활동을 참고하며, 11학년~13학년까지 매 학기당 1회의 시험을 치른다. 대학입학에 반영되는 성적은 12학년부터 수강하는 기초코스의 성적과 중점코스의 성적, 졸업시험의 성적이다. 졸업시험 과목은 첫째 과제영역에서 두 개를, 나머지에서 각 하나의 과목을 정한다. 그리고 2개의 중점코스 과목과 1개의 기초코스 과목은 필기고사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1개의 기초과목은 구술시험으로 진행된다. 중점코스는 5시간, 기초과목은 3시간 동안 필기시험이 진행되며, 이후 나머지 과목에 대한 구술 시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과목 성적, 성적총계에 의한 평균 학점이 적힌 졸업시험 증명서를 받게 되며,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 제출한다.

구술시험은 필기시험을 통하여 평가될 수 없는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것에 일차적 목적이 있다. 시험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내용 및 질적 수준과,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사 전달할 수 있는 언어구사 능력이 평가 항목의 주요 요소이다. 구술시험은 구술시험자, 시기, 위원장으로 구성된 시험위원회와 개별 학생 간 이루어지며, 서기와 위원장의 배석 하에 구술시험자와 학생간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식에 대한 훈련과 준비는 진학반 수업 중에 진행되는 학생과 교사간의 질의와 응답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 1) 출제 기관

아비투어 시험의 실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체로 주정부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주정부에서는 다시 일선 학교의 교사나 교장에게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몇몇 주의 경우 그 지역의 모든 학교가 같은 문제로

같은 날에 아비투어 시험을 치르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통일 적인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런데 시험의 방식에 관계 없이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시험문제의 출제에서부터 채점에 이르기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독일의 아비투어는 주정부가 관리하는 남부의 몇 개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각 고등학교에서 출제·평가한다. 대신 연방정부가 대입논술고사 범위와 학생들이 읽어야 할 작품, 그리고 질문 방식에 대해 2년 전에 각 고등학교에 통보해준다. 각 고등학교에서도 논술시험의 출제·평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수험생의 혼란을 막아준다.

아비투어의 실시를 위해서 각 학교에 아비투어 시험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학교의 교장이 맡거나 학교감독관청의 대표자가 맡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감이 맡을 수도 있다. 위원으로는 고등학교 정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학교의 교사 4명을 임명하는데, 위원 중 한 명은 서기로 임명된다. 시험관리위원회는 최소한 3명의 위원이 참석했을 때 결정능력이 있고,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투표결과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의 발언권으로 결정한다. 오랜 시간 동안 한 위원이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보충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대학입학시험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 <표 IV-22> 독일 대학입학시험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 
- 대학입학시험의 전체 과정 총감독
  - 시험성취도 평가
  - 시험문제와 시험과정에 대한 비밀유지 감독
  -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의 과정을 인식시킴
  - 시험규정에 위배되거나 항의에 대한 적절한 결정
  - 모든 시험과정을 문서화하는 작업 수행
- 

출처: [www.schulrecht-sh.de/texte/a/abitur2000.htm](http://www.schulrecht-sh.de/texte/a/abitur2000.htm)

## 2) 문항 유형

### 가) 필기시험

아비투어의 시험문제 유형은 주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어진 자료나 텍스트를 가지고 다양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논문식이 많다.

### 나) 구술시험

구술시험에서 제시되는 시험과제와 질문문항은 공정성과 비교가능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에 맞게 출제되어야 한다.

- 시험의 객관성 유지이다.
- 시험과제와 질문내용의 타당성 여부이다.
- 구술시험 결과가 학업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정도인 신뢰성이 시험문제 출제의 주요 기준이다.

## 3) 출제 내용

일반적으로 암기식 공부로는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심층적 지식을 요구하는 내용을 주로 출제한다. 학생이 네 개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어떤 경우든 국어(독어), 외국어, 수학을 필히 포함하도록 한다. 우리나라 교육당국에서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대학별고사를 금지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비투어에서는 국(독)·영·수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독일에서는 대학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학업능력을 다양한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졸업시험을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술시험도 각 시험과목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인식 수준과 학업 능력을 특성에 따라 학업요구 영역으로 분류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술시험의 실제 시험 과제는 필기시험보다 난이도가 낮으며, 전문지식보다는 주로 언어 능력의 비중이 높다. 구술시험위원회는 시험 과제의 설정과 질문 문항의 구성에 있어서 방법론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분리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답변과정에 있어서도 상호 관련성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시험문제는 대체로 각 교과목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주제들 중 어느 한 가지를 선정한 후, 이와 관련되는 몇 개의 전문적 지식의 정도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보고 평가한다.

#### 4) 시험 회수 및 점수 체제

아비투어 시험의 점수 체제는 다음 <표IV-23>에 제시한 것처럼, 여섯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성적등급은 일반적으로 최고 1부터 최저 6까지 분포되며, 각 등급의 상하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편차치가 추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1점의 가감을 포함한 시험성적의 점수는 결국 0점서 15점까지에 이른다.

<표IV-23> 아비투어 시험의 점수 체제

| Note | 1                 | 2         | 3                   | 4                   | 5                 | 6                  |
|------|-------------------|-----------|---------------------|---------------------|-------------------|--------------------|
|      | sehr gut<br>매우 좋음 | gut<br>좋음 | befriedigend<br>만족함 | ausreichend<br>도달했음 | mangelhaft<br>부족함 | ungenügend<br>불충분함 |
|      | 15/14/13          | 12/11/10  | 9/8/7               | 6/5/4               | 3/2/1             | 0                  |

각각의 서술시험은 우선 수업교사인 1차 평가자에 의해 채점되고, 총합적인 평점은 6단계 중의 하나로 평점이 매겨진다. 그 후에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한 2차 평가자가 채점하는데, 그들은 1차 평가자의 채점에 동의하거나 또는 자신의 고유한 판단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다. 시험 감독

관청은 본래의 학교에서 충족되는 자격조건의 교사를 결정할 수 없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때, 다른 고등학교의 교사를 2차 평가자로 결정해야 한다. 1차 채점위원과 2차 채점위원의 평가가 다를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회가 평가와 점수를 결정한다.

구술시험의 성적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역시 공정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구술시험 과정이 주로 문답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용기준의 차별화나 불공정한 적용으로 인한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문제의 출제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위원회는 미리 각 시험문제에서 학생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답안 수준인 답안 기대치라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학생의 학업능력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주 및 연방차원에서 각 과목의 학업요구영역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 사항을 졸업시험의 요구사항으로 제안하고 있다.

졸업시험의 요구사항은 각 과목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학업능력에 대한 일반적 척도로 각 주제의 단계별 난이도를 개략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는 개념, 정의, 명제, 방법론에 대한 인지능력 평가이고, 2단계는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능력과 적용능력 평가이며, 3단계는 구체적 문제 해결과정에서 도입되는 논리전개과정과 발휘능력 평가이다. 이러한 졸업시험 요구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외에 주요 평가 기준 및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구술시험자의 질문에 대하여 학생이 응답한 답변의 정확성과 문제해결에 이르는 전 사고과정 즉, 학생이 알고 있는 정도가 기본적인 성적평가 기준이다.
- ② 시험 문항에 대해 각 과목의 학업 요구 영역에서 규정된 기본사항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능력은 문제파악 정도, 인식과 입장의 정확성, 전문용어와 방법론의 사용 정도, 답변의 일관성과 차별성,

핵심적 내용의 추출능력, 비판적 평가능력, 논리전개의 폭 등이 포함된다. 특히 답변의 명확성, 간결성, 적절성, 내용정리 및 분류의 명료성 등은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 ③ 구술시험자는 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인식수준을 기초로 하여 학생이 어느 정도 이를 재구성하고 실제 사례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고려한다.
- ④ 객관적 평가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술시험 과목의 학점이 13학년 2학기의 학점보다 2단계가 높거나 낮으면, 과목의 신뢰성이 상실되며 재시험을 보아야 한다.

## 5) 시험의 활용

아비투어 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학수학능력의 평가에 있다. 이 아비투어 시험에 통과한 학생은 원칙상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든지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여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비투어 시험 성적 외에도 김나지움 12-13학년의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아비투어 시험은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만큼 그 시험성적이 좋지 않으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으나,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비투어 시험 성적 외에도 고등학교 학기 중의 코스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아비투어 시험 성적과 고등학교 12-13학년의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전체 평가라고 하는데, 이 전체 평가는 일반 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개별 학생의 대입 진학 여부는 김나지움 상급반의 내신 성적 즉, 필수에 해당하는 기초코스 330점, 대학에서 전공할 분야와 관련된 중점코스 210점과, 300점 만점으로 된 아비투어 시험성적의 합산으로 결정된다.

## 6. 프랑스

### 가. 대학입학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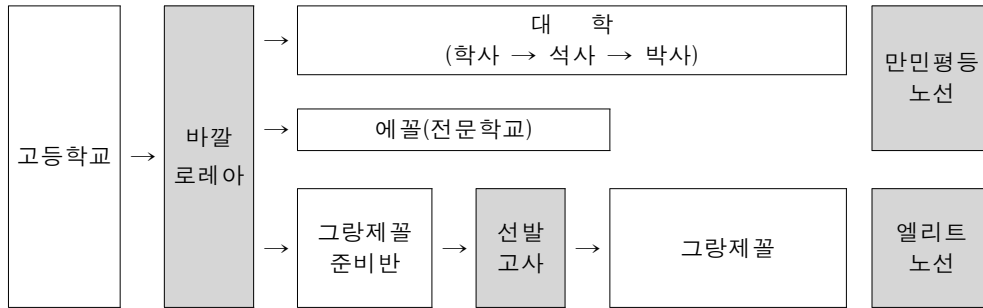
‘대학’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지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대학, 그랑제꼴, 예꼴(전문학교) 등 여러 가지 이름과 기능을 가진 다양한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별로 입학시험과 조건, 선발 방법이 제각기 다르다. 그러나 어떤 학교를 목표로 하든지 고등교육 진학의 가장 기본적인 관문은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일명 ‘박’ BAC)이다.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려면 원칙적으로 바칼로레아에 합격해야 한다. 바칼로레아는 자격고사의 성격으로서 고등교육기관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인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관장하는 중등학교 졸업 시험이기도 하다.

바칼로레아는 독특한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선진국 중 가장 많은 시험 과목, 일주일에 걸쳐 시행되는 긴 시험 기간, 2~4시간에 걸쳐 실시되는 긴 필기시험 시간, 논술형 위주의 평가 방식, 프랑스어를 비롯한 몇 개 교과에 대해 졸업 1년 전 시행하는 사전시험, 폭넓은 선택의 외국어 시험,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부여하는 재시험 제도, 정당한 사유(질병, 사고 등)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주는 보충시험 제도, 철학과 체육 시험 성적(내신)이 포함되는 것 등이다.

일단 바칼로레아에 합격하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종류의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랑제꼴에 진학하려면 그랑제꼴 준비반 2년 과정을 거친 후 학교별 선발고사를 봐야 한다. 이 점이 고등학교 내신, 수능시험, 대학별고사라는 전국민 공통의 단선형 학제와 입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은 만민평등의 노선과 엘리트 노선으로 나누어지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학전형 방식도 다음 그림과 같이 이원화되어 있다.



[그림 IV-3]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와 입시제도

만민평등의 노선으로는 교육의 기회 균등 원칙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바칼로레아 소지자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교양 습득과 학문 연구를 지향하는 개방적 성격의 국립대학(universités)과, 바칼로레아를 가지고 또는 없이도 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실용적 직업인을 양성하는 각종 전문학교(écoles)가 있다. 엘리트 노선으로는 프랑스 사회를 이끌어갈 각 분야의 전문 엘리트 관료 양성을 목표로 하는 그랑제꼴(Grandes Ecoles)이 있다. 이들 그랑제꼴은 바칼로레아를 취득한 후 명문 고등학교에 설치된 그랑제꼴 준비반(CPGE)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치열한 경쟁의 그랑제꼴 별 선발고사를 통해 입학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의 기본 관문이자 우리나라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대학 입학시험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시험 유형

바칼로레아는 1808년 나폴레옹(1808년 3월 17일 ‘프랑스 헌법 부속 칙령’)

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시험으로서 200년의 역사를 갖는다. 초창기인 1880년대에는 겨우 동일 연령층의 1%만이 바칼로레아를 취득하였다가, 1945년에는 3%, 1975년에는 25%, 2000년에는 62%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에는 62만 9천명이 일반, 기술, 직업 바칼로레아에 응시하여, 이 중 50만 2천명이 바칼로레아를 취득, 약 79.8%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비율로 볼 때, 100명의 바칼로레아 취득자 중 52명이 일반 바칼로레아, 30명이 기술 바칼로레아, 18명이 직업 바칼로레아 취득자이다. 바칼로레아 취득자 전체의 78.4%가 신학년도에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칼로레아는 크게 일반, 기술, 직업 바칼로레아의 3종이 있으며,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시 여러 개의 계열로 세분화된다.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IV-24> 바칼로레아의 종류

| 종 별                                              | 계 열                                                                                                                                 |
|--------------------------------------------------|-------------------------------------------------------------------------------------------------------------------------------------|
| 일반 바칼로레아<br>(Baccalauréat Général,<br>3계열)       | 문과(L)<br>경제사회(ES)<br>과학(S)                                                                                                          |
| 기술 바칼로레아<br>(Baccalauréat<br>Technologique, 8계열) | 산업과학기술(STI)<br>실험과학기술(STL)<br>의학-사회과학(SMS)<br>농업 및 환경과학기술(STAE)<br>식품생산과학기술(STPA)<br>3차산업과학기술(STT)<br>음악무용(TMD)<br>호텔경영(Hôtellerie) |
| 직업 바칼로레아<br>(Baccalauréat<br>Professionnel)      | 48개 전공 분야 시험<br>BEP(50종), CAP(200종) 자격증을 소지<br>한 직업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 자격증<br>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직업 활동 경<br>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출처: [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default.htm](http://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default.htm)

바칼로레아는 일종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한번 합격하면 평생 유효하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평생 언제든지 다시 대학에 입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바칼로레아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대학과 계열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학 바칼로레아 소지자가 자연과학 대학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파리를 비롯하여 스트라스부르그, 리옹 등 대도시에서는 다른 지방 도시보다 경쟁률이 높으며 신입생 정원이 바칼로레아 취득자보다 적기 때문에 계열을 바꾸어 진학하기가 어려우며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발 방법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선발과정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칼로레아 성적이다. 일반적으로 바칼로레아 성적이 원하는 대학으로의 진학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바칼로레아 성적은 2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경우 바칼로레아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입학시험을 시행하는 대학이나 그랑제꼴 준비반도 있다.

파리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 배치를 위하여 ‘학생 희망 자동조사’(RAVEL, Recensement automatisé des vœux des élèves)라는 예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파리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예비 등록을 거쳐야 하는데, 예비 등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당해연도에 파리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다. 외국에서 바칼로레아 시험을 치렀거나 기타 바칼로레아와 동일한 자격을 획득한 학생이 파리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고등학교가 학군제에 따라 학생들을 배치하므로 대학도 간접적으로 학군제가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각 대학은 학생들의 예비 등록을 접수하기 전에 계열별 신입생 정원을 발표한다. 학생들은 미니텔(Minitel 3614 SIEC)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계열을 선호하는 순서에 따라 선택하여 등록한다. RAVEL 체제는 파리 지역 내 각 대학의 입학 정원, 학생 희망 대학과 계열, 성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생을 배치하는

체제이다. 학생들의 희망과 각 대학의 입학 정원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 대학은 차이를 조정하여 학생들에게 입학 가능한 계열을 추천하는 것이다.

바칼로레아가 없는 사람들도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첫째, D.A.E.U(Diplôme d'Accès aux Etudes Universitaires)라는 대학입학 자격시험에 통과한 경우이다. 이 시험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학교 공부를 중단했던 것이 증명되어야 볼 수 있으며, 연령이 최소 20세 이상이고 2년 이상의 직업경험이 있어야 하며, 직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24세 이상이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계열에 따라 2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 대학에서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좌를 열고 있다. 둘째, 각종 공사립 직업 훈련 기관에서 받은 교육이나 직업 경력을 가지고도 대학 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원서 교부와 심사는 해당 단과대학에서 담당한다. 이 경우에도 2년 이상 학교 공부를 중단했던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 1) 출제 기관

바칼로레아 운영의 책임은 교육부의 중앙 행정과 장학관실(Inspection générale) 뿐 아니라, 탈중앙집권적인 정책에 따라 각 학구에 분산되어 있다. 중앙 행정에서는 바칼로레아의 전반적 사항(시간, 계수, 성격 등)을 정의하는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며, 각 연도별 바칼로레아 시험의 국가 일정표를 정한다. 또한 학구간 시험 문제의 개발 책임과 시험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을 정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부 장학관실(Inspection Générale de l'Education)에서는 바칼로레아 시험에 대한 총 감독과 시험 문제의 질 관리를 수행한다.

각 학구는 대체로 인접한 몇 개의 학구와 공동으로 바칼로레아를 조직하며, 학구별 출제 위원회를 조직한다. 해외 지역 등 일부지역의 학구는 별도로 바칼로레아를 조직하기도 한다. 각 학구별로 시험원 또는 시험주관부서를 두고, 시험원 또는 부서 상호간에 매년도 시험 문제를 복사, 저장, 분배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시험원 또는 부서는 바칼로레아 시험뿐만 아니라 BEP나 CAP, BTS 등의 각종 직업기술 자격시험, 교원자격시험과 기타 교직원채용시험 등 여러 가지 시험의 관리를 담당한다. 출제와 채점은 별도의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구는 수험생의 바칼로레아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학구 내 구두 및 실기 시험의 일정을 결정하며, 채점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이 외에도 학구는 교원과 수험생들에 대한 시험 출두 명령, 바칼로레아 증서의 발급이나 시험문제지 보관 등에 관한 책임을 갖는다.

우리나라 수능시험의 출제 방식은 출제위원들이 한 달 정도 감금되어 출제하는 폐쇄형 합숙 출제 방식인데 비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의 출제 방식은 개방형으로서 시험일까지 1년 이상의 출제 과정을 거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험 1년 전 5월에 교육부장관은 각 학구에 다음 학년도 바칼로레아 문항의 제작 책임을 부여한다. 6월에 각 학구별 시험원 또는 시험주관 부서가 출제위원회(교수, 교사, 장학관)를 구성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문항 제작을 하고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문항 검토에 들어가며, 해당 과목 교사들이 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모의시험을 치르게 된다. 1~2월에 문항의 수정·보완을 하며, 3월에 학구 총장은 시험 문제의 최종 결정을 하며 교육부 장학관실에서 시험 문제의 질 관리를 위한 심사를 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시험 문제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다른 한 세트의 시험 문제를 준비한다. 4~5월에 국가 인쇄소에서 시험 문제 인쇄를 하며, 6월에 시험 실시 며칠 전 각 시험장에 시험지를 배포하고 시험을 실시하게 되는 1년간의 과정을 거친다([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coulisses.htm](http://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coulisses.htm)).

## 2) 문항 유형 및 출제 내용

바칼로레아 시험은 필기시험, 구두시험, 실기시험(산업기술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필기시험의 문항 유형은 우리나라의 수능시험과 달리 서답형(주로 서술형과 논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수가 수능의 경우 언어 영

역 60문항, 외국어(영어) 50문항 등 상당히 많은데 비해, 바칼로레아는 서답형인 만큼 과목당 2~4 문항으로 매우 적으며, 시험 시간도 과목당 2~4시간이 주어진다. 문항 출제 방식은 과목당 2~4개의 주제가 주어지면 수험생들이 그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대개 하나의 주제 속에 서술형과 논술형으로 구성된 일련의 소문제들이 주어진다.

철학 시험의 경우는 주제 속에 딸린 일련의 소문제들 없이 세 개의 주제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논술형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프랑스어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나뉘어 지는데, 필기시험의 경우 1) 논쟁이 될 만한 내용의 한 텍스트를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설명과 논의를 요구하는 문제, 2) 텍스트 분석, 3) 논술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채점 기준은 논리성, 개성, 철자법, 표현력 등이다. 역사 및 지리의 경우는 시사적인 주제를 제시하면서 논술을 하도록 하는 문항과, 도표나 자료를 제시해주고 분석과 해석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 섞여 있다. 동일 과목이라도 계열별로 시험 문제가 다르고 또한 문제마다 배점이 다르다. 시험 과목당 계수(가중치)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계열과 연관이 깊은 과목의 계수는 높다.

바칼로레아 시험의 논술 주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계의 중요 문제들”(Désalmand & Tort, 1994)과 관련된다. 따라서 출제 분야는 철학, 윤리, 정치, 노동 등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계에 고유한 여러 가지 변화들(기술의 발전과 행복, 삶의 질, 인류의 장래에 대한 문제들, 이 세계의 어떤 면에 대한 토론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있어서 노동의 문제(현대 노동의 소외적 성격, 이민 노동자 문제, 작업 조건의 악화와 삶, 직업의 노예 등), 여가의 문제(스포츠와 사회, 스포츠와 휴머니즘, 억압적인 노동의 보상으로서의 여가, 복잡한 도시 생활 보상으로서의 여가 등), 매스 미디어(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의 역할(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매스 미디어, 교육과 문화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새로운 문화의 탄생 등), 인간 집단들과 관련된 문제

들(노인, 여성, 외국인 이민 노동자 등), 교육과 문화와 관련된 문제들(교육은 억압인가 자질 개발인가, 학교와 인생과의 관계, 당신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결산해 보라 등), 환경의 문제(인간과 자연의 관계, 공해와 오염 등), 폭력(사형제도, 인질, 연극·영화·만화에 있어서의 폭력 등), 비교의 주제들(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책과 텔레비전, 도시에서의 고독과 시골에서의 고독 등)을 비롯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생각해볼 만한 의미 있는 주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다음은 2001년 및 2002년도 일반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 문제 예시이다.<sup>10)</sup>

**일반 바칼로레아 문과(L) 계열 2001년 철학 시험 문제 (4시간)**

계산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3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하시오.

- (문제1)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인정될 수 있는가?  
(문제2) 모든 권력은 폭력을 동반하는가?  
(문제3) 다음의 텍스트를 논하시오: <Hume의 텍스트 한 단락>

**일반 바칼로레아 문과(L) 계열 2002년 철학 시험 문제 (4시간)**

계산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3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하시오.

- (문제1)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는가?  
(문제2) 예술 없이 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문제3) 다음의 텍스트를 논하시오: <Malebranche의 텍스트 한 단락>

10) 여기서 예시하는 바칼로레아 시험문제들은 프랑스 학구 교육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http://crdp.ac-bordeaux.fr/documentalistes/docadmin/suj\\_exam.asp#bacg](http://crdp.ac-bordeaux.fr/documentalistes/docadmin/suj_exam.asp#bacg)

[http://rectorat.ac-aix-marseille.fr/sujets/menu\\_bg.html](http://rectorat.ac-aix-marseille.fr/sujets/menu_bg.html)

구두시험은 시험관과 학생간의 대화로 진행되는데, 구두시험 과목은 계열당 2-3개 과목인데 주로 프랑스어, 외국어, 경제사회학, 고어, 지역어 등이다. 구두시험의 문제 선정 방식은 먼저 시험 신청 시 수험생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작가 및 저작(예를 들어, 까뮈의 이방인) 목록을 정해진 숫자 이상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시험관이 수험생이 제시한 목록에서 작가와 저작을 임의로 선택하여 질문한다. 시험관은 작가 및 저작별로 질문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질문하는 것이다. 구두시험의 시간은 과목별로 대개 15분에서 30분 정도이다.

### 3) 시험 회수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년도가 9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나며, 바칼로레아는 학년도가 끝나는 매년 6월에 실시된다. 우리나라의 수능시험은 단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보는데 비해 바칼로레아는 일주일에 걸쳐 필수, 선택과목별로 하루 1~2과목씩 본다. 또한 바칼로레아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데, 고등학교 2년차 말의 사전시험(épreuves anticipées)과 3년차 최종학년말의 최종시험(épreuves terminales)이 그것이다.

사전시험은 최종학년 말에 실시되는 대부분의 교과 시험들로 구성된 최종 시험보다 1년 앞서 실시되는 것이다. 사전시험 과목으로는 프랑스어, 과학교육, 수학-정보학 교과이다. 사전시험의 성적은 다음 해 실시되는 최종시험에서의 다른 과목들의 점수에 합산된다. 사전시험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졸업 전 실시되는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이때 2차 시험 성적이 1차 시험 성적보다 못해도 전년도 1차 시험 성적을 대신한다.

정당한 사유(질병, 가족의 사망, 사고 등)로 6월 시험의 전체 혹은 일부분에 응시 못한 수험생에게는 9월에 보충시험(session de remplacement)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8점 이상 10점 미만을 취득한 수험생에게는 7월 중 재시험(épreuves orales du second groupe 또는 만회시험 rattrapage)의 기회가 주어진다. 재시험은 사전시험이나 최종시험에서 치른 필기시험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구두시험으로 치러진다. 사전시험의 경우와 달리, 최종시험에서는 본시험과 재시험에서 받는 점수 중 높은 점수가 채택된다. 재시험을 통해 전 과목 평균 1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바칼로레아에 응시하려면 예비접수를 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학구별로 최종시험의 접수는 최종학년도(우리나라 고3에 해당) 10월과 11월 사이 1개월 간 진행되며, 사전시험의 접수는 1월과 2월에 실시된다. 학교에서는 수험생이 따라야 할 절차를 알려주며, 예비접수는 재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미니텔(Minitel 3614 SIEC)로,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개별적인 방식으로 미니텔에 접속하여 실시된다. 이때 수험생은 선택과목과 외국어를 선정해야 한다. 필기시험 접수확인서가 수험생에게 발송되며, 수험생은 이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반송해야 한다. 만일 착오 사항이 있으면 보내기 전에 수정하고 서명을 해서 반송해야 한다. 반송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바칼로레아 시험 당일에는 시험 출두증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바칼로레아 시험은 일주일간 진행된다. 가령, 2002년 일반 바칼로레아의 경우 6월 13일 ~ 6월 20일(토·일요일 제외)에 치러졌다. 프랑스 해외에서도 본토와 마찬가지로 바칼로레아가 실시되는데, 문항 유형과 문항 수 등 출제 방식은 같지만, 시차 때문에 시험 문제 및 시험 일정이 본토와 다르다. 2002년 프랑스(본토)의 일반 바칼로레아 일정표는 다음 <표IV-25>와 같았다.

#### 4) 시험 과목 및 시간

수험생은 3종의 바칼로레아(일반, 기술, 직업 바칼로레아)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시 그 내부 계열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과목으로는 계열공통 필수, 전공선택 필수, 선택 시험이 있다. 일반 바칼로레아 계열공통 필수시험으로는 프랑스어, 철학, 역사 및 지리, 체육 시험 등이 있다. 일반 바칼로레아의 3가지 계열별 시험과목은 <표IV-26, 27, 28>에 제시한 바와 같다(출처 :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B.O. n. 43, 22 Nov, 2001, Annexe 1).

<표 IV-25> 바칼로레아 일정표

| 계열<br>일자              | 문과계열                                                                                   | 경제사회계열                       | 과학계열                                                    |
|-----------------------|----------------------------------------------------------------------------------------|------------------------------|---------------------------------------------------------|
| 2002년<br>6월<br>13일(목) | 철학<br>8-12시                                                                            | 철학<br>8-12시                  | 철학<br>8-12시                                             |
|                       | 문학<br>14-16시                                                                           |                              |                                                         |
| 6월<br>14일(금)          | 프랑스어 · 프랑스문학<br>8-12시                                                                  | 프랑스어<br>8-12시                | 프랑스어<br>8-12시                                           |
|                       | 수학-정보학 조기시험<br>14-15시 30분                                                              | 과학교육 조기시험<br>14-15시 30분      |                                                         |
|                       | 과학교육 조기시험<br>16시 30분-18시                                                               |                              |                                                         |
| 6월<br>17일(월)          | 역사-지리<br>8-12시                                                                         | 역사-지리<br>8-12시               | 역사-지리<br>8-12시                                          |
|                       | 예술(필기시험) :<br>14-16시 : 조형미술<br>14-17시 15분 : 음악<br>14-17시 30분 : 연극, 영<br>화, 예술사, 무용 중 1 |                              | 물리-화학<br>14-17시 30분                                     |
|                       | 고대그리스어<br>14-17시                                                                       |                              |                                                         |
| 6월<br>18일(화)          | 라틴어<br>8-11시                                                                           | 수학<br>9-12시                  | 수학<br>8-12시                                             |
|                       | 외국어 1<br>14시 30분 - 17시 30분                                                             | 외국어 1<br>14-17시              | 외국어 1<br>14-17시                                         |
| 6월<br>19일(수)          | 조형미술 실기<br>8-13시                                                                       | 경제사회학<br>8-12시 또는<br>13시(전공) | 생명과학 및 지구과학<br>또는 생물-생태학<br>8-11시 30분<br>또는 공학<br>8-12시 |
|                       | 외국어 2<br>14시 30분 - 17시 30분                                                             |                              | 외국어 2<br>14시 30분-16시 30분                                |
| 6월<br>20일(목)          | 지역어<br>9-12시                                                                           |                              | 지역어<br>9-11시                                            |
|                       | 수학 선택 시험<br>14-17시                                                                     |                              |                                                         |

출처: [www.lebac.com/bacgen.htm](http://www.lebac.com/bacgen.htm)

<표IV-26> 일반 바칼로레아 문과 계열 시험과목

| 일반 바칼로레아 문과계열(L)                       |     |                    |             |
|----------------------------------------|-----|--------------------|-------------|
| ■ 필수 시험                                | 계수  | 시험 성격              | 시 간         |
| ▷ 사전 시험(2년차 말)                         |     |                    |             |
| 프랑스어 및 문학                              | 3   | 필기                 | 4시간         |
| 프랑스어 및 문학                              | 2   | 구두                 | 20분         |
| 과학교육                                   | 2   | 필기                 | 1시간 30분     |
| 수학-정보학                                 | 2   | 필기                 | 1시간 30분     |
| ▷ 최종 시험(3년차 말: 최종학년말)                  |     |                    |             |
| 문학                                     | 4   | 필기                 | 2시간         |
| 역사 및 지리                                | 4   | 필기                 | 4시간         |
| 외국어 1                                  | 4   | 필기                 | 3시간         |
| 철학                                     | 7   | 필기                 | 4시간         |
| 외국어 2, 지역어 또는 라틴어                      | 4   | 필기                 | 3시간         |
| 체육                                     | 2   | CCF(내신성적)          |             |
| ■ 전공 시험(선택 필수: 1과목)                    |     |                    |             |
| 라틴어                                    | 4   | 필기                 | 3시간         |
| 또는 고대 그리스어                             | 4   | 필기                 | 3시간         |
| 또는 조형 예술                               | 3+3 | 필기+실기              | 2시간/5시간     |
| 또는 영화-시청각                              | 3+3 | 필기+구두              | 3시간 30분/30분 |
| 또는 예술사                                 | 3+3 | 필기+구두              | 3시간 30분/30분 |
| 또는 음악                                  | 3+3 | 필기+실기              | 3시간 15분/30분 |
| 또는 연극-드라마 표현                           | 3+3 | 필기+실기              | 3시간 30분/30분 |
| 또는 무용                                  | 3+3 | 필기+실기              | 3시간 30분/30분 |
| 또는 외국어 2                               | 4   | 필기                 | 3시간         |
| 또는 외국어 3                               | 4   | 구두                 | 20분         |
| 또는 지역어                                 | 4   | 구두                 | 20분         |
| 또는 외국어 보충(외국어 1, 2 또는 지역어)             | 4   | 구두                 | 20분         |
| ■ 새로 도입된 시험                            |     |                    |             |
| 체육 보충(EPS Complémentaire)**            | 2   | CCF(내신성적)          |             |
| 개별지도학습(TPE)***                         | -   | 구두                 |             |
| ■ 선택 시험(최대 2과목 선택)                     |     |                    |             |
| 외국어                                    |     | 언어에 따라 구두<br>또는 필기 | 20분/2시간     |
| 지역어                                    |     | 구두                 | 20분         |
| 라틴어                                    |     | 구두                 | 15분         |
| 고대 그리스어                                |     | 구두                 | 15분         |
| 수학                                     |     | 필기                 | 3시간         |
| 체육(EPS)                                |     | CCF(내신성적)          |             |
| 예술: 조형미술, 영화-시청각, 예술사, 연극-드라마 표현 또는 무용 |     | 구두                 | 30분         |
| 또는 음악                                  |     | 필기 및 구두            | 30분+30분     |

\* 2003학년도부터 프랑스어가 『프랑스어 및 문학』으로 개칭됨

\*\* 체육 보충(EPS Complémentaire) 강의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필수 시험.

\*\*\* 바칼로레아 개별지도학습(TPE) 평가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시험으로서 중간 이상의 점수만이 평점에 포함.

<표 IV-27> 일반 바칼로레아 경제사회계열 시험과목

| 일반 바칼로레아 경제사회계열(ES)                       |           |                    |                   |
|-------------------------------------------|-----------|--------------------|-------------------|
| ■ 필수 시험                                   | 계 수       | 시험 성격              | 시 간               |
| ▷ 사전 시험(2년차 말)                            |           |                    |                   |
| 프랑스어                                      | 2         | 필기                 | 4시간               |
| 프랑스어                                      | 2         | 구두                 | 20분               |
| 과학교육                                      | 2         | 필기                 | 1시간 30분           |
| ▷ 최종 시험(3년차 말: 최종학년말)                     |           |                    |                   |
| 역사 및 지리                                   | 5         | 필기                 | 4시간               |
| 수학                                        | 5 또는 7*   | 필기                 | 3시간               |
| 경제사회학                                     | 7 또는 7+2* | 필기                 | 4시간<br>또는 4시간+1시간 |
| 외국어 1                                     | 3         | 필기                 | 3시간               |
| 외국어 2 또는 지역어                              | 3 또는 3+2* | 구두                 | 20 또는 30분*        |
| 철학                                        | 4         | 필기                 | 4시간               |
| 체육                                        | 2         | CCF(내신성적)          |                   |
| ■ 전공 시험(선택 필수: 1과목)                       |           |                    |                   |
| 경제사회학**                                   |           |                    |                   |
| 또는 수학**                                   |           |                    |                   |
| 또는 외국어 2 보충**                             |           |                    |                   |
| 또는 지역어 보충**                               |           |                    |                   |
| 또는 외국어 1 보충**                             | 2         | 구두                 | 20분               |
| ■ 새로 도입된 시험                               |           |                    |                   |
| 체육 보충(EPS)***                             | 2         | CCF(내신성적)          |                   |
| 개별지도학습(TPE)****                           | -         | 구두                 |                   |
| ■ 선택 시험(최대 2과목 선택)                        |           |                    |                   |
| 외국어                                       |           | 언어에 따라 구두<br>또는 필기 | 20분/2시간           |
| 지역어                                       |           | 구두                 | 20분               |
| 라틴어                                       |           | 구두                 | 15분               |
| 고대 그리스어                                   |           | 구두                 | 15분               |
| 체육(EPS)                                   |           | CCF(내신성적)          |                   |
| 예술: 조형미술, 영화-시청각, 예술사,<br>연극-드라마 표현 또는 무용 |           | 구두                 | 30분               |
| 또는 음악                                     |           | 필기 및 구두            | 30분+30분           |

\* 수험생이 이 과목을 전공으로 선택했을 때

\*\* 수험생이 전공에서 동일 교과를 선택할 때 필수 시험과 함께 치루는 시험

\*\*\* 체육 보충(EPS Complémentaire) 강의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필수 시험

\*\*\*\* 바칼로레아 개별지도학습(TPE) 평가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시험으로서 중간 이상의 점수만이 평점에 포함됨

<표 IV-28> 일반 바칼로레아의 과학계열 시험과목

| 일반 바칼로레아 과학계열(S)                                    |         |                    |                 |
|-----------------------------------------------------|---------|--------------------|-----------------|
| ■ 필수 시험                                             | 계 수     | 시험 성격              | 시 간             |
| ▷ 사전 시험(2년차 말)                                      |         |                    |                 |
| 프랑스어                                                | 2       | 필기                 | 4시간             |
| 프랑스어                                                | 2       | 구두                 | 20분             |
| ▷ 최종 시험(3년차 말: 최종학년말)                               |         |                    |                 |
| 수학                                                  | 7 또는 9  | 필기                 | 4시간             |
| 물리-화학                                               | 6 또는 8* | 필기                 | 3시간 30분         |
| 생명과과학 및 지구과학                                        | 6 또는 8* | 필기                 | 3시간 30분         |
| 또는 생물-생태학***                                        | 5+2     | 필기 및 실기            | 3시간 30분+1시간 30분 |
| 또는 공학                                               | 6+3     | 필기 및 실기            | 4시간+4시간         |
| 역사 및 지리                                             | 3       | 필기                 | 4시간             |
| 외국어 1                                               | 3       | 필기                 | 3시간             |
| 외국어 2 또는 지역어                                        | 2       | 필기                 | 2시간             |
| 철학                                                  | 3       | 필기                 | 4시간             |
| 체육                                                  | 2       | CCF(내신성적)          |                 |
| ■ 전공 시험(선택 필수: 1과목, 최종시험에서 공학을 선택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자유 선택) |         |                    |                 |
| 수학**                                                |         |                    |                 |
| 또는 물리-화학**                                          |         |                    |                 |
| 또는생명과학 및 지구과학**                                     |         |                    |                 |
| 또는 농학-지역학-시민정신***                                   | 2       | 구두                 | 30분             |
| ■ 새로 도입된 시험                                         |         |                    |                 |
| 체육 보충(EPS)****                                      | 2       | CCF(내신성적)          |                 |
| 개별지도학습(TPE)*****                                    | -       | 구두                 |                 |
| ■ 선택 시험(최대 2과목 선택)                                  |         |                    |                 |
| 외국어                                                 |         | 언어에 따라 구두<br>또는 필기 | 20분/2시간         |
| 지역어                                                 |         | 구두                 | 20분             |
| 라틴어                                                 |         | 구두                 | 15분             |
| 고대 그리스어                                             |         | 구두                 | 15분             |
| 체육(EPS)                                             |         | CCF(내신성적)          |                 |
| 예술: 조형미술, 영화-시청각, 예술사, 연극-<br>드라마 표현 또는 무용          |         | 구두                 | 30분             |
| 또는 음악                                               |         | 필기 및 구두            | 30분+30분         |
| 마학 및 승마***                                          |         |                    |                 |
| 사회 및 문화실습***                                        |         |                    |                 |

\* 수험생이 이 과목을 전공으로 선택했을 때

\*\* 수험생이 전공에서 동일 교과를 선택했을 때 필수 시험과 함께 치루는 시험

\*\*\* 농업부 유관교육기관에서 부과하는 교육에 상응하는 시험들

\*\*\*\* 체육 보충(EPS Complémentaire) 강의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필수 시험

\*\*\*\*\* 바칼로레아 개별지도학습(TPE) 평가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시험으로서 중간 이상의 점수만이 평점에 포함됨.

## 5) 점수 체제와 채점 방식

모든 과목은 20점을 만점(소수점 이하 없음)으로 하며, 바칼로레아는 선발 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전 과목 평균 1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평균이 8점 미만인 학생들은 불합격 처리되며, 8점 이상 10점 미만인 학생들에게는 구술 재시험(만회 시험)의 기회가 주어진다. 12점 이상의 우수한 점수에는 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점(mention)을 준다.

- 평균 12점 이상 14점 미만 ⇒ 평점 '우수한 편'(assez bien)
- 14점 이상 16점 미만 ⇒ 평점 '우수'(bien)
- 16점 이상 ⇒ 평점 '매우 우수'(très bien)

이러한 평점은 엔지니어 학교(Ecoles d'Ingénieurs), 그랑제꼴 준비반(CPGE)<sup>11)</sup> 등 높은 수준의 학교에 입학하는데 결정적이다. 2000년의 경우, 일반 바칼로레아 취득자의 32.4%가 평점을 받았는데, 그 중 1.9%가 평점 '매우 우수'를 받았으며, 기술 바칼로레아 취득자의 42%가 평점을 받았으며, 그 중 0.5%가 평점 '매우 우수'를 받았고, 직업 바칼로레아의 경우는 44.5%가 평점을 받았으며, 그 중 0.5%가 평점 '매우 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mode.htm](http://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mode.htm)).

재시험은 본시험에서 치른 필기시험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여 구두시험으로 치른다. 재시험이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대개 본시험에서 1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과목 중에서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선택한다. 최종점수로는 본시험과 재시험에

---

11) 그랑제꼴 준비반은 그랑제꼴 시험 대비를 목적으로 명문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2년간의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탁월한 내신 성적과 바칼로레아에서 우수한 평점을 취득한 학생들만 서류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중등교육기관이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2년간의 교육을 마친 후 그랑제꼴 선발고사에 실패하더라도 2년간의 교육과정 기간은 인정받게 되어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학이 가능하다.

서 얻은 점수 중에서 높은 점수가 채택된다. 재시험을 통하여 평균점수가 10점 이상으로 조정된 학생들은 본시험에서 이미 1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과 함께 바칼로레아를 취득할 수 있다.

채점을 위해 대학 교수와 중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과목별 채점위원회가 조직된다. 교육부는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저득점자를 줄이고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대한 채점을 원칙으로 한다. 채점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는 교육청장이 임명하는 대학교수이나, 실질적인 지휘는 지역 장학관들에 의해 임명된 부책임자들로서 중등학교 교사들이 담당한다. 부책임자의 지휘 하에 하나의 심사반이 움직이는데, 1개 심사반(여러 개 팀으로 구성)이 담당하는 답안지는 대개 1,000매 정도이다. 예를 들어, 2001년의 경우, 12만 명의 채점자와 시험 시행자가 동원되어 총 4백만 장의 답안지를 채점하였으며, 심사위원회내의 1개 심사반당 1,000장을 채점하였다. 바칼로레아 시행 및 채점에 드는 비용은 2002년의 경우, 수험생 당(수험생 수 63만 명) 일반 바칼로레아는 262프랑(4만 7천원), 기술 바칼로레아는 473프랑(8만 5천원), 직업 바칼로레아는 433프랑(7만 8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동일 답안지가 채점자에 따라 다른 점수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최저 5점에서 최고 15점을 받은 경우는 학교 내신 성적(livret scolaire)을 참조하여 시험에서 얻은 점수와 학교 성적의 차이가 클 때 채점 내용을 재검토하고 점수 조정을 한다. 단, 하향조정은 불가능하다. 구두시험으로 치러지는 재시험의 경우, 시험관이 내신 성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었으나 1997년부터는 시험관에게 미리 내신 성적이 고지되지 않고 오직 시험관과 학생의 대화 내용만으로 성적을 주도록 되었다.

답안지에 대한 확인은 점수 발표 후 7일 동안 허가된다. 수험생은 원한다면 이 기간 동안 채점된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런데 채점과정에서 채점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논술형 평가와 채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대단히 높다. 국민들은 채점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존중하며 인정하고, 채점 담당 과목별 심사반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하여 공정성을 기한다. 여러 채점자간 채점 결과를 놓고 비교 조정하고, 학생의 내신 성적을 참조하는 등 최대한 객관성을 높이는 과정을 거친다.

#### **6) 시험의 활용**

채점 방식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미리 인지시키기 위해 사전 모범 답안 및 채점 방식, 예시 문항을 공개하며 시행 후에도 문항 공개와 시험 결과를 공개(개별 성적은 비공개)하고 학생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교육부는 전국 고등학교의 바칼로레아 합격률을 발표하고 있으며, 차후 바칼로레아 지도를 위해 교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 **7. 수능시험 개선을 위한 시사점**

외국의 대학입학시험체제의 주요 특징과 그것이 우리나라 수능시험의 개선을 위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외국의 대학입학시험체제의 주요 특징**

##### **1) 미국**

미국 대학입학시험체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입학시험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전문화되어 있다. 예컨대, 대학입학시험이 일반학업적성검사라고 할 수 있는 SAT I, 기초학력검사라고 할 수 있는 ACT, 교과별 학력검사라고 할 수 있는 SAT II, 심화선택과목별 고급학력고사라고 할 수 있는 AP 시험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둘째, 대학입학전형에서 미국의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 SAT 점수나 혹은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학들은 고등학교 때의 학업수행과정, 이수한 교과목과 학업수준, 체육과 예술 등의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 봉사정신, 리더십,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셋째, SAT나 ACT 등 대학입학시험을 1년에 여러 번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여 난이도를 사전에 조절하고, 해마다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출제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본 시험성적 가운데 높은 점수를 대학에 제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러 번 시험을 보아 가장 좋은 성적을 대학에 제출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이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넷째, 대학입학시험의 활용에 있어 미국의 대학들은 시험 점수 1~2점을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SAT I의 언어와 수학 각각 800점 만점에 60점 정도의 차이는 지적인 능력이나 학업능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 점수 차이는 SAT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혹은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차이로 간주하며, 60점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 두 학생의 학업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섯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원하는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특별한 제한 없이 다수의 대학에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 2) 영국

영국 대학입학시험체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대학입학제도에서 수험생들은 UCAS를 통해 최대 6개 대학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원 분야는 동일분야에 한정해야 한다. 예컨대, 경영학 지원이라면 6개 대학 모두 경영학 관련 학과이어야 한다.

둘째, 시험 유형에 있어서는 공통시험(GCE-A Level이나 GCE-AS Level 시험 등)에 의한 학력 위주의 선발을 하고 있으나, 학력이 하나의 시험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다양한 시험, 다양한 과목, 다양한 수준별 시험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같은 시험이라도 시험과목의 종류 및 숫자에 대한 요구 기준이 대학별로 다양하다. 가령, 유명대학 법대나 의대의 경우에는 GCE-A Level 3과목에서 모두 A를 받아야 입학 가능하며, A나 B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C 이하의 학점으로는 유명대학의 인기학과에 입학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시험의 과목수는 3-4개 과목 정도이다.

셋째, 영국의 GCE-A level 시험제도는 고등학교의 선택에 따라 과목별로 지필시험으로 치를 수도 있고, 비교적 오랜 시간 학생의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학기 단위의 교육과정 또는 코스웍(course work)으로 이분화 되어 있다. 이는 한 번의 지필시험으로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수로 GCE-A level 시험을 잘 못 치렀을 경우 그 특정 과목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통한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영국의 대학입학시험은 점수제가 아닌 등급제를 채택함으로써 '점수제'에 따른 지나친 점수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학학력시험에서 C 등급을 받은 자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서 인정하고, 대체로 C 등급을 받으면 일반 대학에 갈 수 있다.

### 3) 일본

일본 대학입학시험체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입 전형에 있어서는 각 대학별, 학부별로 시험과목과 과목간의 배점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확실적인 학력 편중의 입시를 지양하

여, 고등학교에서 송부되는 조사서, 대학별 학력고사, 면접, 소논문, 실기검사, 추천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각 대학별, 학부별로 시험날짜를 다르게 하여 실제적인 복수지원이 가능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부여한다.

둘째, 대학입시센터시험의 문제 출제는 ‘재택 출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2년간에 걸쳐 10여 차례 회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셋째, 출제 내용에 있어 아라카라트 제도(다양한 선택 교과 및 선택과목)를 활용함으로써 6개 교과군에서 필요한 교과를 선택하고, 각 교과에서도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에 의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지고, 센터시험 결과에 따른 학교의 서열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넷째, 일본 대학입시센터에서는 센터시험의 발전 방안 및 결과 이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4) 중국

중국 대학입학시험체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다양한 학생선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대입 전형에서 학생 선발 방식으로 수험생의 사상정치, 품덕 심사결과, 대학입학통일시험 점수와 상관과목의 성적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 덕, 체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둘째, 대학입학시험은 국가수준의 통일시험이 주가 되며, 통일 시험의 문항 유형은 선택형과 선택형이 아닌 두 가지 유형의 시험지로 되어있어 우리나라에 비하여 다양한 문제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문제 출제는 ‘시험문제 공모제’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시험문제 공모제는 대학시험제도 개혁의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시험 문제를 공모하고 있다.

## 5) 독일

독일 대학입학시험체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입학전형에 있어 국가 수준에서의 대학입학시험(아비투어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획득해야 고등학교 졸업자격과 동시에 대학 진학자격이 부여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자격이 곧 대학입학지원자격이 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독일에서는 아비투어시험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증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모두 아비투어 시험을 치러야 하며, 아비투어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정 대학이 특정고교의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방식이나 사회봉사, 에세이 등의 대학별 전형요소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셋째, 아비투어시험은 국가에서 실시하지만, 철저하게 지방자치제로 운영되며, 국가에서는 독일 전역에서 실시되는 아비투어시험의 수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 6) 프랑스

프랑스 대학입학시험체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입 전형에 있어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대학입학시험(바칼로레아 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획득해야 고등학교 졸업자격과 동시에 대학 진학자격이 부여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자격이 곧 대학입학지원자격이 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시험 유형에 있어 바칼로레아 시험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지만, 출제와 관리, 채점, 사정 모두 고등학교 최종학년 담당교사들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바칼로레아 시험은 일주일 동안 실시되며, 시험의 형태는 서술형·논술형 평가방법이며 절대평가제를 채택하되, 시험의 유형은 모두 8개 열 26

중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바칼로레아 시험은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된 계열을 제공하여 학생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되, 일단 하나의 계열을 선택하면 학생 개인의 과목 선택의 폭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학생의 선택권은 과목에 대한 선택권이라기보다는 계열 선택권을 의미하게 된다.

## 나. 수능시험 개선을 위한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외국의 대학입학시험체제의 주요 특징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 시험의 종류와 수준 다양화

시험의 종류와 수준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SATⅡ 시험이나 AP 시험, 영국의 GCE A-Level과 GCE AS-Level 시험, 독일의 아비투어시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시험,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 등의 경우 지원자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시험을 치르는 과목의 종류, 과목의 수 등이 달라진다. 또한 독일, 프랑스의 경우, 학력평가가 주로 서술형·논술형 문항에 의한 절대평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항의 유형 및 평가방식이 풍부하게 제공된다면 학생의 능력이나 재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2) 고교 졸업시험과 대학입학시험의 연계 강화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과 대학입학지원자격시험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졸업자격과 동시에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으로서 대학입학시험인 아비투어시험이나 바칼로레아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대학에 지원서를 내고 대학은 입학생을 선발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수능시험도 고등학교 졸업 자격과 대학 입학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 개선한다면, 고등

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 3) 시험 출제 방식 보완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험 출제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경우 재택 출제를 통해 2년간에 걸쳐 10여 회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개월 정도의 합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능한 출제진 섭외도 점점 어려워지고, 문제지 인쇄, 배포 시간을 제외한 실제 출제기간이 짧아 양질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재택 출제를 통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최종 선제만 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한 보안 유지 속에 이루어지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을 도입하여 문항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1년에도 여러 번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4) 시험 출제진 선정 방식 보완

현행 수능시험 출제진 선정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수능 출제위원으로 주로 대학 교수나 연구소 연구원을 위촉하였으나, 프랑스나 영국 등 외국과 같이 고등학교 교사들을 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험의 형태도 선택형 위주가 아니라, 서술형, 논술형, 실험실습형, 면접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5) 시험 회수 증가 및 수험생 부담 완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1년에 1회 실시됨으로써 수험생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가 적

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1년에도 여러 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1년에 1회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경우에도 본시험이 시행된 1주일 후에, 교통사고, 질병 등의 원인으로 본시험에 응시가 어려웠던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회수의 증가, 추가시험 제도의 도입 등은 행·재정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개별 학생들에게는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험임을 고려하여 1년에도 여러 번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 2 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본 연구진은 과거 여러 전문가들이 제안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각종 개선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차례 걸친 자체 토론과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하여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제1안과 제2안은 현행의 기본 틀을 대폭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혁신적인 동시에 장기적인 개선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 제3안은 현행의 기본 틀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보수적인 동시에 단기적인 개선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제시하는 개선방안의 순서는 단지 시험영역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공통적이고 단순한 시험체제를 먼저 제시한 것일 뿐, 본 연구진의 선호 비중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앞으로 교육부당국에서 대학입시에 관한 정책수립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세 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혹은 이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방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각 방안의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안은 ‘기초수학능력시험’으로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과 지식을 평가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를 대폭 단순화시킨 시험으로서, 시험 영역을 ‘언어, 수리, 영어’의 3개 영역으로 줄이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서 출제하며,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이다. 이 안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면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학업능력을 확인하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제2안은 ‘표준화 기초학력시험’으로서, 미국의 ACT 기초학력검사와 같이 대학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기초학력을 측정하는 일종의 표준화 학력시험이다. 1안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을 수료한 이후부터 응시자격을 주어 수험생들은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시험에 다수의 응시기회를 갖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교육과정의 개편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

험 형태라는 특징이 있다.

제3안은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틀 유지안'으로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되는 발전된 학력고사라는 수능의 기본 성격과 5개 영역(언어, 수리, 영어, 사회, 과학) 체제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시험이다. 이 방안은 현행 수능체제의 기본 골격을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대학입학시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험체제의 변화에 따른 수험생 및 이해당사자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 V. 제1안 : 기초수학능력시험

### 1. 기본 전제와 입장

#### 가. 대학입학제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이나 활용 방법 등은 필연적으로 대학입학전형제도의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10월 28일에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교육부장관은 21세기는 단순히 시험성적이 높은 학생보다 창의력·특기·리더십·봉사정신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이 우수 학생임을 강조하며, 각 대학이 시험성적과 석차만을 강조하는 ‘선발경쟁’에서 벗어나, 소질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발굴하여 교육시키는 ‘교육경쟁’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이번 개선안은 현행 제도의 큰 틀과 기본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점수경쟁 완화를 위해 성적은 등급만 제공 : 수능성적은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백분위 및 표준점수를 제외하고, 등급(9등급)만 제공한다.

②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위주로 출제할 예정이며, 고교 교사를 출제위원으로 50% 이상 참여시켜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실수업의 활력을 유도한다.

③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하여 복수 시행방안 검토 : 기존의 폐쇄형 출제방식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학년도 출제 시 문항공모 등에

의한 출제를 일부영역(예: 탐구영역)에 도입하고, 2010학년도 시험부터 전 영역에 걸쳐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문제은행 구축을 전제로 수험생의 시험 부담과 중압감을 덜어주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연2회 시험 실시 및 이틀간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상과 같은 교육부의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확정에 따라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전제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 나. 입학전형자료 간의 상보적 기능

앞으로의 대학입시에서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주요 전형자료는 고교내신,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국·영·수 시험 제외)의 3가지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제한다. 그런데 이 3가지 전형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호 보완적이면서 가급적 배타적이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약 이 세 종류의 전형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동일한 것이라면 구태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면서까지 전형자료를 다양화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수능시험에서는 고교내신이나 대학별고사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어떤 다른 능력을 측정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하고, 고교내신과 대학별고사는 각각 그에 기대되는 역할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다. 입학전형자료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효용성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은 각 대학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입학전형에 활용할 수 있는 선택적인 전형자료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영·수 위주 대학별 본고사는 계속 규제되고, 고등학교 내신의 신뢰성이 높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활용가능성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을 9등급으로만 제시하게 된다면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활용가치가 떨어지겠으나, 그래도 수능성적이 대학입시 응시자들의 개인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전국단위의 유일한 공통적인 학력지표이기 때문에 수능시험의 효용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제한다.

## 라. 신입생 선발기준으로서 '학력'의 중요성

대학 신입생의 선발은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건 기본적으로 대학은 '공부'하려는 동기가 있고 '수학능력'을 갖춘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 때 중요한 선발기준은 타당하고 신뢰롭게 평가된 '학력'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성적·석차를 대체할 이른바 '교육이력철'을 강조하고, 경로별 선발에서 이를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하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2)</sup> 여기서 교육이력철이란 '교사가 기획·실행한 교육의 전 과정을 누가적으로 기록한 문서'를 의미한다. 대학 신입생 전형에서 학력이 유일한 선발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반대로 학력의 비중을 최소화하거나 등한시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 마. 대학입학 지망자수와 입학정원 간의 불균형 추세

대학입학 지망자 수의 감소로 인하여 전국의 200여개 4년제 대학 중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대학들, 특히 지방 소재 대학들에서 입학정원조차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부분의 대학 입학조건은 매우 단순하여 다양한 과목의 수능시

12) 김민남,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선발의 패러다임 변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학선발제도와 평가체제의 패러다임 변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 한국교육평가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 13-34, 2004. 5. 21).

험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의 형태로 입학정원의 대략 50% 정도를 수능시험성적과 관계없이 선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출제 및 시행관리에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와 같이 복잡다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문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입시를 의식하지 않고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독자적인 본질 추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필요하고 시급하다. 학생들을 입시준비교육과 각종 시험의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함께 풍부한 과외활동을 권장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 요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다고 본다. 만약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교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출제한다면,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수능시험의 영향력 여하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불가피하며,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수능시험 개선방안은 고교 1학년에서 이수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비교적 평이한 시험이다. 그 대신 고교 2-3학년에서 이수하게 되는 일반선택교과나 심화선택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평가는 개별 고등학교 내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필요할 경우 대학별고사에서 적절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을 전제한다. 즉, 수능시험의 수준과 범위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는 2-3학년에서 가르치는 일반선택과목이나 심화선택과목의 학습을 소홀

히 하고 이것만 반복 학습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다.

## 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소 자격기준화 문제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을 ‘최소 자격기준’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화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별 대학입학전형제도에서 수능시험성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개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령, ‘특별 전형’, ‘국가 유공자 전형’, ‘수시 모집’ 등에서는 수능시험성적을 최소 자격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학업능력 우수자’를 가려내는 전형에서는 중요 선발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개별 대학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성적을 ‘표준점수, 등급’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영역, 체제

### 가. 시험의 성격

여기서 제안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방안은 대학입학 지망자가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알맞게 출제하는 ‘기초수학능력시험’으로서, 암기위주의 단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가능한 한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학력고사이다. 즉, 지능검사와 같은 일반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라, 고교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서 대학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지식을 측정하는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이다.

## 나. 시험의 기능

대학수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능력과 지식을 측정함으로써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을 높이고, 전국 단위의 공통적인 학력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입학전형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입시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단편적 지식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 측정을 강화하여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을 유도한다. 그리고 대학입학전형에서 과거에 비하여 수능시험의 비중을 낮추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다. 시험의 영역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를 대폭 단순화시켜서 ‘언어, 수리, 영어’의 3개 영역만 시험 영역으로 한다. 교육부에서 확정 발표한 개선방안대로 2008학년도부터 수능시험성적을 단지 9등급으로만 제공하도록 한다면, 현재와 같이 5개 영역에서 총 51개 교과목의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의 시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입시에서 수능시험의 비중을 낮추는 동시에 시험체제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1) 언어시험** : 국어교과 고유의 전문지식이나 이해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이수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 언어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이다. 국어, 사회, 과학, 기술, 예능 등 다양한 분야를 소재로 하여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이해력과 독해력 등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언어능력을 측정한다.

**2) 수리시험** : 수학교과 고유의 전문지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학적 내용과 소재를 기초로 수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수학의 기

초적 개념에 대한 이해력, 주어진 수학적 자료나 정보를 바르게 해석하고 추리하는 능력, 수학적 원리나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수리능력을 측정한다.

**3) 영어시험** : 어휘력과 독해력을 비롯하여 영어의사소통능력 등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영어능력을 측정한다. 즉, 영어를 듣거나 읽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이고 영어의 적절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능력도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한다.

## 라. 시험의 체제

**1) 시험범위 및 수준** : 언어, 수리, 영어의 3개 영역에 걸친 시험을 실시하되, 시험내용의 범위와 수준은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수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

**2) 문항형식** : 대략 50만 명 이상이 치르는 대규모 시험이므로 채점의 공정성과 용이성을 고려하여 시험문항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5지 선택형과, 객관적으로 채점이 가능한 계산형 및 단답형 등으로 한다.

**3) 시험시간** : 어느 한 시험에서 시험시간과 문항수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수능시험의 영역을 3개로 축소하는 대신에 각 영역 당 시험시간은 100분 정도로 늘려서 해당 영역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기본능력과 지식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시험출제** : 종래의 감금형 함축 출제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도입한다. 물론 문제은행식 출제체

제를 도입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문제은행을 구축해야 하는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따라서 가능한 영역부터 점차적으로 문항공모 등에 의한 출제방식을 채택하되, 궁극적으로는 전 영역에 걸쳐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를 도입한다.

**5) 시험시행** : 시험의 수준과 범위를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수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고2 때부터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시험은 연 2회 정도 실시하여 현재 연 1회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도록 한다.

**6) 점수보고**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은 표준점수 및 등급제(9등급)로 표기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개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각 대학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을 표준점수와 등급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막대한 경비와 많은 노력을 들여서 얻은 귀중한 정보를 5등급이나 9등급만으로 뭉뚱그려서 제공하는 것은 정보의 손실이며, 고비용저효율의 시책이라고 하겠다.

**7) 성적유효기간** :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면 재수생의 숫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3년 이상 너무 길게 하면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시험내용의 변화에 따른 시험성적의 가비교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8) 결과활용** : 수능시험성적을 최소자격기준으로 사용하거나, 다단계 전형에서 어느 한 단계의 사정자료로 이용하거나, 혹은 다른 여러 전형자료와 합산하여 쓰거나 모두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 한편, 여기서 제안하는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수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

정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므로 필요한 경우 대학입시 이외에 고등학교의 책무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특징 및 기대효과

여기서 제안하는 ‘기초수학능력시험’은 대학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수험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을 유도하여 설령 대학입시에서 낙방한다 하여도 이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한 언어, 수리, 영어 영역의 문제해결력과 사고력 향상은 후일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교내신이나 대학별고사와 같은 타 입학전형자료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 이 시험의 특징 및 기대효과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 기초적인 수학능력에 있어서 대학입시 응시자들의 개인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전국단위의 공통적인 학력기준을 제공해 준다. 또한 대학입시에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수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하는 비교적 평이한 시험이 될 것이므로 학생들의 수험부담이 감소될 것이다. 학생들의 수험부담 감소는 결과적으로 수능시험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의 경감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시험을 연 2회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수의 시험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그동안 연 1회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4) 시험문제 출제방식을 개선한다. 종래의 감금형·폐쇄형 합숙 출제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점진적으로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도입한다.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를 채택하면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출제하게 되므로 문항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적정수준의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를 유지하기가 현행 방식보다 훨씬 용이하다.

(5)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수능시험을 위해 재수하는 수험생 수를 줄일 수 있고, 또한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VI. 제2안 : 표준화 기초학력시험

### 1. 기본 전제와 입장

#### 가. 대학입학제도

대학수학능력시험<sup>13)</sup>의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전형제도가 어떤 모습인지가 전제되어야 하고,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국가단위 시험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 전제나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 분석과 국가단위 시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본 입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존립여부에서부터 기능 및 특성, 시행방안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모습의 개선안이 될 수 있다.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모습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전제한다.

① 대학입학전형제도가 경쟁체제의 완화를 통해 대학서열구조를 타파하고 학력이 아닌 능력 사회로 나가는 유인체제가 되도록 개편될 것이라고 전제한다(대학입학전형제도의 모습). 즉, 대학입학전형제도가 획일적인 기준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대학의 특성적 발전에 부합하는 다양한 경로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거나 모집하게 될 것이고, 특히 학력(내신이건, 대학수학능력시험이건)에 의한 선발이나 모집이 최소화될 것이다. 즉, 대학입학전

---

13)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용어가 본 개선안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그러나 여기에서는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른 시험 또는 검사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용어가 구안되기 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

형제도는 내신(교육이력철)에 의한 여러 유형별(경로별) 선발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학력에 따른 선발은 최소화되어지거나 보조적인 선발방식으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전제한다(교육혁신위원회 안 참조). 특히 대학별고사(면접 또는 논술고사)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대입에서 그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제한다.

② 대학입학전형제도 속에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전형 자료 중 한 가지 전형 자료이며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 여부, 반영 방법, 반영 비율 등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질 것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자율은 책무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등교육 정상화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으면서’, ‘교육 기회 균등의 원칙에 부합’(가정환경의 차이, 지역의 차이, 학교 차이 등에 의해 대학 진학 기회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다.

③ 당분간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통척도에 의한 전국 단위의 유일한 시험 결과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다. 장래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복수가 될 수도 있으며, 지역 또는 학교 단위의 시험이 될 수도 있겠으나, 전국 단위의 시험이라는 특성 때문에 당분간은 국가단위의 유일한 시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유일한 전국단위의 시험이 아니라면 그 의미나 대학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활용가능성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 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문제

본 개선안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는 직접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의해 고교 교육이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의 명칭이나 종류에 구애받지 않

으며, 교과목의 내용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연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어떻게 출제·시행되는가는 그동안 중등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것은 중등교육이 자체의 개선을 통해 교육발전 추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로막아왔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중등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중등교육 본질 추구에 기여하게 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을 극소화하여 중등교육의 저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향력 극대화’와 ‘절충적 시도’를 통해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에는 저해 요소나 갈등을 불러오는 관계를 가져왔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시키는 것을 극소화하고, 대입 전형에서의 ‘학력’ 중심 선발을 최소화함으로써, 고등학교는 대학입학전형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교육 본질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다. 수능의 최소자격기준화, 난이도, 영향력 등의 문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을 서열화 시키고, 대입전형의 핵심자료가 됨으로써 학생들을 무한경쟁 체제에 들게 하여, 사교육 수요를 촉진시켜왔다고 본다. 또한 사교육 수요는 결과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 즉, 가정환경 차, 빈부차, 지역 차, 학교차에 의한 입학전형에서의 불평등 요소를 갖고 있으며, 수험생들의 수험부담을 늘린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본 개선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취한다.

###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소 자격기준화 문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 단위 시험이기는 하되, 대입 전형에서 최소 자격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대입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자

격 요건으로만 활용한다는 뜻이다. 즉, 모집 단위별 또는 대학별로 일정 기준 등급 이상을 요구하고, 그 등급 이상을 받은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다른 전형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거나 다른 전형기준에 의해 선발된 학생에게 일정 수준의 등급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다(이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다른 전형기준과는 합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소자격 기준화는 다양한 경로의 대학입학전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인 규제는 어려우나(대학 자율권과의 상충 때문에), 시험의 내용과 점수보고 방식을 통해 자격 기준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다양한 경로별 대학입학전형제도의 핵심은 전형 기준으로서의 ‘학업 능력’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학업능력’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예: 특별 전형) 다른 전형 기준을 활용하여 대입 전형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수학생’의 개념이 ‘학업 능력 우수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학생의 특기, 적성, 학교생활에 따라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를 최소 자격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다양한 경로별 대입전형제도의 근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의 다양한 대입전형제도의 방향과도 일치).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소 자격기준화는 각 대학의 자율적인 전형제도 구축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할 수도 있다.

##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문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와 변별도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초학력이고(최소 자격 기준화하므로), 고등학교 이수 최소자격을 확인(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고교에서 가르쳐야 할 최소기준 확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난이도는 높아지고(쉬워지고) 변별력은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이것은 일종의 절대평가이므로 난이도와 변별도는 큰 의미가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 이수와 관련된 최소자격기준이므로,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현행 대학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고 고교 졸업자의 학력 수준을 상향시키려는 것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 특히, 대입전형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학력 향상의 동기机制로 쓰지 않고, 학력 향상을 고교교육의 자체적인 본질추구(자체평가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학 또는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학력수준에 대한 준비는 대학 또는 학부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해소해야 할 것이다(특목고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함).

### 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대학입학전형에서의 영향력 문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대학입학전형에서 갖는 영향력을 극소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내용도 단순화, 최소화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최소자격 기준화하고, 학력에 의한 선발을 최소화하거나 보조자료화 하며, 내용 영역도 고교학력의 최소 기준만을 포함시킴으로써 수험부담도 줄이고, 사교육과의 연계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출제 방식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년에 1회 1일간 시행되고, 성적 유효기간은 1년에 한정됨으로써, 학생들의 시험기회가 크게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의 출제도 극도의 보안 속에서 폐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후진성을 갖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개선안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 기초학력으로서의 문제은행식 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년에 2회 이상 시행하고, 출제의 용이성과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최소 내용을 최소기준으로 평가하고 시험내용은 수험생의 편의에 따라 선별적으로 응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수험생의 수험 기회를 확대하고, 수험부담을 줄이면서 문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폐쇄적인 출제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문제은행식 출제를 해야 할 것이다.

## 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활용 문제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단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 기초학력의 추이 변화를 알아보는데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은행식 출제를 통한 표준화를 통하여 동등화 방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입시를 위한 보조적인 전형자료로써 뿐만 아니라 고교의 학력 추이를 파악하여 고교 자체의 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의 입장에서 표준화시킴으로써 시험 시행 때마다 파생되는 전집의 변화에 시험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영역, 체제

### 가. 시험의 성격

- 이 시험은 학교에서 학습된 능력을 바탕으로 고교 교육에서 달성해야 할 최소 기초 학력(minimum competency)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 이 시험은 고교 교육과정과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되,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수준을 유지한다.
- 이 시험은 맹목적인 암기를 요구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창의력, 문제해결력, 추리력 등의 사고력 중심의 학력시험이다.
- 이 시험은 절대적 기준을 고려한 표준화된 기초학력시험이다.

### 나. 시험의 기능

-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한다.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의 본질 추구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 선발의 보조 자료나 다단계 전형의 2차 전형자료로서 활용한다.
- 대학입학전형에서 모든 계열과 전공분야의 공통적인 활용이 가능한 시험이다.
- 국가단위 전형자료가 됨으로써 대입전형의 공공성과 선발의 적격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의 대학 불신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기능을 가질 것이다.
- 고교의 기초 학력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다.

## 다. 시험의 영역

이 시험은 표준화된 ‘기초학력시험’으로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5개 교과를 시험과목으로 한다.

**1) 국어** : 고교 1학년까지 배워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어 영역의 최소 필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최소한의 지식이나 기능(예: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작문 등)을 측정한다.

**2) 수학** : 고교 1학년까지 배워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학 영역의 최소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최소한의 지식이나 기능을 측정한다.

**3) 사회** : 고교 1학년까지 배워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 영역의 최소 필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최소한의 지식이나 기능을 측정한다.

**4) 과학** : 고교 1학년까지 배워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학 영역의 최소 필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최소한의 지식이나 기능을 측정한다.

**5) 영어** : 고교 1학년까지 배워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어 영역의 최소 필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영어로 된 서적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독해력을 측정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기초적인 실용 영어능력을 측정한다.

## **라. 시험의 체제**

**1) 문항형식** : 시험의 문항형식은 선택형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논문형도 적절하게 사용하여 창의력, 문제해결력, 추리력 등의 사고력 중심의 학력시험이 되도록 한다.

**2) 시험시행** : 연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한다.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대학입시까지 여러 번의 응시 기회를 갖게 된다.

**3) 시험일수** : 교과목 당 시험시간을 2~3시간 정도로 충분히 배당하여 해당 교과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시험은 2일에 걸쳐 실시한다.

**4) 응시자격** : 이 시험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수하는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수준에서 출제하는 것이므로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1학년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부여한다.

5) **점수보고** : 시험성적은 등급점수(5~9등급)로 제공하여 대학입시에  
서 차지하는 이 시험의 영향력이 크지 않도록 한다.

6) **성적유효기간** :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한  
다. 그러나 대학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대학의 자율 결정  
에 맡긴다.

### 3. 특징 및 기대효과

여기서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앞으로 대학입학제도의 모습이 고교 내신을  
중심으로 한 경로별 선발이 강화되고, 대학별 면접 및 논술시험이 시행되며,  
대학입학 경쟁은 완화되는 대신에 대학 졸업 자격요건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구안한 것이다. 이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내용 변화와 직  
결되지 않는 시험으로서 고교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 학력 및 변화 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시험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  
과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 학력에 의한 대학 서열구조가 완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안하  
는 학력시험의 성적은 최소 등급화 하여 제공하고, 학력(내신과 대학수학능  
력시험)에 의한 선발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2) 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 저해요소가 최소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서 제안하는 시험은 고교 교육과정과의 직접 연계를 최소화시키고, 고1 수  
준의 사고력 중심의 기초시험이기 때문이다.

(3) 대학입시에서의 영향력을 극소화한다. 왜냐하면, 시험의 난이도와 변  
별도를 줄이고, 시험성적을 등급점수(5~9등급)로만 제공하며, 최소자격 기

준으로 사용하거나 다단계 2차 전형자료 또는 경로별 입학의 보조 자료로서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수험생에게 수험 기회를 확대한다.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고1 이후 계속 응시가 가능하다.

(5) 시험의 출제·시행 관리체제를 개선한다. 현행 수능시험에서와 같이 합숙출제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화된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하고(검사 동등화 가능성 확대), 연 1회 이상 시험 시행 기회를 확대한다.

## Ⅶ. 제3안 : 현행 수능시험 기본 틀 유지<sup>14)</sup>

### 1. 기본 전제와 입장

#### 가. 대학입학제도

앞으로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다음 두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검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첫째, 대학은 학생 선발에 있어서 자율권이 더욱 확대되고 대학별 특성이 두드러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다양화·특성화·전문화 및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맞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필식 대학입학시험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대학입학전형 방식에서 탈피하여 대학의 향후 특성화 발전 방향에 부합하도록 전형유형, 전형기준, 전형방법 등의 다양화를 계속 지향해야 할 것이다. 대학 또한 대학입학전형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하고, 정부는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유형, 전형일정, 전형방법 등에 대해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대학입학제도가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중등교육 정상화는 중등교육 자체의 문제로서 중등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대학입시가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대학입학전형제도가 중등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입학전형제도와 중등교육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중등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등교육을

---

14) 용어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 새로 제안하는 시험은 ‘대학입학시험’으로,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표기함.

정상화하는 방안으로는 먼저, 중등학교의 교육성과를 대입 전형의 주요한 요소 및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중등학교에서의 전인교육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전형방법과 요소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입학 전형제도가 중등 교육과정과 합리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전형방법과 내용이 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나. 대학입학시험

입시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학입시제도는 사회적 공공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수준의 시험이 필요하다. 대학입시의 경우, 학생을 전국 단위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대학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공통 전형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전국 단위의 대학입학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예, 미국의 SAT와 ACT, 영국의 GCE,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 중국의 통일시험 등). 따라서 국가 수준의 대학입학시험은 성격과 명칭이 변하더라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문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처음 실시된 1994학년도 시험 출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에 맞추어 고등학교의 여러 계열, 교과목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한다. 둘째,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모든 교과목과 관련된 교과서 내외의 교과적 소재를 활용하되, 가능한 한 문제 상황 중심의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도록 출제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에 맞추어 출제되었음에도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심지어 ‘학교교육만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잘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언어, 수리

탐구(1995학년도에는 수리탐구가 수리탐구(I)과 수리탐구(II)로 나누어지고, 수리탐구(II)에 과학과 사회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2002학년도부터 수리탐구(II)를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으로 분리하였음) 등 성격을 규정하기 매우 어려운 시험과목의 명칭에서 보듯이 시험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본 방향 두 번째 항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도록 한 데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99학년도부터 수리탐구영역(II)에 선택과목이 도입되었음에도 이 같은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한 출제 방향은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출제 방향은 결과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 교육이 점차 멀어지게 되고 이른바 ‘학교 공부 따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따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만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따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반드시 교육 과정에 기반을 둔 시험(curriculum-based test)이 되어야 하고, 시험 과목의 명칭 또한 분명하게 교과목을 나타내어야 한다.

##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문제

시험의 적정 난이도는 그 시험의 성격에 근거하여야 한다. 만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 수학 적격자 선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면 이 시험은 의당 학생을 능력에 따라 구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쉬운 문항부터 어려운 문항까지 고루 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절대평가에 의한 등급제를 도입할 경우, 시험 점수분포가 정상 분포가 아니라도 큰 문제는 없으며,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이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가지면 된다.

시험의 변별도는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수험생간의 능력을 세밀하게 구별해 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경우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점수에 있어서의 차이가 실제 수험생의 능력의 차이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 것으로,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부족한

것으로 판정해 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경우로, 문제가 지나치게 쉽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어려우면 변별도가 낮아질 수 있다. 절대평가에 의한 등급제를 도입하면 첫 번째 변별도는 의미가 없으나, 등급제를 도입하더라도 두 번째 개념의 변별도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많이 포함하되 다양한 난이도를 가진 문항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영역, 체제

### 가. 시험의 성격

- 중등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르치고 배운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교육과정 기반 시험으로서, 기본 개념과 원리의 이해, 문제해결, 비판적·창의적 사고 기능을 측정해야 한다.

### 나. 시험의 전제

- 교육과정에 제시된 모든 교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수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과목만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 여부는 단위 학교별로 평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충실히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국민공통기본교과 수준 정도로는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여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고등학교 2~3학년 심화선택 수준의 시험이어야 한다.
- 학교생활기록부(내신)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대학입학시험은 중요

한 대학입학전형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 다. 시험의 영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언어, 수리, 영어, 사회(역사, 지리, 일반사회),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출제·시행하고, 기타 과목은 각 대학별로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실시하도록 함.

※ 제2외국어의 경우 출제범위가 일반선택과목인 I 수준으로서 심화선택과목 수준인 다른 영역 혹은 교과목에 비해 수준이 낮으며 대학에서의 학습 능력을 측정하지 못함.

- 직업탐구영역을 폐지하고 실업고 출신자 동일계열 전형을 확대함.

※ 실업고 출신자를 위해 도입한 직업탐구영역의 시험 과목이 고1 수준의 필수 전공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히려 실업고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이 역차별을 받고 있음.

## 라. 시험의 체제

### 1) 문항형식

○ 단기적으로는 선택형 중심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예: 선다형, 단답형, 연결형, 완성형 등)

○ 중장기적으로는 서답형 문항 출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채점자 인력풀 확보

- 서답형 문항 채점 프로그램(e-Rater 등) 개발

※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객관적 채점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은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음. 그러나 수

험생들이 선택형 시험에 길들여지게 되면 깊은 사고와 창의적 발상이 어렵고 학습을 깊게 하기 어려움. 선택형 시험이 갖는 이 같은 단점 때문에 선택형 시험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2005년부터 SAT I 에 에세이가 포함된 쓰기 영역을 추가하였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 대부분의 국가시험은 기본적으로 서답형 혹은 서술형 방식을 택하고 있음.

## 2) 시험시행

○ 학생부 중심의 전형 방법이 정착되고 다양한 전형 자료가 개발되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시험 횟수를 늘일 경우,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입시과열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수험생은 두 시험에 모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수험생의 수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출제범위를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할 경우, 학습 진도 때문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연 2회 실시는 곤란하다.

※ 미국의 대학입학시험인 SAT나 ACT를 1년에 5~6차례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기간 문제은행을 충분히 구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 그러나 문제은행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배수의 문항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되어야 함.

※ 또한 SAT I 은 적성시험이고 SAT II 와 ACT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기본 학력을 재는 시험으로서 사전에 엄격한 동등화 작업을 거쳐 출제가 이루어지므로 2, 3학년 때 언제든지 응시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 1회 실시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학생부 반영 비중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 횟수를 늘일 경우 수험생은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리려고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수험생의 수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응시자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1차 시험에서 1등급을 받은 4%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가 2차 시험을 치러

그중 4%가 1등급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등급의 비율은 거의 8%에 가깝게 된다. 아래 등급으로 갈수록 이 비율은 더욱 증가하여 등급 구분 자체가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복수 시행 여부는 단순히 수험생에게 복수의 시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시험의 성격, 시험 범위, 등급 부여 방식, 문항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연1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의 경우, 본시험을 실시한 1주일 후에 추가 시험을 실시하는 데, 그 대상자는 질병, 부상, 기타 사정으로 시험 당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

### 3) 응시자격

- 고등학교 2~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출제되므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한정한다.

### 4) 점수보고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낮추고 다양한 전형 자료를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등급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등급은 12~15 등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양한 선발 전형 자료의 하나로서 기능을 하자면 어느 정도 변별 기능을 가져야 함. 우리와 비슷한 등급 체계를 갖고 있는 영국의 경우 우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GCE A-level이 5등급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학이 GCE A-level과 함께 AS-level, GCSE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학과 시험을 전형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충분히 변별할 수 있음.

- 내신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을 낮추기 위해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제공하지 않고 등급(9등급)만을 제공할

경우, 대학은 수능시험 등급을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기는 불가능하게 되며 논술 등 대학별 전형자료에 의지할 가능성이 큼.

- 현재 대학에 표준점수, 백분위와 함께 등급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전형자료로 사용할 뿐, 등급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고작임.

- 표준점수의 분포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영역의 경우 대략 40~160점 정도로 120 내외의 포인트로 구성되며, 백분위는 100 내외의 포인트로 구성됨. 또한,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과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경우 대략 20~80점 정도로 60 내외의 포인트를 가짐. 여기서 포인트는 수험생을 변별할 수 있는 가짓수를 말함. 예를 들면, 언어 시험을 본 수험생이 60만 명이라고 하고, 120 포인트로 나누면 평균 잡아 동점자가 대략 5,000명 정도 됨.

- 9등급의 경우 포인트 수가 9개로 표준점수에 비해 상당히 줄어, 수험생이 60만 명일 때 대략 24,000명이 1등급, 12만 명 정도가 4등급을 받음. 물론 대부분의 대학이 3개 내지 4개 영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일 등급자 수는 이보다 줄 것임.

- 등급기준과 비율 등은 심층적 검토를 거쳐 추후에 정할 필요가 있다.

- 등급 수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등급 구분 방법임. 즉, 등급을 구분 짓는 기준 설정의 문제가 더 중요함.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교육부 시안에서 사용하는 등급은 전체 집단을 일렬로 세운 다음 최상위에서부터 차례로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규준참조 방식(norm-referenced method)<sup>15)</sup>임. 이 같은 방식은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으나 집단의 특성(사례수, 능력 분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가령, A과목의 응시자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이 10% 가량 된다고 해도 4%만 1등급이 되고 나머지 6%는 1등급을 받을 수 없게 됨.

---

15) 준거참조 방식은 기준 점수를 사용하여 등급을 매기고, 규준참조 방식은 비율을 사용하여 등급을 매긴다.

### 5) 성적유효기간

- 연도 간 시험성적의 동등화가 어려우므로 시험의 등급은 당해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3. 특징 및 기대효과

### 가. 특징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시험으로서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시험 준비가 가능하다.
- 적절한 등급 수(12~15등급)로 대학입학전형자료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다.
- 주요 전형자료인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한다.
- 내신 성적 부풀리기 현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 등급만을 제공하므로 수험생간의 무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 나. 기대효과

-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 수험생, 교사, 학부모 등 시험 이해 관계자들에게 시험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 VIII.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은행식

### 출제 방안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들은 약 한 달간 비밀리에 소집된 약 600여명의 출제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 감금되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시험 출제진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좋은 문제를 출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를 도입하면 여러 사람들이 많은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문제은행을 만든 뒤, 필요에 따라 이 문제은행에서 적절한 문항들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 출제된 문항들이 다단계의 수정·보완을 거쳐서 일단 문제은행에 저장되면 극소수의 운영자들만이 이 보관된 문항들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문제은행식 운영을 하면 출제자들은 적절한 문항을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질 좋은 문항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며, 시험을 1년에 여러 번 시행한다거나 피험자의 특성이나 능력 수준에 적합한 검사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응시자 개개인의 이익과 직결되며 생애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어떤 시험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엄격한 검사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검사의 질에 관한 준거로 일반적으로 타당성과 신뢰성, 객관성을 들 수 있으며, 따라서 검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준거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평가 대상의 규모가 방대하여 시험출제와 운영에 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식은 시험

날짜에 임박해서 구성된 출제위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한 장소에서 출제하고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 출제에 참여한 교수들은 출제 기간 동안 강의와 연구가 중단되어 교수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감수할 출제위원을 위촉하기 어렵다.

(2) 시험문제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제한된 자료를 사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공 교수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출제 자료를 사용해서 양질의 문항을 제작할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양질의 문항을 만드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3)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식에 따르면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시험문제는 당해연도 1회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국가적인 예산 낭비라 할 수 있다.

(4) 해마다 필요한 양만큼의 문항을 새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연도별 시험문제 사이에 문항특성의 일관성과 동질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질 높은 문항을 확보할 수 있다. 출제자는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문항을 출제할 수 있고, 검토자는 출제자가 만든 문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항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검사제작자 또는 출제자는 검사의 원래 의도나 목적에 알맞은 출제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항제작을 위한 상세한 분석표 또는 위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즉, 문제은행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세화된 목표분류표의 검토와 문항분석 절차를 거쳐 문항과 검사의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장한다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분석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양호도가 확인되고 검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문항만을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항의 질을 향상시킨다.

둘째, 문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문제은행 체제를 도입하면 다수의 교과전문가와 평가전문가가 문항 제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 및 다양한 수준의 문항을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한 문항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필요에 따라 알맞은 검사를 신속하게 제작,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문제은행의 주요 장점의 하나는 특수한 목적에 맞추어 검사를 제작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항들을 이용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검사를 새로 만들 수 있다. 물론 문제은행에는 검사의 목적과 해당 교수목표의 내용과 행동 영역에 부합되는 문항이 상당수 제작·저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제은행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문항들이 다량으로 저장되면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여 검사를 만들기가 쉽다. 필요에 따라 긴 검사를 만들거나 짧은 검사를 만들 수도 있고, 비교적 넓은 범위의 능력을 포함한 검사를 만들거나 특정한 수준의 문항들로 구성된 검사를 만들 수도 있다. 또 교육과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다룰 수도 있고 매우 좁은 영역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각각의 경우, 각 문항에 대한 분류 및 통계적 정보들은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획득된 검사점수를 고정된 척도 위에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문제은행에 저장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특정한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획득된 점수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게 해 준다. 필요하다면 예측 가능한 효과를 가진 검사에 특정 문항을 보태거나 제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특수한 목적에 맞춘 검사 제작이 용이하다는 사실은 피험자의 능력과 특성에 알맞은 다양한 유형의 검사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여러 개의 동형 검사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문제은행은 고사의 실시, 해석, 활용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노력을 절약하게 한다. 문제은행이 처음 설치될 때에는 새로운 예산과 시설이 들고, 많은 인력과 노력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문제은행이 설치

되면 출제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은 거의 필요 없어진다. 즉, 문제은행은 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문항을 작성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출제, 채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다. 언제 어디서나 시험 목적에 부합하는 문항을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

문제은행 출제체제의 도입은 검사와 관련된 관리를 체계화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즉, 문제은행을 설치함으로써 문항제작, 문항분석, 문항저장, 문항편집, 인쇄, 검사실시, 채점, 분석, 성적통지와 같은 일련의 복잡다단한 평가활동의 과정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평가 활동의 과정과 절차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문제은행 체제는 초기에는 컴퓨터의 구입 및 프로그램 제작 등 기본 설치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양질의 문항들을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하여 일단 문제은행 체제가 운영되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게 된다. 또한 검사에 사용된 대부분의 문항들이 한번 사용되고 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문항이 되고 마는 현재의 비경제적, 비효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수정 및 보완을 통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문항 제작비용을 다소 줄일 수 있다. 문항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점검하여 양질의 문항만을 문제은행에 포함시켜 저장하고 관리한다면 예비검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각 문항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통계적 자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는 다양한 통계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즉, 각 검사의 신뢰도나 타당도 같은 심리측정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검사 점수를 조정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절약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은행의 필요성 및 이점에 터하여 여기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질 높은 문항을 확보하고, 출제·관리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수시시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은행식 출제 방안으로 문제은행의 구축, 문제은행의 활용, 문제은행 보안 유지 방안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완전 문제은행식 출제로 가는 전 단계로서 ‘반개방형 출제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1. 문제은행의 구축

### 가. 문항 저장을 위한 영역의 상세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크게 5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실제 문제제작은 이와 같은 분류에 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즉, 실제 문제은행에 저장될 문항의 수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부 과목과 문항수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각 영역별 문항수를 근거로 하여, 문제은행에 들어갈 전체 문항의 수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각 영역에 포함될 과목의 분류와 행동영역에 따라서 또한 문항의 배분을 할 수 있다.

### 나. 문항 저장

#### 1) 문항카드의 작성

각 영역별로 미리 조직된 팀을 중심으로 하여 문항의 제작을 시작하게 되면, 그 문항을 효과적으로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등의 일련의 후속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문항을 제작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문항카드를 사용하여 문항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문항카드는 문항의 영역, 행동영역, 예상난이도, 출제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모든 문제은행의 문항들을 전산처리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단순한 입력 작업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역할 이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문항카드는 출제교수에 의하여 작성된 문항의 초안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문항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수정·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항카드의 역할

은 단순히 제작된 문항의 초안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문제은행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일단의 출제교수에 의해 제작된 초안을 근거로 하여 입력 작업을 거친 다음 비로소 문제은행이 완성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방대한 양의 문항이 장기간에 걸쳐서 제작이 된다고 가정할 때, 문항카드에 의해서 일일이 문항을 검토하고 분류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항카드의 역할은 단순히 문항제작의 근거로서 보관하는 기능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 **2) 스캐너를 이용한 입력**

출제교수에 의하여 제작된 문항의 초안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산처리를 위하여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국립교육평가원의 전신인 중앙교육평가원에서는 80년대 중반에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 국가고시에 필요한 문항의 전산입력을 위하여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서 스캐너의 활용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스캐너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문항의 초안을 그대로 복사기로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식이므로 저장이 무척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문항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해야 하는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문항의 저장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만 스캐너가 이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3) 문자와 화상을 이용한 입력**

위에서 언급한 스캐너만을 이용한 문항의 입력은 수정·보완이 어렵다. 기본적으로 입력된 문항의 내용은 수정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항의 내용을 문자와 화상으로 동시에 수록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즉,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용하고 있는 문항의 입력방식은 기본적으로 문서편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문항에 따라서 그림이나 수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항에 그림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간단하게 입력을 하고 있어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쉽게 해결하고 있다. 즉,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문항의 초안을 입력하고 나면, 적어도 5~6차례의 수정·보완 작업을 한 후에 최종 문제지가 완성되므로, 기본적으로 문항의 입력은 문자와 화상이 연결된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ACT와 ETS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도 역시 이와 같이 문자와 화상의 내용이 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문제은행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 4)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입력

문서편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 문자 입력된 문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항들의 정렬, 검색, 재구조화, 수정 및 보완 등이 원활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문항의 손쉬운 입·출력과 보안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한다. 즉, 개인용 컴퓨터와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의 사용에 간편한 것을 선정할 수 있는 반면에 보안유지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즉, 개인용 컴퓨터에는 보안을 위한 장치가 전혀 없으므로 저장된 정보가 손쉽게 유출될 수 있으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가 매우 빈약하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먼저, 입력된 문항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할 것인지 혹은 중·대형 컴퓨터를 이용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며, 그것이 결정된 후에 비로소 어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다. 저장된 문항의 관리

## 1) 보안 문제

문제은행의 문항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인 컴퓨터를 관리하는 것이 곧 문제은행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컨대, 지금까지 문제은행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도 어떻게 저장된 문항의 보안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은행의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문항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다.

첫째, 하드웨어를 통한 보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문항이 수록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통제된 장소에 위치하게 하고, 그 하드웨어는 원천적으로 일반인은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ACT나 ETS에서는 메인 컴퓨터가 있는 전산실 건물에는 방문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으며, 그 메인 컴퓨터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모든 작업진행 상황이 비디오카메라를 통하여 녹화되고 있었으며, 작업자가 실제로 작업한 모든 종류의 키 입력은 자동적으로 기록되게 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메인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신분이 확실한 몇몇 사람들에 한정시키며, 그 사람들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은행관리용 컴퓨터는 전산망을 통하여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으며, 문항을 제작하거나 입력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파일의 형태로 전달되어 특정한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문항을 유지·보수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 2) 입·출력 통제

문항의 입출력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첫째로, 미리 입력된 선제의 기준에 따라서 무작위로 문항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영역별로 문제지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장소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든

철저하게 보안유지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2. 문제은행 문항의 활용

### 가. 문제은행 문항의 직접 활용

이미 제작된 문제은행의 문항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과정과 비교하여, 보다 효율성을 지닐 수 있도록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에는 대략 30일 가량의 출제기간에 출제위원들이 합숙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출제를 해왔으나, 일단 문제은행의 문항이 준비된 상태에서는 문항초안의 출제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 즉, 문항초안의 출제과정이 컴퓨터에 의한 선정 작업으로 대신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관리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착오가 없이 실제 적용 가능한 문제은행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종전과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본부를 만들어야 한다. 즉, 출제를 하지는 않지만, 그 나머지의 모든 과정(선제, 검토, 수정·보안, 인쇄)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획에 해당하는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실제 출제기간이 대략 5일정도 절약될 수가 있을 것이므로, 적어도 25일 가량의 합숙 출제업무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전에 출제본부가 구성되어서, 각 영역별 출제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출제지침(교과별, 행동영역별)에 의거하여 문항을 선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작업은 실제 합숙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문제은행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문항선정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문항선정 지침에 포함되어

야 할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각 영역별 교과와 세부내용, 행동영역, 문항의 난이도, 영역별×행동영역별 문항의 배분(백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이처럼 영역별로 마련된 문항 선정의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문제는 행으로부터 문항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문항들(item-pool) 가운데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일단 실제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문항수의 200~300%의 문항들(혹은 더 많이)을 선정하여 출제본부에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은행 속에 들어있는 문항들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넷째, 일단 문제은행에서 제공된 여러 세트(set)의 문제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문항의 검토와 수정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문제은행에서 나온 문항을 어떤 형태로든지 수정·보완하여 제공한다는 원칙을 세우면, 보안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문항을 제작할 때 이미 고려된 사항이기는 해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합치 정도, 난이도, 변별도, 영역내의 문항의 배분들을 중심으로 하여 선정된 문항을 검토하여, 출제위원들이 수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수정·보완된 문항은 또 다시 고등학교 교사들에 의하여 다시 한번 수험생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게 하여 몇 번 수정작업을 거치게 한다.

다섯째,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검토·수정된 문항을 최종적으로 편집하여 현재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즉, 예년에 비하여 좀 더 오랜 시간의 출제와 연구를 거쳐서 나온 문항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최종 편집을 끝내고 시험으로 활용되는 문항은 원래 작성된 문항의 초안과는 다르게 수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출제과정에서 수정된 문항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은행의 문항이 수록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수정, 재입력되어야 한다.

## 나. ETS식 문제은행의 구축 및 활용 방안

앞으로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방식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문제은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은행에 수록될 문항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성격의 기구가 설치되어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문항의 출제, 입력, 검토, 수정, 재입력의 과정을 표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대학입학시험 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히 보안의 필요성 때문에 수많은 인원의 출제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단기간에 한정된 장소에 모여서 출제를 하며, 그렇게 출제된 문제는 사전검사나 충분한 검증의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시험성적이 심각한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도 단지 1회 사용에 그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험출제의 막대한 비용과 그 시험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오래전부터 대학입학시험문제의 축적과 사용을 위한 문제은행에 관련된 논의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문제은행만큼 확실한 해결책이 될 만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은행을 구축·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이제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출제된 문제의 ‘보안’과 문제은행의 활용에 관련된 확신과 경험이 없어서 더욱 문제은행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문제은행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대학입학시험이 갖는 비중과 의미가 다른 나라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히 절충된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이상적인 문제은행의 구축과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이다.

첫째, 문항의 수집단계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문항의 대부분을 외부의 전문가(고등학교 교사 혹은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우편을

통하여 수집을 한다. 즉, 우리도 연간 계획을 세워서 미리 정해진 ‘문항작성 지침’(교육과정에 따른 평가목표 선정 및 문항의 형식 등 포함)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우편을 이용하여 문항을 수집하거나, 전문가들을 정해진 장소로 초빙을 하여 직접 문항을 제작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문제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예산절감은 물론 현재와 같이 출제위원 1인당 4~5문제씩을 출제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간을 합숙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다.

둘째, 문항의 검토과정이다. 문제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평가전문가와 교과전문가, 그리고 외부의 평가전문인력을 동원하여 검토를 한다. 이때는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과전문가 모두가 참여하여 문항에 관련된 모든 것(내용 및 형식)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 검토과정의 결과를 문항의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활용한다.

셋째, 문항의 예비검사 과정이다. 충분히 많은 문제가 수집된 후에 수많은 문제를 동시에 여러 개의 시험지로 만들어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반응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교육평가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일년에 몇 번 실시하는 본고사 문제에 수험생은 알지 못하지만 수험생들이 받는 문제지마다 서로 다른 예비문항들을 끼워 넣어서 그 문제들을 사후에 분석하여 예비문제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비문항의 수가 현저히 많기 때문에 문제의 일부가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수학문제를 최소한 6,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예비문제를 수험생이 모두 다 풀어보고서 시험을 본다면 그 학생은 충분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소화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괜찮을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즉,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그 문제은행의 원본을 유출시키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넷째, 문항의 분석과정이다. 문항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되는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를 계산하여 그 정보를 차후의 본 검사에 활용한다. 이때, 서로 다른 문항들을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에 일정한 검사결과를 보장받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가교문항을 포함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하면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은 문항들 가운데서 시험문제를 무선적으로 추출하더라도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항상 같은 수준의 시험을 치른 것처럼 결과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

다섯째, 위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집되고, 예비검사를 거쳐서 분석된 문항들을 최종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문제선정위원회’(가칭)가 현재와 거의 비슷한 방법을 거쳐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물론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종래와 같이 대규모의 인원이 합숙을 할 필요가 없이 최소한의 전문가들만이 모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컴퓨터와 인쇄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술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때 한번 사용된 문항은 ‘문제은행’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여섯째, 시험의 결과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계산과 분석을 거쳐서 이미 학문적으로 증명된 방법을 사용하여 ‘표준점수’로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험생 자신은 물론 대학에서도 매년 지원하는 서로 다른(때 졸업한) 학생들의 표준점수를 보고서 학생들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당연히 그 점수는 일정한 유효기간(최소한 2년)을 두어서 재수생들이 매년 똑같은 형태의 시험을 준비하는데 따르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일곱째, 한번 시행된 시험의 결과는 전문가용과 일반용으로 나누어서 그 결과를 배포하고, 문항반응 및 관련 자료는 전문가로 하여금 면밀히 분석·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차후에 대학입학시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 다. 문제은행을 이용한 수능시험의 응시기회 확대

위에서 언급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은행'이 효과적으로 구축·활용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어렵지 않게 일년에 여러 차례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일년에 적어도 5~6차례씩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94학년도 2회에 걸쳐서 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수험생들은 두 번 시행의 시험결과 중 성적이 높은 것을 이용하는 제도였다. 그 당시 두 번의 시험성적을 '표준화'시키지 않고 출제자와 검토자의 예상만으로 난이도를 조정하여 실시한 결과, 두 번의 시험성적 간의 평균점수차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에 학생·학부모·언론 등에서 '1회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시험을 주관했던 교육부가 너무나 간단히 물러섬으로서 다시 현재와 같은 연중 1회 실시로 돌아서게 되었다. 물론 당시에 이 문제와 복합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옛날의 제도로 회귀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입학시험의 역사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킨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여러 차례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것으로서, 이미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험성적의 표준화 또는 동등화(equating)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었다면 그와 같은 문제는 미연에 방지됨과 동시에 여러 번의 응시기회가 돌아가는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련 학계에서는 시험성적의 표준화를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더 나아가서 시험성적의 '다년도 사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여러 번 응시의 기회를 주는 것을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입학시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난 30년간 축적되어 있는 '시험관리'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여러 번 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의 성적을 사후에 간단한 통계적인 계산을 통하여 '표준화'시켜서 제시하는 것으

로 그 목적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연인원 400만 명 정도가 매년 치르는 ACT나 ETS가 주관하는 대학입학시험의 성적은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시험성적을 동등화와 표준화를 거쳐서 학생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 라. 컴퓨터를 이용한 입학시험의 수시 실시

새로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에서는 연중 학생들을 선발해야 할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므로 수시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실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인 것이다. 이와 같은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의 경우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단순히 시험문제들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문제지를 인쇄하여 종이를 갖고 시험을 치르는 대신에 컴퓨터 화면을 보고서 문제를 풀며 그 정답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이 있다. 이 방법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시험문제가 제시되는 것이므로 종래의 시험과는 사용하는 매체만 달라졌을 뿐이며 그 내용상에 특기할만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둘째로,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문제는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마다 모두 다르게 하는 것으로서, 컴퓨터를 통하여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시험성적은 사전에 입력해 놓은 문항분석의 결과를 사용하여 모든 수험생들이 똑같은 수준의 시험을 치른 것처럼 채점을 하여, 시험을 치른 즉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방식(CAT: computer adaptive test)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컴퓨터에 관련된 초보적인 지식만 가지고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후자는 미리 구축된 '문제은행'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전문가의 도움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평가전문기관의 하나인 ETS에서는 대학원 입학에 위한 시험은 GRE와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GMAT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현재는 지필방식과

CAT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지필방식의 시험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CAT 방식만으로 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교육개혁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이제는 대학에서 연중 계속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미 선진국에서 그 기술적인 문제점에 관한 검증이 끝난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바삐 도입하여 새로운 교육개혁 체제에 대비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3. 문제은행의 보안 유지

수학능력시험을 문제은행 체제로 전환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은 저항을 받는 부분의 하나가 문항을 제작, 저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사실, 시험 또는 문항의 내용이 미리 알려지게 되면 그 시험은 처음 의도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험자들은 교과목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예상되는 문제의 답을 암기하는데 주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수학능력시험이 그런대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출제자가 일정 기간 감금상태에서 외부와 격리되어 문제 유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당해연도의 시험이 어떠한 내용으로 출제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시험문제의 유출로 인한 보안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출제 및 검토가 아무리 통제된 가운데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기출제된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시험에 포함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즉, 위촉된 출제자나 검토자가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출제된 문제나 그 밖에 다른 예상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출제자와 검토자를 일정 기간 감금하여 출제토록 하는 현행 방식도 보안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은행 출제체제를 도입할 경우, 현행 방식에 비해 보안문제가 더욱 예민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안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 가. 문항수를 대규모로 저장하는 방안

문제은행의 규모를 방대하게 함으로써 수험생이 시험내용을 통달하지 않고 모든 문항의 답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유형을 미리 공부하여 암기하더라도 그 문항들이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목적이나 목표들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은 양질의 문항들이 저장되어 있다면(백순근, 1996) 문제 유형의 보안을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현재 문제은행식으로 운영되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이러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문제은행에 포함된 전 문항을 모두 알게 되면 적어도 운전자로서 지녀야 할 학과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대비하는 사람들은 예상되는 문제를 가급적 많이 다루어 봄으로써 합격점에 쉽게 도달한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경우는 정해진 기준 점수를 통과하기만 하면 피험자가 몇 명이 되던 합격이 되는 준거지향 평가이기 때문에 문제유출 또는 유사문제 출제로 인한 보안문제가 그다지 심각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이 피험자의 상대적인 획득점수가 대학입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규준지향평가에서는 보안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적 풍토와 국민의식이 남다를 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갖는 비중과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문항 수를 저장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수치는 없다. 다만 미국 ETS의 경우 고등학교 수학문제를 최소한 6,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설령 문제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예비문제를 수험생이 모두 다 풀어보고서 시험을 본다면 그 학생은 충분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소화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안문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지나치게 변별력이 강한 세분된 점수로 채점하게 되면 오히려 경쟁심만 부추길 뿐 교육적 또는 측정학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험결과를 단계별 사정의 자료로서 이용하고 다른 자료(예컨대 논술 및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면접)를 활용하는 방법이 문제은행의 도입과는 별도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시험을 수시로 실시하는 방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 문제 유출에 따른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시험 내용이 외부에 알려졌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적인 동형검사들을 준비하게 되면 보안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문제은행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동형검사를 여러 개 만들어 수시로 시험을 칠 수 있다는 데 있다. 수능점수를 당해연도에서만 인정하는 이면에는 해마다 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동질적이지 못하고 난이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만일 연도별 고사 간에 동등화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1회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가지고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당해연도 대학입시에서 탈락한 모든 피험자가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하는 현행 방식은 어떤 면에서 불합리하다. 또한 본인이 한차례의 시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당일의 신체조건, 질병, 사고 등)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피험자에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런 경우 총 시험 횟수를 제한할 필요는 있다.

## 다. 여러 단계의 수정·보완을 거치는 방안

이 방안은 문제은행에 저장된 원문제를 계속하여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통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출제 및 검토를 여러 차례 하면 문항이 수정되거나 변형되어 원문제가 유출되더라도 1차적으로 보안이 된다. 문제은행에 저장할 문항을 제작할 때, 완성된 문항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개발하여 모형화하는 것이 좋다. 완성된 문항을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검사 제작에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유출되었을 경우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을 유형별로 또는 영역별로 준비하여 문제은행에 보관했다가 출제자가 선제, 수정하여 최종 문항을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제작된 예비문항들을 가지고 출제자와 검토자가 최종적으로 가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원문제의 유출로 인한 위험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출제자와 검토자를 여러 차례(약 8회 정도) 거치는 동안 원문제는 상당히 바뀌게 된다. 외부 출제자의 출제 문항을 평가원 내부자(평가 전문가)가 검토, 조정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저장된다. 이렇게 저장된 문항은 다음 해에 사용될지 아니면 10년 후에 사용될지 아무도 모른다. 검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장된 문항을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택하게 되고 선택된 문항은 원문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수정 또는 보완되어 사용되므로 이중 삼중의 보안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저장된 문항의 사용 시기의 변동은 일종의 보안장치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문항 사용의 시기가 고정적이거나 어떤 순서가 있을 때는 보안유지가 곤란하게 된다. 이러한 사용 시기의 조정을 통한 보안유지는 궁극적으로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항 수가 상당히 많을 때 가능한 방법이다.

물론, 문제은행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문항을 선제하여 검토하는 출제·검토자가 일정 기간 합숙하는 일은 불가피하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식에 의하면 출제 및 검토 과정에 14일이 소요되며 나머지 인쇄기간

16일을 합하여 총 30일 가량 소요된다. 그러나 문제은행 방식을 도입하면 약 10일간의 문항 선제·검토 과정과 16일간의 인쇄기간(인쇄기간은 현재와 동일하여 시험 관리상의 부담은 경감되지 않음)을 합하여 25~26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대략 5~6일 정도 단축할 수가 있다.

### 라. 출제된 문항의 실시시기를 다양화하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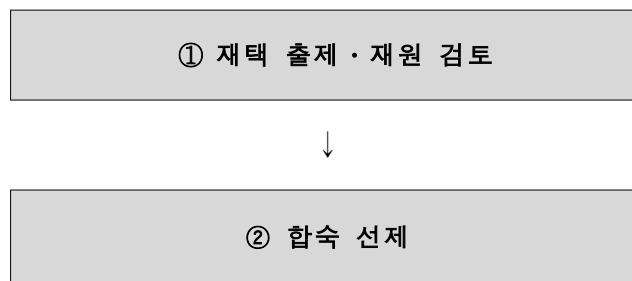
이 방안은 문항의 제작 및 검토 절차를 거쳐 문항을 완성한 후에 문제은행 전담관리팀의 결정에 따라 실제 출제할 시기를 다양화하여 문항을 선정·저장함으로써, 출제자 및 검토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제작·검토한 문항들이 언제 출제될 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각 영역별 이원분류표에 근거하여 문항을 분류한 후, 각 분류유형에서 일정 수의 문항을 무작위로 선제하여 1년, 2년, 3년 후 혹은 1년, 3년, 5년 후 사용할 것으로 결정, 저장할 수 있다. 이때 문제은행 전담관리팀은 문항의 실시시기를 결정하는 특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출제된 문항의 출제시기를 다양화하여 문제은행에 저장하게 될 때, 문항의 출제 및 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방안은 매년 많은 수의 문항이 지속적으로 개발·저장될 수 있을 때 더욱 유용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문항제작자 및 검토자에게 부과되는 문항의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발되는 전체 문항의 수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이 방안을 바로 활용할 수는 없으며, 출제 문항수의 최소 20배수가 확보되는 2년 후부터 이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 반개방형 출제 방안

이것은 1개월간의 합숙을 통해 모든 문항을 출제하는 현행 방식을 수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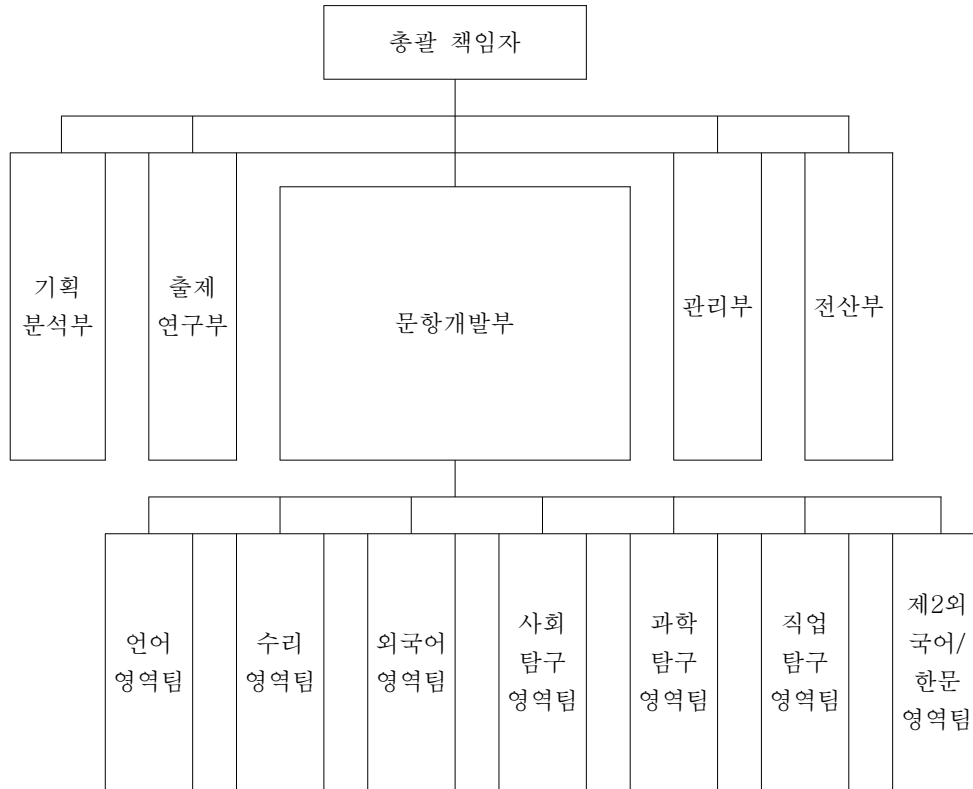
여 1년간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1년간 재택 출제와 평가원 재원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문항 개발 및 출제를 하며 합숙을 통해 최종 선제하는 방안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합숙 출제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갑자기 합숙 출제하는 방식을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방형 출제와 폐쇄형 출제(합숙)의 장단점을 보완한 ‘반개방형’ 출제 체제 안으로서 개방형 문제은행 출제 체제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적합하다고 하겠다.



[그림Ⅷ-1] 반개방형 출제 방식 개념도

## 가. 조직

문항개발부 밑에 영역 또는 과목별 개발팀을 두어 문제은행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한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역이나 과목별로 개발팀을 구성할 때는 세부 전공을 안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은행을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산 프로그램의 운용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산부를 신설해야 한다.



[그림 VIII-2] 반개방형 문제은행 조직도

## 나. 운영 방법

### 1) 재택 출제와 재원 검토

먼저,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를 1년간 연구교사, 연구교수로 위촉하여 한다. 위촉된 연구교사 및 연구교수는 각자 재택 출제를 하면서 월 8회(주 2회) 평가원에 출근하여 철저한 보안의 지정된 별실에서 영역(교과)별 문항 검토, 수정, 보완 작업을 한다. 이 때 1회 수능에 필요한 문항수의 10배수 정도를 출제하도록 한다. 출제에 참여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연구 점수를 부여하거나, 출제위원이 소속된 학교나 기관의 협조를

언어 강의와 직무를 경감하도록 한다. 출제위원이 소속된 학교 및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점수 부여, 대강료 지급, 학교 및 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각종 유인가를 제공하도록 한다.

## 2) 합숙 선제

재택 출제와 재원검토를 거쳐서 개발, 출제된 문항에 대해서는 합숙을 통해 문항을 최종 선제한다. 이 때, 재택 출제·재원 검토위원과 합숙 최종 선제 위원은 보안상 동일인이어서는 안 된다. 재택 출제와 재원 검토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반면, 합숙 기간에는 선제만이 이루어지므로 합숙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인쇄소를 지역별로 분산 증설함으로써 인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합숙 기간 또한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IX. 요약 및 제언

### 1. 요약

1994학년도부터 도입·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시일이 경과되면서 점차 시험과목 또는 영역의 확대를 비롯하여, 시험시간의 증가, 점수체제의 변화 등 시험의 성격과 체제 및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애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하면서 표방하였던 ‘대학수학에 필요한 보편적인 학업능력’을 측정한다는 취지는 점차 퇴색되고 종전의 대학입학학력고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시험으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2008학년도 이후부터 대학입학전형제도와 교육평가체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대학입학제도 여하에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존재, 성격, 활용방법 등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동 연구용역에 의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착수하게 되었는바, 정책연구의 성격을 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 2008학년도부터 적용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와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둘째, 2008학년도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향해야 할 성격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8학년도에 적용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녀야 바람직하고 타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구조와 체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계획을 제시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과정과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또한 선진 외국의 대학입학시험체제를 분석해서, 우리나라 대학입학시험체제에 주는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2차에 걸친 전문가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그리고 교육부, 교육혁신위, 대학, 고등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수차의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연구협력진을 구성·운영하면서 수시로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문과 검토를 받았다. 연구진은 여러 차례에 걸친 자체 토론과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의 3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제1안과 제2안은 현행의 기본 틀을 대폭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혁신적이며 장기적인 개선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 제3안은 현행의 기본 틀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보수적이며 단기적인 개선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 방안의 주요 특징을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아래 표에 3개 방안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제1안은 ‘기초수학능력시험’으로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과 지식을 측정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를 대폭 단순화시킨 시험으로서, 시험 영역을 ‘언어, 수리, 영어’의 3개 영역으로 줄이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서 출제하며,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이다. 이 안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면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학업능력을 확인하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제2안은 ‘표준화 기초학력시험’으로서, 미국의 ACT 검사와 같이 대학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기

초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1안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을 수료한 이 후부터 응시자격을 주어 수험생들은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시험에 다수의 응 시기회를 갖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교육과정의 개편과 별로 관계없 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험 형태라는 특징이 있다.

<표IX-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3개 개선방안 개요 비교

| 구 분          | 1안                                            | 2안                                       | 3안                                                              |
|--------------|-----------------------------------------------|------------------------------------------|-----------------------------------------------------------------|
| 시험성격         | 기초수학능력시험                                      | 표준화 기초학력시험                               | 현행 수능 기본 틀 유지                                                   |
| 시험영역<br>및 과목 | 언어, 수리, 영어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 언어, 수리, 영어, 사회<br>(역사, 지리, 일반사회),<br>과학(물리, 화학, 생물,<br>지구과학) 시행 |
| 시험범위         | 고등학교 1학년<br>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 고등학교 1학년<br>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 고등학교 2~3학년<br>선택중심 교육과정                                         |
| 문항형식         | 선택형 및 객관적 채<br>점가능 단답형                        | 선택형 및 논문형                                | 선다형, 단답형, 연결<br>형, 완성형 등                                        |
| 시험시간         | 영역당 100분                                      | 과목당 2-3시간                                | 영역(과목)당 50-100분                                                 |
| 시행회수         | 연 2회                                          | 연 2회                                     | 연 1회                                                            |
| 응시자격         | 고2 이후                                         | 고1 수료 후                                  | 고3 말                                                            |
| 점수체제         | 표준점수, 9등급                                     | 등급점수(5-9등급)                              | 15등급 내외                                                         |
| 성적<br>유효기간   | 2년                                            | 3년 이내                                    | 1년                                                              |
| 시험결과<br>활용   | 최소자격기준, 다단계 전<br>형자료, 타 전형자료와<br>합산 등 대학자율 활용 | 학생선발의 보조자료<br>또는 다단계 전형의 2<br>차 전형자료로 활용 | 최소 지원 자격기준,<br>다단계 전형자료 등<br>대학 자율 활용                           |

제3안은 ‘현행 수능시험 기본 틀 유지안’으로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되는 발전된 학력고사라는 수능의 기본 성격과 5

개 영역(언어, 수리, 영어, 사회, 과학) 체제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시험이다. 이 방안은 현행 수능시험의 기본 골격과 취지를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대학입학 시험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험체제의 변화에 따른 수험생 및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 2. 제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제안하고 있듯이, 대학입학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대학의 신입생 선발의 자율권 확대 및 전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그리고 국가수준에서 대학입학전형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 교육의 적정수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발전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점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가수준의 시험은 실증적인 자료와 타당한 근거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대학입학제도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대사(大事)에 해당하므로, 급격한 변화는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학입시 전형자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충분한 사전준비와 함께 점진적으로 개선·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3안(현 수능 기본 틀 유지안)은 일종의 단기적인 개선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1안(기초수학능력시험)과 제2안(표준

화 기초학력시험)은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당국에서 수능시험에 관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할 때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세 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혹은 이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방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모든 고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근거한 제1안을 ‘기초공통시험’으로, 고교 2-3학년의 심화선택교과에 근거한 제3안을 ‘교과목별 선택시험’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양화·전문화해야 한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수준에서 고등학교 교육이나 대학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양화·전문화·특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서 제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 성적을 영역 혹은 교과별로 9등급만 제공, ②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위주로 출제, ③ 폐쇄형 출제 방식에서 문제은행식 체제로 전환, ④ 학생들의 시험부담 완화를 위해 복수 시행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로의 전환이나 복수 시행 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 방향과 부합하나, 다른 내용들은 오히려 현 수능보다 더욱 단순화· 획일화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행 수능시험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험성적을 9등급만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의 시험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유형이나 수준을 다양화하거나, 영역이나 교과별 시험을 더욱 전문화 하거나, 문항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거나,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도입하거나, 대학의 특성이나 성격(예: 학문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 등)에 적합하도록 수능시험의 형태나 내용을 여러 가지로 특성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입학전형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의 3대 전형자료는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신 성적과, 개별 대학에서 마련하는 대학별고사 성적, 그리고 국가수준에서 제공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다. 각 전형자료가 특성화되어 상호 보완적 기능을 충실히 잘 할 때,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입전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1안(기초수학능력시험 안)이나 혹은 제2안(표준화 기초학력시험 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학별고사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고등학교 내신 성적도 다양화·특성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내용과 내신 성적의 평가 내용이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같은 능력을 측정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각 전형요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각 요소들을 개선·발전시켜야 것이다.

넷째,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모든 업무는 평가전문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련된 업무들은 매우 전문적인 것이므로, 시험의 출제에서부터 채점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업무를 평가전문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수능시험에 대한 기본 정책들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립한 다음, 그 정책에 따른 시행만을 한국교육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수능시험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일관성 있게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설사 자주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그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계획수립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현 수능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들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적절히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40년대부터 수능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시험을 평가전문기관인 ETS나 ACT에 완전히

위임하여 전문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현재 미국의 ETS의 직원이 약 2500명, ACT의 직원이 약 1300명 정도임을 감안하여(ACT, 2004; ETS, 2004), 수능시험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위해서 현재 130여명에 불과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직원을 대폭 늘리고, 행·재정적인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을 위해 정부, 대학, 고등학교 등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반영 등을 포함한 대학 신입생 선발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대학 차원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이나 교과별 점수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대학의 특성이나 성격에 부합하는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선발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한 노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차원에서는 입시위주 혹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지양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중등교육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함과 동시에, 고등학교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 자료인 내신 성적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을 위해 어떤 특정한 방안을 어느 특정 시점에서 시행하든 그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국민적인 의식개혁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된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공동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1998).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 새 학교문화 창조.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4).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교육인적자원부.
- 구자익, 김재춘, 박태준, 윤종혁, 정영근, 황규호(1997). 동서양 주요 국가들의 교육. 서울: 문음사.
- 김민남(200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선발의 패러다임 변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학선발제도와 평가체제의 패러다임 변화. 교육혁신위원회·한국교육평가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 13-34.
- 김주훈·설현수(2002). 일본·중국·대만의 대학 입시제도 비교연구. RRE 2001-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현원(2002). 한국교육 그러나 희망은 있다, 서울: 선행기획.
- 매일경제신문사(1998). 지식혁명보고서.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박경숙, 김양분, 강태중, 김명숙, 백순근(199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발전 방안. 연구보고 RR-95-19. 한국교육개발원.
- 박도순, 장석우(1993). 새 대학입학시험제도.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박도순 외(2001).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연구.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연구위원회.
- 박영진(2000). 중국의 대학 입시 개혁과 향후 전망. 비교교육연구, 10(1).
- 백순근(1997). 교수-학습활동을 돕기 위한 문제은행의 구축 및 운영 방안, 교육평가연구, 10(1), 105-127.
- 백순근(2001).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에 대한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1), 55-69.
- 백순근(200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67, 141-155.

- 유영제(2000). 수능제도 다양화해야. 조선일보, 2000년 12월 20일자 칼럼.
- 이종승(1995). 미국 대학입학시험(ACT)의 평가내용과 개발과정. 대학교육, 통권 76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64-74.
- 이종승(2000).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와 대안. 황정규(편), 한국 교육평가의 쟁점과 대안, 서울: 교육과학사, 445-458.
- 전효선(2002). 프랑스의 교원양성체제 : 프랑스의 교사교육대학원(IUFM)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제16집.
- 전효선(2003). 프랑스의 교수임용제도의 특성과 최근 동향. 비교교육연구, 제 13권 1호.
- 최봉섭(2004). 영국교육에서 가장 잡음이 심한 곳: 고교 내신. 교육개발, 31(6), 72-76.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a).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어떻게 준비할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b).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공고.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 허경철, 김신영, 백순근, 채선희(1997). 국가 교육평가 정책수립 방안 연구: 외국의 교육평가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季明明, 主編(1994). 中國高等教育改革與發展,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 教育委員會考試中心(2003). 2003年 普通高等學校招生 全國統一考試說明(文科),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 國家教育委員會考試中心(2003). 2003年 普通高等學校招生 全國統一考試說明(理科),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 杜丁等(2003). 高考回顧-25年歷史記載几多悲歡, 北京娛樂信報.
- 王若榮, 鄭海朝, 張劑海 主編(1997). 高校招生錄取及填報志願指南, 北京: 航空工業出版社.
- 中共中央國務院(1993). 中國教育改革與發展綱要.

藤井光昭(1999). 대학입시센터 시험에 따른 문제 작성. 대학입시에 관한 한·일 심포지엄 발표자료. 12. 8-9. 일본대학입시센터.

井上明俊(1999). 대학입시센터의 개요. 대학입시에 관한 한·일 심포지엄 발표자료. 12. 8-9. 일본대학입시센터.

ACT, Inc. (2003). *Creating opportunities: 2003 ACT annual report*. IA: Author.

Ban, J. C. (2003). *Application of equating in high-stakes test*.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Issues in Developing High-Stakes Test, Seoul, Korea, July 4.

Désalmand, P. & Tort, P.(1994). *Du plan a la dissertation - la dissertation française aux Baccalauréats et aux concours administratif*. Paris: Hatier.

Drucker, P. F.(2002). *Managing in the next society*. NY: St. Martin's Press.

Kobrin, J. L., Camara, W. J., & Milewski, G. B. (2002). *The utility of the SAT I and SAT II for admissions decisions in California and the Nation* (RR No. 2002-6). The College Board.

Lawrence, I. M., Rigol, G. W., van Essen, T., & Jackson, C. A. (2003).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content of the SAT* (RR No. 2003-3). The College Board.

The College Board. (2003). *The new SAT and your school for teachers, counselors, and administrators*. NJ: Author.

The College Board. (2004). *SAT program handbook: 2004-200 5*. NJ: Author.

[www.act.org](http://www.act.org)

[www.aqa.org.uk](http://www.aqa.org.uk)

[www.edu.cn/20030212/3077202.shtml](http://www.edu.cn/20030212/3077202.shtml)

[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http://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  
[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coulisses.htm](http://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coulisses.htm)  
[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default.htm](http://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default.htm)  
[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mode.htm](http://www.education.gouv.fr/sec/baccalaureat/mode.htm)  
[www.eduscol.education.fr/D0056/bacg.html](http://www.eduscol.education.fr/D0056/bacg.html)  
[www.ets.org](http://www.ets.org)  
[www.lebac.com/bacgen.htm](http://www.lebac.com/bacgen.htm)  
[www.qca.org.uk](http://www.qca.org.uk)  
[www.txjy.com.cn2004](http://www.txjy.com.cn2004)

## <부 록>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



## (1) 1차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

<토론1>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허 경 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본부장)

1994학년도부터 도입, 시행된 대학수학능력(대수능)시험은 나름대로의 순기능적 역할과 역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들어 대수능 시험의 순기능적 역할은 감소되고, 역기능적 역할은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해 지고 있으며, 2008학년도부터는 대학입학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대수능 제도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주제 발표문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진의 노력의 표현으로서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많은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토론에서는 3가지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 후, 자유로운 종합 논의를 하고자 한다.

#### I. 제1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1안의 중요한 특징이나 전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2008학년도에 시행될 대수능 시험은 대입전형의 다른 요소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상호 보완적이거나 배타적이어야 한다. 둘째, 2008학년도에 시행될 대수능 시험은 대입에서 여전히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셋째, 대입에서 학력은 중시되어야 하며, 대수능 시험은 학력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대수능 체제는 현행보다 훨씬 단순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하며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

서 출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소자격시험으로 강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제 발표문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 특징들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제1안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제1안에서는 2008학년도의 수능시험이 내신이나 대학별 시험과는 배타적(혹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내신이나 대학별 시험이 재지 않는 능력이나 지식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2008학년도 수능시험은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학력고사’에서 재는 것은 내신에서 재는 것과 동일, 혹은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학력고사는 학교에서 배운 능력을 재는 것이고, 내신 역시 학교에서 배워서 성취한 정도를 측정,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안이 주장하는 ‘배타적’ 혹은 ‘상호보완적’이란 전제는 이 안이 제안하고 있는 수능시험의 기본적 성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만약 언어, 수리, 영어의 세 영역을 시험의 기본 요소로 상정하고 있는 제1안이 ‘배타성’의 전제 혹은 원리를 충족시키려면 이 세 영역의 시험은 교과와 내용과는 가능한 한 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 학생들은 수능 시험 준비를 별도로(과외로)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학교도 가능한 한 교과교육 이외에 수능 준비를 위한 별도의 준비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수능이 학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학교는 교과와는 성격이 다른 ‘언어’영역 지도를 거의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사교육에서 보충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타성의 전제는 학교의 ‘교수-학습적 무능’ 문제 및 그로 인한 사교육비 유발 문제와의 관련하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1안에서는 대입에서 ‘학력’은 중요한 요소이며, 수능은 학력을 중요한 측정의 요소로 삼아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가 대학을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규정짓는다면 이러한 전제는 타당하다. 현재 사회의 통념은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인다. 대학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통념에 의하면 1안

의 이 전제는 옳다. 그러나 대학이 과연 학문을 하는 곳인가? 동일 연령 집단 내에서 90%가 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학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강하게 들게 된다. 특히 '교육혁신위원회'에서 2008학년도 대입부터 '학력'을 최소기준화 하여 전체의 10% 정도의 학생들만을 학력을 기준으로 선발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학력을 중요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가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4. 1안에서는 수능시험의 내용이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교 1학년에서 이수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수준에서 출제되는 '비교적 평이한' 시험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전제는 전술한 '배타성의 원리'와 갈등된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신의 내용과 결국 동일, 중복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전제는 '학력'을 중시하겠다는 다른 전제와 다소 갈등을 이룬다. 학력을 중시한다면 고등학교 2-3학년의 교육과정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 수능의 영역을 단순화하여 언어, 수리, 영어의 세 영역만으로 한정한다면 결국은 영·수·국 중심의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 중등교육 정상화의 전제는 오히려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영·수·국 이외의 교과 전공 교수와 교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완화, 설득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 대단히 힘든 과제가 된다. 이 점에 대한 대안이 1안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II. 제2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2안은 두 가지의 전제와 네 가지의 기본 입장의 토대 위에서 구성된 안이다. 그 전제와 입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제는 2008학년도 대입에서는 학력에 의한 선발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제이다. 내신(교육이

력철)에 의한 선발이 주류를 이루고 학력에 따른 선발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제이다. 두 번째 전제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대학별 고사의 비중은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이다. 한편 네 가지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능시험이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등교육 정상화의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수능시험과 고교 교육과정과는 직접 연계하지 않는다. 둘째, 대수능이 대학을 서열화 시키고, 학생들을 무한 경쟁 시키며, 사교육 수요를 촉진시킨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수능 시험은 '최소 자격 기준'으로만 활용한다. 그리하여 시험의 난이도나 변별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을 극소화하고, 시험의 내용도 단순화, 최소화한다. 셋째, 기초학력시험으로서 문제은행식 출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기로 하고, 문제은행식 출제를 통한 표준화를 통하여 동등화 방안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제2안에서는 이러한 전제와 기본 입장 하에서 2008학년도 수능시험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지니는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 시험은 고교 교육에서 달성해야 할 최소기초 학력을 재는 시험이다. 둘째, 고교 교육과정과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으나 고1 교과 수준을 유지한다. 셋째, 창의력, 문제해결력, 추리력 등을 중시하는 사고력 중심의 학력 시험이다. 넷째, 절대적 기준을 고려한 표준화된 기초학력 시험이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수능과 고교 교육과정과를 직접 연계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기본 입장은 그 의미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만약 간접적으로 연계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일단 그 의미가 명료하지 못한 것이 기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수능시험이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2안에서 제안하는 이 시험은 고교에서 달성해야 하는 최소 기초 능력 시험이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로 구성된 기초학력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교육과정의 연계를 직접적으로 의미한

다. 이러한 시험이 어떻게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따라서 수능과 교육과정과의 관계를 절단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기본 입장을 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수 없다.

2. 대입에서 학력에 의한 선발은 최소화하고 내신(교육이력철)에 의한 선발은 최대화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 문제가 있다. 대학에서 활용하기 지극히 편리하도록 양적으로 처리된 현행의 내신자료도 대학에서 불신하고 대입에서의 영향력을 감축시켜가는 추세인데, 질적으로 제시된 교육이력철을 중심으로 선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 학생 선발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문제이므로, 이력철과 같은 질적인 자료를 대학이 어떻게 처리, 가공하여 사용하느냐는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넘겨버릴 수가 있으나, 이 경우 대학은 다른 전형 자료, 예컨대 대학별 고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내신에 의한 선발을 최대화한다는 기본 전제는 바르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학력을 최소화하고 내신을 극대화한다는 전제 하에 2008학년도 수능은 최소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따라서 수능 시험의 내용으로는 고교학력의 최소 기준만을 포함한다고 2안은 제안한다. 쉽게 말해 시험은 대단히 쉬워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심각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하여 시험의 부담이 적으며 사교육의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고 본다. 또한 시험의 변별력은 낮으나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2안은 보고 있다.

수능을 최소자격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고부담 시험의 성격을 저부담 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비록 2안의 이 내용이 학력 선발을 최소화하고 내신 선발을 극대화한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제안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지만 전제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수능시험을 저부담 시험화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현재의 수능시험은, 특히 2005학년도의 시험은 여러 가지 위험한 문제점을 과도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수능을 저부담 시험으로 전환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

문이다.

4. 수능을 저부담 시험, 최소한의 지식이나 기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 시험을 창의력, 문제해결력, 추리력 등을 재는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로 규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표현은 2안이 제안하는 수능시험의 성격을 모호하게 흐린다. 창의적인 사고력은 사실상 5지선다형 문항으로는 짚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문제해결력도 5지선다형으로 재기는 불가능하다. 높은 수준의 추리력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능력은 선다형 이외의 다른 방식의 검사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수능시험은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속도검사'이다. 수능시험은 오히려 '최소한의 지식과 최소한의 지적 기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솔직하게 기술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5. 수능을 최소자격기준의 저부담 시험으로 하고, 이력철을 기본으로 한 대신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대학은 무엇에 의지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의 대안은 '논술과 면접' 뿐이다. 2안은 따라서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대학이 논술과 면접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대학별 고사를 이 두 유형만으로 제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6. 합숙출제가 아니고 문제은행식 출제를 한다는 제안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2008학년도부터 시행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훨씬 더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Ⅲ. 제3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3안이 취하고 있는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입시는 반드시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시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능시험과 고교 교육과정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시험의 난이도는 시험의 성

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격자 선발이 목적인 시험이라면 난이도가 적정하여 변별도가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2008학년도 수능은 그것이 선발시험인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 문항은 많이 포함하되 다양한 난이도를 가진 문항으로 구성하여 변별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 시험의 내용으로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과목만이어야 한다고 본다. 2005학년도 시험에서 제2외국어와 직업탐구 영역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째, 시험의 수준은 고교 2-3학년의 심화선택 수준이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다른 안들과는 달리 1년에 1회 시험을 시행하되 재시험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3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1. 3안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능 시험의 체제와 성격을 상당 정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능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능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장치가 다소 미흡하다.

2. 3안은 다른 두 안에 비해서 2005학년도 수능 체제와의 일관성을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3안 역시 2008학년도 수능에서 제2외국어 영역과 직업탐구 영역을 배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2005학년도 시험 체제를 3회밖에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의 체제를 바꾸는 셈이 됨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3. 수능시험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제외된 영역의 전공자들(관련 영역의 교수나 교사들)의 반대가 심각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제안되지 않고 있다.

#### IV. 토론자의 종합적 입장

수능시험의 결과를 대입에서 최소 자격 기준으로만 활용함으로써 수능시

험의 성격을 저부담 시험으로 전환하는 일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시험의 내용이나 수준도 고교 학력의 최소 기준만으로 함으로써 시험의 내용을 쉽게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들게 준비하지 않아도 기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종의 고교 졸업 자격 고사와 같은 시험이 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2안에서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수능시험의 대입에서의 영향력 감소와 함께 내신의 비중도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지필고사 성적 위주의 내신은 그 비중이 최소화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혁신위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육 이력철’이 현행의 내신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이력철’로 대변되는 그러한 의미의 내신의 비중을 높이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양적 지표가 전무한 질적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이력철은 현실적으로 대입에서 비중있게 사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내신 자료를 산출하는 의미의 내신을 강조하는 것은 현행과 같은 의미의 내신은 축소, 혹은 최소화한다는 의미가 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력철에 의한 내신의 강조’를 토론자는 찬성한다.

대입 전형 자료가 수능, 내신자료, 그리고 대학별 고사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최소화되고, 현행 제도로서의 내신의 비중도 약화(이력철에 의한 내신은 강화)되는 경우, 대학별 고사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세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소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면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험을 통한 교육적 가치 실현의 극대화(사고력이나 창의력 등 고등정신 능력의 신장)는 수능이나 내신보다는 대학별 고사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능과 내신이 최소화되어 실질적으로는 현행의 대학별 고사인 논술과 면접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별해야 하는 상황에서, 논술과 면접만으로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는 금지되어 있는 ‘대학별 본고사’의 부활도 재검토해 볼 만하다.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과거의 본 고사가 지니는 문제점들을 개선한 상태에서의 본 고사 시행은 최소한 현행의 대입시험제도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수능이 약화된다고 사교육비가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수능이 약화되는 경우 일시적으로는 수능 준비에 쓰였던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비는 곧바로 대입전형의 다른 요소로 투입될 것이다. 이는 내신에도 마찬가지로이다. 내신의 비중이 약화될 경우, 내신 때문에 소요되었던 사교육비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이러한 경비는 대입시험의 다른 요소로 향하게 될 것이다. 대학별 고사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사교육비는 바로 대학별 고사라는 요소로 집중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교육비의 총량은 대입 경쟁이 존재하는 한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의 총량은 시험의 종류나 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입 경쟁의 치열성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제 발표에서 제안된 3가지 안은 모두 현행 대수능 제도보다는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본 발표에서 제안된 안 중에서 어느 하나가 2008학년도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면 3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현행안과 가장 유사하고 일관성이 있어서 시행에 혼란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1안이나 2안, 특히 2안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수능제도의 문제점이 2안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해결 또는 완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2안이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고교 교육과정과의 직접적 관계가 없는 출제라는 입장은 불명료하거나 불가능하다.

세 가지 안을 다시 다듬되, 세 안의 문제점들을 보다 예민하게 검토하고 세 안의 장점들을 포괄하되 하나의 일관된 체제가 성립, 유지될 수 있는 제 4의 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는 대수능 개선 연구, 내신 제도 개선 연구가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입제도는 대수능, 내신, 대학별 고사라는 시험 제도와 기타 여러 전형 제도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

는 하나의 거대 구조이니 만큼 이 모든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검토, 수정, 보완, 조정하는 종합적 연구가 질 높게 수행되지 않는 한 대입제도의 실질적 개선은 불가능할 것이다.

수능시험은 고교 교육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학력을 무시할 수 없다.

사교육비 절감을 보장할 수 없다.

기본 지식과 기본 지적 기능을 채는 검사다.

국영수사과의 5개 영역 학력고사의 성격

등급은 3등급, 혹은 5등급.

최소자격기준.

## <토론2>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이 원 희(서울잠실고등학교 교사)

## 1안 : 기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하여

이 안은 시험의 독자정보다는 대학입시에서 다른 전형요소와의 상대성이 전제된 형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상호보완성이 강조되는 형식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시험부담이나 사교육비의 경감 면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닥칠 정원 미달이 예상되는 대학이 늘어날 상황에서나 간단한 형식의 입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유효한 대학에서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이 안은 상당한 경쟁자 중에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수가 없다. 대학별 고사가 국, 영, 수를 제외하고 허용된 조건에서 각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면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이 틀은 그 동안의 입시 방식의 변화를 논할 때마다 제시되는 안이기는 하지만 선택에서는 극과 극의 반응이 있었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논하는 것은 아직 의미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단계의 논의에서는 가장 많은 보완과 변경을 요구받게 될 안이기 때문이다.

## 2안 : 표준화 기초학력시험에 대하여

이 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직접 연계하지 않고 대입전형의 최소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려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하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를 시험 과목으로 한다. 범위는 10학년과정까지라고

한정하고 있다. 문항 형태도 선택형과 논문형으로 하겠다는 발전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기대 면에서도 학력에 의한 대학서열구조화를 완화하고 최소등급화와 학력에 의한 선발을 최소화하려는 강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

역시 대학에서의 입시 자료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고 스스로 그것을 전제로 한 안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 과정에서 변화와 변질이 되기 쉬운 면이 엿보인다. 논문형도 그렇고 문제 은행방식도 그때까지 준비가 가능한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 안에서 최소화 논리가 기본이라면 과목 수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안 : 대학입학시험에 대하여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논할 때 교육과정과 멀어지는 것도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고, 가까운 것도 정상화라고 말해진다. 이 시험도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는 충실히 반영하려는 면에서는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대학입시 방식이 바뀔 때마다 고려됐다고 했지만 결과는 항상 반대였다. 사교육이 증대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할 것이다.

교육과정을 심화선택과목을 위주로 한다는 것과 내신의 보완적 기능을 하는 점에서 현행 수능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보여 진다. 일관성의 유지라는 점과 변화에 대한 충격 완화 면에서 무난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 유형이나 방식에서 변화 가능성을 둔 바뀌어 가는 시험 방식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띄고 있다. 이것도 수능 방식의 변화 욕구를 염두에 둔 타협적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현행과 달라진 점 중에서 시험 영역이 대학별로 실시할 과목으로 넘겨서 그 수를 줄인 점이다. 학생의 부담은 준다고 하겠으나 그 부담이란 것도 과목 수보다는 경쟁과 성적이라는 점에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강조할 것은 못된다. 문항 형식의 다양화를 말하고 있으나 제의 단계와 시행 단계에서

그것이 일치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여러 방식을 열거했다는 것은 오히려 단순화의 길을 여는 것일 수도 있다.

등급을 12등급으로 한 것은 현행보다는 세분화 되었으나 15단계 정도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시행 단계에는 상위권의 변별 문제와 연계하여 좀더 세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각 대학에서 최소자격기준이나 다단계 전형 자료로 쓰는 것은 물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유독 점수 형태를 언급하지 않고 등급만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등급화의 기준을 과목별로만 원점수 기준으로만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 종합 의견

학생들을 수험 부담에서 줄이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으로는 1안의 과목을 2안의 형식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먼 방식이 반드시 위에서 말한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기여할 지도 의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1안을 중심으로 수정된 방식을 찬선하고 싶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썩 쉽지는 않다.

3안에서는 과목 수를 더 줄일 수 없는지가 좀 더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이왕 부담을 줄일 거라면 다른 전공 관련 과목은 대학에서 판별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난이도를 굳이 쉽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어정쩡한 통합교과적 방식의 한계를 벗어 던지기도 기대한다. 그 문제도 대학의 면접시험이나 논술을 통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 수능과 내신 부풀리기는 직접 관련이 없다. 별도로 논의해야 될 내용이다.

<토론 3>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문

손 중 현(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 1. 제출된 3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 각각의 개선방안이 현 수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나름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2) 특히 3개 방안이 모두 등급제를 제시하고 있고 또 시험결과를 최소자격기준 혹은 다단계전형의 보조 자료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 의견을 보이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함. 수능성적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그 자체 혁신적이라 할 수 있음.

3) 덧붙여 문항형식도 기존의 5지선다형이라는 고착된 방식을 넘어 새로운 문항출제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안이라 생각됨.

4) 1안은 국민공통기본교과에 대한 국가기준 시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상당 정도 공감함. 다만 선택교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연2회 수행 시행이 교육당사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 걱정임. 성적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됨. (2안의 3년 설정안도 그러함)

5) 2안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과 공통된 부분이 많은 안으로서, 교육혁신위에서는 공통필수 2-3과목 이외에 전공심화선택과목 2개 과목에 대해 집중적인 과목별 성취도평가(2-3시간 시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음.

6) 3안은 현행 수능시험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에서 입안된 안으로서, 전공심화선택 과목 중심으로 수험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동의

함. 다만 입시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물론 그 가치가 중요한 가치임에는 분명하다고 여겨짐.

7) 3개 개선방안은 모두 명백한 이론적 근거 위에서, 현실 조건을 검토한 바탕 위에서, 그래도 국가기준 시험은 필요하다는 판단 위에서, 대학의 학생 선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된 좋은 방안이라 사료됨.

8) 토론자로서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과연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임. 예컨대 등급제 시행으로 일선 학교의 파행을 막을 수 있을까.

## 2. 입시제도개혁을 인식하는 단초

1) 공교육 파행이 심각성을 띠고 있다. 어느 개인교사 혹은 어느 개별학교가 저지르는 파행 혹은 산발적으로 저질러지는 파행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책임자의 묵인하에) 저질러지는 파행이다. 오히려 파행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학교와 학부모가 많다. 그것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방치하고 오히려 거들고 있다.

※ 교실붕괴는 대학에도 일어나고 있다. '점수 높은 아이 골라 뽑기'에서 대학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전공교육의 코스웍이 무너졌다(전공교육 붕괴). 전공목적과 무관하게 성적·석차에 따라 학교에 들어갔고, 법전을 외우며 고시촌에 모여들고, 토플 책을 끼고돌며 취직자리를 엿보고,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의약학과에 편입을 준비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도무지 자부심이 없다. 학생들은 이래저래 방치되고 있다.

2) 무엇이 파행을 조직적으로 저지르게 하는가. 성적·석차 시스템이다. 성적·석차는 교과지도(수업)의 한 과정인데 혹은 교육활동의 한 국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석차 시스템이 온갖 '반교육적 상황'(도구교과 중

시·자의적인 교과중요도 결정, 문제풀이·반복연습·선행학습, ‘지식을 간추린’ 참고서 중심 수업, ‘하면 된다’는 교육만능주의, 결과중심 평가, 사람 분별의 수단으로서의 교육, ‘성적 올리기’로 유일화된 교육의 과정 등)을 만들어 내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반교육적 교육상황을 끌고 가는 제도적 사회적 기제가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다.

3) 성적·석차 시스템은 ‘완성교육’을 차단하고 준비교육을 제도화한 것에 그 역사적 기원을 둔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수단으로 교육을 전략시킨 식민지배와 개발독재의 무정견이 그것이다. 일제는 성적·석차를 교육의 질을 통제하는 유일한 기제로 강제하였다. 일제는 학교와 학생을 감시권하에 묶어놓고 완전히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로 성적·석차 시스템을 고착시켰다. 이후 해방이 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없이 그 시스템을 온존시키고 계승하여 왔다. 그 시스템이 여전히 전일적으로 학교체제를 억누르고 있다. 이 구조 속에서 아이들을 대결에 가까운 경쟁에 몰아넣고 학교(교사)는 그것을 즐기고 있다.

4) 이 시스템을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

<토론 4>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한 석 수(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장)

### I. 머리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셨던 충남대학교 이종승 교수님께서 고려대 박도순 교수님, 평가원 남명호 처장님 등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대해 실무 과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출된 개선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되어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발전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주제발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우리부는 지난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대책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하면서 대학 자율에 기초한 다양하고도 특성화된 학생선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발표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3가지 개선방안은 학교교육의 정상화 도모를 기본 목표로 하고, 아울러 사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II.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주제발표에서는 현행 수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시험과목 또는 영역의 확대 등으로 당초 “대학수학에 필요한 보편적인 학업능력을 측정한다는 취지는 퇴색하고 종전의 대입학력고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시험으로 전락”하여 어정쩡한 성격의 시험이 되었고, 이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론적 지적도 중요하지만, 수능이 대입전형(특히, 정시모집)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최근 내신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수능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엄청난 규모로 사교육비가 증대하여 가정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현실적 비판 역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능 출제방식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점,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준비를 잘해 줄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학교교육이 소홀해지고 학원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대안 검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단위시험이 갖는 특성상 출제·관리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출제·관리상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Ⅲ. 개선 기본방향

이미 부분적으로 언급하였지만,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사교육 문제, 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교과+비교과)과 수능 비중의 적절한 균형, 수능 출제방식의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현행 수학능력시험은 고교에서 가르치고 배운 내용을 측정하는 학력고사적 성격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을 둘러

싸고 논쟁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학교교육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시험의 성격이 규정되고, 현장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출제 참여비율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 부에서는 지난 3월 마련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개선방안」에서 2007학년도까지 고교 출제위원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성적 제공과 관련하여 현행 수능은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을 유도하고 수능 시험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서는 표준점수 및 백분위는 삭제하고 “등급”만 제공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등급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등급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급수를 세분화하게 되면 당초 의도한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며, 등급수를 지나치게 완화(3~5등급)하면 수능시험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일부 대학에서는 시험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등급수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2회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끝나는 시점에 전국단위 시험을 치르는 것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측정이 가능하고 출제과목이 단순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이것이 대입전형자료로서 비중을 갖게 되면 초·중학교에서의 사교육 증가 및 교육과정 파행운영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고 2~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은 학생부중심의 전형방법이 정착되고 등급제 전면도입으로 수능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상황을 가정할 때, 오히려 수험생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으며, 학습 진도 때문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시험성적의 불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가능합니다.

\* 연 2회 실시의 경우 첫 번째 시험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굳이 2번째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게 되어 지난 시험에서 2등급 이하를 받은 학생이 1등급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점수의 왜곡 및 불공정성 논란 야기 가능.

넷째, 시험과목 구성의 조정 및 통합 등 과목수 조정 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2005학년도 선택형 수능 체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도 해보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잦은 제도변경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과 불만을 받아온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의 큰 축을 흔들는 대안들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접근되어야만 시행도 하기 전에 또 바꾼다는 현실적 비판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선방안들은 현행 제도의 단계적 발전전략을 염두에 두고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합숙식 출제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은행식 출제체제 구축에는 장기간의 문항 축적 및 평가원의 인력 확보 등 시간적·재정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부 영역에 대해 문항공모에 의한 출제체제를 시범 도입하여 문제점을 점검한 후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IV. 맺음말

우리의 치열한 대학입학 경쟁구조 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갖는 의미는 미국의 SAT, 영국의 GCSE,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과는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능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순수 이론적 교육평가학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그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 타당성 및 정책적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책연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과 궤를 같이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내신 위주의 대학입학전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학능력시험의 개선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종합토론을 통해서 제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신 이종승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신 고려대학교 박도순 교수님, 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 본부장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남명호 처장님, 김정겸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2) 2차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

<토론 1>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김 영 철(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1. 연구의 성격

- ☐ 이 연구가 누구를 위해 왜 수행했는가에 관한 문제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연구의 취지 및 활용도 등에 관한 성격을 밝힐 필요가 있음.
- ☐ 대입제도 기본구조에 변화가 있으므로 치밀한 예측-전망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몇 가지 가정 또는 전제 아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수시·정시 모집, 전형자료의 구성 및 위상 변화 가운데 연구 대상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위상이 전망되어야 할 것임(명맥 유지, 기능 약화, 기능 강화 등)
  - 이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위상 변화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향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및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함(이에 관해서는 다음에 별도 기술함).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
- ☐ 이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시기도 전제되어야 할 것임.
  -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시행 시 적용할 방안 또는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용할 방안 등

##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및 위상에 관한 기본입장

- 제1안 기초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범위를 고교 1학년까지 이수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영역도 언어, 수리, 영어 3개 영역만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의미는 있음. 하지만 이것도 3개 영역만 전행하는 것이므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왜곡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이후의 고교 2-3학년 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임.
  -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및 위상 전망에 따라 그 위상에 알맞은 정책대안이 구안되어야 할 것임.
  
- 제2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 교육과 직접 연계되어 중등교육 정상화에 저해된다고 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교 교육과정과 직접 연계시키지 않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데(10쪽),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 교육과 무관하면 고교 교육의 왜곡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사교육도 더욱 증대될 것임.
  - 교육 정상화를 고려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독자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과 연계되면서 내신에서 다루지 못하는 영역과 대학수학능력을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임.
  
- 현행 수능시험 기본구상을 따르고 있는 제3안이 그래도 수능시험의 존재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교육 정상화에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3. 방안의 제시 방식

- ☐ 향후 대입제도 변화에 관련된 상황과 미래 예측을 공통으로 다루고, 3개 방안을 제시할 필요 있음.
- ☐ 3개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현상 인식 및 가까운 미래 전망(예: 2008학년도 대입제도 관련 예측 등)은 동일해야 할 것임. 보다 장기적 전망이나 해석에서는 차이를 보여 기본입장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임.
  -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의 모습은 동일해야 함.
- ☐ 3개 방안으로 제시해야 할 근거가 필요함. 그리고 3개 방안들도 각각의 합리적 근거가 필요함.
- ☐ 3개 방안의 제시 형태를 통일할 필요 있음.
  - 현재는 3개 방안에서 제시한 내용체제가 너무 다름.

### 4. 기타 사항

- ☐ 종전의 교육혁신위원회 대입제도 개선방안이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으므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 중심으로 논의해야 할 것임.
- ☐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현행 제도의 큰 틀과 기본취지는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3쪽), 교육적으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하였다고 볼 수 있음.
- ☐ 확인 사항 : 개별 대학의 본고사에서 평가할 것으로 전제(5쪽)

<토론 2>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 토론

김 완 진(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

### 1.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 내신과 수능을 등급화 함으로써 내신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안.
- 그러나 대학은 현실적으로 신뢰성 문제와 학교간 학력차의 존재로 인해 내신비중 상향조정이 어려움.
- 따라서 대학은 자연히 논술과 심층면접 등을 강화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논술과 심층면접은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전형요소이지만 많은 단점이 있음.
- 대학의 관점에서 보면,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종합대학에서는 제약이 많음.
  - 노이즈가 많은 전형요소이므로 정확한 학력과 인성 측정이 어려움.
  - 현재의 심층면접은 본고사와 다름없는 내용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앞으로 대학들은 본고사형의 문제들을 출제할 경향이 있음.
  - 그러나 본고사는 대학으로서도 시행에 부담이 있음.
- 학생의 관점에서는,
  -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요소임.
  - 각 대학의 본고사에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 따라서 본고사를 되도록 지양하고 학력우수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방안은 수능을 대폭 개선하는 것임.

## 2. 현행 수능의 문제점

- 각 과목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최우수학생의 선별과 학력제고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데 실패하여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
- 수학의 경우, 실력수학정석을 공부하는 학생은 극소수라 함.
- 영어의 경우, 중3까지는 TOEFL 600점 이상이 되는 실력까지 공부하지만 고교에 들어가서는 영어공부를 할 필요가 없음. 수능이 쉬워서 TOEFL 530점 정도 수준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이 때문에 고급의 실력을 연마하는 것보다는 쉬운 수준에서 틀리지 않기 위한 반복학습에만 몰두하게 됨. 이것이 사교육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됨.
- 하나의 시험으로 다양한 수준의 학생과 대학에 모두 사용케 하는 것이 문제임. 80%의 고교생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최우수학생층과 중위권학생, 하위권학생에게 적합한 평가내용이 달라져야 함.

## 3. 수능의 개선방향

- 교육부 개선안의 핵심 내용인 수능등급화(9등급화, 1등급 4%)는 변별력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바람직한 측면도 많이 있다고 보여짐.
  - 등급화는 과도한 점수경쟁 완화
  - 등급화로 인해 대학은 더 이상 합산점수로 학생들을 줄 세울 수 없음.
  - 외국의 표준시험은 대부분 등급화되어 있음. (예) A-level, IB, AP 등)
- 대학도 수능성적을 합산하여 줄을 세우는 방법을 지양하고 수능등급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함.
-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틀과 함께 수능시험의 시기를 조정하여 수시모집에서도 수능등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고교등급제와 같은 문제가 있는 방법을 피할 수 있음.
- 또한 수능의 과목을 현재보다 대폭 다양화하여 상위권 대학의 변별력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렇게 되면 대학은 본고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게 됨.

○ 수능이 대학의 그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미국의 AP, 프랑스의 IB와 같은 제도를 대학별로 혹은 연합하여 도입할 수 있음.

#### 4. 수능의 다양화 방안

○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1안의 기초대학수학능력시험과 3안의 대학입학시험을 병행하여 수능1과 수능2로 통합한 형태가 바람직함.

○ 수능1은 기초적인 대학수학능력과 지식을 측정하도록 통합교과적으로 출제. 고1 공통교과목 수준으로 국어, 영어, 수학과목으로 구성

○ 수능2는 다양한 난이도의 다양한 과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교교과과정 범위 내의 학력고사형태의 문제로 출제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5개 교과영역에서 심화과목수준의 다양한 교과목 시험을 출제

- 과목수강 후 응시할 수 있도록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여 여러 번 시행

○ 평가원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미국의 ETS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함.

<토론 3>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토론

성 태 제(이화여자대학교 교무처장)

국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검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타당하고 신뢰로운 검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목적과 성격, 구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검사의 내용이나 출제 형식, 결과 활용 등에 대한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연구진이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 개선방안은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국가에서 제공해주어야 하는 대학입학전형자료의 필요성과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연구진이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 검사는 검사의 목적과 특성을 더욱 명료하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성격과 특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검사 결과를 적용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1안과 2안의 경우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또는 고교 교육에서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준거참조검사의 성격을 지니며 해당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최저 학력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준거라 하며 이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검사의 내용에 기초한 방법과 검사점수의 상대적 서열에 의한 방법이 있다. 1안과 2안의 경우 모두 검사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표준점수나 5등급 혹은 9등급을 사용하고 있다. 검사의 성격은 준거참조검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검사점수의 표기는 표준점수나 등급점수를 사용하고 있어 규준참조검사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검사라 할 수 있다.

<표 1>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비교

| 구분<br>내용 | 1안<br>기초수학능력시험                                                                                                                                            | 2안<br>표준화 기초학력시험                                                                            | 3안<br>대학입학시험                                                                                                                                                     |
|----------|-----------------------------------------------------------------------------------------------------------------------------------------------------------|---------------------------------------------------------------------------------------------|------------------------------------------------------------------------------------------------------------------------------------------------------------------|
| 성 격      |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능력과 지식 측정(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                                                                                                             | 고교 교육에서 달성해야할 최소한의 기초학력 측정(사고력 중심의 기초학력시험)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초한 시험                                                                                                                                                |
| 영 역      | 언어, 수리, 영어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 · 언어, 수리, 영어, 사회, 과학:<br>평가원이 출제·시행<br>· 제2외국어, 한문:<br>대학 모집단위별로 실시<br>· 기타 과목:<br>대학이 선택적으로 실시                                                                  |
| 측정 내용    | 국민공동기본교육과정                                                                                                                                                | 고교 교육과정과 직접 연관시키지는 않되 고1까지의 국민공동기본교과의 수준을 유지                                                | 고교 2·3학년의 심화선택수준                                                                                                                                                 |
| 문항 유형    | 5지선다형+객관적 채점 가능한 계산형 및 단답형 등                                                                                                                              | 선택형 + 논문형                                                                                   | 단기적으로는 선택<br>중장기적으로는 서답형                                                                                                                                         |
| 평가 횟수    | · 연 2회<br>· 영역당 100분                                                                                                                                      | · 연 1회 이상,<br>· 횟수당 2일간,<br>· 교과당 2·3시간                                                     | · 연 1회                                                                                                                                                           |
| 응시자격     | 고2부터                                                                                                                                                      | 고2부터                                                                                        | 고3 또는 졸업생                                                                                                                                                        |
| 출 제      | 문제은행식                                                                                                                                                     | 문제은행식                                                                                       |                                                                                                                                                                  |
| 유효 기간    | 2년                                                                                                                                                        | 대학결정<br>(원칙적으로 3년 이내)                                                                       | 당해연도에만 적용<br>(동등화의 문제 때문)                                                                                                                                        |
| 점수보고     | 표준점수 및 9등급                                                                                                                                                | 등급제(5~9등급)                                                                                  | 등급제(12·15등급)<br>*준거참조방식의 등급 구분 방법 검토 필요                                                                                                                          |
| 결과 내용    | 대학이 자율적으로<br>(최소자격기준, 다단계전형자료, 타전형자료와 합산 등)                                                                                                               | 다단계 2차 전형자료,<br>경로별 입학의 보조 자료로                                                              | 내신의 신뢰성 확보 될 때까지 대학입학시험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
| 기대 효과    | · 타 전형자료의 보완적 기능<br>· 최소한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br>· 수능시험의 영향력 완화<br>·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경쟁 유도<br>· 수능에 의한 대학서열구조의 완화<br>· 복수시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소<br>· 수능시험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기대 | · 1안과 동일<br>+<br>· 고교교육과정과 직접 연계 최소화 ⇒ 교육과정개편과 관계없이 유지 가능<br>· 고교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학력 및 변화추이 파악 | · 학교교육 정상화<br>· 적절한 등급수로 대학입학 전형자료의 기능 충실히 이행<br>·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보완 기능<br>· 내신성적 부풀리기 현상 억제<br>· 등급제의 적용으로 수험생 간의 무한 경쟁 완화<br>· 현 수능체제의 골격 최대한 유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도모 |

기초학력을 측정하면서 표준점수나 9등급과 같은 표준화된 점수 분포가 특정 점수대로 편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등급과 서열 매기기는 교육적 기능 뿐 아니라 선발적 기능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성격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으며 1안과 2안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기초학력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3안의 경우 준거참조방식의 등급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준거참조검사라기 보다 학생들의 능력을 변별하고자 하는 규준참조검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여진다. 시험 과목 수도 1안과 2안에 비하여 많고 검사 내용도 학업성취도 검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적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등급은 12-15등급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검사로서 규준참조검사의 성격을 지닌다면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것이 15등급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준거참조방식의 등급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절하지 않다.

검사의 성격과 특징이 검사의 상황과 부합할 때 검사의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다. 1안과 2안의 경우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 요소가 다양할 때,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학생들을 변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1안이나 2안보다는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나타낼 수 있는 3안의 검사가 검사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절차적인 면에서도 고려하여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먼저, 시험의 횟수 및 유효기간과 관련된 문제로서 1안과 2안처럼 복수의 응시기회가 주어지거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때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완화될 수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상의 측면에서 보면 1년 단위에 기초하고 있는 현 교육과정의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측정학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해당 연도 내에서 뿐 아니라 다른 연도와 동등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동등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문제은행식 출제가 정착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문제은행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

한 문항의 개발과 보안상의 문제, 기존에 실시된 문항들의 노출과 관련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항개발과 평가에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문항유형에서 주관식 문항을 도입할 경우 채점자 간 신뢰도와 채점자내 신뢰도 검증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검사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검사가 치러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제작은 검사가 치러지는 교육적 환경에서 그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교육목적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교수-선행 측정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평가방법의 변화를 통하여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의 방향을 유도하는 측정-선행 교수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가 이미 발표되었고, 7차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검사의 성격과 목적도 이에 부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교육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검사를 제작한다면, 검사의 목적이 상대비교를 위한 표준참조평가인지 아니면 최저수학능력을 평가하는 준거참조검사인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학업성취도 검사인지 혹은 앞으로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준거참조검사인지 근본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토론 4>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 검토

양 승 실(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1. 왜 수능시험을 개선해야 하는가?

-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임. 무엇이 현 수능에서 가장 문제인가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어놓아야 함. 즉 수능시험의 성격, 형식, 난이도, 고교학습활동에서의 준비 미흡 등의 연구 문제 시각이 뚜렷하지 않음.
- 전체적으로 대입제도의 틀 안에서 수능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둔 분석이 필요함. 각 전형요소의 특성, 재고자 하는 것, 장단점을 분명히 하여 입학프로그램의 타당도 제고에 수능이 기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전국수준의 수능고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비교과 활동 내용 특성/ 대학별 논술, 면접/ 추천서/ 특정 영역의 재능(경시대회나 포트폴리오 등으로 검증)

### 2.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 제 1안의 SAT(I)과 성격이 유사하나, SAT(II) 성격의 시험이 제안되지 않아 이 시험 하나로 갈 경우 부적합함.
- 시험을 두 번 보도록 한다면 우리의 대입환경에서는 같은 시험을 두 번 보는 것보다는 각기 역할이 다른 시험을 두 번 보아 보완하나는 것이 더 효

과적임.

- 제1안 ‘기초대학수학능력시험’과 제2안 ‘표준화 기초학력시험’의 특성과 차이가 분명하지 않음.

- 제1, 2안의 보완으로 SAT(II)의 성격과 유사한 심화선택과정시험은 전공 영역별, 대학의 기능(대학원중심대학/학부중심대학/직업중심대학/지역사회대학)별로 적합하게 과목을 요구하도록 대교협 등이 자율규제 하도록 함.

- 현재 대수능 시험의 문제에 대한 시각이(대수능이 고교교육과 직접 연계되어 중등교육 정상화에 저해요소 10쪽) 대다수 교육정책이 해당사자의 시각(수능 따로 내신 따로에서 오는 현상)과 상이함. 같은 맥락에서 과거 입시위주의 고교교육의 폐해를 상기하면서 대학입학준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죄악시키는 것은 문제임. 서구의 효과성 높은 좋은 사립 명문고들은 학력에서 봉사 활동, 특별활동에 이르기까지 교육적으로 충실하게 대입을 준비시켜주는 학교라고 볼 수 있음.

- 국어영역에서 듣기와 말하기는 전국단위의 표준화 검사로 재기보다는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수행평가로 재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제1안과 2안의 경우 응시자격을 고교 1년 수료 후로 했는데, 고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는 고1 수료 자격 부여 검정고시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

- 경로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시, 정시를?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아니면 새로운 Tracking을 의미하는가? 경로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다양한 특별전형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쓰는 것이 대입정책을 논의할 때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제3안이 그중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됨.

### 3. 제 4안

수능(I) : 기초 학력고사

- 고1 겨울방학에 실시, 1회 응시

- 시험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모든 대학지원자 필수 + 나머지 수능(I)이 놓치는 부분은 3년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충실히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여 선발하도록 함.

#### 수능(Ⅱ) : 심화 학력고사

- 현재 수능과 비슷한 시기에 실시, 1회 응시
- 고2-3학년 심화선택 교과 중심
- 각 대학에서 전공영역과 대학의 위상에 따라 부과
- 중하위권 대학은 수능(Ⅱ)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
- 수능(I)의 3등급(23%) 많아야 4등급(40%)정도 까지만 응시하도록.

#### 한 가지 종류의 시험만 보아야 할 경우 :

- 수능(I)에서 재고자하는 기초학력은 고1 내신성적 반영비중을 높여 반영함.
- 제3안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시험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현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문항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함.
- 수능(Ⅱ) 성격의 시험만 부과하도록 하되 난이도 상중하의 문제를 적정히 배분하여 고교까지의 학력수준이 절대평가 기준에 비추어 A+ 인지 c+ 인지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A+에서 F까지 13등급으로 하도록 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김택균(남대전고등학교 교장)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위한 선발 자료라는 점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던 학생과 학부모 및 사회의 주요 관심 사항으로 이해 당사자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공통적 전제를 또한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고교 교육 정상화와 고등교육기관의 선발 자율화 중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①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개선 방안은 제 3안인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보완 안”으로 귀착되어야 한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교과를 포함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한국인들의 유별난 교육열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본다.

② 고등교육 기관의 선발 기능의 자율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개선 방안은 제 1안인 “기초수학능력시험”과 제 2안인 “표준화 기초학력시험”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기관은 독자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자율권을 가질 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국가가 실시한 기초학력을 토대로 다양한 전형 자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제 1안과 2안은 비교적 기초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제도로 고교 교육 정상화를 고려한 측면은 무시되고 있다(한국의 경우에서). 그러나 고등교육 기관에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시험과목은 적정하다고 본다.

③ 양면을 모두 고려한다면 제 3안이 1안과 2안에 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어떤 제도를 택하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과 대학의 자율적 선발 방법(교과)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안과 2안은 시험과목을 도구 교과로 축소하는 것은 학생들의 부담을 중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고등학교 교육 목적이 추구하는 보편적 교육을 이행하여야 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고 추측된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자격과 선발 기능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를 따라서 방안은 다르게 선택되어진다.

① 자격을 중점으로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2안이 1안과 3안에 비하여 적정하다고 본다. 현재 대학의 전공 계열이 인문과 자연으로 대별되고 있는 상황에서 1안은 교과목에서 사회와 과학이 제외되어 있기에 계열 특성을 고려한 기초학력 평가가 미흡하다고 본다. 또한 3안은 모든 교과를 평가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주는 부담과 시험 실시를 위한 일정에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1안의 경우 나타난 부작용이 특목고 졸업생의 인기학과 집중 현상이 대표적 사례이다.

② 선발 기능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시험 교과목이 많을수록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 3안이 1안과 2안보다 적합하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 가지 유형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각기 장점과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교육이 가지는 궁극적 목적이 공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능력 계발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제2외국어론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이고 좋은 입시 제도와 정책이라도 교육 현장의 교육 주체인 학생과 교원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척된 입시 제도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본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 된다는 것은 나아가 대학에서의 선발 기능이 정상화됨을 의미한다. 이런 배경을 참고로 할 때, 제시된 세 가지 유형의 개선 방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 1안 : 기초수학능력시험의 실시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현재 수시 전형에 합격한 3학년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문제점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교 교육 정상화는 대학의 선발 기능에 밀려 곤경에 처해 있다. 만약 2학년 부터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면 한국의 교육 풍토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난맥상을 유발하게 된다고 본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으로서의 보통 교육 실시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내재된다고 유추된다.

② 제 2안 : 표준화 기초학력시험의 (문제점 1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 입장)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자격과 선발기능 중 어디에 목적을 두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직접적 연계성을 단절시킬 수 없다고 본다. 이는 교육의 이상으로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적 사회현상과 문화에 따른 교육열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기본 입장은 달성될 수 없다고 본다. 또 하나는 응시자격을 고교 1년 수료 후로 한 것을 고교 2년 수료 후로 수정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제시한 이유와 같다.

③ 제 3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실시를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학생들은 1일간 4-5개 영역을 08:00부터 18:00 까지 실시함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적절한 평가를 위해 2일로 나누어 시행함이 요구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허 경 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본부장)

### I.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위상에 대하여

대학입시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내신, 수능, 대학별 고사라는 3요소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2008학년도 이후 수능시험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여러 세세한 논의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수능의 위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2안의 입장은 분명하다. 수능시험은 “최소자격 기준만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수능의 대입 결정력을 최소화하고”, “시험의 내용도 단순화,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고 1의 내용 중 최소 내용을 최소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수능의 위상을 현재보다 현저하게 낮추어 수능시험을 ‘고부담 시험’에서 ‘저부담 시험’으로 바꾸어, 중등학교가 더 이상 수능 대비를 위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며, 학부모들로 하여금 수능 준비를 위한 사교육을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3안의 입장은 2안에 대하여 적극적이다. 3안은 현행 수능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수능의 등급을 9등급보다 더 세분화하여 12~15등급화함으로써 수능의 위상과 힘을 현행보다도 더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등급을 세분화하면 할수록 수능의 변별력은 강화되고 변별력이 강화될수록 수능의 대입결정력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의 세분화를 주장하는 3안은 수능의 위상을 더 높이자는 입장인 것이다.

1안의 입장은 수능의 힘을 현행보다는 낮춘다는 점에서는 2안과 같은 방향을 취하나 그 강도에 있어서 매우 약한 입장이다. 1안은 “수능을 최소자

격시험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 활용 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자”라고 함으로써 2안보다 약한 입장을 보인다. 1학년 범위에서만 내자는 점에서는 2안과 동일하여, 현행의 2-3학년 내용에서 출제하는 것보다는 약화된 위상을 보인다. 그리고 출제의 영역을 언어, 수리, 영어로만 한정함으로써 역시 현행보다는 약화된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수능의 위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일이다. 3안처럼 더 강화할 것인가? 2안처럼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1안처럼 약간만 완화시킬 것인가? 이 세 안은 수능의 위상에 관한 모든 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입장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 II. 수능시험과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2안은 다른 안들과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2안은 수능시험을 “고교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력 중심의 선발은 최소화하며”,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최소화” 함으로써 고교는 “입시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교육 본질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1안은 “수능과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교 교육은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입장은 3안에서도 부각된다. 3안은 “대입과 중등교육의 연계성이 높아야 중등교육은 정상화 된다”고 봄으로써 수능시험의 내용이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점은 2안의 주장과 1, 3안의 주장이 서로 갈등되는 근거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2안은 수능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아야 고교 교육이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1안과 3안은 수능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고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다. 어느 안의 전제

가 보다 타당한 것인가?

그러나 2안의 입장을 다소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2안은 수능시험 과목으로 국, 영, 수, 사, 과의 다섯 과목을 ‘적성’ 위주의 시험이 아니라 ‘학력고사’로 치른다는 입장이다. 수능시험을 5개 과목에 대한 ‘학력고사’의 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행의 수능시험보다도 더 ‘교육과정’과 밀착되는 접근인 것이다. 실제로 “수능과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나 “수능과 교육과정을 직접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모호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수능과 교육과정과의 관계에 대한 2안의 논점은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수능시험이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밀접하게 관계되면 고교 수업은 수능 준비 위주가 되어 정상화를 저해할 것이다. 관계되지 않으면, 수능 준비 교육을 사교육기관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고교 교육의 공동화가 촉진될 것이다.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도 문제이고, 관계가 되지 않아도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 Ⅲ. 장래의 지향 방향에 대하여

입시의 사회적 공공성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국가 수준의 공통된 척도로서의 국가시험 즉, 수능시험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 시험 때문에 고교 교육이 이 시험을 위한 준비 교육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 시험 준비를 전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게 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을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은 수능의 위상을 낮추는 방안이다. 2안의 주장처럼 수능을 최소자격 시험화, 저부담 시험화 하여 적은 준비로도 수능의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의 위상을 낮추면 내신이나 대학별 시험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대학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신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은 어떠한가? 최근 교육부의 안은 내신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2안도 내신의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내신의 강화는 교육 내, 외적으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교육외적으로 보아 내신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와 시골, 강남과 강북 등 이질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학교 및 교사의 권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준다. 학교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지시켜 주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내적으로 내신의 강화는 부정적인 영향력도 행사한다. 내신을 강화할 경우 고교 수업은 입시에 강하게 종속된다. 학생들은 학교 시험에서의 점수와 등급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고, 그 결과는 주관식 평가의 불가, 수행평가의 불가, 수준별 수업의 불가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객관적 시험 점수에 대한 무한 경쟁과 그로 인한 인간성 파괴 현상이 야기된다.

만약 수능과 내신을 모두 약화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선발의 주체는 대학별고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학별 고사의 위상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현행 체제에 의하면 논술과 면접 과외가 성행할 것이고, 대학별로 선발을 위한 어떤 형태로 간의 노력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대학입시는 어쩔 수 없는 경쟁의 장이다. 이러한 경쟁의 장이 엄존하는 한 수능이나 내신, 또는 대학별 고사와 같은 시험에는 과열 경쟁이 있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사교육은 있기 마련이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의 사회에서 대입에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그러한 경쟁에서 유리하기 위한 사교육은 어떠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책 결정은 입시의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요소의 위상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될 것이다.

사교육이 정책과는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사교육을 ‘상수(常數)’로 본다는 의미이다. 사교육 전체의 양은 입시 정책과 관계없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교육 문제와 관련된 교육 정책의 방향은 ‘사교육의 감소’가 아니라 ‘사교육의 의미화’ 쪽으로 기

본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능을 약화시켜도, 내신을 약화시켜도 사교육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경우, 사교육은 대학별 고사로 향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어느 시험을 강화시키는 것이 교육적으로 보아 타당한가 하는 것이 결정의 준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수능, 내신보다도 대학별 고사의 비중을 강화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다 타당한 방향이라고 본다.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정책, 내신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정책, 그리하여 대학별 고사의 영향력을 최대화시키는 정책이 앞으로의 대입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의견

#### 가. 1안에 대한 논의

##### 1) 내신이나 대학별 시험과의 배타성

제1안은 수능시험이 내신이나 대학별 시험과는 배타적(혹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내신이나 대학별 시험이 재지 않는 능력이나 지식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2008학년도 수능시험은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학력고사’에서 재는 것은 내신에서 재는 것과 동일, 혹은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학력고사는 학교에서 배운 능력을 재는 것이고, 내신 역시 학교에서 배워서 성취한 정도를 측정,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안이 주장하는 ‘배타적’ 혹은 ‘상호보완적’이란 전제는 이 안이 제안하고 있는 수능시험의 기본적 성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안은 시험의 독자정보다는 대학입시에서 다른 전형요소와의 상대성이 전제된 형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상호보완성이 강조되는 형식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시험부담이나 사교육비의 경감 면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닥칠 정원 미달이 예상되는 대학이 늘어날 상황에서나 간단한 형식의 입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유효한 대학에서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도 충분할 것이다.

##### 2) 사교육 문제

언어, 수리, 영어의 세 영역을 시험의 기본 요소로 상정하고 있는 제1안이 ‘배타성’의 전제 혹은 원리를 충족시키려면 이 세 영역의 시험은 교과와 내용과는 가능한 한 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 학생들은 수능시험 준비를 별도로(과외로)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학교도 가능한 한 교과교육 이외에 수능 준비를 위한 별도의 준비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수능이 학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학교는 교과와는 성격이 다른 ‘언어’ 영역 지도를 거의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사교육에서 보충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타성의 전제는 학교의 ‘교수-학습적 무능’ 문제 및 그로 인한 사교육비 유발 문제와의 관련 하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3) 측정요소로서의 학력

1안에서는 대학입시에서 ‘학력’은 중요한 요소이며, 수능은 학력을 중요한 측정의 요소로 삼아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가 대학을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규정짓는다면 이러한 전제는 타당하다. 현재 사회의 통념은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인다. 대학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통념에 의하면 1안의 이 전제는 옳다. 그러나 대학이 과연 학문을 하는 곳인가? 동일 연령 집단 내에서 90%가 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학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강하게 들게 된다. 특히 ‘교육혁신위원회’에서 2008학년도 대입부터 ‘학력’을 최소 기준화하여 전체의 10% 정도의 학생들만을 학력을 기준으로 선발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학력을 중요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가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4)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1안에서는 수능시험의 내용이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교 1학년에서 이수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수준에서 출제되는 ‘비교적 평이한’ 시험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전제는 전술한 ‘배타성의 원리’와 갈등된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신의 내용과 결국 동일, 중복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전제는 ‘학력’을 중시하겠다는 다른 전제와 다소 갈등을 이룬다. 학력을 중시한다면 고등학

교 2-3학년의 교육과정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의미는 있다. 하지만 이것도 3개영역만 전형하는 것이므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왜곡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이후의 고교 2-3학년 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 5) 수능의 영역

수능의 영역을 단순화하여 언어, 수리, 영어의 세 영역만으로 한정한다면 결국은 영·수·국 중심의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 중등교육 정상화의 전제는 오히려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영·수·국 이외의 교과 전공 교수와 교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완화, 설득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 대단히 힘든 과제가 된다. 이 점에 대한 대안이 1안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6) 실시 시기

기초수학능력시험의 실시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현재 수시 전형에 합격한 3학년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문제점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교 교육 정상화는 대학의 선발 기능에 밀려 곤경에 처해 있다. 만약 2학년부터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면 한국의 교육 풍토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난맥상을 유발하게 된다고 본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으로서의 보통교육 실시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내재된다고 유추된다.

### 7) 국민공통기본교과에 대한 국가기준 시험

1안은 국민공통기본교과에 대한 국가기준 시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상당 정도 공감한다. 다만 선택교과에 대

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연2회 시험 시행이 교육당사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 걱정이 될 수 있다. 성적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이 안은 상당한 경쟁자 중에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수가 없다. 대학별 고사가 국, 영, 수를 제외하고 허용된 조건에서 각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면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이 틀은 그 동안의 입시 방식의 변화를 논할 때마다 제시되는 안이기는 하지만 선택에서는 극과 극의 반응이 있었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논하는 것은 아직 의미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단계의 논의에서는 가장 많은 보완과 변경을 요구받게 될 안이기 때문이다.

## 나. 2안에 대한 논의

### 1)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대수능과 고교 교육과정과를 직접 연계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기본 입장은 그 의미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만약 간접적으로 연계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일단 그 의미가 명료하지 못한 것이 기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수능시험이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2안에서 제안하는 이 시험은 고교에서 달성해야 하는 최소 기초 능력 시험이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로 구성된 기초 학력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교육과정의 연계를 직접적으로 의미한다. 이러한 시험이 어떻게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따라서 수능과 교육과정과의 관계를 절단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기본 입장을 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교육 정상화를 고려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독자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과 연계되면서 내신에서 다루지 못하는 영역과 대학수학능력을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자격과 선발 기능 중 어디에 목적을 두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직접적 연계성을 단절시킬 수 없다고 본다. 이는 교육의 이상으로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적 사회현상과 문화에 따른 교육 열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기본 입장은 달성될 수 없다고 본다.

## **2) 학력에 의한 선발은 최소화하고 내신에 의한 선발은 최대화**

대입에서 학력에 의한 선발은 최소화하고 내신(교육이력철)에 의한 선발은 최대화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 문제가 있다. 대학에서 활용하기 지극히 편리하도록 양적으로 처리된 현행의 내신자료도 대학에서 불신하고 대입에서의 영향력을 감축시켜가는 추세인데, 질적으로 제시된 교육이력철을 중심으로 선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 학생 선발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문제이므로, 교육이력철과 같은 질적인 자료를 대학이 어떻게 처리, 가공하여 사용하느냐는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넘겨 버릴 수가 있으나, 이 경우 대학은 다른 전형 자료 예컨대, 대학별 고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내신에 의한 선발을 최대화한다는 기본 전제는 바르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3) 학력의 최소 기준, 저부담 시험**

이 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직접 연계하지 않고 대입전형의 최소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려는 방식이다. 학력에 의한 대학서열 구조화를 완화하고 최소등급화와 학력에 의한 선발을 최소화하려는 강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학력을 최소화하고 내신을 극대화한다는 전제 하에 수능은 최소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따라서 수능 시험의 내용으로는 고교 학력의 최소 기준만을 포함한다고 2안은 제안한다. 쉽게 말해 여기서 제안하는 시험은 대단히 쉬워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심각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하여 시험의 부담이 적으며 사교육의 수요도 줄어들

게 된다고 본다. 또한 시험의 변별력은 낮으나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2안은 보고 있다.

수능을 최소자격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고부담 시험의 성격을 저부담 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비록 2안의 이 내용이 학력 선발을 최소화하고 내신 선발을 극대화한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제안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지만 전제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수능시험을 저부담 시험화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현재의 수능시험은, 특히 2005학년도 시험은 여러 가지 위험한 문제점을 과도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수능을 저부담 시험으로 전환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시험의 내용이나 수준을 고교 학력의 최소 기준만으로 함으로써 시험의 내용을 쉽게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들게 준비하지 않아도 기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종의 고교 졸업 자격 고사와 같은 시험이 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4)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 모호**

수능을 저부담 시험, 최소한의 지식이나 기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 시험을 창의력, 문제해결력, 추리력 등을 재는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로 규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표현은 2안이 제안하는 수능시험의 성격을 모호하게 흐린다. 창의적인 사고력은 사실 상 5지선다형 문항으로는 짚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문제해결력도 5지선다형으로 재기는 불가능하다. 높은 수준의 추리력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능력은 선다형 이외의 다른 방식의 검사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수능시험은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속도검사'이다. 수능시험은 오히려 '최소한의 지식과 최소한의 지적 기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솔직하게 기술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 5) 대학별 고사의 중요성

수능을 최소자격기준의 저부담 시험으로 하고, 교육이력철을 기본으로 한 내신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대학은 무엇에 의지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의 대안은 '논술과 면접' 뿐이다. 2안은 따라서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대학이 논술과 면접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대학별 고사를 이 두 유형만으로 제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6) 문제은행식 출제

합숙출제가 아니고 문제은행식 출제를 한다는 제안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2008학년도부터 시행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훨씬 더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역시 대학에서의 입시 자료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고 스스로 그것을 전제로 한 안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 과정에서 변화와 변질이 되기 쉬운 면이 엿보인다. 논문형도 그렇고 문제 은행방식도 그때까지 준비가 가능한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 안에서 최소화 논리가 기본이라면 과목 수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7) 시험과목 수

2안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과 공통된 부분이 많은 안으로서, 교육혁신위에서는 공통필수 2-3과목 이외에 전공심화선택과목 2개 과목에 대해 집중적인 과목별 성취도평가(2-3시간 시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 8) 응시 자격

응시자격을 고교 1년 수료 후로 한 것을 고교 2년 수료 후로 수정하여야 한다.

## 다. 3안에 대한 논의

### 1) 기존 수능과의 일관성

3안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능 시험의 체제와 성격을 상당 정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능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능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장치가 다소 미흡하다.

3안은 다른 두 안에 비해서 2005학년도 수능 체제와의 일관성을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3안 역시 2008학년도 수능에서 제2외국어 영역과 직업탐구 영역을 배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2005학년도 시험 체제를 3회 밖에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의 체제를 바꾸는 셈이 됨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3안은 현행 수능시험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에서 입안된 안으로서, 전공심화선택 과목 중심으로 수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입시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 2) 바뀌어 가는 시험방식

교육과정을 심화선택과목을 위주로 한다는 것과 내신의 보완적 기능을 하는 점에서 현행 수능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보여 진다. 일관성의 유지라는 점과 변화에 대한 충격 완화 면에서 무난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 유형이나 방식에서 변화 가능성을 둔 바뀌어 가는 시험 방식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띄고 있다. 이것도 수능 방식의 변화 욕구를 염두에 둔 타협적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 3) 등급

등급을 12등급으로 한 것은 현행보다는 세분화 되었으나 15단계 정도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시행 단계에는 상위권의 변별 문제와 연계하여 좀

더 세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 4) 과목 수

현행과 달라진 점 중에서 시험 영역이 대학별로 실시할 과목으로 넘겨서 그 수를 줄인 점이다. 학생의 부담은 준다고 하겠으나, 그 부담이란 것도 과목 수보다는 경쟁과 성적이라는 점에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강조할 것은 못된다. 문항 형식의 다양화를 말하고 있으나 제의 단계와 시행 단계에서 그것이 일치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여러 방식을 열거했다는 것은 오히려 단순화의 길을 여는 것일 수도 있다.

과목 수를 더 줄일 수 없는지가 좀 더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이왕 부담을 줄일 거라면 다른 전공 관련 과목은 대학에서 판별하도록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난이도를 굳이 쉽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5) 시험 일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실시를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학생들은 1일간 4-5개영역을 08:00부터 18:00까지 실시함으로써 인하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적절한 평가를 위해 2일로 나누어 시행함이 요구된다.

### 라. 기타 논의

#### 1)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 중심 출제되어 학력고사의 성격으로

수능은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시험이 되어야 하며,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되어야 한다. 고교교육이 수능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의 교육운영에 어려움이 큰 만큼, 가능한 수능이 고교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과의 관계에서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최소화 하는 것도 타당

성이 있다. 7차 교육과정 및 앞으로의 교육과정이 연계를 깊이 할수록 수능의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선택과목이 많아진다면, 모든 과목들을 다 반영할 수 없다. 자연히 수능과 교육과정의 관계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 2) 내신의 강조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의 경쟁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단, 학생들의 경쟁을 의미있는 경쟁으로 유도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정상화는 교사들에게 교육권을 돌려주는 일이다. 고교교육과 학생선발을 분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수능의 비중을 낮추고 전형요소들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학교생활기록부가 좀더 날카로운 날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생들이 쓸데없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운 내용이 대학에 들어가는 잣대가 될 수 있는 대입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이력철에 대한 문제는 담당 교사가 누구인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교사에게 평가권을 주는 경우 내신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크다.

## 3) 문제은행식 출제

2008년도부터는 문제은행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표준화된 학력능력검사로 가야할 것이다. 입학시험 전에 몇몇의 시험 출제위원에 의해 문제를 개발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 장차 수능 출제위원으로 고등학교의 교사의 참여를 증대하여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목수강 후 응시할 수 있도록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여 여러 번 시행하는 것이 좋다.

## 4) 수능의 등급

수능의 구체적인 성적정보제공의 제고 여지가 있으므로,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수능의 등급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수능을 점수 위주의 검사로 늘려 놓을 필요 없으며, 가능한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 5) 수능의 출제범위

수능의 출제범위를 국민공통기본과정으로 하되, 수능을 연2회 실시하도록 한다. 현행과 같이 고2-3학년의 선택교과를 대상으로 수능을 본다면 연2회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학습진도와 관련해서 보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

## 6) 수능 회수

수능을 2회(10학년까지 내용으로 1회)로 나누어 보도록 함으로써 수능 1회의 위험부담을 해소하고, 2일에 걸쳐 수능을 보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7) 대학별 선택과정

대입에 있어서 학생들이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학생들의 재능을 어떻게 발굴하여 키워낼 것인가, 이 아이디어가 교육이력철이나 경로별 선발의 안을 낳았다. 여기에서 경로별 선발은 대학의 설립이념과 전공목적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수능에서 선택과정은 대학별로 보는 것이 좋겠음. 전체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기는 어려운 만큼, 다양한 선택은 대학의 자율성을 통해 해결하도록 할 필요 있음. 즉, 기초학력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평가하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출제하도록 한다.

## 8) 수능은 사교육비 절감을 보장할 수 없다.

사교육비의 총량은 대입 경쟁이 존재하는 한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의 총량은 시험의 종류나 방식에 의 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입 경쟁의 치열성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 9) 통합교과적 방식의 한계

어정쩡한 통합교과적 방식의 한계를 벗어 던지기도 기대한다. 그 문제는 대학의 면접시험이나 논술을 통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 수능과 내신 부풀리기는 직접 관련이 없다. 별도로 논의해야 될 내용이다. 수험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과목 통폐합이 필요하다.

## 10) 수능의 성격과 목적

검사의 성격과 목적도 이에 부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교육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검사를 제작한다면, 검사의 목적이 상대비교를 위한 규준참조평가인지 아니면 최저수학능력을 평가하는 준거참조검사인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학업성취도 검사인지 혹은 앞으로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준거참조검사인지 근본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 비우어 볼 때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11) 제4안

○ 1안의 기초수학능력시험과 3안의 대학입학시험을 병행하여 수능1과 수능2로 통합한 형태가 바람직하다.

○ 수능1은 기초적인 대학수학능력과 지식을 측정하도록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하되, 고1 공통교과목 수준으로 국어, 영어, 수학과목으로 구성한다.

○ 수능2는 다양한 난이도의 다양한 과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교 교과과정 범위 내의 학력고사 형태의 문제로 출제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5개 교과영역에서 심화과목수준의 다양한 교과목 시험을 출제한다.